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박사학위논문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추측 양태 표현 교육 연구

202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퓨퓨아웅 (PHYU PHYU AUNG)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추측 양태 표현 교육 연구

지도교수 구 본 관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퓨퓨아웅 (PHYU PHYU AUNG)

퓨퓨아웅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얀마인 학습자, 특히 미얀마 4년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는 3, 4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추측 양태 표현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이해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 장에서는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교육 연구의 전제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한국어교육에서 추측 양태 표현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들을 검토하고 추측 양태 표현 항목 간의 변별점을 형태·통사, 의미, 담화·화용 세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그다음, 학습자의 모국어가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특성을 살펴보며, 한국어와 미얀마어 간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보고 두 언어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상의 난점을 예측하였다. 또한 미얀마 내 대학교의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얀마 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 다섯 종을 선정하여 교재에 제시되는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이어서 III 장에서는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미얀마인 학습자 80명(3학년 40명, 4학년 40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도구에는 총 세 가지 텍스트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는 형태·통사적 층위의 이해 양상을 측정하고자 하였고, 두 개의 선다형 테스트에서는 의미적 층위와 담화·화용적 층위의 이해 양상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다음, 조사 결과 분석 부분에서는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 '의미', '담화·화용' 세 층위 그리고 학습자의 '학년' 요인에 중점을 두어 층위별, 학년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학습자의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IV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미얀마 학습자를 위한 추측 양태 표현 교육의 총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어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 간 변별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교육 내용 원리를 기저로 하여 II 장에서 살펴본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담화·화용적 특성과 III 장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부분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던 대다수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학습자의 의미적 층위에 국한하지 않고, 형태·통사적 층위와 담화·화용적 층위까지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교육 관련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얀마인 학습자의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이해 양상을 학년별로 고찰하고 교육 내용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추측 양태 표현 교육 발전에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추측 양태 표현, 추측 표현, 불확실성, 공손 표현, 미얀마인 학습자, 미얀마 대학 한국어교육

학 번 : 2020-37722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4

2.1. 국어학에서의 추측 양태 표현 연구 ····· 4

2.2. 한국어교육에서의 추측 양태 표현 연구 ····· 6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8

II.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 ··· 12

1. 인식 양태로서의 추측 표현 ····· 12

1.1. 한국어 양태의 개념 및 하위 유형 ····· 12

1.2. 한국어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 ····· 17

1.3. 인식 양태로서의 추측의 개념적 의미 ····· 20

2.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특성 ····· 23

2.1.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연구 항목 설정 ····· 23

2.2.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특성 ····· 37

2.2.1.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 ····· 38

2.2.2.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 ····· 52

2.2.3.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 ····· 82

3.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특성 ····· 102

3.1.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 ····· 104

3.2.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 ····· 108

3.3.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 ····· 112

4.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추측 양태 표현의 내용 분석 ····· 113

4.1.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제시 및 설명 ····· 115

4.2. 의미적 특성에 대한 제시 및 설명 ····· 120

4.3.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제시 및 설명 ····· 124

III.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 분석 ····· 126

1. 조사 대상 및 방법 ····· 126
1.1. 조사 대상 ····· 126
1.2. 자료 수집 도구 ····· 129
(1) 형태·통사적 층위의 자료 수집 도구 ····· 130
(2) 의미적 층위의 자료 수집 도구 ····· 133
(3) 담화·화용적 층위의 자료 수집 도구 ····· 135
(4) 조사 도구의 타당도 검증 ····· 138
1.3. 자료 분석 방법 ····· 138
2. 층위별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 분석 ····· 141
2.1. 형태·통사적 층위의 이해 양상 분석 ····· 141
2.2. 의미적 층위의 이해 양태 분석 ····· 147
2.3. 담화·화용적 층위의 이해 분석 ····· 152
3. 학년별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 분석 ····· 158
3.1. 학년별 형태·통사적 층위의 이해 양상 분석 ····· 158
3.2. 학년별 의미적 층위의 이해 양상 분석 ····· 178
3.3. 학년별 담화·화용적 층위의 이해 양상 분석 ····· 203

IV.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 제안 ····· 225

1.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수·학습 목표 ····· 225

2.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 구성 원리 ····· 230
3.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 ····· 234

V. 결론 ····· 249

참고문헌 ····· 255
<부록-1> 설문지 ····· 267
Abstract ····· 285

표 목차

<표 I-1> 단계별 연구 목표 ····· 9
<표 I-2> 단계별 연구 대상 및 방법 ····· 10
<표 II-1> 기존의 양태에 대한 하위 분류 ····· 14
<표 II-2> 인식 양태의 개념적 의미 영역 ····· 17
<표 II-3> 추측의 개념적 의미 ····· 21
<표 II-4>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실현 양상 ····· 24
<표 II-5> 한국어 교재 서지 사항 ····· 27
<표 II-6>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추측 양태 표현의 배열 양상 ····· 28
<표 II-7> 본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선정한 추측 양태 표현 항목 ····· 30
<표 II-8> 구어에서 나타난 추측 양태 표현의 빈도 ····· 32
<표 II-9> 문어에서 나타난 추측 양태 표현의 빈도 ····· 32
<표 II-10> 구어와 문어에서 나타난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 빈도 ····· 33
<표 II-11> 본 연구에서 이차적으로 선정한 추측 양태 표현 항목 ····· 34
<표 II-12> 연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추측 양태 표현 항목 ····· 36
<표 II-13> 추측 양태 표현의 구성 특성 ····· 38
<표 II-14>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 ····· 52
<표 II-15> 첫 번째 기준을 의한 추측 양태 표현의 확실성 정도 구분 · 78
<표 II-16> 두 번째 기준을 의한 추측 양태 표현의 확실성 정도 구분 · 80
<표 II-17> 김동욱(2000)의 '주체 추측'과 '객체 추측' ····· 80
<표 II-18> 세 번째 기준을 의한 추측 양태 표현의 확실성 정도 구분 · 82
<표 II-19>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 ····· 82
<표 II-20>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 · 85
<표 II-21>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 ····· 102
<표 II-22> 미얀마어의 추측 양태 표현 ····· 103
<표 II-23>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 ····· 111

<표 Ⅱ-24> 교재별 추측 양태 표현의 제시 급수 ····· 114
<표 Ⅱ-25> 교재별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제시 및 설명 ····· 115
<표 Ⅱ-26> 주어 인칭에 대한 명시적 제시 ····· 118
<표 Ⅱ-27> 종결어미 '-네, -구나, -지'의 후행에 대한 명시적 제시 ·· 119
<표 Ⅱ-28> 교재별 의미적 특성에 대한 제시 및 설명 ····· 120
<표 Ⅱ-29> 교재별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제시 및 설명 ····· 124
<표 Ⅲ-1> 본 연구의 조사 단계 ····· 126
<표 Ⅲ-2> 조사 참여자의 기본 정보 ····· 127
<표 Ⅲ-3> 미얀마 대학교 한국어과에서 사용되는 주교재 ····· 128
<표 Ⅲ-4> 설문지의 구성 ····· 130
<표 Ⅲ-5>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문항 구성 ····· 133
<표 Ⅲ-6>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구체적인 문항 예시(유형 ①, 유형 ②) ····· 133
<표 Ⅲ-7> 의미적 특성별 문항 구성 ····· 135
<표 Ⅲ-8> 의미적 특성에 대한 선다형 테스트 문항 예시 ····· 135
<표 Ⅲ-9> 담화·화용적 특성별 문항 구성 ····· 136
<표 Ⅲ-10>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선다형 테스트 문항 예시 ····· 137
<표 Ⅲ-11> 조사 참여자 집단에 따른 GJT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 ····· 142
<표 Ⅲ-12> 조사 참여자 집단에 따른 GJT 점수에 대한 만-위트니 유 검증 결과 ····· 142
<표 Ⅲ-13> 각 유형별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정답률 ····· 143
<표 Ⅲ-14> 조사 참여자 집단에 따른 GJT 정답률에 대한 만-위트니 유 검증 결과 (유형 1~3) ····· 144
<표 Ⅲ-15> 조사 참여자 집단에 따른 GJT 정답률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 (유형 4, 5) ····· 144

<표 Ⅲ-16>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 분포 및 교차 분석 결과(1) ····· 148
<표 Ⅲ-17>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 분포 및 교차 분석 결과(2) ····· 150
<표 Ⅲ-18>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 분포 및 교차 분석 결과(3) ····· 153
<표 Ⅲ-19>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 분포 및 교차 분석 결과(4) ····· 155
<표 Ⅲ-20> [사회적 거리+/-]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한 추측 양태 표현 · 156
<표 Ⅲ-21>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 분포 및 교차 분석 결과(5) ····· 157
<표 Ⅲ-22> 학년에 따른 GJT 점수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 ·· 158
<표 Ⅲ-23> 학년과 문항 유형에 따른 GJT 정답률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 ····· 159
<표 Ⅲ-24> 학년별 유형 1의 정답률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 · 160
<표 Ⅲ-25> 학년별 유형 2의 정답률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 · 164
<표 Ⅲ-26> 학년별 유형 3의 정답률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 · 168
<표 Ⅲ-27> 학년별 유형 4의 정답률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 · 171
<표 Ⅲ-28> 학년별 유형 4의 정답률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 · 175
<표 Ⅲ-29> 현장의 지각 정보(간접 지각)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 (1)의 대화 및 선택항 ····· 179
<표 Ⅲ-30> 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179
<표 Ⅲ-31> 현장의 지각 정보(직접 지각)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 (2)의 대화 및 선택항 ····· 180
<표 Ⅲ-32> 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181

<표 Ⅲ-33> 현장의 지각 정보(직접 지각)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3)의 대화 및 선택항 ····· 182
<표 Ⅲ-34> 3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182
<표 Ⅲ-35> 현장의 지각 정보(내적 지각)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5)의 대화 및 선택항 ····· 184
<표 Ⅲ-36> 5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184
<표 Ⅲ-37> 내면화된 정보(과거 경험)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7)의 대화 및 선택항 ····· 186
<표 Ⅲ-38> 7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186
<표 Ⅲ-39> 내면화된 정보(전문적 지식)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11)의 대화 및 선택항 ····· 188
<표 Ⅲ-40> 1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188
<표 Ⅲ-41> 내면화된 정보(반대 사태의 가능성)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12)의 대화 및 선택항 ····· 190
<표 Ⅲ-42> 1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190
<표 Ⅲ-43> 화자의 직관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13)의 대화 및 선택항 ····· 192
<표 Ⅲ-44> 13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192
<표 Ⅲ-45> 화자의 직관(반대 사태의 가능성)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14)의 대화 및 선택항 ····· 193
<표 Ⅲ-46> 14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194
<표 Ⅲ-47> 직접 경험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15)의 대화 및 선택항 …… 195
<표 Ⅲ-48> 15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195
<표 Ⅲ-49> 확실성 정도(확실히)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18)의 대화 및 선택항 …… 197
<표 Ⅲ-50> 18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197
<표 Ⅲ-51> 확실성 정도(혹시)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21)의 대화 및 선택항 …… 199
<표 Ⅲ-52> 2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199
<표 Ⅲ-53> 화자의 주관성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22)의 대화 및 선택항 …… 200
<표 Ⅲ-54> 2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00
<표 Ⅲ-55> 1-1번과 1-2번 문항의 내용 …… 203
<표 Ⅲ-56> 1-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04
<표 Ⅲ-57> 1-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04
<표 Ⅲ-58> 2-1번과 2-2번 문항의 내용 …… 205
<표 Ⅲ-59> 2-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06
<표 Ⅲ-60> 2-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06

<표 Ⅲ-61> 3-1번과 3-2번 문항의 내용 ····· 207
<표 Ⅲ-62> 3-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08
<표 Ⅲ-63> 3-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08
<표 Ⅲ-64> 4-1번과 4-2번 문항의 내용 ····· 209
<표 Ⅲ-65> 4-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09
<표 Ⅲ-66> 4-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10
<표 Ⅲ-67> 5-1번과 5-2번 문항의 내용 ····· 211
<표 Ⅲ-68> 5-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12
<표 Ⅲ-69> 5-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12
<표 Ⅲ-70> 6-1번과 6-2번 문항의 내용 ····· 213
<표 Ⅲ-71> 6-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14
<표 Ⅲ-72> 6-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14
<표 Ⅲ-73> 7-1번과 7-2번 문항의 내용 ····· 216
<표 Ⅲ-74> 7-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16
<표 Ⅲ-75> 7-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16
<표 Ⅲ-76> 8-1번과 8-2번 문항의 내용 ····· 218
<표 Ⅲ-77> 8-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18
<표 Ⅲ-78> 8-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18
<표 Ⅲ-79> 9-1번과 9-2번 문항의 내용 …… 220
<표 Ⅲ-80> 9-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21
<표 Ⅲ-81> 9-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21
<표 Ⅲ-82> 11번 문항의 내용 …… 223
<표 Ⅲ-83> 1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 223
<표-Ⅳ-1>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 …… 228
<표-Ⅳ-2> 비교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의 선정 …… 231
<표-Ⅳ-3> 비교 항목즐 간의 유사점·차이점을 제시하는 예시 …… 243
<표-Ⅳ-4> 형태·통사적 특성 판단을 위한 문법성 테스트 예시 …… 246
<표-Ⅳ-5> 상황 맥락에 맞는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기- 대화 완성하기 예시 1 …… 247
<표-Ⅳ-6> 상황 맥락에 맞는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기- 대화 완성하기 예시 2 …… 247

그림 목차

<그림 Ⅲ-1> 문항 유형별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정답률 결과 ····· 145
<그림 Ⅲ-2> 유형 1에 속한 여덟 개 문항의 학년별 정답률 결과 ····· 161
<그림 Ⅲ-3> 유형 2에 속한 열 개 문항의 학년별 정답률 결과 ····· 165
<그림 Ⅲ-4> 유형 3에 속한 여섯 개 문항의 학년별 정답률 결과 ····· 168
<그림 Ⅲ-5> 유형 4에 속한 아홉 개 문항의 학년별 정답률 결과 ····· 172
<그림 Ⅲ-6> 유형 5에 속한 다섯 개 문항의 학년별 정답률 결과 ····· 17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1]의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복잡성이다. 양태는 흔히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Lyons, 1977)로 정의되는데, 한국어에는 양태를 표현하는 형식들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한국어의 양태 표현 중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 표현이 여럿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법적 의미와 기능을 잘 모르는 한국어 학습자는 상황 맥락에 따라 적절한 담화를 구성하지 못해 의사소통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추측 양태 표현은 '-겠-', '-(으)ㄹ 것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등과 같이 의미적 유사성이 높은 표현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이 표현들의 의미를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다양한 형식, 의미와 담화·화용에 관련된 것이며, 추측 양태 표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추측 양태의 의미 영역을 표현하는 주요한 문법 수단도 언어에 따라 다르다. 한국어에서 양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법 형식에는 선어말 어미와 종결어미, 그리고 복합 구성으로 된 양태 표현이 있으며, 미얀마어[2]에서 추측 양태를 나타내는 문법 형식에는 양태 조동사와 종조사, 그리고 문장 끝에 '생각한다(I think)', '과/와 같다(with to be same)' 등의 구절을 추가하여 추측 양태를 표현하는 복합 구성이 있다. 그러나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 형식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1) 본 연구의 대상은 미얀마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이다. 현재 미얀마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배울 수 있는 대학기관은 2개로 하나는 양곤외국어대학교이고 다른 하나는 만달레이외국어대학교이다.

2) 미얀마어는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하고 교착어와 고립어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SOV' 언어이다.

한국어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두 언어의 대응 관계는 대부분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고 대응 표지 간에 사용과 의미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은 미얀마인 학습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학습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미얀마의 사회·문화적 배경도 다르므로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문화 차이의 영향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추측 양태 표현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 체계적인 추측 양태 표현 교육의 필요성이다. 이는 크게 사용 빈도, 중요도 등의 측면에서 기술할 수 있다. 우선 사용 빈도 측면에서 보면 추측 양태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출현하는 문법적인 범주이며, 한국어 교재에서도 초급, 중급 단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들은 다양한 추측 양태 표현을 변별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다양한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익숙한 표현에만 국한하여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현장의 교사들도 이들 각각의 변별적인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허지이 외, 2021:180). 그리고,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추측 양태 표현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 한국어교육에서는 추측 양태 표현의 교수 방안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나 대부분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을 3~4개로 한정하여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거나 선언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의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이나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므로 선행한 논의들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실현 방식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통사적 구조도 상당히 복잡하므로 미얀마인 학습자가 잘 변별하여 사용하는 데 여전히 어려워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 표현을 실제 일상생활에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형태·통사, 의미, 담화·화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추측 양태 표현 교육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셋째, 학습자 언어 연구의 중요성이다. 학습자는 언어 학습의 주체이다. 학습자가 생성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 없이 언어 교육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학습자는 언어 지식을 한 번의 학습으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의 언어는 여러 단

계에 걸쳐서 목표 언어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 표현을 학습한 후에, 숙달도에 따라 각각 어떤 중간 언어 단계에 위치하는지 또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등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층위, 의미적 층위, 담화·화용적 층위에 대해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이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의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미얀마인 학습자의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얀마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하여 적합한 교육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중 본 연구에서 선정된 추측 양태 표현들은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등 여덟 개의 표현이며 이 표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한국어 교재에서도 주로 초급과 중급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추측 양태 표현의 변별적 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얀마인 학습자, 특히 미얀마 4년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는 3, 4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추측 양태 표현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이해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특성들은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가?

[연구 문제 2], 층위(형태·통사적 층위, 의미적 층위, 담화·화용적 층위)별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학년(3, 4학년)별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4],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할 수 있는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2. 선행연구 검토

2.1. 국어학에서의 추측 양태 표현 연구

추측 양태 표현은 그동안 국어학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 한국어교육학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학에서 추측 양태 표현 연구는 크게 양태의 하위 범주로 다루거나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태 범주 안에서 다룬 연구로는 장경희(1985), 김지은(1998), 박재연(2004), 손혜옥(2016), 오승은(2018) 등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서정수(1977, 1978), 이기종(1996), 이필영(1998, 2012), 김동욱(2000), 이혜용(2003) 등이 있다.

장경희(1985)는 국어에서 시상, 서법으로 분류되던 '-더-', '-겠-', '-구나', '-지'를 양태로 보고 그 중 추측의 '-겠-'은 하위 범주인 사유 양태로 분리하였다. 김지은(1998)은 양태 용언을 주어 중심 양태 용언과 화자 중심 양태 용언으로 분류하고 이들 용언이 어미와 결합해 여러 가지 양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중에서 화자 중심 양태 용언인 '보다, 모르다, 같다' 등이 어미와 결합해 추측을 나타내는데 '보다'는 '-은/는가, -나' 어미와 결합하여 화자가 직관이나 이성적인 추리를 통해 사태를 추측함을 나타내고, '모르다'는 '-은/는/을지'와 결합하여 명제가 가리키는 사태의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같다'는 '-은/는/을 것'과 결합해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박재연(2004)은 양태를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로 설정하고 양태 어미를 중심으로 의미 기능을 기술하였다. 인식 양태 안에서 추측의 '-겠-, -을까,

-을걸'을 다루었는데 양태적 용법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다른 어미와의 결합 관계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손혜옥(2016)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양태 범주를 설정하고, 양태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양태 표지들의 체계와 의미, 화용적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그중 인식 양태에 포함된 추측 표현들의 의미적, 화용적 기능을 비교 기술하였다. 오승은(2018)은 한국어 양태 표현 중에서 추측과 의지의 의미를 가지는 '-겠-', '-을 것', '-을 터'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 기능, 출현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추측 양태 표현을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이기용(1978), 성기철(1976, 2007), 서정수(1977, 1978), 이기종(1996), 이필영(1998, 2012), 김동욱(2000), 이혜용(2003), 상호현(2018) 등이 있는데 추측 양태 표현을 개별 항목으로 다룬 연구 중에서 '-겠-'과 '-(으)ㄹ 것이다'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다. 이기용(1978), 성기철(1976, 2007), 서정수(1978) 등에서는 '-겠-'과 '-을 것이다'의 용법의 차이를 판단 근거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이기용(1978)과 서정수(1978)에서는 판단 근거를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판단으로 나누어 '-겠-'과 '-(으)ㄹ 것이다'의 차이를 설명하였는데 이기용(1978)에서는 '-겠-'은 객관적인 것을 근거로 하여 강한 추측을 나타내고, '-(으)ㄹ 것이다'는 주관적인 것을 근거로 하여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반면, 서정수(1978)에서는 '-(으)ㄹ 것이다'가 객관적인 것을 근거로 하고, '-겠-'은 화자의 주관을 바탕으로 짐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으)ㄹ 것이다'가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성기철(1976, 2007)에서는 판단 근거를 현재와 과거의 경험으로 나누고 '-(으)ㄹ 것이다'는 과거의 경험을 판단 근거로 하고 '-겠-'은 발화 현장의 간접 경험을 판단 근거로 한다고 보았다.

이필영(1998)에서는 관형구성으로 된 추정 표현 10개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의 내적 특성과 외적 특성으로 나누고 확실성과 주·객관성, 판단 주체와 판단 시점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동욱(2000)에서는 화자의 판단 태도를 주체적인지 객체적인지에 초점을 맞춰 '-ㄴ 것 같다', '-ㄴ 듯하다', '-ㄴ가 보다', '-ㄴ 모양이다'의 의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해용(2003)에서는 짐작, 추측 표현인 '-(ㄴ/ㄹ) 듯싶다, -(ㄴ/ㄹ) 듯하다, -(ㄴ/ㄹ) 모양이다, -(ㄴ/ㄹ) 것 같다'의 의미 차이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화용적 기능을 설명하였다. 상호현(2018)은 추정 형식 '-겠-'과 '-(으)ㄹ 것이다' 사이에 나타

나는 의미 또는 주요 용법상의 특징적 변별성과 두 형식의 주관성 정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으)ㄹ 것이다'가 '-겠-'보다 주관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입증하였다. 이상으로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국어학적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자질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2. 한국어교육에서의 추측 양태 표현 연구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에 관한 국어학적 논의는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추측 양태 표현을 다룬 연구는 1999년에 들어서야 이루어졌다. 한국어교육 관점에서 추측 양태 표현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전나영(1999)부터이다. 전나영(1999)에서는 추측 양태 표현 '-나 보다', '-(으)ㄹ 모양이다', '-(으)ㄹ 것 같다', '-(으)ㄹ 것이다', '-겠-'을 중심으로 이들 표현 간에 확신의 정도를 설명하였는데, 이 연구는 국어학적 연구를 한국어교육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에서도 국어학에서처럼 추측 양태 표현은 양태 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루거나 개별 연구로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어교육 특성에 맞게 의미 자질을 분석해 추측 표현 간의 차이를 제시하거나 교육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어교육 관점에서 추측 표현을 양태 연구 안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이효정(2004), 엄녀(2009), 이지연(2018) 등이 있다. 이효정(2004)에서는 의미 중심으로 의미가 유사한 양태 표현의 빈도, 제약, 의미를 살펴본 후, 이를 참조하여 교수 순서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15개의 추측 표현을 다루었다. 엄녀(2009)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양태 표현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추측 표현을 양태의 일부분으로 다루었다. 이지연(2018)에서는 한국어 양태 표현을 의미별로 범주화하여 유사 문법 항목의 특성과 변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인식 양태를 추측과 새로 앎으로 나누어 형태·통사, 의미, 화용적 특징을 밝히고 유사 문법 간의 변별성을 밝혔다. 이윤진·노지니(2003)와 강현주(2010)에서는 양태 표현 중에서 추측 표현과 의지

표현을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그중에서 추측과 의지의 의미를 동시에 실현하는 '-겠-'과 '-을 것이-'를 다루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양태 표현들이 각각의 의미로 사용될 때의 특징과 차이를 한국어교육 입장에서 제시하였다.

한국어교육 관점에서 추측 표현을 다룬 연구 중 개별 표현 간의 변별성을 고찰한 연구(전나영, 1999; 안주호, 2004; 한정한·정희숙, 2011; 탕이잉, 2020; 최진화, 2021 등), 외국어와의 비교·대조 연구(이영, 2011; 변수지, 2012; 이와마 아키코, 2014; 김기선, 2017; 백대열, 2017; 장경희, 2017; 곽은경, 2018; 정미홍, 2020 등), 학습자의 추측 표현 습득 양상 연구(이해영, 2011, 2013; 홍승연, 2011; 김고은, 2013; Jiang chuan, 2015; 양천유, 2017; 응웬티탄쭉, 2019; 하흔흔·박덕유, 2019; LIYUZHU, 2020 등),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추측 표현 교육(이미혜, 2005; 김세령, 2011; 유민애, 2011; 장단화, 2011; 강비, 2014; 황티타인방, 2014; 강민경, 2016; 하흔흔, 2016; 황주하, 2018; 이상숙, 2021; 탕이잉, 2023 등) 등이 있다.

본 연구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의 추측 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중국인 학습자(유민애, 2011; 장단화, 2011; 강비, 2014; 강민경, 2016; 하흔흔, 2016, 탕이잉, 2023 등)와 베트남인 학습자(황티타인방, 2014 등)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장단화(2011), 황티타인방(2014), 강민경(2016)은 추측 표현의 의미적·통사적 기능에 대해서만 다루었고 화용적 기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유민애(2011)와 하흔흔(2016)은 중국인 학습자의 추측 표현의 의미적·화용적 기능에 대한 이해 양상을 한국 체류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선다형 유형의 설문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강비(2014)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추측 표현의 의미적·화용적 특징의 이해와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교육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숙달도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고 한국 체류에 따라 차이가 어떻게 나타난 지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탕이잉(2023)은 말뭉치 기반 연구를 통해 한국어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간의 통사·의미·화용적 변별점을 체계화하고 집합적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 문법 항목에 대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변별 양상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 외에 이미혜(2005)는 한국어 문법 교육의 원리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서 그 원리를 추측 표현에 적용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어 문법

교육 원리에 초점을 둔 연구이기에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세령(2011)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추측 표현의 의미적 특징에 대한 사용 양상을 <KBS2 미녀들의 수다2>와 <KBS1 러브인 아시아>를 통해 분석하여 이를 통해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황주하(2018)는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한국어교육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측 표현의 의미 변별에 대한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교육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의의를 갖지만 학습자 언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상숙(2021)에서도 추측 표현 교육의 문제점을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추측 표현과 구어 말뭉치의 사용 빈도를 통해 분석하여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학습자 언어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이상으로 살펴본 한국어교육학에서 학습자를 위한 추측 양태 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는 형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 세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의미적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다수이고, 형태·통사적, 담화·화용적 측면에서 다루는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을 다룬 연구 중에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체류 여부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의 이해 양상이 어떠한지 고찰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숙달도에 따른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 세 차원에서의 이해 양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고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기존에 있는 몇몇 연구들은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므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구축하는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해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의 차이를 고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며 단계별 연구 목표는 아래 <표 I-1>

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다음은 각 단계별 연구 목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I-1> 단계별 연구 목표

단계	연구 목표
1단계	① 추측 양태 표현의 개념 및 특성 고찰
	② 미얀마인 학습자가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학습 시 난점 예측
	③ 기존의 한국어 교재의 추측 양태 표현 교육 내용 분석
2단계	④ 학습자 이해 양상 측정을 위한 조사 도구 제작
	⑤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 분석
3단계	⑥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 제안

1단계에는 세 가지 연구 목표가 있다. 첫 번째 연구 목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추측의 개념, 범주 및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세 가지 부분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우선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추측의 개념 및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어에 초점을 두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추측 양태 표현의 유형을 정리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 통사적 특성, 의미적 특성, 그리고 담화·화용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 목표는 학습자의 모국어를 고려하여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추측 양태 표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두 언어 간에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상의 난점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목표는 미얀마 대학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국어 교재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목표는 1절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 1과 관련된다.

2단계에는 연구 문제 2, 3과 관련된 두 개의 연구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다. 목표 ④는 자료 수집 도구를 제작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자료 수집 도구의 타당성은 연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타당도가 높은 조사 도구를 제작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조사 도구인 설문지의 문항 유형을 정하고 구체적인 문항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관련 논문, 한국어 교재, 그리고 한국어 문법 사전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문법성 판단 말뭉치(1.0) 버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등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연구 목표 ⑤를 달성하기 위해 조사 방법과 도구를 확정하고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NUIRB)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어 모어 화자와 미얀마 대학의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은 미얀마인 학습자 및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를 정리하고 기술 통계 및 추리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얀마인 학습자가 답을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고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일부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은 III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3단계에서의 연구 목표는 효과적인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다. 미얀마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의 특성을 참고하여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어서 설정된 목표에 따라 이전 단계의 분석 내용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측 양태 표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상으로 설명한 내용은 <표 I-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2> 단계별 연구 대상 및 방법

단계	연구 목표	연구 대상	연구 방법
1단계	① 추측 양태 표현의 개념 및 특성 고찰	-인식 양태로서의 추측 표현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유형 및 연구 항목 설정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 의미적 특성, 담화·화용적 특성	문헌 연구, 말뭉치 자료 분석
	② 미얀마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학습 난점 예측	-한국어·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특성	문헌 연구
	③ 기존의 한국어 교재의 추측 양태 표현 교육 내용 분석	-미얀마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교재 분석
2단계	④ 학습자 이해 양상 측정을 위한 조사 도구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에 관한 선행연구 -한국어 교재, 한국어 문법 사전/문법서	문헌 연구, 말뭉치 자료

	제작	-문법성 판단 말뭉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분석
	⑤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 분석	-층위별 미얀마인 학습자의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 -학년별 미얀마인 학습자의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	설문조사 타당도 검증 사후 인터뷰 통계 분석
3단계	⑥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 제안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학습 목표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 원리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	문헌 연구

II.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

1. 인식 양태로서의 추측 표현

2장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양태의 개념 및 하위 영역을 살펴보고, 그 하위 영역에 속하는 인식 양태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추측 양태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기존의 국어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측 양태 표현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 연구 대상 목록을 선정할 것이다. 선정된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형태·통사적 특성, 의미적 특성, 담화·화용적 특성으로 나누어 그 특성들을 살펴본다.

1.1. 한국어 양태의 개념 및 하위 유형

추측 양태 표현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양태에 대한 개념과 하위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양태(Modality)의 개념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Lyons(1977)는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나 그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양태는 인간이 심리적으로 인식하는 객관적 세계현상을 언어로 반영하는 것으로, 화자가 발화하는 주관적·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표현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양태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논의의 초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일부 대표성을 띤 정의들을 정리하고, 양태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Lyons(1977)는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나 그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3]라고 정의하고, 양태에는 인식 양태와 의무 양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Palmer(1986)에서는 양태를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3) The speaker's opinion or attitude towards the proposition that the sentence expresses or the situation that the proposition describes(Lyons, 1977:452).

의견의 문법화'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Lyons(1977)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Palmer(2001)에서는 '사건을 기술하는 명제의 상태'[4]와 관련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국내 한국어 연구에서의 양태 정의 방법도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장경희(1985)에서는 양태를 '사건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태도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라고 보았으며, 고영근(1986)에서도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관련되는 의미 영역'이라고 하였다. 김지은(1998)에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견해'라고 보았으며, 이선웅(2001)에서는 '화자가 명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 문장 내에서 표현하는 심리적,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말하는 사람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라고 정의하였다. 이기갑(2006)은 화자는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문장 속의 명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양태라 부른다고 하였다. 임동훈(2008)에서는 '명제의 사실성(factuality)과 실현성(actualisation)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표현된 범주'로 보았다. 한편,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기존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박재연(2004)은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라고 규정하였다. 문병열(2007)은 '명제와 사건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문법 형식'이라고 보았으며, 박진호(2011a)에서는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사태에 대한 주관적 태도/판단을 나타내는 범주'라고 정의한다. 구본관 외(2015)에서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세분화하여 표현하는 문법 범주'를 양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양태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없어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태는 화자의 발화 가운데 명제를 제외한 부분, 즉 명제에 부가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논의되어 온 양태의 정의를 받아들여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5].

---

4) Modality is concerned with the status of the proposition that describes the event(Palmer, 2001:1).

5) 앞선 연구들에서는 '양태'를 '서법'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양태'를 '서법'으로 일컫는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 연구에서의 '서법'의 개념이다. 한국어에서 '서법'은 주로 문장 종결법의 의미로 연구되며, 한국어교육

양태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화자의 태도의 종류에 따라 인식 양태, 행위 양태, 감정 양태, 증거 양태, 진리 양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는 대부분 연구자가 인정하는 부분이나 감정 양태, 증거 양태, 진리 양태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의 용어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인식 양태는 명제 양태로도 불리며, 행위 양태는 동적 양태, 의무 양태, 사건 양태 등으로도 불리는데, 그 의미역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양태의 유형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제시되어 온 여러 가지 양태 분류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 기존의 양태에 대한 하위 분류

연구자	하위 분류
Lyons(1977)	인식 양태 (앎, 믿음과 관련된 태도) 의무 양태 (허락, 의무와 관련된 태도)
Sweetser(1990)	인식 양태, 뿌리 양태(의무 양태, 동적 양태)
Bybee et al.(1994)	인식 양태 (가능성, 개연성, 추론된 확실성, 반사실성) 화자 지향적 양태 (명령, 금지, 기원, 권고, 경고, 허락) 동작주 지향적 양태 (의무, 필요성, 능력, 갈망, 의도, 의지)
김지은(1998)	화자 중심 양태, 주어 중심 양태
Palmer(2001)	명제 양태 (인식 양태, 증거 양태) 사건 양태 (의무 양태, 동적 양태)
박병선(2000)	인식 양태, 당위 양태, 감정 양태, 증거 양태
이선웅(2001)	인식 양태, 통보 양태, 정감 양태, 의무 양태
박재연(2004)	인식 양태, 행위 양태
이효정(2004)	인식 양태, 의무 양태, 평가 양태
문병열(2007)	명제 양태 (인식 양태, 증거 양태) 사건 양태 (당위 양태, 동적 양태, 평가 양태)
엄녀(2009)	인식 양태, 비인식 양태
박진호(2011,a)	인식 양태, 당위 양태, 동적 양태, 감정 양태, 증거 양태
구본관 외(2015)	인식 양태, 행위 양태, 감정 양태
손혜옥(2016)	명제 양태 (인식 양태, 증거 양태) 사건 양태 (의무 양태, 동적 양태)
이지연(2018)	인식 양태, 사건 양태, 평가 양태

위에서 양태의 하위 유형 분류에 대한 논의 중, 먼저 Lyons(1977)에서는 양태 범주를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로 구분하였으며, 인식 양태는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명제에

현장에서도 학습자들에게 그러한 의미로 가르치고 있다.

대한 화자의 앎이나 믿음의 정도로 나타내는 것이고, 의무 양태는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허락이나 의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Lyons(1977)와 같이 양태의 가장 보편적인 분류는 인식 양태와 의무 양태로 나누는 이분법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어교육에서도 인식 양태와 의무 양태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6].

Sweetser(1990)은 양태 범주를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뿌리 양태(root modality)로 구분하였는데 뿌리 양태에는 의무 양태와 동적 양태가 모두 포함된다. Bybee et al.(1994)에서는 양태를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동작주 지향적 양태(agent-oriented modality), 화자 지향적 양태(speaker-oriented modality)로 구분하였다[7]. 김지은(1998)에서는 화자 중심 양태와 주어 중심 양태로 구분하였는데 화자 중심 양태에는 인식 양태가 포함된다[8]. Palmer(2001)에서는 양태를 명제 양태(propositional modality)와 사건 양태(event modality)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명제 양태를 다시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증거 양태(evidential modality)로, 사건 양태를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와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로 하위 분류하였다.

박병선(2000), 이선웅(2001), 이효정(2004), 구본관 외(2015), 이지연(2018)에서는 화자의 감정적 태도도 양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박병선(2000)에서 인식 양태, 당위 양태, 감정 양태, 증거 양태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감정 양태는 '놀라움, 아쉬움, 후회, 근심, 두려움' 등과 같은 화자의 감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증거 양태는 '목적, 전언, 추론' 등 화자가 사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이선웅(2001)에서는 인식 양태, 통보 양태, 정감 양태, 의무 양태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구본관 외(2015)에서는 양태를 인식 양태, 행위 양태, 감정 양태로 하위 분류하였다. 이효정(2004)에서는 양태를 인식 양태, 의무 양태, 평가 양태로 하위 분류하였으며

---

6) 양태의 보편적인 분류는 이분법이라 보는 논의들은 박재연(2004), 엄녀(2010) 등이 있다.

7) 'agent-oriented modality'와 'speaker-oriented modality'는 연구자에 따라 각각 동작주 지향적 양태와 화자 지향적 양태(박재연, 2004), 동작주 양태와 화자 양태(손혜옥, 2016), 행위자중심 양태와 화자중심 양태(이지연, 2018)등의 용어로 해석된다.

8) 김지은(1998)은 Bybee et al.(1994)의 논의를 받아들였으나 동작주 지향적 양태라는 용어 대신 주어 중심 양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지연(2018)에서는 양태를 인식 양태, 사건 양태, 평가 양태로 하위 분류하였다[9].

박재연(2004)과 엄녀(2009)에서는 인식 양태 외의 양태 의미들을 세부적인 개별 범주로 설정하지 않고 행위 양태(박재연, 2004), 비인식 양태(엄녀, 2009)로 묶어 이분화하고 있다. 박재연(2004)에서는 양태의 하위 범주를 Lyons(1977)과 같이 이분하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의무 양태의 용어가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의무 양태가 아닌 행위 양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엄녀(2010)에서도 박재연(2004)과 같이 양태를 이분법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박재연(2004)과 다르게 행위 양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식 양태에 대응되는 용어로 비인식 양태를 사용하였다. 이는 행위 양태가 경우에 따라 행위적이지 않은 명제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인식 양태의 하위 범주로 추측, 당연, 근접을 포함하며 비인식 양태로는 의무, 허용, 금지, 희망, 능력, 의도, 의지 등의 의미를 포함시켰다.

문병열(2007)과 손혜옥(2016)에서는 Palmer(2001)을 따라 한국어의 양태의 하위 유형을 명제 양태와 사건 양태라는 중간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명제 양태에는 '인식 양태와 증거 양태'가 포함되고, 사건 양태에는 '당위 양태, 동적 양태, 평가 양태'(문병열, 2007), '의무 양태와 동적 양태'(손혜옥, 2016)로 하위 분류하였다.

위의 <표 II-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인식 양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치하는 데에 비해 인식 양태를 제외한 나머지 의미 부류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양태 분류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양태 의미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양태 체계를 분류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구의 대상인 '추측' 표현과 관련된 인식 양태의 하나인 '추측'의 양태 표현들만 한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9) 평가 양태(evaluative modality)는 정감 양태(emotive modality) 혹은 감정 양태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이들 용어가 지칭하는 양태는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 평가 양태란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양태 범주로, 이미 실현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간 양태 연구에서 제외되거나 주변적인 양태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이지연, 2018:38).

1.2. 한국어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

인식 양태는 '정보 내용'으로서의 명제를 대상으로 하는 양태이며,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믿음의 정도를 나타낸다. 인식 양태는 전통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정보를 확실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가, 불확실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명제에 대한 확실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의미 영역으로 다루어졌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인식 양태를 정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2> 인식 양태의 개념적 의미 영역

연구	인식 양태의 개념적 의미 영역
고영근 (1986)	확실성으로부터 개연성, 가능성에 걸쳐 있는 화자의 사태에 대한 믿음의 정도
임동훈 (2003)	명제가 기술하는 내용의 진리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판단을 나타내며, 실재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화자의 판단과 관련됨 인식상의 진리성에 대해 판단을 하므로 인식의 기반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시 하위 분류될 수 있음 즉 인식의 근거가 화자 자신의 지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에 따라 더 갈릴 수 있고, 인식의 방식이 추측이냐 추론이냐에 따라 더 갈릴 수 있음
이효정 (2004)	화자의 명제 사실에 대한 믿음을 지시함 즉, 화자가 명제 내용을 확실히 알거나 믿고 있는지를 표현함 인식 양태는 [지각]과 [확실성] 자질로 분류됨
이혜용 (2003)	화자의 명제 실현에 대한 태도 (막연, 개연, 확연) 화자의 명제 내용에 대한 서술 태도 (주체적 판단, 객체적 판단)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
박재연 (2004)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정보의 획득 방법 (지각, 추론, 전언) 정보의 내면화 정도 (이미 앎, 새로 앎) 청자 지식에 대한 화자의 가정 (기지가정, 미지가정)
문병열 (2007)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확실성 판단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청자 지식에 대한 화자의 가정 (청자의 기지가정, 청자의 미지가정) 정보의 내면화 정도 (이미 앎, 새로 앎)
박진호 (2011)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참일 확률에 대한 화자의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확실하게 참이라든지[확실성], 확실하지 않지만 참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든지[추측], 거짓일 확률보다는 참일 확률이 높다든지[개연성], 참일 확률이 0보다는 높다든지[가능성] 등을 나타냄
구본관 외 (2015)	명제가 표현하는 정보의 성격에 대한 화자의 태도 (추측, 가능성, 지각, 추론, 새로 앎, 이미 앎 등)
손혜옥 (2016)	사실성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정경미 (2016)	명제에 대한 확실성의 정도(확실성, 개연성, 가능성)를 명시하는 범주

이지연 (2018)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확실성 판단이나 인지 여부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추측: 사실성을 보장할 수 없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새로 앎: 화자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알고 있던 사실을 어떤 계기로 인해 새롭게 깨닫게 됨

위 <표 II-2>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인식 양태의 범위를 넓게 파악하기도 한다. 즉,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의 의미 영역뿐 아니라, 해당 정보를 획득하게 된 경로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보의 획득 방법 또는 정보의 출처'를 표현하는 의미 영역(임동훈, 2003; 박재연, 2004 등)이나, 해당 정보가 화자/청자의 지식 체계에 얼마나 동화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보의 내면화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 영역(박재연, 2004; 문병열, 2007 등), '청자의 지식에 대한 화자의 가정의 의미 영역'(박재연, 2004; 문병열, 2007 등) 등도 다루어졌다. 또한, 명제 내용에 대한 서술 태도가 주관적 입장인지, 객관적 입장인지에 따라 '화자의 명제 내용에 대한 서술 태도'(이혜용, 2003 등)까지도 인식 양태의 일부로 다루었다.

'명제에 대한 확실성 정도'는 화자가 명제를 확실한 것으로 말하는지, 불확실한 것으로 말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확실성(certainty)',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지은, 1998; 이혜용, 2003; 박재연, 2004; 이미혜, 2005; 문병열, 2007; 박진호, 2011b; 이지연, 2018 등). 박진호(2011b)는 '확실성'은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확실하게 참임'을, '개연성'은 '명제가 거짓일 확률보다는 참일 확률이 높음'을, '가능성'은 '명제가 참일 확률이 0보다는 높음'을 나타내는 양태로 정의하였다. 박재연(2004)에서는 '확실성 판단'은 화자가 사태의 진실성에 대하여 100%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개연성 판단'은 화자가 100%는 안 되지만 적어도 50% 이상의 확신은 가진다는 것으로, '가능성 판단'은 화자가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50%도 되지 못하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화자가 명제에 대해 100%의 확신을 가지면 '확실성 판단',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50% 이상의 확신을 가지면 '개연성 판단', 50% 미만의 확신을 가지면 '가능성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획득 방법(출처)'[10]의 의미 영역은 화자가 문제의 정보를 자신의

10) '정보의 획득 방법'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이견이 있는데 이러한 의미 영역을 '증거 양태'라고 불러 인식 양태, 의미 양태, 감정 양태 등과 동등

오감을 통하여, 즉 직접 보거나 들어서 획득한 것[지각], 간접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전언], 혹은 어떠한 증거를 토대로 자기 자신의 추론을 통하여 얻게 된 정보[추론] 등을 말한다(박재연, 2004:52). 화자가 명제에 대해서 어떤 단서를 가지고 추측하여 짐작해 보거나, 타인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발화할 수 있다.

'정보의 내면화 정도'의 의미 영역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화자의 지식 체계에 어느 정도 동화된 정보인가를 구별하는 것이다. 박재연(2004)에서는 원래부터 알고 있어서 내면화된 정보는 '이미 앎', 어떤 시점에 새로이 알게 되어 아직 자신의 지식 체계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 정보는 '새로 앎'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어에서 내면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언급된 형태로는 '새로 앎'의 '-구나', '-네', '-겠-', '-더-'가 있고, '이미 앎'의 '-거든', '-지', '-(으)ㄹ 것이다'가 있다[11].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의 의미 영역은 화자는 청자가 해당 정보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가를 구별하는 것이다.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가 그 정보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음을 가정하는 경우도 있고[미지가정], 청자도 화자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거기에 대

한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 바(문병열, 2007; 송재목, 2009; 정인아, 2010; 정경미, 2016 등)도 있는 반면, 이와 같은 양태 의미 영역을 인식 양태의 하위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바(박재연, 2004; 이혜용, 2003 등)도 있다. 문병열(2007)에서 정보의 출처와 명제에 대한 확실성 판단은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범주이며,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언어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 양태를 인식 양태와 구별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여 인식 양태와는 구별되는 '증거 양태'를 따로 설정하였다. 송재목(2009)에서 증거성은 그 의미, 통사적 특성상 인식 양태와는 별개의 범주로 구별되어야 하며, 한국어 형태소 '-더-'와 '-네'가 그 특성상 인식 양태 표지가 아니라 증거성 표지로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임동훈(2003)은 화자 자신이 획득한 정보가 어떤 근거에 기반을 두느냐에 대한 언급은 간접적으로 해당 명제에 대한 믿음 정도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각, 전문' 등에 바탕을 둔 근거 양태를 인식 양태의 특수한 하위 부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박재연(2004)에서는 '증거'와 관련되는 의미를 가지는 '-더-, -네, -구나' 등의 의미가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인식 양태로 다루어져 온 전통이 있음을 중시하여 증거 관련 의미를 인식 양태에 포함시켜 다루었다.

11) 박재연(2006)에서는 '이미 앎'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은 '-더-', '-거든', '-지'로, '새로 앎'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은 '-네', '-구나'로 기술하였으며, 손혜옥(2016)에서는 인식 양태 표현인 '-겠-'은 '새로 앎', '-(으)ㄹ 것이다'는 '이미 앎'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하여 알고 있음을 가정하는 경우도 있(박재연, 2006)는데 전자의 경우를 '미지가정', 후자를 '기정가정'이라 부른다. 이 영역은 단순히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아니라 청자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박재연; 2006, 이혜용; 2003).

'화자의 명제 내용에 대한 서술 태도'는 김동욱(2000)에서 논의된 기준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주체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객체적인 태도를 취하는가로 구분한다. 즉, 화자는 자신의 발화에 대하여 주체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객체로 위치하고 싶은지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은 발화의 책임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인식 양태로서의 추측의 개념적 의미

추측은 양태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인식 양태에 속한다. 추측의 사전적 의미는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림' 또는 '미래의 일에 대한 상상이나, 과거나 현재의 일에 대한 불확실한 판단을 표현하는 일'이다[12]. 사전적 의미에서 추측의 가장 중요한 의미 자질은 '불확실한 판단'이다.

추측에 관한 연구에서 추측은 연구자에 따라 '추측, 짐작, 추정, 추리 등'의 의미를 구분하기도 한다. 국어학적 연구에서 성광수(1984)는 '추정'과 '추측', 이기종(1996)과 이혜용(2003)은 '짐작'과 '추측', 안주호(2004), 정유남(2006), 이상숙(2021)은 '짐작', '추정', '추리'의 상위 범주로 '추측'을 설정하였다. 한국어교육학적 연구에서 노지니(2004), 유민애(2010), 김경열(2021) 등은 '짐작', '추정', '추리'의 상위 범주로 '추측'을 대표어로 선정하였다. 그 외에도 국립국어원의 공개 자료실에 제시된 현대 국어 빈도 조사 보고서(2002)에 따르면 '추측'과 관련된 유의어로 '짐작, 추정, 가정, 추측'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판단의 불확실성을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시켜 '추측'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한국어교육에서 많은 범주를 설정한다면 학습자들에게

1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교수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이므로 한국어교육에서는 세분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추측'의 개념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표 II-3> 추측의 개념적 의미

연구	'추측'의 개념적 의미
이기용 (1978)	어떤 상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가능함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 완전한 근거는 없더라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김차균 (1981)	추측의 근원은 불확실에 있으며, 불확실의 정도에 따라서, 일어날 가능성과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므로 추측은 이 가지 가능성에 대한 무의지적인 선택 작용이다.
차현실 (1986)	미확인 또는 미확정된 사실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다.
이남순 (1998)	'불확실성, 개연성, 가능성'을 함의하는 의미 영역이며 명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필영 (2012)	어떤 사태에 대한 불확실한 인지적 판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윤진.노지니 (2003)	'가능성, 개연성, 필연성, 추론'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명제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다.
노지니 (2004)	사고 과정의 일부로서 화자가 명제 실현의 확실성에 의문을 느끼고 그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를 표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미 범주이다.
이효정 (2004)	화자가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꼈지만 확실하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확실성/+지각]의 의미 범주이다.
안주호 (2004)	'추정, 추리, 짐작'은 물론 '가능성, 필연성, 개연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명제 내용에 대한 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다.
염재일 (2005)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간접적인 증거 등을 사용하여 추측하는 것이다.
정유남 (2006)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의 개념 층위이다.
정경미 (2016)	화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불확실하게나마 미루어 헤아려 보는 정신 작용을 뜻하는 의미이다.
이지연 (2018)	사실성을 보장할 수 없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다. '추측'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시 '막연, 개연, 확연'으로 하위 분류한다.
김경열 (2021)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확실'과 '미확인'을 전제로 한다.
이상숙 (2021)	화자가 명제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지닌다.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 정도(불확실함의 정도)에 따라 믿음이 가장 강한 확연, 중간인 개연 그리고 믿음이 가장 약한 막연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의 추측 표현은 '개연'에 속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인식 양태 범주로서의 '추측'은 화자가 명제에 대한 자기의 확신의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불확실성'이 기본 전제가 된다. 이때 불확실성은 명제에 대해 화자가 미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명제가 된다. 이렇게 추측은 화자의 불확실한 판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확신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의미 자질이 된다. 화자가 100% 확신할 수 없는 명

제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로 판단하는 것을 추측이라고 하고, 이것을 문법적인 요소로 나타낸 것을 추측 양태 표현이라고 한다.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하느냐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은 확실성이 높은 표현, 확실성이 낮은 표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판단의 근거도 추측 양태 표현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이다. 화자가 명제의 내용을 추측할 때는 근거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와 쓰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추측 근거는 문장에 명시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고 화자의 사고 체계 내에서 존재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추측 근거는 특성에 따라 '현장의 지각 정보', '과거 경험',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추측 양태 표현 또한 분류할 수 있다.

화자는 발화 맥락에서 명제의 내용에 대해서 정보가 충분하다면 단언을 할 수 있고, 정보가 불충분하다면 불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다.

1) a. 철수는 학교에 갔어.
   b. 철수는 학교에 간 것 같아.

(1a.)는 철수가 학교에 간 것을 직접 보고 확인하여 사실에 대해서 단언을 하지만, (1b.)에서는 '철수는 학교에 갔다'의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화자가 불확실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처럼 화자가 명제에 대한 실현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태도를 보면 인식 양태에 속한 추측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추측은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미루어 헤아리거나 짐작·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범주이다. 추측을 할 때에는 발화하는 사람의 사고 과정이 동반되므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도 나타난다. 또한, 이와 같은 표현들을 추측 표현으로 지칭하여 구어와 문어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2) a. 아마 철수가 내일 학교에 갈 거야.
   b. 내일 눈이 오겠다.
   c. 철수가 내일 학교에 갈 것 같다.

위의 예문을 보면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의 실현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낸

다. (2a.)와 같이 어휘적으로 '아마'와 같이 양태 부사에 의해 나타내기도 하고, (2b.)와 같이 선어말어미 '-겠-'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2c.)와 같이 보조 용언 혹은 의존명사 등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구성에 의해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2b.)와 같은 선어말어미의 형식과 (2c.)에서 보조 용언이나 의존명사 등과 결합한 복합적인 형식과 같은 문법적 형식에 주목하여 추측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즉 추측은 어휘적인 요소, 문법적인 요소 그리고 우언적 구성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틀림없이'와 같이 부사도 화자의 판단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지만 본 연구는 문법·표현에 관한 연구이므로 어휘적 요소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법적 기능을 하는 문법 요소와 우언적 구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추측 양태 표현들은 모두 불확실성이라는 자질을 공유하면서도 그들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이 서로 다르므로 의미 특성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각각의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의 의미는 서로를 비교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인데, 이때의 비교 대상은 의미가 동떨어진 것보다는 가깝거나 비슷한 것이 되어야 함(이필영, 2012:110)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문장 내부의 의미와 함께 담화·화용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 이는 주로 명제 내용에 대한 확실성 문제에서 비롯된다. 화자는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사태의 인식과는 다른 언술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가령 화자는 상대가 이번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번 시험이 어려워서 누구도 합격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확실하지 않은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공손하게 진술하기도 한다. 이렇듯 비확정적인 서술 태도와 완곡어법적 기능 또한 양태 의미의 일부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특성

2.1.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연구 항목 설정

한국어에서 추측의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한국어의 추측 양태 표현들은 형태론적 구성도 풍부한 편이며 통사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 추측의 양태 의미를 갖는 표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실현되는 추측 양태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4>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실현 양상

양태적 의미	양태 실현	표현 양식
추측	용언	추측하다, 예상하다, 생각하다, 믿다, 확실하다 ...
	부사	혹시, 아마, 어쩌면, 설마, 과연, 만일,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
	어미	-(으)리-, -겠-, -(으)ㄹ걸, -(으)ㄹ까 ...
	의존명사 구성	-(으)ㄹ 것이-, -(으)ㄹ 터이-, -은/는/을 모양이-, -은/는/을 것 같-, -은/는/을 듯하-, -은/는/을 듯싶-, -(으)ㄹ 법하- ...
	보조용언 구성	-은가/는가/나 보-, -나/는가/지 싶-, -은가/는가/을까 하-, -은/는/을지 모르-, ..

한국어에서 추측 양태의 실현 방식은 위에 제시한 <표 II-4>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추측하다, 예상하다, 생각하다, 믿다, 확실하다’ 등의 용언, ‘혹시, 아마, 어쩌면, 설마, 과연, 만일,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등의 부사와 같은 어휘에 의해 실현되기도 하고, ‘-(으)리-, -겠-, -을걸, -을까’ 등의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에 의해 실현되기도 하며, ‘-을 것이-, -을 터이-, -은/는/을 모양이-, -은/는/을 것 같-’ 등의 의존명사 구성, ‘-은가/는가/나 보-, -나/는가/지 싶-, -은가/는가/을까 하-, -은/는/을지 모르-’ 등의 보조 용언 구성과 같은 복합 구성에 의해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추측하다, 예상하다, 생각하다, 믿다, 확실하다’ 등의 용언은 그들 고유의 어휘적 의미 자체의 특성일 뿐이어서 이들이 양태 표현의 기능을 담당하는 하나의 범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들이다(김지은, 1998:23). 그리고 ‘혹시, 아마, 어쩌면, 설마, 과연, 만일,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등의 부사는 서술어의 양태소와 긴밀한 관련을 보여 양태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넓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용언’과 ‘부사’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일 형식의 어미 구성과 복합 형식의 의존명사 구성, 보조 용언 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할 것이다.

한국어교육을 위한 추측 양태 표현 연구로는 추측 표현 연구, 교육 방안 연구, 학습자 습득 연구, 등급화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구체적인 연구 항목 대상을 먼저 선정한 후, 각 연구의 목적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도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추측 양태 표현 교육 연구로, 연구 항목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추측 양태 표현 항목 선정의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항목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마다 최종 목적은 다르지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추측 양태 표현 대상 항목을 선정한 연구로 이선영(2006), 김세령(2010), 유민애(2012), 강비(2014), 황주하(2018), 하흔흔·박덕유(2019), 탕이잉(2023)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측 의미를 나타내는 한국어 문법 형식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되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가 학습 시 서로 간의 변별성을 이해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교수가 필요한 추측 양태 표현을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 표현을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자 한다.

첫째,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은 매우 많지만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 표현을 일차적으로 한국어교육 기관의 교재에 실려 있는 '추측' 양태 표현으로 제한한다[13].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은 한국어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들이다. 물론 한국어 교재는 교재를 집필한 연구진들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여러 교재에서 공통으로 제시되어 있는 항목들은 한국어교육에서 중요도가 높은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호정 외(2012)에서 객관적 수치화가 가능한 기준으로 교재 중복도가 문법 항목 선정의 중요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각 교재는 중요도에 대한 교육 기관의 기준과 전문가의 경험적 판단을 토대로 문법 항목을 선정하여 배열하고 있으므로 교재 중복도가 높을수록 해당 추측 양태 표현의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재 중복도가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의 선정을 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복도 조사 대상이 된 교재는 미얀마 대학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5종 교재이다[14]. 먼저 해당 교재들의 교수요목을 살펴 어

13) 문법서와 사전은 교육용 추측 양태 표현 항목 선정에 자료로 삼지 않았다. 문법서와 사전 성격상 거의 모든 표현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연구 항목을 선정하는 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14) 현재 미얀마 내 대학에서 미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가 아직 없으므로 국내 한국어 기관에서 출판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학부 과정을 위한 주교재로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출판된 통합 교재 및 읽기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출판된 교재는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떤 추측 양태 표현이 교재의 몇 급, 몇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그다음, 한국어 교재에서 중복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으로 연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둘째, 교재에서 선정된 항목들 중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사용 비율이 1% 이상(김세령, 2010; 유민애, 2012; 하흔흔, 2016; 이상숙, 2021; 탕이잉, 2023 등)인 추측 양태 표현을 이차적으로 연구 대상 항목으로 확정한다. 실생활 활용도는 학습자가 교실 밖 실생활 의사소통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기준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습한 것과 실제 언어생활과 차이가 있어 한국어교육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면 한국어교육은 무의미하게 된다. 특히 추측 양태 표현의 경우 문어보다 구어에서의 사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언어생활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실생활 의사소통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곧 실제로 해당 문법을 접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이는 말뭉치의 출현 빈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민신, 2018:1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말뭉치에서 사용 빈도 분석을 통해 추측 양태 표현의 실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재와 말뭉치에서 사용 빈도를 바탕으로 선정된 추측 양태 표현 중에서 미얀마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교수가 필요한 추측 양태 표현만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즉, 미얀마인 학습자가 학습 시 서로 간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려운 유사 문법 항목의 추측 양태 표현만을 선정할 것이다.

(1)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추측 양태 표현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은 매우 다양하고 많지만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 표현을 우선 한국어교육 기관의 교재에 실려 있는 '추측' 양태 표현으로 제한한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사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재의 분석을 통해 실제 수업 시간에 제시되는 '추측' 양태 표현의 실태를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이선영, 2006:12). 또는 강남욱(2013)에서도 한국어 교재는 학습자들의 학습 순서에 대한 기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독학 혹은 교수 행위를 배제한 일상적 노출에 의

한 학습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재는 학습자의 목표어 학습에 있어 교체하기 어려운 외연적인 틀이자 준거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주로 접하게 되는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추측 양태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들 표현 중 '추측하다, 예상하다, 짐작하다' 등으로 표현되는 어휘형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해 교재별로 어떤 추측 양태 표현들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며 교재별 추측 양태 표현들이 어떤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지, 어떤 단계에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어 교재의 선정 기준은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교재인 경희대 교재, 서강대 교재, 서울대 교재, 연세대 교재[15], 이화여대 교재를 선정하였다. 서지 사항을 정리하면 <표 II-5>와 같다.

<표 II-5> 한국어 교재 서지 사항

기관명	교재명	출판 연도	출판사
경희대학교 교재편찬위원회	경희 한국어 초급 1, 2 (문법) 경희 한국어 중급 1, 2 (문법) 경희 한국어 고급 1, 2 (문법)	2019, 2020 2020, 2020 2020, 2020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 한국어 1A, 1B 서강 한국어 2A, 2B 서강 한국어 3A, 3B 서강 한국어 4A, 4B 서강 한국어 5A, 5B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1A, 1B 서울대 한국어 2A, 2B 서울대 한국어 3A, 3B 서울대 한국어 4A, 4B 서울대 한국어 5A, 5B 서울대 한국어 6A, 6B	2013, 2013 2013, 2013 2015, 2015 2015, 2015 2012, 2012 2015, 2015	투판즈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 1-1, 1-2 연세 한국어 2-1, 2-2 연세 한국어 3-1, 3-2 연세 한국어 4-1, 4-2 연세 한국어 5-1, 5-2 연세 한국어 6-1, 6-2	2007, 2007 2007, 2007 2013, 2013 2013, 2013 2009, 2009 2009, 2009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15) 연세대 교재의 경우, '최신판'이 나왔지만 미얀마 내 대학교에서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2007, 2009, 2013년에 출간된 '연세한국어'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2007, 2009, 2013년의 교재만 살펴보겠다.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 1-1, 1-2 이화 한국어 2-1, 2-2 이화 한국어 3-1, 3-2 이화 한국어 4 이화 한국어 5 이화 한국어 6	2010, 2010 2010, 2010 2011, 2011 2011 2012 201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다음은 교재별로 추측의 의미를 가진 문법 표현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각 교재를 검토할 때 한 개의 추측 양태 표현 항목에 대해 제시된 과가 두 개 이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으)ㄴ/는/(으)ㄹ 것 같다' 항목은 연세대 교재에서 '초급1-2'의 '9과 - 03'에 제시되었으나, 다음으로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응용 표현인 '-었던/았던/였던 것 같다' 항목이 '중급3-1'의 '5과 - 03'에서 다시 한번 제시되었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기본형과 활용형 모두 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총 5종의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을 검토해봤는데 교재마다 제시된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의 수와 종류에 차이가 있었다. 다음 <표 II-6>은 추측 양태 표현 항목에 따른 5종의 교재에서 제시된 배열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6>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추측 양태 표현의 배열 양상

	추측 양태 표현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1	-(으)ㄹ 것이다	초급 1	2A	초급 2A	3-2	-
2	-겠-	초급 2	2B 4A	초급 2A 고급 5B	1-2, 2-1 2-1, 4-1 4-2, 4-2 5-2, 6-1	초급1-2 고급 6
3	-(으)ㄴ/는/(으)ㄹ 것 같다	초급 2 초급 2	2B 4A	초급 2A 초급 2A 초급 2A	1-2 3-1	초급2-1
4	-(으)ㄹ 텐데(요)	중급 1 중급 2	3A 3B	초급 2B 중급 3A	3-1	초급2-2 중급3-1
5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고급 1	3B	초급 2B 중급 4B	3-2	중급3-2
6	-는가/(으)ㄴ가/나 보다	중급 1	4B	중급 3A	2-2	중급3-2
7	-(으)ㄹ까 보다	중급 1	4A	중급 3B	3-2	중급3-1
8	-(으)ㄹ걸(요)	고급 1	5B	중급 3B	3-1	중급3-1
9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중급 2		중급 3B	3-1	초급2-2

10	-는가/(으)ㄴ가/나 하다					고급 5
11	-을까 싶다	고급 1				
12	-을까 하다			고급 5A		
13	-는/은/ㄴ 듯하다			중급 4A		
14	-는/은/ㄴ 듯싶다				5-2	
15	-(으)리라고			고급 6A		
16	-(으)ㄹ 법하다	고급2		고급 5B	6-1	
17	-(으)ㄹ 성싶다			고급 6B		

교재 다섯 종에 제시된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은 총 17개인데 그중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추측 양태 표현은 '-겠-,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ㄹ 텐데(요),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ㄹ까 보다, -(으)ㄹ걸(요)'로 총 7개 항목이며, 나머지는 교재마다 제시한 추측 양태 표현이 일정하지 않다.

추측 양태 표현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초급 중반부에서 중급의 중반부에 이르는 과정에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급과 중급에서 추측 양태 표현이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입증하는 것이다(이윤진·노지니, 2003:179). 5종의 교재에서 제시된 추측 양태 표현 중 초급·중급 단계에 제시된 표현들은 '-는/은/ㄴ 듯하다'를 제외하고 다른 표현들은 높은 중복도를 보였다. 그리고 고급 단계에 제시된 표현들은 '-(으)ㄹ 법하다'를 제외하고 다른 표현들은 각각 하나의 교재에서만 제시되어 낮은 중복도를 보였다. 이렇게 다섯 교재에서 높은 중복도로 제시되어 있는 초급·중급에서의 표현 항목들 '-(으)ㄹ 것이다, -겠-,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ㄹ 텐데(요),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ㄹ까 보다, -(으)ㄹ걸(요),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고급에서의 표현 항목 '-(으)ㄹ 법하다'는 한국어교육에서 중요도가 높은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5종 교재 중에서 3종 이상의 교재에 제시되어 교재 출현 빈도가 높은 추측 양태 표현, 즉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어 온 10개의 표현들 '-(으)ㄹ 것이다, -겠-,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ㄹ 텐데(요),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ㄹ까 보다, -(으)ㄹ걸(요), -(으)ㄴ/는/ㄹ 모양이다, -(으)ㄹ 법하다'를 연구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표 Ⅱ-7> 본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선정한 추측 양태 표현 항목

	추측 양태 표현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1	-(으)ㄹ 것이다	초급 1	2A	초급 2A	3-2	-
2	-겠-	초급 2	2B 4A	초급 2A 고급 5B	1-2 2-1	초급 1-2 고급 6
3	-(으)ㄴ/는/(으)ㄹ 것 같다	초급 2 초급 2	2B 4A	초급 2A 초급 2A 초급 2A	1-2 3-1	초급 2-1
4	-(으)ㄹ 텐데(요)	중급 1 중급 2	3A 3B	초급 2B 중급 3A	3-1	초급 2-2 중급 3-1
5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고급 1	3B	초급 2B 중급 4B	3-2	중급 3-2
6	-는가/(으)ㄴ가/나 보다	중급 1	4B	중급 3A	2-2	중급 3-2
7	-(으)ㄹ까 보다	중급 1	4A	중급 3B	3-2	중급 3-1
8	-(으)ㄹ걸(요)	고급 1	5B	중급 3B	3-1	중급 3-1
9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중급 2		중급 3B	3-1	초급 2-2
10	-(으)ㄹ 법하다	고급 2		고급 5B	6-1	

(2)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추측 양태 표현 사용 빈도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말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어떠한 추측 양태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안다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더 정확한 표현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어 화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추측 양태 표현을 안다면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추측 양태 표현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모두의 말뭉치'[16]를 구어 말뭉치와 문어 말뭉치로 나누어 분석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추측 양태 표현 사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선정한 추측 양태 표현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어떤 추측 양태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다. 추측 양태 표현은 항목별로 구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과 문어에

16) '모두의 말뭉치'(https://corpus.korean.go.kr) 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다양한 우리말 자원을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한 공간이며 2020.8.25.에 공개하였다.

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으므로 구어 말뭉치와 문어 말뭉치를 따로 조사하였다. 구어에 쓰이는 표현들을 분석하기 위해 일상 대화 말뭉치와 구어 말뭉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일상 대화 말뭉치에는 가족, 건강, 날씨, 먹거리, 선물, 여행지, 연애, 영화, 학교, 회사 등의 주제가 포함되는 자료로, 총 2,232개의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어 말뭉치에는 방송, 강연 등의 공적 자료, 드라마 대본 등의 준구어 자료로, 총 25,696개의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문어 말뭉치에는 책, 잡지, 보고서 등의 자료로 총 20,188개의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어에 쓰이는 표현을 분석하기 위해 일상대화 말뭉치와 구어 말뭉치에서 총 1400개 파일의 약 180만 어절 규모(약 47만 문장)의 말뭉치를 분석하였고 문어에 쓰이는 표현을 분석하기 위해 문어 말뭉치에서 총 500개 파일의 약 1900만 어절 규모(약 75만 문장)의 말뭉치를 분석하였다. 모두의 말뭉치는 'JSON'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엑셀(Microsoft Excel)를 활용하여 분석할 자료만을 포함된 'form' 부분을 추출하고 txt 파일로 변환한 후 'AntConc 3.5.8', '한마루 2.0' 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추측 양태 표현 사용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추측 양태 표현 형태만을 고려해 추측 양태 표현들을 추출하였다. 기본 검색에서 형태만을 고려해 검색했기 때문에 추측의 의미가 아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추측 양태 표현들도 검색되었다. 이는 추측 양태 표현 중에 추측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표현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지나 의도 등 다른 의미를 가지는 표현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일차적 결과를 바탕으로 동음이의어나 형태만 같은 항목이 검색된 경우는 일일이 추측 양태 표현이 활용된 문장을 읽어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을 빈도수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추측의 의미와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는 표현은 추측 양태 표현으로 간주하여 빈도에 포함하였다. 그 후, 말뭉치 분석에서 나타난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각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의 절대 빈도를 조사하고 다음으로 항목 간의 상대 빈도를 측정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검색된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 빈도는 다음과 같다. 다음 <표 II-8>은 구어에서 추측 양태 표현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Ⅱ-8> 구어에서 나타난 추측 양태 표현의 빈도

	추측 양태 표현	빈도	비율
1	-(으)ㄴ/는/(으)ㄹ 것 같다	11942	56.09%
2	-겠-	6443	30.26%
3	-(으)ㄹ 것이다	855	4.02%
4	-(으)ㄹ 텐데(요)	649	3.05%
5	-(으)ㄴ/는/ㄹ지(도) 모르다	642	3.02%
6	-는가/(으)ㄴ가/나 보다	293	1.38%
7	-(으)ㄹ걸(요)	235	1.03%
8	-(으)ㄹ까 보다	155	0.73%
9	-(으)ㄹ 법하다	39	0.18%
10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36	0.17%
	합계	21289	100%

구어에서 10% 이상의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 것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겠- '이며 그중에서도 구어에서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빈도가 '56.09%'로 제일 높음을 볼 수 있다. 1% 이상의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 것은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ㄹ걸(요)'이다. 그 밖의 '-(으)ㄹ까 보다, -(으)ㄹ 법하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1% 이하의 낮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 <표 Ⅱ-9>는 문어에서 추측 양태 표현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Ⅱ-9> 문어에서 나타난 추측 양태 표현의 빈도

	추측 양태 표현	빈도	비율
1	-겠-	42003	31.63%
2	-(으)ㄹ 것이다	37516	28.25%
3	-(으)ㄴ/는/(으)ㄹ 것 같다	27284	20.54%
4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8572	6.45%
5	-(으)ㄹ 텐데(요)	7437	5.60%
6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5874	4.42%
8	-는가/(으)ㄴ가/나 보다	2972	2.24%
9	-(으)ㄹ까 보다	700	0.53%

10	-(으)ㄹ 법하다	308	0.23%
11	-(으)ㄹ걸(요)	147	0.11%
	합계	132813	100%

문어에서는 10% 이상의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 것은 '-겠-, -(으)ㄹ 것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이며, 그 중 '-겠-'의 빈도가 제일 높음을 볼 수 있다. 1%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으)ㄹ 텐데(요),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이다. 그 밖의 '-(으)ㄹ까 보다, -(으)ㄹ 법하다, -(으)ㄹ걸(요)'은 1% 이하의 낮은 빈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구어와 문어의 빈도와 비율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어와 문어는 말뭉치의 규모가 다르므로 완벽하진 않지만 절대 빈도를 단순 환산 방식으로 한 상대 빈도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표 II-10> 구어와 문어에서 나타난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 빈도

	추측 양태 표현	구어		추측 양태 표현	문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으)ㄴ/는/(으)ㄹ 것 같다	11942	56.09%	-겠-	42003	31.63%
2	-겠-	6443	30.26%	-(으)ㄹ 것이다	37516	28.25%
3	-(으)ㄹ 것이다	855	4.02%	-(으)ㄴ/는/(으)ㄹ 것 같다	27284	20.54%
4	-(으)ㄹ 텐데(요)	649	3.05%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8572	6.45%
5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642	3.02%	-(으)ㄹ 텐데(요)	7437	5.60%
6	-는가/(으)ㄴ가/나 보다	293	1.38%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5874	4.42%
7	-(으)ㄹ걸(요)	235	1.03%	-는가/(으)ㄴ가/나 보다	2972	2.24%
8	-(으)ㄹ까 보다	155	0.73%	-(으)ㄹ까 보다	700	0.53%
9	-(으)ㄹ 법하다	39	0.18%	-(으)ㄹ 법하다	308	0.23%
10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36	0.17%	-(으)ㄹ걸(요)	147	0.11%
	합계	21289	100%	합계	132813	100%

먼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추측 양태 표현 항목 중 구어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경우와 문어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경우를 사용 빈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구어에서 제일 높은 빈도를 보이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문어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문어에서 제일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겠-'은 구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문어에서 두 번째로 높은 27.54%의 빈도를 보인 '-(으)ㄹ 것이다'는 구어에서는 3.73%의 빈도를 보였는데 상대적인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경우 구어에서는 1% 미만의 빈도로 사용 빈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문어에서는 4.42%의 빈도를 보여서 구어와 문어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으)ㄹ걸(요)' 또한 문어에서 1% 미만의 빈도로 나타났으나 구어에서는 1.03%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으)ㄹ까 보다'와 '-(으)ㄹ 법하다'는 구어와 문어의 사용 빈도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말뭉치에서 나타난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 빈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비율이 1% 미만인 '-(으)ㄹ까 보다'와 '-(으)ㄹ 법하다'를 제외하고 다른 나머지 추측 양태 표현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이차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표 Ⅱ-11> 본 연구에서 이차적으로 선정한 추측 양태 표현 항목

	추측 양태 표현
1	(으)ㄴ/는/(으)ㄹ 것 같다
2	-겠-
3	-(으)ㄹ 것이다
4	-(으)ㄹ 텐데(요)
5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6	-는가/(으)ㄴ가/나 보다
7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8	-(으)ㄹ걸(요)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미얀마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교수가 필요한 추측 양태 표현만을 한정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즉, 미얀마인 학습자가 학습 시 서로 간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려운 유사 문법 항목의 추측 양태 표현만을 선정할 것이다.

문법 항목의 유사성으로 인해 목표어 내 전이 현상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이지용, 2017:278). 따라서 학습자들이 혼동되고 오류가 생기는 유사 문법 항목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밝혀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Underwood(1951)에서도 유사한 항목을 함께 학습하면 서로 혼동을 일으키므로 유사성이 감소하도록 구별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문법 항목 간의 유사성으로 인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혼동을 느끼며 문법 항목 간의 차이를 변별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거나 사용 회피를 하게 하는 문법 항목들을 연구 항목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지용(2017)에서 문법 항목 사이 유사성은 '음운', '형태', '통사', '의미'의 측면에서 서로 비교할 때 발생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또한 이 논의에서 학습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되는 항목에 대한 분류를 제시하였는데 '형태적 유사성'과 '의미적 유사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유사 문법 항목을 형태 유사군, 의미 유사군, 복합 유사군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의미적 유사성'과 이에 따른 의미 유사군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의미적 유사성이란, 문법 항목 사이에서 의미적 기능이 유사한가와 관련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법 항목이 가지는 의미란, 통사적 기능과 의미적 기능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데, 통사적 기능은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적 기능을 뜻하며, 의미적 기능은 문법 항목이 가지는 의미를 뜻한다. 유사성이 발생한 항목들은 문장 내에서 서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이는 같은 계열 관계에 있는 항목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문장과 맥락에서 완벽하게 교체가 가능한 절대적 동의성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로 교체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이라 해도 제약에 차이가 있거나, 문법 항목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 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법 항목들의 미세한 의미 차이나 제약 등의 차이점을 고려하기에 앞서, 의미·통사적 기능의 유사성을 판단하여 먼저 유사군으로서 분류한 후, 상이한 부분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통사 및 의미 기능이 유사하여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문법 항목들을 의미적 유사성이 있는 항목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때 통사적 유사성은 의미적 유사성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통사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의미적 유사성이 있는 항목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문법 항목의 의미적 유사성은 통사적 유사성을 전제로 하므로, 의미 비교에 앞서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이차적으로 선정된 8개의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 '-겠-, -(으)ㄹ 것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에 대한 의미적 유사성을 판정하였다.

(3) 저 사람은 {학생이겠어요, 학생일 거예요, 학생일 텐데요, 학생일걸요, 학생인가 봐요, 학생인 모양이에요, 학생일 것 같아요, 학생일지도 몰라요}.

예문 (3)처럼 '-겠-, -(으)ㄹ 것이다, -(으)ㄹ 것 같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모두 평서형에서 쓰이는 공통적인 통사적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여덟 개 추측 양태 표현들은 서로 교체되기 때문에 의미적 유사 문법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이 표현들을 학습할 때 서로 간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유사 문법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표현들 모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확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최종 추측 양태 표현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2> 연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추측 양태 표현 항목[17]

	추측 양태 표현
1	-겠-
2	-(으)ㄹ 것이다
3	(으)ㄹ 텐데(요)
4	-(으)ㄹ걸(요)
5	-(으)ㄴ/는/(으)ㄹ 것 같다
6	-는가/(으)ㄴ가/나 보다
7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8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추측 양태 표현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주로 미얀마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 교수·학습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조사를 실시한 시기는 미얀마 대학의 2학기이므로 3, 4학년 학습자들은 모두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을 이미 학습한 상태이다. 국립국어원에서 게시한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의 문법 등급 목록에서 7개의 표현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1~4급에 수록되었다.

2.2.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특성

본 절에서는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 항목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특성을 형태·통사적, 의미적, 담화·화용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구성 특성은 크게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 구성에는 선어말어미 '-겠-'과 종결어미 '-(으)ㄹ걸(요)'가 있다. 복합 구성에는 '관형형 어미+의존명사+이다, 관형형 어미+보조용언, 관형형 어미+의존명사+형용사, 의문문 어미+동사, 명사형 어미+동사'가 있다. -(으)ㄹ 것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관형형+의존명사+이다'로 이루어진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관형형 어미+의존명사+형용사'로 결합된 구성이다. 그리고 '-는가/(으)ㄴ가/나 보다'는 의문문 어미+동사로 결합되어 있으며, '-(으)ㄴ/는/(으)ㄹ지 모르다'는 명사형 어미+동사로 결합되어

17)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결 표현의 경우 기본형을 '-다'로 제시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교재에서 역시 '-(으)ㄹ 거예요', '-(으)ㄹ 겁니다'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시 형태가 교재마다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필수 항목으로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다'를 제시하면 학습자가 학습한 종결 표현에 따라서 결합시켜 스스로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있다. 이것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3> 추측 양태 표현의 구성 특성

구성적 분류		문법 항목
단일 구성	선어말어미	-겠-
	종결어미	-(으)ㄹ걸(요)
복합 구성	의존 명사 구성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18],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는/(으)ㄴ/(으)ㄹ 것 같다
	보조 용언 구성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은 단일 형식 차원에서와 복합 형식 차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단일 형식의 표현에서는 추측의 의미가 하나의 형태소로 굳어져 문장에서 실현되는 것을 말하며 곧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에 해당한다. 복합 형식의 표현에서는 단일 형식 차원과 같이 공통된 추측의 의미 속성을 보이나 이들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의 형식으로는 의존명사 구성과 보조 용언 구성이 있다.

추측 양태 표현들은 문장 안에서 문법적으로 실현되며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형식과 복합 형식의 문장 안에서 나타나는 추측의 공통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 표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담화·화용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2.1.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

본고에서 선정된 여덟 가지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의 형태·통사적 특성은

18) 추측 의미를 가진 '-(으)ㄹ 텐데'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종결형에서 쓰이는 경우와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종결형에서 쓰이는 추측 양태 표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알아보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으)ㄹ 텐데'의 특성을 살펴볼 때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경우를 보지 않고, 종결형에서 쓰이는 경우만 살펴보도록 한다.

결합 용언, 주어 인칭, 문장 유형, 그리고 어미와의 결합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추측 양태 표현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우선 추측 양태 표현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결합 용언에 제약이 없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추측 양태 표현들은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총 8개의 표현이다. 이 표현들은 '-겠-'과 같은 선어말어미, '-(으)ㄹ걸(요)'와 같은 종결어미, '-(으)ㄹ 것이다' 등과 같은 우언적 구성, 즉 복합적 구성 등 다양한 형태적 기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서술된 사태가 화자의 추측이라는 점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들은 다음 예문과 같이 모두 '눈이 오다'라는 명제와 결합하여 이 명제가 화자의 추측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상 공통점은 이들 각 표현을 그 상이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추측 양태 표현'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4) 눈이 (오겠어요, 올 거예요, 올 텐데요, 올걸요, 오나 봐요, 올 모양이에요, 올 것 같아요, 올지도 몰라요).

이러한 의미적 공통점은 가진 다양한 추측 양태 표현들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비슷하게 또 어떤 면에서는 차이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비교 기술이 꼭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들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주어 인칭 제약, 문장 유형 제약, 어미와의 제약으로 구분하여 비교 기술하도록 한다.

(1) 주어 인칭 제약

주어 인칭 제약이란 해당 문형이 사용된 문장의 주어 인칭에 대한 제약을 뜻한다. 여기에서 추측 양태 표현들 '-겠-'[19], '-(으)ㄹ 것이다'[20],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21], '-(으)ㄴ/는/(으)ㄹ 모

양이다'[22],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가 1인칭, 2인칭, 3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인칭 주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화자 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미래의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추측할 일이 거의 없다. 화자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 화자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잘 아는 일은 추측의 대상이 아

---

19) '추측'의 의미를 가진 '-겠-'의 주어 인칭에 대한 통사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학자마다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서정수(1977), 이선영(2006), 유민애(2010), 오승은(2018), 정미홍(2021)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겠-'은 인칭 제약 없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윤진·노지니(2003), 이효정(2003), 정유남(2006), 이상숙(2021) 등에서는 추측 의미의 '-겠-'은 화자가 1인칭일 경우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또는, 강현주(2010), 정경미(2016), 손혜옥(2016), 강현화 외(2017), 탕이잉(2023)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1인칭 추측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럽지만, 특별한 경우에서는 1인칭과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전나영(1999)에서는 '-겠-'은 화자가 자신의 짐작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현하는 데 쓰이므로 확실성이 가장 높은 화자 자신이 주어인 1인칭과 많이 사용되며, 3인칭 주어의 상황에 대해서는 화자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기 어렵고, 3인칭 경우에는 과거 사태에 대해서만 추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 '추측'의 의미를 가진 '-(으)ㄹ 것이다'도 '-겠-'의 경우처럼 주어 인칭에 대한 통사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학자마다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서정수(1978), 전나영(1999), 이윤진·노지니(2003), 이선영(2006), 강현주(2010), 오승은(2018) 등에서는 '-(으)ㄹ 것이다'가 추측을 의미할 때는 주어의 제약이 없으며 모든 용언과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효정(2003), 정미홍(2021), 허지이 외(2021) 등에서는 추측의 '-(으)ㄹ 것이다'는 인칭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정경미(2016), 손혜옥(2016), 강현화 외(2017), 이상숙(2021) 등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1인칭 추측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럽지만, 특별한 경우에서는 1인칭과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21) '-는가/(으)ㄴ가/나 보다'도 주어 인칭에 대한 통사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학자마다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이효정(2003), 허지이 외 (2021)에서는 '-는가/(으)ㄴ가/나 보다'가 2인칭과 3인칭에서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1인칭과는 결합할 수 없다고 한 반면, 이윤진·노지니(2003), 변정민(2008), 강현화 외(2016, 2017), 박주연(2016), 정경미(2016), 손혜옥(2016), 이상숙(2021), 정미홍(2021)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와 함께 쓰면 부자연스럽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1인칭 주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22)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도 '-는가/(으)ㄴ가/나 보다'처럼 주어 인칭에 대한 통사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효정(2003), 한명주(2008), 허지이 외(2021)에서는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2인칭과 3인칭에서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1인칭과는 결합할 수 없다고 한 반면, 김정혜(1997), 이윤진·노지니(2003), 안주호(2004), 강현화 외(2017), 박주연(2016), 정경미(2016), 손혜옥(2016), 이상숙(2021), 정미홍(2021)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와 함께 쓰면 어색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1인칭 주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니므로 1인칭 추측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럽다(안명철, 1983; 김정혜, 1997; 이효정, 2003; 박주연, 2016; 정경미, 2016; 강현화 외, 2017). 그러므로 대부분의 추측 양태 표현은 1인칭 주어를 취하기 어렵다는 주어 제약이 있다.

또한 2인칭 주어는 1인칭 주어만큼 어색하지는 않지만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보통의 발화 상황은 화자와 청자가 마주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청자의 사건이나 사태를 투명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안명철, 1983; 정경미, 2016). 따라서 직접 지각하고 있는 사건이나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창자를 대면하고 있지 않은 전화 상황이나 편지와 같은 서면 상황에서는 추측 양태 표현이 자연스럽게 된다. 또한 청자가 눈앞에 있어도 청자의 내면에서만 느껴지는 청자의 내성에 대해서도 추측이 자연스럽다. 화자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나 현재 화자의 감정 상태는 화자 자신에게 확실하므로 '추측'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상대의 상태나 심리, 감각 등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측하여 표현한다.

이에 비해 3인칭 주어는 제약이 없이 추측 양태 표현에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 이것은 화자가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추측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추측의 본질적 의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예문(5)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

가. {*나는, *너는, 지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겠다.
나. {*나는, *너는, 지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다. {*나는, *너는, 지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라. {*나는, *너는, 지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을걸.
마. {*나는, *너는, 지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 보다.
바. {*나는, *너는, 지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양이다.
사. {*나는, *너는, 지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다.
싸. {*나는, *너는, 지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예문 (5)는 현재 행위에 대해 추측을 하는 상황이다. 현재 행위에 대한 추측에서 명제문의 주어로는 3인칭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화자 본인의 행위 즉 스스로 의도한 명확한 사건에 대한 1인칭 추측과 화자가 눈앞에서 청자의 행위나 상태를 직접 지각하고 있는 명확한 사건에 대한 2인칭 추측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볼 수 있다.

(6)

가. {*나도, 너도, 지수도} 지금 이 일로 머리가 아프겠다. (허지이 외, 2021:183)

나. {*나도, 너도, 지수도} 지금 이 일로 머리가 아플 것이다.

다. {*나도, 너도, 지수도} 지금 이 일로 머리가 아플 텐데.

라. {*나도, 너도, 지수도} 지금 이 일로 머리가 아플걸.

마. {*나도, 너도, 지수도} 지금 이 일로 머리가 아픈가 보다.

바. {*나도, 너도, 지수도} 지금 이 일로 머리가 아픈 모양이다.

사. {나도, 너도, 지수도} 지금 이 일로 머리가 아픈 것 같다.

싸. {*나도, 너도, 지수도} 지금 이 일로 머리가 아플지도 모른다.

예문 (6)은 현재 상태에 대해 추측을 하는 상황인데, 명제문의 주어로는 2인칭, 3인칭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 있다. 2인칭의 경우, 청자가 눈앞에 있어도 청자의 내면에서만 느껴지는 청자의 내성에 대해 화자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므로 추측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인칭의 경우도, 화자가 다른 사람의 내적 상태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추측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화자 본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추측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즉 화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화자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이므로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경우 화자가 현재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하여 추측으로 나타내는 것은 특별한 맥락이 아니면 어색하게 느껴졌으나 화자의 현재 심리 상태나 감각 상태를 나타낼 때는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과 달리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화자가 '-(으)ㄴ/는/(으)ㄹ 것 같다'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 자신의 심리나 감각적 상태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은 이러한 쓰임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위 예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심리 형용사와 결합하여 화자의 내적 심리 상태에 대해서 추측하는 데 쓰일

수 있는데 이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만이 지니는 특성이다.

이러한 1인칭 주어 제약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과거의 명확한 일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미래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화자가 자신을 주어로 하여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23]. 그러므로 미래 상태에 대해 추측을 하는 상황인 예문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인칭 주어 사용이 제약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1인칭 주어의 미래 사태에 대한 추측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7)

가. 나는 내일 10시에 공부하고 있겠다.

나. 나는 내일 10시에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다. 나는 내일 10시에 공부하고 있을 텐데.

라. 나는 내일 10시에 공부하고 있을걸.

마. *나는 내일 10시에 공부하고 있으려나 보다.

바. *나는 내일 10시에 공부하고 있을 모양이다.

사. 나도 내일 10시에 공부하고 있을 것 같다.

싸. 나는 내일 10시에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과거 상황이나 현재 상황, 즉 화자가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희미하거나 화자의 주체적 행동이 어려운 비통제적 상황, 그리고 화자가 자신이 미처 몰랐던 사실을 타인의 행위와 상태처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안명철, 1983; 김정혜, 1997; 이효정, 2003; 박주연, 2016; 정경미, 2016; 강현화 외, 2017). 즉 추측 양태 표현

---

23) 가. 나는 오늘 학교에 가겠다. (의도, 추측) (박재연, 2004:29)
나. 내가 이번 출장을 가겠어. (의도, 추측) (박주연, 2016:59)
다. 내가 이길 것이다. (의도, 추측) (신성인, 2017:16)
위의 예문들은 일반적으로 추측보다는 의도의 용법으로 많이 쓰이는 문장이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박재연, 2004; 박주연, 2016; 신성인, 2017). 박재연(2004)에서 양태 의미의 작용 대상이 되는 명제는 정보 내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행위 내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의 예문(가~다)처럼 일반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어떤 문맥에서는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들은 1인칭 화자의 행위나 상황을 기술하는 데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화자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행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기술할 경우에는 1인칭 주어와 함께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화자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 통제할 수 없었던 행위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할 때는 추측 양태 표현이 용인되는 것이다.

다음 예문 (8)은 화자가 주체가 된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데, 화자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분명치 않을 수 있으므로 추측 양태 표현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모든 추측 양태 표현들은 1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된다.

(8)

가.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실수했겠다. (손혜옥, 2016:131)
나.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실수했을 거야.
다.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실수했을 텐데.
라.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실수했을걸.
마.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실수했나 봐.
바.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실수했던 모양이야.
사.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실수했을 것 같아.
싸.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실수했을지도 몰라.

또한, 다음 예문 (9)는 화자가 현재 상황에 대해 추측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자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혹은 비자발적인 상황에서는 추측 양태 표현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도 모든 추측 양태 표현들은 1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된다.

(9)

가. 제가 언니보다 노래는 더 잘하겠어요.
나. 제가 언니보다 노래는 더 잘할 거예요.
다. 제가 언니보다 노래는 더 잘할 텐데요.
라. 제가 언니보다 노래는 더 잘할걸요.
마. 제가 언니보다 노래는 더 잘하나 봐요.
바. 제가 언니보다 노래는 더 잘한 모양이에요.

사. 제가 언니보다 노래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싸. 제가 언니보다 노래는 더 잘할지도 몰라요.

다음 예문(10)은 현재 시점이라 하더라도 화자가 자신이 미처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음을 의미하는 상황이다[24]. 화자가 과거나 현재에서의 본인의 사태에 대해서 이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발화하는 현재 스스로 인식하게 되어 자신을 객관화하여 말할 경우에는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때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쓰임이 자연스럽지만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는 어색한 것을 다음 예문과 같이 볼 수 있다.
(10)
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겠어.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할 거야.
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할 텐데.
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할걸.
마.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나 봐.
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는 모양이야.
사.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는 것 같아.
싸.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는 걸지도 몰라.

또한 비현실, 반현실 사건 즉 가정된 사건인 상황을 전제한 추측에도 1인칭 제약이 해소된다. 이때 다음 예문 (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추측 양태 표현들이 1인칭 주어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1)
가. 철수가 떠난다면 내가 무척 슬프겠다.
나. 철수가 떠난다면 내가 무척 슬플 것이다.

24) 오승은(2014)에서는 이에 대해서 '뒤늦은 깨달음'이라고 하였다.

다. 철수가 떠난다면 내가 무척 슬플 텐데.
라. 철수가 떠난다면 내가 무척 슬플걸.
마. *철수가 떠난다면 내가 무척 슬플 건가 보다.
바. *철수가 떠난다면 내가 무척 슬플 모양이다.
사. 철수가 떠난다면 내가 무척 슬플 것 같다.
싸. 철수가 떠난다면 내가 무척 슬플지도 모른다.

위의 예문 (11)은 가정된 사건인 상황인데 이때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1인칭 주어와 사용된다. 그러나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가정적 상황에서 1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보면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명제 주어가 1인칭일 때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에 대해서는 매우 제약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발화 상황에서 이렇게 지각한 정보가 없이, 화자가 스스로의 상식이나 논리적 추론과 같은 내적 근거에 의해 새로운 가상 세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추측할 때는 사용될 수 없다[25]. 이는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발화 상황에서 지각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26].

따라서 추측 양태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와의 호응이 부자연스럽거나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경우 추측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1인칭 주어 제약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예문들에서 살펴보았듯이 발화 상황에 따라 여덟 개 표현들 '-겠-, -(으)

25) 손혜옥(2016)에서는 이들 표현이 기본적으로 비현실과 반현실 상황에서의 사용이 제약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명정희(2018)에서는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추측 시점에 직접 지각한 증거나 전언을 통해 알게 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하였다. 이상숙(2021: 113)에서는 이들 표현들이 가지는 관찰자적 태도로 인해 화자가 자신과 관련된 완료된 사태나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을 대상화하여 관찰이 가능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태에 대해서는 화자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기술하였고, 탕이잉(2023: 115)에서는 미래 상황이 현재 또는 과거 상황의 원인이 되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술하였다.
26) 이러한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사용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문장 유형 제약

문장 유형에 대한 제약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은 다음 예문 (12)와 같이 모두 평서문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청유문과 명령문에서는 쓸 수 없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추측 양태 표현들은 추측의 의미가 화자의 인식이나 판단과 관련되는 의미적 특성상 사태를 나타내는 평서문에 잘 쓰이고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문과 청유문에 쓰이지 않는 것이 공통적이다. 이는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는 의미·기능이 명령이나 청유의 서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문문에서는 그 사용 양상이 다르다. '-겠-'[27]과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예문 (12)와 같이 의문문에서 제약이 없지만 '-(으)ㄹ 것이다'[28],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29], '-(으)

---

27) '-겠-'이 의문형으로 사용될 경우 화자가 청자의 의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청자의 판단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자의 목적에 따라 의문문에서 '-겠-'은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가. 손님, 다른 색의 옷도 입으시겠어요? (국립국어원, 2005)
나. 지수가 장학금을 받겠어요?

28) 추측의 의미로 해석되는 '-(으)ㄹ 것이다'는 평서문에서 의문문으로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는 의미상의 제약이다. 오승은(2018: 98)에서 화자의 믿음에 의한 명제 내용의 사태 실현성 판단인 '-(으)ㄹ 것이다'는 평서문에서 양태 의미 담지자가 화자인 것만 허용하고 청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의종(2012, 43)에서 의지나 예정의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추측의 의미로 쓰인 '-(으)ㄹ 것이다'는 의문문에 쓸 수 없다고 하였다.
가. 철수가 학교에 있겠어? (이의종, 2012:43)
나. *철수가 학교에 있을 거야? (추측의 의미일 때) (이의종, 2012:43)
이의종(2012)는 주관성의 정도가 높은 추측 문법소는 의문문 구성에서 청자를 추측 주체로 상정하지만, 주관성의 정도가 낮은 추측 문법소는 의문문 구성에서 청자를 추측 주체로 상정한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하였다.

29) 안주호(2004)에서 '-나 보다'는 유사의문문에서 가능하나 이 경우는 의문문의 형식을 빌린 진술물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이윤진·노지니(2003)에서는 확인의 뜻을 지닌 '-지요?'와는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가. 몸이 어째 안 좋은가 봐? (안주호, 2004:13)

ㄴ/는/(으)ㄹ 모양이다'[30],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31]는 의문문 제약을 받는다. '추측'의 양태 표현 가운데 '-(으)ㄹ걸(요)', '-(으)ㄹ 텐데(요)'는 평서형 종결어미이므로 평서문이 아닌 다른 문장 유형으로 쓰일 수 없다. 따라서 '-(으)ㄹ걸(요)', '-(으)ㄹ 텐데(요)'는 (12)의 예문 검증에서 제외한다.

(12)

가. 내일 비가 {오겠다, 오겠냐?, *오겠어라, *오겠자}.

나.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올 것 같냐?, *올 것 같아라, *올 것 같자}.

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냐?, *올 것이어라, *올 것이자}.

라. 내일 비가 {오려나 보다, *오려나 보냐?, *오려나 봐라, *오려나 보자}.

마. 내일 비가 {올 모양이다, *올 모양이냐?, *올 모양이어라, *올 모양이자}.

바.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 *올지도 모르냐?, *올지도 몰라라, *올지도 모르자}.

(3) 어미 '-았/었/였-', '-네', '-구나', '-지'와의 결합 제약

1) 선어말어미'-았/었/였-'과의 결합 제약

추측 양태 표현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

나. 그가 아직 안 왔나 봐? (안주호, 2004:13)

다. 비가 오나 보지요? (이윤진·노지니, 2003:191)

30) 한명주(2008)에서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의문형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반면, 이윤진·노지니(2003), 안주호(2004), 한정한 외(2011), 김경열(2021), 이상숙(2021), 허지이 외(2021) 등은 의문문이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하였다. '-(으)ㄹ 모양이다'는 청자와 제3자의 판단은 나타내지 못하고 화자의 판단만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의문문 제약을 받는다는 주장에 따른다. 안주호(2004)에서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유사의문문에서는 가능하나 이 경우는 의문문의 형식을 빌린 진술물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이윤진·노지니(2003)에서는 확인의 뜻을 지닌 '-지요?'와는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가. 희빈이는 붙은 모양이디? (안주호, 2004:13)

나. 어디 아픈 모양인가? (안주호, 2004:13)

다. 비가 오는 모양이지요? (이윤진·노지니, 2003:191)

31) 안주호(2004), 김경열(2021)에서도 의문문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권혜진(2020)에서는 의문형 어미는 일반적인 의문형 어미라기보다는 '-지요', '-잖아요', '-ㄴ/는다고요' 등의 어미를 사용해 확인의문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ㄹ지(도) 모르다'는 다음 예(13)과 같이 과거를 나타내는 선행의 선어말어미 '-았/었/였-'에 제약 없이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았/었/였-'과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겠-'[32], '-(으)ㄹ 것이다'[33],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34]는 후행의 선어말어미 '-았/었/였-'에 제약이 있는 반면,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후행의 선어말어미 '-았/었/였-'에 제약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으)ㄹ걸(요)', '-(으)ㄹ 텐데(요)'는 종결형 어미이므로 후행 어미와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후행 어미'-았/었/였-'과의 결합 검증에서 제외한다.

(13)

가. 어제 비가 많이 {왔겠다/ *오겠었다}.

나. 어제 비가 많이 {왔을 것이다/ *올 것이었다}.

다. 어제 비가 많이 {왔을 텐데요}.

라. 어제 비가 많이 {왔을걸요}.

마. 어제 비가 많이 {왔나 보다/ *오나 봤다}.

바. 어제 비가 많이 {*왔을 모양이다(온 모양이다)/ 올 모양이었다}.

사. 어제 비가 많이 {왔을 것 같다(온 것 같다)/ 올 것 같았다}.

싸. 어제 비가 많이 {왔을지도 모른다/ *올지도 몰랐다}.

---

32) 신성인(2017)에서 '-겠었-'의 연쇄는 어색한데, '모르겠다, 죽겠다' 등 일부 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였다.
가. 몸이 아파 죽겠었는데, 약을 먹으니 좀 나아졌다. (신성인, 2017: 19)
나. 아무래도 답을 모르겠었는데, 힌트를 들으니 푸는 방법이 생각났다. (신성인, 2017: 19)

33) 박재연(2018: 132)에서도 '-(으)ㄹ 것이다'는 과거 시제의 '-었-'을 선행시킬 수도 있고 후행시킬 수도 있는데 이때 쓰이는 의미는 다음 (가)의 '-(으)ㄹ 것이다'는 추측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나'의 '-(으)ㄹ 것이다'는 추측이라기보다는 예정에 가깝다고 하였다.
가. 3시에 회의가 열렸을 것이다. (추측) (박재연, 2018:132)
나. 3시에 회의가 열릴 것이었다. (예정) (박재연, 2018:132)

34) 위의 예문 (13.싸)의 '어제 비가 올지도 몰랐다.'처럼 선어말어미 '-았/었/였-'이 후행하면 '모르다'가 추측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본동사의 의미'알지 못함'의 의미로 가진 것이다. 이상숙(2021)에서도 일반적으로 '모르다'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화자의 판단이 발화하는 현재에 일어났음을 나타내지만, 경우에 따라서 문어에서 '몰랐다'를 사용하여 화자의 과거 인지 사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사용은 아니라고 하였다.

2) 종결어미 '-네', '-구나', '-지'와의 결합 제약

여기에서는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들과 '의외성' 또는 '새로 앎'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네', '-구나'와 '이미 앎'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지'와의 결합 제약을 살펴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네', '-구나'로 종결되는 문장에 따른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의 사용 제약을 감탄문이라는 문장 유형 제약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박진호(2011b: 9~10)에서는 문장 유형은 일반적으로 상호주관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감탄문은 상호주관적인 성격 없이 단지 주관적인 성격만 지니는 측면이 있는 것이므로 문장 유형의 하위 유형으로 취급될 필요가 없으며, '-네, -구나'는 의외성을 그 핵심 의미성분으로서 지닌다고 하였다. 박재연(2013: 87)에서도 '-네, -구나'는 단순히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미가 아니라 청자에 대한 전달 기능 및 유사 질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탄문 어미라고 할 수 없으며 '의외성'을 나타내는 형식이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네'와 '-구나'를 '의외성', '새로 앎'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보고, 추측 양태 표현과 이들 종결어미와의 결합 제약을 문장 유형이 아닌 종결어미와의 제약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미 앎'의 의미 속성을 가지는 종결어미 '-지'가 추측 양태 표현과의 제약도 종결어미와의 결합의 하나로 보고자 한다.

다음 예문 (14)에서 볼 수 있듯이 추측 양태 표현의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종결어미 '-네, -구나, -지'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반면, '-(으)ㄹ 것이다'는 결합하지 못한다. '-(으)ㄹ걸(요)', '-(으)ㄹ 텐데(요)'는 종결형 어미이므로 후행 어미와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결어미 '-네, -구나, -지'와의 결합 검증에서 제외한다.

(14)

가. 철수가 학교에 {있겠네, 있겠구나, 있겠지}.

나. *철수가 학교에 {있을 거네, 있을 거구나, 있을 거지}.

다. 철수가 학교에 {있는가 보네, 있는가 보구나, 있는가 보지}.

라. 철수가 학교에 {있는 모양이네, 있는 모양이구나, 있는 모양이지}.

마. 철수가 학교에 {있을 것 같네, 있을 것 같구나, 있을 것 같지}.

바. 철수가 학교에 {있을지도 모르네, 있을지도 모르는구나, 있을지도 모르

지}.

추측 의미의 '-(으)ㄹ 것이다'가 '-네, -구나'와의 결합이 가능 여부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는데 박진호(2011), 다카치 토모나리(2014), 손혜옥(2016), 박재연(2018), 탕이잉(2023) 등은 '-(으)ㄹ 것이다'가 추측의 의미로 쓰일 수 없다고 기술한 반면 한명주(2008), 김경열(2021)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술하였다. 박진호(2011: 18), 손혜옥(2016: 193)에서 '-겠-'은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는 데에 주로 사용되지만 '-(으)ㄹ 것이다'는 그렇지 않은데, 이는 '-(으)ㄹ 것이다'의 '이미 앎'의 의미와 '-네, -구나'가 가진 '새로 앎'의 의미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탕이잉(2023: 122)에서는 '-(으)ㄹ 것이다'가 '-네, -구나'와 같이 쓰이지 못하는 것은 '-(으)ㄹ 것이다'가 지각 정보가 아닌 화자의 인식체계에 내재하던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이는 의미적 특성과 직결된다고 하였다. 박재연(2018: 121~122, 128~129)에서는 '-(으)ㄹ 것이다'가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맥에서는 '-네, -구나, -지'와 대체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지만,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는 결합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35]. 본 연구에서도 이 논의에 따라 '-(으)ㄹ 것이다'는 추측의 의미로 '-네, -구나, -지'와 같이 결합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여덟 개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5) 박재연(2018: 128~129)에서 '-(으)ㄹ 것이다'와 '-네, -구나, -지'의 결합은 다음 예문처럼 대체로 자연스럽지만 이때 모두 추측 상황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는 하였다.
가. 너 이번에는 토론 대회 안 나갈 거네? (박재연, 2018: 129)
나. 짐 다 싸 놓은 거 보니 너 내일 출발할 거구나. (박재연, 2018: 129)
다. 너 내일 학교 안 갈 거지? (박재연, 2018: 129)

<표 II-14>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

구분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 모르다
주어 인칭	1 인칭	일반 상황	동작 동사0 (과거X, 현재X)	동작 동사0 (과거X, 현재X)	동작동사0 (과거X, 현재X)	동작동사0 (과거X, 현재X)	동작동사 X (과거X, 현재X, 미래X)	동작동사X (과거X, 현재X, 미래X)	동작 동사0 (과거X, 현재X)	동작 동사0 (과거X, 현재X)
			상태동사 X	상태동사 X	상태동사 X	상태동사 X	상태동사 X	상태동사 X	상태동사 0	상태동사 X
		특정 상황	불확실한 인지 사태0 (현재,과거)	불확실한 인지 사태 0 (현재, 과거)	불확실한 인지 사태 0 (현재, 과거)	불확실한 인지 사태 0 (현재, 과거)	새롭게 깨달았음 0 (현재,과거)	새롭게 깨달았음 0 (현재, 과거)	불확실한 인지 사태 0 (현재, 과거)	불확실한 인지 사태0 (현재,과거)
			가정'(으)면' 선행절 0	가정'(으)면 '선행절 0	가정'(으)면 '선행절 0	가정'(으)면 '선행절 0	가정'(으)면'선행절 X	가정'(으)면' 선행절 X	가정'(으)면 '선행절 0	가정'(으)면' 선행절0
	2인칭		동작 동사 (현재 X)	동작 동사 (현재 X)	동작 동사 (현재 X)	동작 동사 (현재 X)	동작 동사 (현재 X)	동작 동사 (현재 X)	동작 동사 (현재 X)	동작 동사 (현재 X)
			상태동사 0	상태동사 0	상태동사 0	상태동사 0	상태동사 0	상태동사 0	상태동사 0	상태동사 0
	3인칭		동사 0	동사 0	동사 0	동사 0	동사 0	동사 0	동사 0	동사 0
문장 유형			의문문 0	의문문 X	의문문 X	의문문 X	의문문 X	의문문 X (의문사 0)	의문문 0	의문문 X
			청유형 X	청유형 X	청유형 X	청유형 X	청유형 X	청유형 X	청유형 X	청유형 X
			명령형 X	명령형 X	명령형 X	명령형 X	명령형 X	명령형 X	명령형 X	명령형 X
어미와의 결합	선어말어미(-았-) 선행성분과의 결합		0	0	0	0	0	X	0	0
	선어말어미(-았-) 후행성분과의 결합		X	X	X	X	X	0	0	X
	종결어미 '-네, -구나, -지'의 결합		0	X	X	X	0	0	0	0

2.2.2.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

추측 양태 표현들은 모두 불확실성이라는 자질을 공유하면서도 그들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이 서로 다르므로 의미 특성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 추측 의미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표현들의 의미 변별에 대한 많은 시도는 이루어졌다. 특히 판단의 근거에 따라 이들의 의미를 변별하려던 시도들이 많았다. 추측 양태 표현 항목 가운데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교가 이루어진 것은 '-겠-'과 '-(으)ㄹ 것이다'이다. 특히 성기철(1976), 서정수(1978), 이남순(1981), 김규철(1988), 고

창운(1991) 등의 앞선 연구에서 '-겠-'과 '-(으)ㄹ 것이다'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가 많았다. 이후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등을 포함한 추측 양태 표현 항목 비교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항목은 그 수가 많고 출현 환경이 언제나 배타적 대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 항목 간의 변별성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추측 양태 표현 항목 중 일부만을 한정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한 연구들도 많았다.

기존의 논의에서 추측 양태 표현의 확실성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의미적 변별 기준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추측 양태 표현 중 어느 것이 더 확실한 판단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달리기도 하였다. 또한 추측할 때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확실성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추측 근거는 확실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하위 기준으로 삼아 논의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연구자마다 추측 근거 유형의 분류가 다양하다. 그 분류로는 자료의 객관성 여부(주관적·객관적 정보), 정보의 특성(직접적·간접적·내재적 정보), 현장성(지각·지식 정보, 현재·과거 경험, 내면화 여부) 등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기존의 연구에서 추측의 근거에 대해 살필 수 있는 면은 거의 모두 다루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파악한 기준으로는 추측 양태 표현들이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의 의미 변별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비교 기술을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① 추측 근거의 주관적·객관적 정보

추측 근거의 주관적·객관적 성격과 관련된 연구로는 이기용(1978), 서정수(1977b, 1978)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는 추측 의미의 '-겠-'과 '-(으)ㄹ 것이다'의 확실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기용(1978)에서는 '-겠-'을 [앎]의 표지이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으)ㄹ 것이다'는 [믿음]의 표지이고 특별한 근거가 필요 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으)ㄹ 것이다'는 '-겠-'보다 화자

의 확신성이 약하다고 하였다. 이와 상반되는 견해가 서정수(1977b, 1978)인데 '-겠-'이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요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가 불필요하며, '-(으)ㄹ 것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한 추측에 쓰인다고 하였다. 또한 '-(으)ㄹ 것이다'는 객관적 근거에 의한 추정이기 때문에 주관적 근거에 의한 추정인 '-겠-'보다 화자의 확신성이 강하다고 하였다.

노지니(2004)에서는 판단의 근거로 외부 지각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는 경우 주관성이 약한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고, 내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는 경우 주관성이 강한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으)ㄹ 것이다'의 경우 어떠한 종류의 근거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화자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적 추론을 '추측'의 과정에 개입시키므로 주관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으)ㄹ 것이다'는 화자가 논리적인 내적 추론 과정을 통해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성도 높다고 보았다.

성기철(1979), 전나영(1999), 강소영(2002), 이미혜(2005) 등은 이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변별성을 모색하였다. 객관적인 현장의 지각 경험을 근거로 하는 '-겠-'이 주관적인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하는 '-(으)ㄹ 것이다'보다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지각 가능한 사실은 추론 가능한 사실보다 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안주호(2004)에서는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는 이전 화자의 진술과 같은 발화 내적 근거 사실을 통해 명제 내용을 미루어 추측하는 객관적인 표현이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화자의 내부적, 감정적 관점에서 직접 경험에 의한 가치 판단의 화맥에 사용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구분하였다. 상호현(2018)에서도 추측 근거의 주관적·객관적 성격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추측의 근거가 화자 가까이 있어서 직접 지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근거는 객관성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과거에 입수한 기득 정보는 화자가 발화시 객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목전의 정보와는 다르고 그런 근거, 그런 정보는 현재 정보, 목전의 지각 정보에 비해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기술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마다 추측 근거의 주관적·객관적 성격에 대해서 다르게 논의하였고, 연구자에 따라 과거 경험이나 내재적인 정보에 근거한 추측에 대

한 확신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외부 지각 정보에 근거한 추측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측 근거의 주관성 여부에 따라 확실성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판단 근거를 객관적·주관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정보가 화자에게 내재화되어 있다가 직관이나 느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판단 근거를 객관적·주관적으로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고창운(1991: 596)에서 서정수(1978)는 추측 근거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겠-'과 '-(으)ㄹ 것이다'가 선택된다고 하였는데 주관적 근거와 객관적 근거를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기준이나 원리에 대한 확실한 제시가 없는 한 그의 주장은 검증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미혜(2005: 120)에서도 '-겠-',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는 현장에서 객관적인 지각 경험을 근거로 추측할 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객관적인 근거'와 '주관적인 근거'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없었다. 그리고 이지연(2018: 138)에서도 '-겠-'은 화자의 직접 경험을 통한 주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할 때 사용되며 '-(으)ㄹ 것이다'는 일반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할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주관적 근거와 객관적 근거를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기준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없었다. 그러므로 연구자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근거의 주관적·객관적 성격에 대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없으므로 이것을 한국어교육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다.

② 추측 근거의 직접적·간접적·내재적 정보

김동욱(2000)은 추측 근거를 명제에 대한 주어진 정보가 간접적 정보인지, 직접적 정보인지, 내재적 정보인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후 이혜용(2003), 엄녀(2010), 유민애(2012), 강비(2014), 하흔흔·박덕유(2019) 등은 김동욱(2000)의 근거 분류를 받아들이고 직접적 정보, 간접적 정보, 내재적 정보를 근거로 하여 추측의 확실성 정도를 판단하였다. 그런데 직접적 정보, 간접적 정보, 내재적 정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인다. 직접적 정보의 경우 인지기능을 통해서 외부세계로부터 얻은 정보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정보가 화자의 지식이 되어 내재적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는 간접적 정보도

마찬가지다. 간접적 정보는 다른 사람이나 물리적 매개체 등을 통해 외부세계로부터 얻은 정보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정보가 화자의 지식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호한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 정보, 간접적 정보, 내재적 정보를 근거로 하여 추측의 확실성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고,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 혼돈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것도 한국어교육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③ 추측 근거의 현장성 또는 내면화 여부

추측의 근거는 현장에 있느냐, 비현장에 있느냐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을 구분한 논의로는 성기철(1979), 전나영(1999), 이미혜(2005), 손혜옥(2016), 강현화 외(2017), 박재연(2018), 이지연(2018), 허지이 외(2021) 등이 있다. 성기철(1979)에서는 '-겠-'은 현재 경험을 근거로 하는 추론에 사용되고, '-(으)ㄹ 것이다'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하는 추론에 쓰인다고 하였다. 이는 '판단 근거의 현장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박재연(2018)도 성기철(1979)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추측의 '-겠-'과 '-을 것이다'의 차이는 현장 근거에 의한 추측 판단이냐, 비현장 근거에 의한 추측 판단이냐의 차이이며, 현장 근거는 내면화되지 않은 근거, 비현장 근거는 내면화된 근거라고 하였다.

전나영(1999), 이미혜(2005), 강현화 외(2017), 허지이 외(2021) 등도 이러한 변별 기준으로 추측 양태 표현들의 차이를 구별하였다. 전나영(1999)에서는 판단 근거가 과거에 있는 경우보다 발화하는 현장에 존재할 때 화자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으므로 발화 순간의 상황을 근거로 사용하는 '-겠-'이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사용하는 '-(으)ㄹ 것이다'보다 화자가 갖는 확신의 정도가 강하게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미혜(2005)에서는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현장의 지각 경험을 판단 근거로, '-(으)ㄹ 것이다'는 과거의 직접·간접 경험을 판단 근거로,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판단 근거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고 하였다. 강현화 외(2017)에서는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주로 현장에서 지각한 경험에 근거하여 즉각적인 추측을 할 때, '-(으)ㄹ 것이다', '-(으)ㄹ걸(요)'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형성한 배경 지식에 기대어 추측할 때,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을 할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상숙(2021)에서는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지각 근거로, ‘-(으)ㄹ 것이다’, ‘-(으)ㄹ걸’, ‘-(으)ㄹ 터이다’은 과거 경험의 근거로,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판단 근거 제약 없이 사용 가능으로,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확실한 근거가 명시된 상황에서 사용 불가로 분류하였다. 허지이 외(2021)에서는 추측의 근거가 현장의 지각일 경우 ‘-겠-’, ‘-(으)ㄴ/는/(으)ㄹ 것 같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측의 근거가 현장의 지각인 경우가 아니라 화자가 가진 이전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일 때에는 ‘-(으)ㄹ 것이다’와 ‘-(으)ㄴ/는/(으)ㄹ 것 같다’만 쓸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임동훈(2008), 정인아(2010), 박진호(2011), 손혜옥(2016), 이지연(2018), 이상숙(2021) 등처럼 추측 양태 표현을 ‘지각 근거’와 ‘지식 근거’, 또는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와 ‘내면화된 정보’로 구분하는 견해도 많다. ‘-겠-’과 ‘-(으)ㄹ 것이다’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겠-’은 ‘지각 정보’를 근거로 추론한 명제에 결합하는 것으로, ‘-(으)ㄹ 것이다’는 ‘지식 정보’를 근거로 추론한 명제에 선택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전자는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에 기반을 둔 추측을 나타내고, 후자는 내면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손혜옥(2016)에서는 추측의 근거를 세 가지로 근거 없는 화자의 주관적인 추측(‘-(으)ㄴ/는/(으)ㄹ 것 같다’), 화자에게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추측(‘-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화자에게 내면화된 정보에 근거한 추측(‘-겠-’, ‘-(으)ㄹ 것이다’)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겠-’은 내면화되지 않은 지식과 내면화된 지식에 근거한 추측에 모두 사용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지연(2018)에서도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현장에서 화자가 직접 감각을 통해 습득한 근거로, ‘-(으)ㄹ 것이다’, ‘-(으)ㄹ 터이다’, ‘-(으)ㄹ걸(요)’은 화자에게 이미 내면화된 과거 경험이나 일반적인 지식으로,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 모르다’는 추측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요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논의들을 정리하자면 이들 논의들은 표현하는 바는 다르지

만 지시하는 바는 유사하다. 판단의 주관적·객관적 정보, 직접적·간접적·내재적 정보, 현장성 또는 내면화 여부 등은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직접적·간접적 정보나 발화 현장에서 얻은 지각한 정보 등은 외부세계에 존재하므로 객관적 정보이며, 내재적 정보나 화자의 과거 경험, 지식 등의 내면화된 정보는 화자의 인식 세계에 있는 것으로 주관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관적·객관적 정보와 직접적·간접적·내재적 정보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학습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추측 근거의 현장성을 한국어 교실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추측 양태 표현들의 의미 변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본고에서 선정된 여덟 가지 추측 양태 표현들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의미 특성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추측 근거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 추측의 확실성 정도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추측 양태 표현 항목 간의 용법 차이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의 특성을 살펴볼 때 최대한 추상적인 개념은 배제하고 한국어교육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1)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

추측 양태 표현들은 화자가 인식하는 추측의 근거에 따른 의미상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상 차이는 화자가 추측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화자의 지각 정보인가의 여부, 화자의 과거 경험을 통한 지식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 화자의 직관이나 느낌인가에 따른 차이 등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른 의미상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의미적 특성

추측 의미의 '-겠-'이 갖는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로는 성기철(1976), 서

정수(1978), 김규철(1988), 고창운(1991), 전나영(1999), 강소영(2002), 이윤진·노지니(2003), 이미혜(2005), 국립국어원(2005나), 임동훈(2008), 강현주(2010), 박진호(2011나), 강현화 외(2017), 박재연(2018), 성호현(2018) 등이 있다[36]. 이들 연구에서의 추측 근거가 지닌 특성에 대해 정리하여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주관성과 객관성[37](서정수, 1978; 이기용, 1978; 성호현, 2018 등), 현장성(성기철, 1979; 전나영, 1999; 이기종, 2001; 강소영, 2002; 이미혜, 2005; 국립국어원, 2005나; 이선영, 2006; 임동훈, 2008; 강현주, 2010; 정인아, 2010; 박진호, 2011나; 유민애, 2010; 손혜옥, 2016; 강현화 외, 2017; 박재연, 2018; 성호현, 2018; 이지연, 2018 등), 화자

36) 선행연구에서 밝힌 '-겠-'의 추측 근거 성격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겠-'의 추측 근거 성격
성기철(1979)	현재 경험
이기용(1978)	객관적 근거
서정수(1978)	주관적인 근거
김규철(1988)	새 정보
고창운(1991)	화자와 청자 모두 정보 공유
전나영(1999)	발화 순간의 상황
이기종(2001)	-청자가 이전에 한 발화를 통해 얻은 정보나 화자 자신이 발화 현장에서 얻은 지각 정보와 같은 물리적 근거가 발화 현장에 있음
강소영(2002)	화자의 직접 경험 (결과되는 사건을 추측하는 화자의 태도를 의미하는 통합구조체)
이윤진·노지니(2003)	화자와 청자가 서로 정보 공유
이미혜(2005)	현장의 지각 경험
국립국어원(2005나)	말하는 당시의 상황이나 상태
이선영(2006)	현재 화자가 보고 있는 정보
임동훈(2008)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현장 지각)
강현주(2010)	현장성
정인아(2010)	화자가 사전 지식에 더하여 현장에서 지각한 사실
박진호(2011나)	감각 경험을 통해 얻어진 근거 (의외성(새로 알게 된 사실)의 의미성분이 들어 있음)
유민애(2012)	직접적 정보 (현장 지각 정보)
김석기(2014)	청자와 화자가 서로 정보 공유
손혜옥(2016)	내면화되지 않은 지식(지각 정보), 내면화된 지식
강현화 외(2017)	현장에서 지각한 경험 (추측의 사태가 추측의 근거로서 화자가 지각한 사태보다 시간적으로 나중이라는 점에서 다른 문형과 차이가 있음)
박재연(2018)	현장의 근거
성호현(2018)	의사성 진정 추정 (현장의 지각 정보/객관적 근거)
이지연(2018)	화자가 현장에서 직접 감각을 통해 습득한 근거

37) 판단 근거의 주관성과 객관성에 대해서는 서정수(1978) 등은 '-겠-'이 주관적 증거를 필요로 한 반면 이기용(1978), 성호현(2018) 등은 객관적 증거를 필요로 한다고 논의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마다 '-겠-'이 갖는 추측 근거의 주관적·객관적 성격에 대해서 다르게 논의한 것을 보면 판단 근거를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객관적인 정보가 화자에게 내재되어 있다가 직관이나 느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판단 근거를 객관적·주관적으로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성기철(1979)에서도 판단 근거의 '주관성'과 '객관성'으로 구별시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와 청자 간의 정보 공유(고창운, 1991; 이윤진·노지니, 2003; 김석기, 2014 등), 새 정보(김규철, 1988 등) 이다. 사실 추측 근거의 주·객관성, 현장성과 화자와 청자 간의 정보 고유, 그리고 새 정보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유형은 표현하는 바는 다르지만 지시하는 바는 유사하다. 판단의 근거가 발화 현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신정보라면 화자에게 내면화되지 않은 새로 알게 된 정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화자가 현장에서 추측의 근거를 확보할 때 청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화자와 청자는 추측의 근거를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추측 근거의 주·객관성, 현장성, 화자와 청자 간의 정보 공유, 새 정보를 포괄하여, '-겠-'은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추측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는가/(으)ㄴ가/나 보다'가 갖는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로는 김지은(1998), 전나영(1999), 김동욱(2000), 이기종(2001), 이윤진·노지니(2003), 노지니(2004), 안주호(2004), 이미혜(2005), 국립국어원(2005나), 변정민(2008), 정인하(2010), 정혜선(2010), 손혜옥(2016), 강현화 외(2017), 이지연(2018), 탕이잉(2020), 이상숙(2021), 허지이 외(2021), 차명희(2022) 등이 있다[38]. 이들 논

38) 선행연구에서 밝힌 '-는가/(으)ㄴ가/나 보다'의 추측 근거 성격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는가/(으)ㄴ가/나 보다'의 추측 근거 성격
김지은(1998)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추리되었거나 감각 경험을 기초로 한 생각이나 느낌을 두루 표현함
전나영(1999)	화자가 보거나 들은 정보
김동욱(2000)	직접적 정보, 간접적 정보, 내재적 정보(객체 추측)
이기종(2001)(115)	청자가 이전에 한 발화를 통해 얻은 정보나 화자 자신이 발화 현장에서 얻은 지각 정보와 같은 물리적 근거가 발화 현장에 있을 경우 사용됨
이윤진·노지니(2003)	어떤 모습이나 모양을 보고 화자의 의심의 태도를 좀더 강조하여 추측함
노지니(2004)	-지각 정보(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안주호(2004)	객관적인 대상을 근거로 함
이미혜(2005)	현장의 지각 경험, 객관적인 추측
국립국어원(2005나)	주변 상황으로 미루어 그럴 것이라고 추측함 -객관적인 사실, 정보
정유남(2006)	-화자가 진술 내용에 대해 판단하기까지 전제되는 관찰적 증거가 존재함
변정민(2008)	외부의 현상을 보고(듣고) 즉각적으로 표현함
정인하(2010)	화자가 직접 지각한 증거를 근거로 다른 어떤 사실을 추론함
정혜선(2010)	어떤 객관적/ 상황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함
손혜옥(2016)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함
강현화 외(2017)	현장에서 지각한 경험에 근거함
이지연(2018)	현장에서 지각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한 객관적인 추측
탕이잉(2020)	새로 앎 (내면화되지 않은)
이상숙(2021)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근거를 바탕으로 함
허지이 외(2021)	현장의 지각 경험에 근거함
차명희(2022)	직접 감각 경험에 근거함

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는가/(으)ㄴ가/나 보다'의 추측 의미가 지닌 근거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현장의 지각 정보(전나영, 1999; 김동욱, 2000; 이기종, 2001; 이윤진·노지니, 2003; 노지니, 2004; 이미혜, 2005; 국립국어원, 2005나; 정유남, 2006; 변정민, 2008; 정인하, 2010; 강현화 외, 2017; 이상숙, 2021; 허지이 외, 2021; 차명희, 2022 등),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손혜옥, 2016; 탕이잉, 2020 등), 객관적인 근거(김지은, 1998; 안주호, 2004; 이미혜, 2005; 국립국어원, 2005나; 정혜선, 2010 등)이다. 하지만 추측 근거의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는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추측 근거가 화자 가까이 있어서 직접 지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근거는 객관성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자가 경험하고 있거나 지각하고 있는 근거는 화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것대로 객관성을 띠고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객관적 사태에는 화자의 의도, 화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축소된다. 따라서 '-는가/(으)ㄴ가/나 보다'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추측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갖는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로는 김정혜(1997), 이필영(1998), 전나영(1999), 김동욱(2000), 이기종(2001), 강소영(2002), 이윤진·노지니(2003), 이혜용(2003), 노지니(2004), 안주호(2004), 이미혜(2005), 국립국어원(2005나), 백봉자(2006), 이선영(2006), 정인하(2010), 손혜옥(2016), 강현화 외(2017), 이지연(2018), 이상숙(2021), 차명희(2022) 등[39]이 있는데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전나

39) 선행연구에서 밝힌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추측 근거 성격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추측 근거 성격
김정혜(1997)	심증 등의 내적 요인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지각적 사태를 근거함
이필영(1998)	객관적 성격
전나영(1999)	화자가 보거나 들은 정보에 근거함
김동욱(2000)	직접적 정보, 간접적 정보, 내재적 정보(객체 추측)
이기종(2001)	청자가 이전에 한 발화를 통해 얻은 정보나 화자 자신이 발화 현장에서 얻은 지각 정보와 같은 물리적 근거가 발화 현장에 있을 경우 사용됨
강소영(2001)	가시적인 증거를 근거함
이윤진·노지니(2003)	-어떤 모습이나 모양을 보고 그대로 추측함
이혜용(2003)	직접적 정보, 간접적 정보, 내재적 정보(객체 추측)
노지니(2004)	-화자의 지각 경험이나 간접 정보 등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근거함(객관적인 관찰을 전제함)
안주호(2004)	객관적인 대상을 근거로 함
이미혜(2005)	현장의 지각 경험에 근거함 (객관적인 추측)
국립국어원(2005나)	주변 상황으로 미루어 그럴 것이라고 짐작함 -객관적인 사실, 정보 등에 근거함

영; 1999, 김동욱; 2000, 이윤진·노지니; 2003, 안주호; 2004, 이미혜; 2005, 국립국어원; 2005나, 강현화 외; 2017, 이지연; 2018, 허지이 외; 2021 등)으로 기술되었다. 이들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는가/(으)ㄴ가/나 보다'의 추측 근거가 지닌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현장의 지각 정보(김정혜, 1997; 전나영, 1999; 김동욱, 2000; 이기종, 2001; 강소영, 2001; 이윤진·노지니, 2003; 이혜용, 2003; 노지니, 2004; 이미혜, 2005; 국립국어원, 2005나; 백봉자, 2006; 정유남, 2006; 이선영, 2006; 정인하, 2010; 강현화 외, 2017; 이상숙, 2021; 허지이 외, 2021; 차명희, 2022 등),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손혜옥, 2016 등), 객관적인 근거(이필영, 1998; 안주호, 2004; 이미혜, 2005; 국립국어원, 2005나 등) 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앞선 살펴본 '-는가/(으)ㄴ가/나 보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측 근거의 현장 지각 정보,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유형은 표현하는 바는 다르지만 지시하는 바는 유사하다. 추측 근거의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는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추측 근거가 화자 가까이 있어서 직접 지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근거는 객관성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도 '-는가/(으)ㄴ가/나 보다'처럼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추측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주로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40]

백봉자(2006)	화자가 사물의 모양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추측함
이선영(2006)	'모양'의 어휘적 의미에 이끌려 화자가 객관적으로 듣고 관찰하고 경험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함
정유남(2006)	-화자가 진술 내용에 대해 판단하기까지 전제되는 시각적·청각적 정보가 존재함
정인하(2010)	화자가 시각, 청각, 촉각 등 모든 감각을 통하여 지각한 증거를 근거함
손혜옥(2016)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함 (화자의 직접 감각 경험)
강현화 외(2017)	현장에서 지각한 경험에 근거함
이지연(2018)	현장에서 지각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인 추측
이상숙(2021)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지각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함
허지이 외(2021)	현장의 지각 경험에 근거함
차명희(2022)	직접 감각 경험

40) 지각 정보에는 직접 정보, 간접 정보, 내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탕이잉(2023)에서는 지각 정보를 직접적 정보, 간접적 정보, 내적 정보로 나누었는데, 직접적 정보는 화자가 시각, 청각 등 고유 인지기능을 통해 외부세계로부터 얻은 정보, 간접적 정보는 화자가 신문, 방송, 타인 등 제삼의 물리적인 매개체를 통해 얻은 정보, 내적 정보는 화자의 느낌, 감정, 직감 등 본인의 내적 감각으로만 지각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근거로 하여 추측할 때 사용된다.

(15)

가. 먹구름이 낀 걸 보니 곧 비가 {오겠어요, 오려나 봐요, 올 모양이에요}. (강현화 외, 2017:344)

나.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맛있겠다, 맛있나 보다, 맛있는 모양이다}.

다. (불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것을 만져 보면서) 말랑말랑한 게 {떡이겠다, 떡인가 보다, 떡인 모양이다}. (정경미, 2016:125)

라. 제임스가 화요일쯤 귀국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귀국했겠어요, 귀국했나 봐요, 귀국한 모양이에요}. (이미혜, 2005:120)

마.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 곧 비가 {오겠다, 오려나 보다, 올 모양이다}. (정경미, 2016:121)

위의 예문(15)처럼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할 때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문 (15.가)와 (15.나)는 시각으로 지각한 정보, (15.다)는 촉각으로 지각한 정보, (15.라)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각한 정보, (15.마)는 내적 지각 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추측하였는데, 논리적 추측보다는 화자의 인상이나 감각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추측하는 것이다.

(16)

가. (빵을 보면서) {맛있겠다, *맛있나 보다, *맛있는 모양이다}. (이미혜, 2005:122)

나. (집 밖에서 시계를 보면서) 철수가 지금쯤 학교에서 {돌아왔겠다, *돌아왔나 보다, *돌아온 모양이다}. (이필영, 2012:113)

(17)

가. A: 제 친구는 한국에서 산 지 오래됐어요.
B: 그래요? 그럼 한국어를 {잘하겠어요, *잘하나 봐요, *잘한 모양이에요}.

나. A: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어요.
B: 그래요? 그럼 손님이 {많겠다, *많나 봐요, *많은 모양이에요}.

화자가 때로는 위의 예문 (16)과 (17)에서 본 바와 같이 화자 개인의 경험이나 이미 알려진 사실, 즉 내면화된 지식과 현재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를 토대로 어떤 사태의 결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예문 (16)은 화자가 직접 지각한 상황에서의 발화인데 '보통 그런 빵은 맛있다는 것', '철수가 평소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알고 있는 지식과 지금 '그런 빵', '그 시간'이라는 지각 정보를 결합하여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다. 예문 (17)은 화자가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통해 지각한 상황에서의 발화인데 화자가 내면화된 지식인 '한국에서 오래 사면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것', '식당의 음식이 맛있으면 손님이 많을 수 있는 것'과 지금 발화 현장에서 청자로 인한 지각 정보를 토대로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말하는 상황이다. 이때 '-겠-'의 사용이 자연스럽지만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사용은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겠-'은 내면화된 지식과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를 결합하여 어떤 사태의 결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때 쓰이는 것으로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의 차이를 보인다.

(18)

가. (사람들이 우산을 쓴 것을 보고) 지금 비가 {*오겠어요, 오나 봐요, 오는 모양이에요}. (강현화 외, 2017:345)

나. (발소리를 듣고) 누가 {*오겠어요, 오나 봐요, 오는 모양이에요}. (노지니, 2004:74)

다. 맛있는 냄새가 나요.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겠어요, 하시나 봐요, 하시는 모양이에요}.

라. A: [헬스장에서] 자세를 보니 이 운동을 처음 {*하시겠어요, 하시나 봐요, 하시는 모양이에요}.
B: 네, 근육 운동을 처음 해 봐요.

마. A: 저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B: 하루 종일 서로 말을 안 해. {*싸웠겠어, 싸웠나 봐, 싸운 모양이야}.

(19)

가. A: 남자 친구가 요즘 돈이 없어서 제가 빌려주겠다고 했더니 싫다고 화를 냈어요.
B: 자존심이 {*강하겠어요, 강한가 봐요, 강한 모양이에요}.

나. A: 철수가 눈이 퉁퉁 부어 있어.
B: 시험에 떨어져 많이 {*울었겠다, 울었나 보다, 운 모양이다}.

한편, 화자가 위의 예문 (18, 19)처럼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추측하는 경우가 있다. 예문 (18)은 화자가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하는 등의 지각을 통해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추측하는 상황이며, 예문 (19)는 화자가 직접 지각한 것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선행발화나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각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원인 사태를 추측하여 발화하는 상황이다. 이때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겠-'은 부자연스럽다. 이를 통해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발화 현장에서 사태의 원인에 대한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겠-'은 사태의 원인에 대한 추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보다'와 '모양'이 시각을 통한 사물이나 사태의 지각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기 때문에 의미적 차이가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의 의미적 특성

추측 양태 표현 '-(으)ㄹ 것이다'가 갖는 의미적 특징에 대한 논의로는 성기철(1976), 서정수(1978), 김규철(1988), 고창운(1991), 이필영(1998), 전나영(1999), 이기종(2001), 강소영(2001), 이윤진·노지니(2003), 노지니(2004), 이미혜(2005), 국립국어원(2005나), 이선영(2006), 임동훈(2008), 박진호(2011나), 김석기(2014), 손혜옥(2016), 강현화 외(2017), 박재연(2018), 성호현(2018), 이지연(2018), 차명희(2022) 등이 있다[41]. 이들 연구에서의 추측 근거가 지닌

41) 선행연구에서 밝힌 '-(으)ㄹ 것이다'의 추측 근거 성격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으)ㄹ 것이다 '의 추측 근거 성격
성기철(1979)	과거 경험
서정수(1978)	객관적인 근거
김규철(1988)	주어진 정보(구정보)

특성에 대해 정리하여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주관성과 객관성(서정수, 1978; 이필영, 1998; 국립국어원, 2005나; 성호현, 2018; 차명희, 2022 등), 과거 경험(내면화된 지식)(성기철, 1979; 전나영, 1999; 이기종, 2001; 강소영, 2001; 노지니, 2004; 이미혜, 2005; 이선영, 2006; 임동훈, 2008; 박진호, 2011나, 손혜옥, 2016; 강현화 외, 2017; 박재연, 2018; 성호현, 2018; 이지연, 2018, 차명희, 2022 등), 화자만 알고 있는 정보(고창운, 1991; 이윤진·노지니, 2003; 김석기, 2014 등), 주어진 정보(구정보)(김규철, 1988 등)이다.

여기에서 추측 근거의 주관성과 객관성, 과거 경험(내면화된 지식), 화자만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주어진 정보(구정보)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유형은 표현하는 바는 다르지만 지시하는 바는 유사하다. '-(으)ㄹ 것이다'는 현장의 지각 경험을 요구하지 않고 화자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사태를 판단할 때 사용된다. 이렇게 화자의 과거 경험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 정보가 주관적[42]이고 구정보이며, 그 정보를 화자만 알고 있는 정보일 것이라고 해

고창운(1991)	화자만 알고 있는 정보
이필영(1998)	객관적 성격
전나영(1999)	과거의 경험
이기종(2001)	발화 외적 지식이나 논리적 근거
강소영(2001)	이론적으로 참으로 여겨지는 사실들(이론적 가능성)
이윤진·노지니(2003)	화자만 알고 있는 정보
노지니(2004)	직접 정보, 간접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추리를 위한 반사실적 가정 명제까지 모두 가능함 (논리성 추론)
이미혜(2005)	과거의 직접·간접 경험 (논리적인 추측)
국립국어원(2005나)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사례
이선영(2006)	과거의 경험
임동훈(2008)	내면화된 정보 (화자 또는 타인의 지식이나 믿음)
박진호(2011나)	일반적 지식 (의외성(새로 알게 된 사실)의 의미성분이 들어 있지 않음)
김석기(2014)	화자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
손혜옥(2016)	내면화된 지식
강현화 외(2017)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형성한 배경지식
박재연(2018)	예전의 근거
성호현(2018)	기존의 정보, 과거의 경험 등의 뒷받침되는 근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 그만큼 추정의 정보가 되는 근거는 객체성, 객관성이 떨어짐
이지연(2018)	화자에게 이미 내면화된 과거 경험이나 일반적인 지식
차명희(2022)	화자의 경험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 생각이나 판단 혹은 일반적 사실

42) '-(으)ㄹ 것이다'도 '-겠-'의 경우처럼 판단 근거의 주관성과 객관성에 대한 측면에서 연구자마다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서정수(1978), 이필영(1998), 국립국어원(2005나), 차명희(2022) 등은 '-(으)ㄹ 것이다'가 객관적 성격이라고 한 반면 성호현(2018) 등은 주관적 성격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마다 '-(으)ㄹ 것이다'가 갖는 추측 근거의 주관적·객관적 성격에 대해서 다르게 논의한 것을 보면 판단 근거를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성

석할 수 있다. 또한 과거 경험 정보는 화자가 발화 외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발화 현장에 함께 있는 청자와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추측 근거의 주관성, 과거 경험(내면화된 지식), 화자만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주어진 정보(구정보)를 포괄하여 '-(으)ㄹ 것이다'는 화자에게 이미 내면화된 과거 경험(직접·간접 경험)이나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추측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3].

그리고 추측 의미의 '-(으)ㄹ 텐데(요)'가 갖는 의미적 특징에 대한 논의로는 강소영(2001,2004), 이기종(2001), 안정아(2003), 국립국어원(2005나), 이선영(2006), 다카치토모나리(2014), 이지연(2018), 오승은(2018), 이상숙(2021), 차명희(2022) 등이 있다[44]. 이들 연구에서 논의한 추측 근거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으)ㄹ 텐데(요)'는 '-(으)ㄹ 것이다'처럼 화자의 과거 경험이나 일반적 지식 등 내면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추측을 한다.

기철(1979)에서도 판단 근거의 '주관성'과 '객관성'으로 구별시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43) 이미혜(2005)에서 과거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화되어 하나의 화자의 사고 체계에 하나의 논리로서 작용한다고 하였다. 성기철(1979)에서 경험 당시로부터 가까울수록 '-겠-'이 적절하며, 시간이 경과된 후에 먼 과거의 경험에 의존할수록 '-(으)ㄹ 것이다'가 적절하다고 하였는데, 이 논의도 결국은 직접, 간접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화되어 배경지식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4) 선행연구에서 밝힌 '-(으)ㄹ 텐데(요)'의 추측 근거 성격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으)ㄹ 텐데(요)'의 추측 근거 성격
강소영(2001,2004)	이론적 가능성 ('-(으)ㄹ 것이다'와 의미를 공유하고 있을 것)
이기종(2001)	당위적 상황의 가능성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서 동일 유형의 '-을 것이다'에 비해 주관화 정도가 낮은 편임)
안정아(2003)	-화자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추측해 보는 것을 표현함 -화자의 주관이 더 많이 개입되는 것
국립국어원(2005나)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강한 추측을 나타내면서 뒤이어 그와 관련되거나 반대되는 내용을 제시할 때 씀
안주호(2008)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강한 추측을 나타내면서 뒤이어 그와 관련되거나 반대되는 내용을 제시할 때 씀
다카치토모나리(2014)	판단 근거가 '직접적 정보', '간접적 정보', '내재적 정보'의 구별에 상관이 없이 명제 내용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 (추측 근거의 종류라는 관점에서 '-(으)ㄹ 것이-'와 '-(으)ㄹ 터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봄)
이지연(2018)	화자에게 이미 내면화된 과거 경험이나 일반적인 지식 ('-(으)ㄹ 것이다'와 의미적 특성이 상당히 유사함)
오승은(2018)	화자의 판단 근거가 실제 세계에 지시하는 대상이 없이 화자의 믿음에 바탕을 둠 ('-을 것이다'의 추측의 의미와 유사함, '-겠-'과 구별되는 의미임)
이상숙(2021)	-과거 경험만 가능함
차명희(2022)	화자가 발화시에 직접 경험한 정보나 들은 정보에 근거를 두어 추측을 말하는 표현인 '-겠-'과는 달리, 화자의 경험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 생각이나 판단 혹은 일반적 사실에 근거를 두어 추측함

그다음 추측 의미의 '-(으)ㄹ걸(요)'가 갖는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로는 이윤진·노지니(2003), 박재연(2004), 국립국어원(2005나), 강현화(2008), 최동주(2009), 유민애(2012), 이민(2012), 강현화 외(2017), 오승은(2018), 권영은(2020가, 2020나), 이상숙(2021) 등이 있는데[45] 이들 연구에서 '-(으)ㄹ걸(요)'에 대한 추측 근거의 특성을 정리하자면, 대부분이 과거 경험 또는 내면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추측한 '-을 것이다'처럼 '-(으)ㄹ걸(요)'도 과거 경험 또는 내면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인식 양태의 '-(으)ㄹ걸(요)'는 '-(으)ㄹ 것이다'의 경우와 비슷하게 과거 경험 즉, 내면화된 정보로부터의 추측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리고 '-(으)ㄹ걸(요)'는 주로 상대바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를 때 쓰인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는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 달리 현장의 지각 경험을 요구하지 않고 과거의 직접·간접 경험이나 일반적 지식 등 내면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된다[46].

---

45) 선행연구에서 밝힌 '-(으)ㄹ걸(요)'의 추측 근거 성격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으)ㄹ걸(요)'의 추측 근거 성격
이윤진·노지니(2003)	청자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함(불확실한 추측)
박재연(2004)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개연성 판단
국립국어원(2005나)	주로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르다며 가볍게 반박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감탄함을 나타냄
강현화(2008)	과거, 현재, 미래의 추정표현이 모두 가능하며 대부분 경험이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확신한 추정
최동주(2009)	화자가 가진 근거를 청자는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때 쓰임 (화자의 추측이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 다름) ('-을걸'이 '-을 것이-'와 확신의 정도 차이가 날 뿐, 교체해도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
유민애(2012)	내재적 정보
이민(2012)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의 의미는 기타 추측 표현과 구별되는 변별적 의미가 됨
강현화 외(2017)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형성한 배경 지식에 기대어 추측함
오승은(2018)	화자의 믿음에 바탕으로 두고 명제 내용에 관해 사태 실현성을 판단한 것 ('-을 것이다'와 교체될 수 있음, 다만 명제 내용에 관한 화자 판단의 확신의 정도에서 차이가 남.)
이지연(2018)	화자에게 이미 내면화된 과거 경험이나 일반적인 지식
권영은(2020나)	내면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측'이며 억양에 따라 '확신', '반박', '체념' 등을 함께 나타낼 수 있음(인식 양태 용법의 '-을걸'은 '-을 것이-'가 나타내는 것과 비슷하게 내면화된 정보로부터의 추측을 나타내며 [의외성]은 나타내지 않음)
이상숙(2021)	판단 근거가 발화 현장에 존재할 때는 사용이 어렵고,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사용됨 (과거 경험이라 직접, 간접 경험을 모두 이르는 것이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화자의 직관과 느낌도 여기에 포함됨)

46) 과거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화되어 하나의 화자의 사고 체계에 하나의

(20)

가. 내일은 언니가 늦게 끝나는 날이라 아마 집에 {없을 거예요, 없을 텐데요, 없을걸요}.

나. (메뉴판에서 음식 이름을 보면서) 이 음식 {매울 거야, 매울 텐데, 매울걸}.

다. A: 이번 주말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면 어떠하지?
B: 일기예보를 봤는데 이번 주에 태풍이 온대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까지 비가 {올 거예요, 올 텐데요, 올걸요}.

라. 오늘은 공휴일이니까 문을 {닫았을 거예요, 닫았을 텐데요, 닫았을걸요}.

마. 주말인데다가 날씨가 좋아서 놀이공원에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텐데요, 많았을걸요}.

화자가 이전의 직접, 간접 경험에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추측할 때 위의 예문 (20)처럼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로 표현하여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예문 (20.가)는 화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전의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 추측하는 상황이고 예문 (20.나)에서 '매울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의 먹어본 경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경험이 있어서 이 음식이 매울 것이라고 추측을 하였다. 예문 (20.다)의 경우 일기예보라는 매개체 또는 간접적 정보를 통해 추측하는 상황이다. 예문 (20.라~마)는 화자가 일반적 지식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는 과거의 직접·간접 경험, 일반적 지식 등 내면화된 정보에 근거한 추측에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21)

가. 성수기면 비행기표가 {비쌀 거야, 비쌀 텐데, 비쌀걸}.

나. 퇴근 시간이라서 지금 나가면 차가 많이 {막힐 거예요, 막힐 텐데요, 막힐걸요}.

다. 오후 5시가 되면 문을 {닫을 거예요, 닫을 텐데요, 닫을걸요}.

라. 이 잡채는 냉장고에 안 넣으면 {쉴 거야, 쉴 텐데, 쉴걸}.

마. 일찍 일어났더라면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텐데요, 않았

논리로서 작용한다(이미혜, 2005).

을걸요}.

바.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시험 전날 밤새워 공부하지 않아도 {됐을 거야, 됐을 텐데, 됐을걸}.

사. 여행 기간 내내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여행이 더 {즐거웠을 거야, 즐거웠을 텐데, 즐거웠을걸}.

또한 과거의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화되어 배경지식이 되므로 화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에 기대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는 위의 예문 (21)처럼 조건 상황이나 반사실적 가정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예문 (21)에서 명제는 사실 명제가 아니라 가정 명제로서 이러한 가정 명제를 근거로 추측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자 내적인 추론 과정이 필요하므로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는 가장 적절한 추측 양태 표현이 된다. 특히 가정 명제를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화자의 내적 추론은 다른 추측 과정보다 논리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는 과거 직접·간접 경험의 내면화된 지식에 근거한 추측에 사용된다.

(22)

가. 아침이 오면 해가 동쪽에서 {뜰 거야, ?뜰 텐데, ?뜰걸} (안주호, 2004:16)

나. 우리는 언제가 틀림없이 {죽을 거야, ?죽을 텐데, ?죽을걸}.

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텐데요, ?멸망할걸요}. (이윤진 외, 2003:185)

(23)

가. (의사) 내 의학지식에 의하면 지금 네 상처는 내일이면 {나을 거야, ?나을 텐데, ?나을걸}.

나. (경제 전문가) 앞으로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성장할 텐데요, ?성장할걸요}.

한편, 위의 예문 (22)는 진리나 예언에 대해서 발화하는 상황인데, (22.가~나)는 진리를, (22.다)는 예언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 '-(으)ㄹ 것이다'를 사

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예문 (23)은 화자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발화하는 상황인데 (23.가)는 의사가 본인이 가진 전문적 지식, (23.나)는 경제 전문가가 본인이 가진 전문적 지식 등을 근거로 하여 발화하는 상황이다. 이때도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는 어색하다. 이처럼 '-(으)ㄹ 것이다'는 예언, 진리, 그리고 전문 지식으로 인한 결과를 추측하는 데는 어울리는 것으로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와의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으)ㄹ 것이다'가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보다 확실성이 높다는 점도 알 수 있다.

(24)

가. 배가 또 고프다고요? 아까 저녁을 {먹었을 텐데요, *먹었을 거예요, *먹었을걸요}. (양명희 외, 2023)

나. 사자와의 계약이 어떤 것인지 {알 텐데, *알 거야, *알걸}. (지명희, 2019)

다. 미안하다는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못해요? 한마디만 하면 짜증 나는 일도 {없을 텐데요, ?없을 거예요, ?없을걸요}.

라. (내일 시험인데 게임만 하고 있는 친구를 보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닐 텐데, ?아닐 거야, ?아닐걸}.

한편, 예문 (24)처럼 화자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추측하면서 화자의 비아냥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상황도 있다. 이때 '-(으)ㄹ 텐데(요)'의 사용이 자연스럽지만 '-(으)ㄹ 것이다'와 '-(으)ㄹ걸(요)'는 어색하다. 이처럼 '-(으)ㄹ 텐데(요)'는 추측의 의미와 함께 비아냥거리는 감정을 표현할 때 어울리는 것으로 '-(으)ㄹ 것이다'와 '-(으)ㄹ걸(요)'와의 차이를 보인다.

(25)

가. 지금 설악산에는 눈이 {올걸요, ?올 거예요, ?올 텐데요}.

나. A: 이 영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자. (강현화 외, 2016)

B: 글쎄, 별로 {재미없을걸, ?재미없을 거야, ?재미없을 텐데}. 평점이 낮던데.

예문 (25)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추측하면서 상대방에게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때 '-(으)ㄹ걸(요)'는 추측의 의미와 함께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기대와는 다르다고 가볍게 반박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으)ㄹ 것이다'와 '-(으)ㄹ 텐데(요)'는 예문 (25)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때 단지 추측의 의미만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으)ㄹ걸(요)'는 상황에 따라 추측의 의미와 함께 상대방에게 반박하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으)ㄹ 것이다'와 '-(으)ㄹ 텐데(요)'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3)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의미적 특성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갖는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로는 이필영(1998), 전나영(1999), 김동욱(2000), 이기종(2001), 이윤진·노지니(2003), 노지니(2004), 안주호(2004), 이미혜(2005), 국립국어원(2005나), 이선영(2006), 손혜옥(2016), 강현화 외(2017), 이지연(2018), 탕이잉(2020), 이상숙(2021), 차명희(2022) 등이 있다[47]. 이 연구들에서 논의한 추측 근거의 특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으)ㄴ/는/(으)ㄹ 것 같다' 표현은 유사한 의미를 들어내는 다른

47) 선행연구에서 밝힌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추측 근거 성격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으)ㄴ/는/(으)ㄹ 것 같다 '의 추측 근거 성격
이필영(1998)	주관적 성격
전나영(1999)	화자가 보거나 들은 정보, 직접 체험한 것, 화자의 느낌
김동욱(2000)	주체 추측
이기종(2001)	근거 유무에 상관 없이 명제를 판단 대상화할 수 있는 형식
이윤진·노지니(2003)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노지니(2004)	간접적 정보뿐만 아니라 화자 자신의 감각 기관을 통해 얻은 직접적 정보를 추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고, 화자의 내면 상태까지도 추측할 수 있음
안주호(2004)	주관적인 대상을 근거로 함
이미혜(2005)	판단 근거 제약 없음 (객관적인 지각 경험, 화자의 직감, 느낌 등)
국립국어원(2005나)	주로 말하는 사람 자신의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경험, 지식에 근거함
이선영(2006)	화자가 발화하는 내용의 근거 자체가 화자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지식에 기반을 둠
유민애(2012)	직접적 정보, 간접적 정보, 내재적 정보
손혜옥(2016)	추측의 근거에 제약이 없이 두루 사용될 수 있는 표지
강현화 외(2017)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 화자의 주관적인 경험 근거
이지연(2018)	추측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요하지는 않음
탕이잉(2020)	새로 앎, 이미 앎
이상숙(2021)	판단 근거에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됨(다만 확실성이 중간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판단 근거가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주관적인 것에 더 자연스럽다)
차명희(2022)	화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 모두에 대해 추측

추측 양태 표현에 비해, 추측에 대한 근거는 비교적 제약이 없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과 달리 추측의 근거가 현장에서 지각 정보, 화자의 과거·현재에서 직접·간접 경험,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직관 등에 근거한 추측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추측의 근거에 제약이 없이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48].

다음 추측의 의미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가 갖는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로는 이기종(2001), 김지은(1998), 노지지(2004), 안주호(2004), 이미혜(2005), 이선영(2006), 유민애(2012), 손혜옥(2016), 이상숙(2021) 등이 있다[49]. 기존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발화 현장에서의 지각 경험, 화자의 내면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추측을 할 수 있지만 확실한 근거가 명시된 상황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자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화자의 확신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매우 불확실한

48) 이지용(2021)에서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과 비교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특성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화용적 의미에 주목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49) 선행연구에서 밝힌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추측 근거 성격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추측 근거 성격
이기종(2001)	-발화 외적 지식이나 논리적 근거에 의한 화맥에서 실현됨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역 사태의 가능성을 개진하는 표현에 자연스러움 -불확실한 사유 명제를 대상으로 하기에 근거 또한 경험적 사실보다는 전제적 사실이나 추측 표현 같은 가상 명제로 이룩되는 예가 많음 (추측의 근거는 가상 명제이거나 조건 명제 등이며 동일한 추측 표현 형식인 '-을 것이다', '-ㄹ터이다' 등과 함께 잘 쓰임)
김지은(1998)	-'불확실성'의 근거
노지지(2004)	-근거가 확실하여 다른 사태를 배제한 채 통어적 문법소와 결합하는 사태의 가능성만을 부각시킬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음 (외적 근거나 내적 근거가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는 쓰일 수 없음)
안주호(2004)	불확실한 가정
이미혜(2005)	-판단 근거 제약 없음 (객관적인 지각, 자신의 느낌 등) (하지만 추측의 근거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어색함) -가정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됨
이선영(2006)	화자의 발화에 대한 확신과 책임성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는 표현
유민애(2012)	내재적 정보
손혜옥(2016)	-가능성 표지 (특별한 판단의 근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능성 표지는 양태 강도가 낮으므로 직접 감각 경험에 근거한 추측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여 화자의 확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때 가증성의 표지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숙(2021)	-확실성이 낮으므로 확실한 근거가 명시된 상황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음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가정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며, 반대 사태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추측할 때도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따라서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사태의 가능성을 추측한다는 점에서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과 유사하지만, 반대 상황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추측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므로 추측의 근거가 명확할 때는 어색하다.

앞서 살펴본 논의들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추측 근거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과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지각 정보, 내면화된 정보, 자신의 느낌 등을 모두 근거로 하여 추측할 때 사용할 수 있다.

(26)

가. (하늘에 잔뜩 낀 먹구름을 보고)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올지도 몰라요}.

나. 아이가 자꾸 울어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고플지도 몰라요}.

다. 오늘은 공휴일이니까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닫았을지도 몰라요}.

라. 이 잡채는 냉장고에 안 넣으면 {쉴 것 같아요, 쉴지도 몰라요}.

마. 선생님이 내 이름을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실지도 모른다}. (김지은, 1998:168)

바. 한국에 가면 음식이 입에 안 {맞을 것 같아요, 맞을지도 몰라요}.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위 예문 (26)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문 (26.가~나)는 지각 정보를 근거로 하여 추측하는 상황이며, (26.다~라)는 과거의 경험이나 일반적 지식 즉 내면화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추측하는 상황이다. 예문 (26.마~바)는 발화 맥락에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도 자신의 내면적 느낌을 바탕으로 추측하여 발화는 상황이다.

(27)

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비가 {?올 것 같다, 올지도 모른다}. (김지은, 1998:170)

나. A: 비가 그쳤으니까 우산을 두고 가도 되겠지?

B: 장마철이니까 갑자기 비가 {?올 것 같아, 올지도 몰라}. 가져가는 게 좋을걸.

다. A: 다음 주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뭘 가지고 가야 하지?
B: 잊지 말고 약을 꼭 챙겨 가. 갑자기 {?아플 것 같아, 아플지도 몰라}.

하지만,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예문 (27)처럼 반대 사태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추측할 때도 자연스럽게 사용되지만,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어색하다. (27.가)에서 화자는 '비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으며, (27.나)에서는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다. (27.다)에서도 '아프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플 수 있다'는 가정을 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때 '-(으)ㄴ/는/(으)ㄹ 것 같다'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가 더 적절하다. 따라서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사태의 가능성을 추측한다는 점에서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과 유사하지만, 반대 상황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추측이라는 점에서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과 차이가 나타난다.

(28)

가. 허겁지겁 먹는 걸 보니까 {굶은 것 같다, ?굶었을지도 모른다}. (이미혜, 2005:129)

나.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맛있는 것 같다, ?맛있을지도 모른다}.

다. 민수한테 들었는데, 수진이가 {아픈 것 같다, ?아플지도 모른다}. (노지니, 2004:92)

그러나, 위의 예문 (28)처럼 발화 현장의 추측 근거가 매우 명확할 때는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로 표현하는 것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다. 즉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지각 정보를 바탕으로 화자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그중 하나의 경우를 추측하여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다른 사태를 배제할 수 있는 확실한 상황에서는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근거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으)ㄹ지(도) 모르다'가 반대의 사실을 가정하면서 추측하는 확실성이 낮은 표현이라는 데 원인이 있다(이미혜, 2005:129).

(29)

가. 어쩐지 표가 {있을 것 같다, ?있을지도 모른다}. (노지니, 2004:93)

나. 왠지 차가 {막힐 것 같아요, ?막힐지도 몰라요}.

한편, 위의 예문 (29)처럼 외적 근거나 내적 근거가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사용이 자연스럽지만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어색하다. 따라서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경우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외적 근거와 내적 근거가 모두 없을 때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0)

가. 제주도에 가 보니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윤진 외, 2003:193)

나. A: 어제 면접 어땠어?

B: 괜찮았어. 좀 긴장하긴 했지만 잘 본 것 같아.

다. A: 이 영화 봤어요?

B: 네, 봤어요. 지난주에 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31)

가. 낮에 운동을 했더니 좀 피곤한 것 같다.

나. 나도 지금 배고픈 것 같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예문 (30)처럼 화자가 직접 한 경험이나 예문 (31)처럼 자신의 내적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과 구분된다. 따라서 '-(으)ㄴ/는/(으)ㄹ 것 같다' 표현은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에 비해, 추측에 대한 근거는 비교적 제약이 없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추측의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

'추측'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시 '확실성(necessity)',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으로 하위 분류된다(김지은, 1998; 이혜용, 2003; 박재연, 2004; 이미혜, 2004; 문병열, 2007; 박진호, 2011가; 이지연, 2018 등). 박재연(2004)에 의하면 ‘확실성’은 ‘화자가 명제의 확실성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가짐’을 나타내는 것, ‘개연성’은 ‘화자가 명제의 확실성에 대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오십 퍼센트 이상의 확신을 가짐’을 나타내는 것, ‘가능성’은 ‘화자가 명제의 확실성에 대해서 오십 퍼센트 미만의 확신을 가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중에서 추측은 개연성,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이다(이미혜, 2005; 손혜옥, 2016). 이에 본 연구에서 추측 표현은 개연성과 가능성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개연성’, ‘가능성’은 이렇게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 구분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연구자에 따라 동일한 문법 항목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이지연, 2018:64).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개연성’, ‘가능성’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이미혜(2005), 손혜옥(2016), 이지연(2018)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세 가지 기제를 통한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세 가지 검증 기제란 첫째, 긍정 명제와 부정 명제의 양립 가능성 여부, 둘째, 양태 부사와의 공기 여부, 셋째, 화자의 추측 태도가 주체적이냐 객체적이냐 여부로 확인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긍정 명제와 부정 명제의 양립 가능성 여부란 명제 실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가능성을 한 문장에서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의 문장에서 긍정과 부정 명제가 양립함은 곧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가 50 퍼센트 정도에 지니지 않음을 나타내므로 긍정과 부정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는 추측 양태 표현은 그렇지 않은 표현보다 판단의 확실성 정도가 약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이지연, 2019:425). ‘가능성’은 추측의 의미 부류 중 확실성의 정도가 가장 낮다. 사건이 실현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최소한의 믿음을 나타내므로 한 문장에서 긍정과 부정의 가능성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개연성’은 개별 문법 항목의 확실성 정도에 따라 문장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능성’에 가까운 확실성 정도가 낮은 문법 항목의 경우, 긍정과 부정의 가능성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지만, ‘확실’에 가까운 확실성 정도가 높은 문법 항목은 긍정과 부정의 가능성을 한 문장에서 제시할 수 없다.

(32)
가. *비가 오겠고, 안 오겠다.
나. *비가 올 것이고, 안 올 것이다.
다. *비가 올 텐데, 안 올 텐데.
라. *비가 올걸, 안 올걸.
마. *비가 오려나 보고, 안 오려나 보다.
바. *비가 올 모양이고, 안 올 모양이다.
사. 비가 올 것 같고, 안 올 것 같다.
싸. 비가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문장에서 긍정 명제와 부정 명제가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것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가 5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문장에서 긍정과 부정 명제가 양립 가능한 예문 (32.사)와 (32.싸)의 표현들은 그렇지 않은 표현들보다 추측의 확실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부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을 통해 다른 표현들보다 화자의 확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기준을 바탕으로 추측 양태 표현의 확실성 정도를 표로 구분하면 <표 II-15>와 같다.

<표 II-15> 첫 번째 기준을 의한 추측 양태 표현의 확실성 정도 구분

확실성 정도	추측 양태 표현
확실성 높음 ↕ 확실성 낮음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두 번째로 양태 부사와의 공기 여부란 믿음의 정도가 매우 약함을 뜻하는 정도 부사 '혹시',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음을 뜻하는 정도 부사 '어쩌면', '아마'와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정도 부사 '틀림없이', '확실히'와 양태 표현과의 공기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가능성'의 추측 양태 표현은 '혹시'와는 공기하지만, '어쩌면', '아마'와는 공기할 수도 있고, 공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50]. 그리고 부사 '틀림없이', '확실히'는 판단이 명확한 경우에 사용되므로 '가능성'의 표현과는 공기할 수 없다. '개연'의

추측 양태 표현은 ‘어쩌면’, ‘아마’와 ‘틀림없이’, ‘확실히’와 모두 공기할 수 있지만, ‘혹시’와는 공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 예문 (33)과 같이 정도 부사와 추측 양태 표현들의 공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33)

가. 먹구름을 보니 {*혹시, 아마, 어쩌면, 확실히, 틀림없이} 비가 오겠어요.
나. 먹구름을 보니 {*혹시, 아마, 어쩌면, 확실히, 틀림없이} 비가 올 거예요.
다. 먹구름을 보니 {*혹시, 아마, 어쩌면, 확실히, 틀림없이} 비가 올 텐데요.
라. 먹구름을 보니 {*혹시, 아마, 어쩌면, 확실히, 틀림없이} 비가 올걸요.
마. 먹구름을 보니 {*혹시, 아마, 어쩌면, 확실히, 틀림없이} 비가 오려나 봐요.
바. 먹구름을 보니 {*혹시, 아마, 어쩌면, 확실히, 틀림없이} 비가 올 모양이에요.
사. 먹구름을 보니 {*혹시, 아마, 어쩌면, 확실히, 틀림없이} 비가 올 것 같아요.
싸. 먹구름을 보니 {혹시, 아마, 어쩌면, *확실히, *틀림없이} 비가 올지도 몰라요.

예문 (33)을 보면,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추측 양태 표현 중에서 가장 확실성이 낮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표현들은 모두 ‘아마, 어쩌면, 확실히, 틀림없이’와 공기하지만 ‘혹시’와는 공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가능성’으로,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개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연성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표현들 중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다른 표현들보다 확실성이 낮다.

50) 이지연(2018)에서 ‘가능성’의 문법 항목 가운데 ‘-(으)ㄹ까 보다’는 ‘혹시’와는 잘 사용되지만 ‘아마’와의 공기는 어색하다고 서술하였다.

<표 II-16> 두 번째 기준을 의한 추측 양태 표현의 확실성 정도 구분

확실성 정도	추측 양태 표현
확실성 높음 ↕ 확실성 낮음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자의 추측 태도가 주체적이냐 객체적이냐 여부로 추측의 확실성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동욱(2000)과 안주호(2004)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제를 사용하여 판단 주체가 화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였다. 화자의 추측 태도에 대해서 김동욱(2000)은 화자의 추측 태도에 따라 '주체 추측'과 '객체 추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표 II-17> 김동욱(2000)의 '주체 추측'과 '객체 추측'

	유형	정의
추측의 태도	주체 추측	화자가 자신의 판단 및 판단이 나타내는 명제 내용에 대해 주체적인 서술 태도 즉, 판단의 주인된 태도를 취하는 추측형식
	객체 추측	화자가 자신의 판단 및 판단이 나타내는 명제 내용에 대해 객체적인 서술 태도 즉, 제삼자적인 태도를 취하는 추측형식

김동욱(2000)에 따르면 주체 추측은 화자 고유의 판단이라는 의식이 있고, 판단의 최종적인 책임이 화자 자신에게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반면, 객체 추측은 화자 고유의 판단이라는 의식이 없고, 판단의 최종적인 책임이 화자에게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윤진.노지니(2003)에서도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명제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심리적 거리를 두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조적 표현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객체 추측은 화자가 명제에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발화하는 것이므로 주체 추측보다는 화자의 확신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강소영(2002)에서도 화자가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게 되는 것은 '주관성'을 특징으로 하는 양태의 견해에서 보면 좀 더 낮은 확신을 담은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곧 이들 표현들의 확실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자가 객체 추측

의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명제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4)

가. 내 생각에는 오늘 비가 오겠다.

나. 내 생각에는 오늘 비가 올 것이다.

다. 내 생각에는 오늘 비가 올 텐데.

라. 내 생각에는 오늘 비가 올걸.

마. ? 내 생각에는 오늘 비가 오려나 보다.

바. ? 내 생각에는 오늘 비가 올 모양이다.

사. 내 생각에는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싸. 내 생각에는 오늘 비가 올지도 모른다.

위의 예문 (3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내 생각에는' 기제를 사용하는 문장에서는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가 자연스럽지만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가 판단의 주체가 화자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과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반면,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화자가 판단에 대한 객체적인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과의 공기가 어색한 것이다. 따라서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다른 표현들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보다 한 단계 낮은 확실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화자가 명제에 거리를 두고 객체적인 입장을 취하며 추측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과 구분된다. 즉,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제 3자의 입장에서 객체적으로 추측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을 통해 최종적으로 추측 양태 표현들의 확실성 정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Ⅱ-18>과 같다.

<표 II-18> 세 번째 기준을 의한 추측 양태 표현의 확실성 정도 구분

확실성 정도	추측 양태 표현
확실성 높음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확실성 낮음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이상으로 여덟 개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9>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

구분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 걸 (요)	-는가/ (으)ㄴ가/ 나 보다	-(으)ㄴ/ 는/(으)ㄹ 모양이다	-(으)ㄴ/ 는/(으) 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 모르다
추측의 근거	현장의 지각 정보	원인 추측	직접 지각	X	X	X	X	0	0 (구어△)	0	0 (명확한 근거X)
			간접 지각	X	X	X	X	0	0 (구어△)	0	0 (명확한 근거X)
			내적 지각	X	X	X	X	0	0 (구어△)	0	X
		결과 추측	직접 지각	0 (+지식)	X	X	X	명확한 근거 0	명확한 근거 0 (구어△)	0	0 (명확한 근거X)
			간접 지각	0 (+지식)	X	X	X	명확한 근거 0	명확한 근거 0 (구어△)	0	0 (명확한 근거X)
			내적 지각	0 (+지식)	X	X	X	0	0 (구어△)	0	X
	내면화된 정보	일반적 지식, 과거의 직접 경험, 과거의 간접 경험		X	0 (+전문적 지식, 진리/ 예언)	0 (+비아냥)	0 (+반박)	X	X	0	0 (+반대 상황 가정)
	화자의 직관, 직접 경험			X	X	X	X	X	X	0	0 (직접 경험 X)
확실성 정도				상	상	상	상	중	중	중/하	하

(사용 비율: 높음 0, 낮음 △, 사용되지 않음 X)

2.2.3.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

추측 양태 표현들은 양태적 의미와 함께 담화·화용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는 확실성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화자는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사태의 인식과는 다른 언술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이기종, 2001:16). 즉 화자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확실하지 않은 표현으로 자신의 의견을 완곡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모두 추측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표현 항목들은 상황에 따라 '공감하기', '위로하기', '거절하기', '의견을 제시하기' 등의 화행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어 교실에서는 추측 양태 표현이 갖는 화용적 측면보다는 문법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 왔다. 추측 양태 표현이 갖는 형태·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화용적 실패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발화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용에 대한 직접적인 교수가 필요하다(허지이 외, 2021:187).

화용적 실패란 화자의 판단에 청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발화의 힘(the force of the speaker's utterance)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Thomas 1983:94 정미진, 2016:11 재인용). 예를 들면 화자는 요청을 의도하고자 했으나 이것이 청자에게는 명령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는 화자는 공손하게 요청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한 것이 청자에게는 노골적이고 무례한 발화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화용적 실패하고 불린다. 화용적 실패는 언어적 문제와 관련된 화용언어적(pragmalinguistic) 실패와 문화 간의 서로 다른 인식에서 발생하는 사회화용적(sociopragmatic) 실패로 나뉜다. 요청의 경우 학습자가 요청의 힘을 완화하는 외국어 표현을 직접적인 명령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화용언어적 실패의 예에 해당한다. 또는 사회적 규범상 요청을 하기 어려운 상대에게 학습자가 거리낌 없이 요청을 한다면 이는 사회화용적 실패의 하나가 된다. 일반적으로 화용언어적 실패에 비해 사회화용적 실패를 극복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Ellis, 2008:190). 사회화용적 실패는 특정 문화권의 사회적 규범에 관련되어 있어서 언어적 행위의 적절함과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

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rown & Levinson(1987)은 사람들이 공손의 원리를 실현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체면(face)'을 소극적인 체면(negative face)과 적극적인 체면(positive face)으로 구분하였는데 소극적인 체면은 화자가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으려는 것이며, 적극적인 체면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화자가 상대방에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체면 위협 행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소통 전략을 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에 있어 공손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보다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화자의 태도에 의해 의사소통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노지니(2004)에서 추측 양태 표현은 '공손'의 기능으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추측'의 인식 태도가 불확실한 앎이기 때문에 단언보다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화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청자가 그것을 수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은 상대방에게 그것을 수용해야 할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편,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불일치하는 의견을 내는 것은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견을 완곡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공손함을 표현해야 한다면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청자의 수용 부담감을 완화하여 공손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능력이 발달하거나 전반적인 언어 숙달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화용 능력도 같은 속도로 함께 발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화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정란(2011)에서 문법 능력과 화용 능력의 발달 차이가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학습자의 문법 능력이나 전반적인 언어 숙달도의 발달에 따라 화용 능력이 일부 개선되는 면이 있지만, 화용 능력의 어떤 측면은 고급의 단계에서도 여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보다 집중적으로 담화·화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추측 양태 표현이 완곡[51]의 기능을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51) 여기에서의 '완곡'은 물론 화용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공손'의 의미도

왔는데 대표적으로 이혜용(2003), 노지니(2004), 이미혜(2005), 성미선(2009), 엄녀(2010) 등이 있다. 이혜용(2003)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판단의 책임성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완곡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의견을 완곡하게 제시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여 거절, 동의, 인정, 권유 등의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노지니(2004)에서는 추측 양태 표현들은 공통적으로 추측의 인지 과정이 가지고 있는 간접성, 부담의 약화, 청자에 대한 선택의 강화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공손의 기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인식 기반을 지니고 있지만 추측 양태 표현들의 각각의 특징에 따라 공손으로 확장되는 양상은 다양하다고 하였다. 이미혜(2005)에서는 추측 양태 표현의 화용적 기능으로 책임 회피, 자신감 없음, 공손을 나타낸다는 것을 들었다. 성미선(2009)에서는 추측 양태 표현의 완곡어법으로 '완곡하게 부탁 거절하기, 완곡하게 자신의 생각 말하기, 완곡하게 제안·요청하기, 평가하기 및 우회적으로 말하기'등이 있다고 하였다. 엄녀(2010)에서는 화자가 의견을 완곡하게 제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리고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충격 또는 체면 손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정미진(2017)에서는 구어 말뭉치 분석을 통해 추측 양태 표현의 화행 실현 양상을 밝혔다. 그러나 다음 <표 II-2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이 '공손'을 실현하는 데 쓰이는 양상에 대한 선행연구의 견해는 각각 다르다.

<표 II- 20>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이혜영 (1996)				부담줄이기				
이혜용 (2003)						책임 회피, 동의, 확인	의견 제시 (거절, 권유, 사과)	
노지니 (2004)		X			제한적 실현 (새 정보 요구 불필요, 상대방 평가하기)		생산적 실현 (의견 제시, 반대 의견	생산적 실현 (반대 의견 제시)

포함하는 것이다.

							제시)	
이미혜 (2005)	공손 기능 적음	공손 기능 적음			책임 회피		공손 기능	공손 기능, 책임 회피, 자신감 없음
성미선 (2009)	공손 기능	X	공손 기능		공손 기능	X	공손 기능	공손 기능
엄녀 (2010)		X			책임 회피, 체면 손상 완화		의견 제시 (거절, 제안), 책임 회피, 체면 손상 완화	X
유민애 (2012)	X	X			책임 완화		부정, 거절, 책임 완화	X
황주하 (2015)	공감하기	안심시키기					완곡하게 표현하기	
손혜옥 (2016)	의견 제시	X					의견 제시, 반대 의견 제시	반대 의견 제시
정미진 (2016)		위로/격려, 감사			의견 제시, 관심 표시, 사과		의견 제시, 거절, 요청	의견 제시
이상숙 (2021)	공감 기능, 완곡 기능	완곡 기능, 위로/안심 기능, 권유/조언 기능	완곡 기능, 후회/체념/다행	완곡 기능, 후회, 아쉬움	관찰자적 태도	관찰자적 태도	완곡 기능	완곡 기능
탕이잉 (2023)	부담 완화, 공감하기, 축소 표현	부담 완화, 위로하기, 축소 표현			정보 영역 존중, 축소 표현, 잘못 인정	정보 영역 존중, 축소 표현	부담 완화, 정보 영역 존중, 부정적 의도 완화, 공감하기, 축소 표현, 잘못 인정	

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등의 담화·화용적 기능에 관한 기술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화자가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이나 화자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상황에서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화자의 책임을 줄이는 의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연구자에 따라 공손한 표현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고, 공손한 표현으로 보지 않은 연구자도 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화자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을 공손과 다르다고 보는 의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Lakoff(1990)에서는 공손을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에 내재화된 갈등과 대립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대인관계의 체계'라고 규정하였고, Leech(2007)에서는 공손의 원리가 '의사소통 상의 불화와 불쾌한 감정의 유발을 피하면서 조화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제약'이라고 하였다. 이들 논의에서 말하는 갈등과 대립 또는 불화한 감정의 유발은 체면의 위협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화자와 청자가 자신의 체면이 위협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화자와 청자 간에 갈등과 대립 또는 불화와 불쾌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영(1996)에서는 청자의 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화자 자신에게 부담이 큰 표현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화자는 자신에게도 부담이 적은 표현을 선택하여 발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정미진(2004)에서는 화자와 청자는 자신과 대화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체면 상실은 다른 쪽의 체면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 자신의 체면을 위해 추측 양태 표현을 통해 공손과 화자 체면 유지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52].

추측 양태 표현은 화자와 청자의 관점에서 청자를 높이는 존중의 기능과 화자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기능으로 나뉠 수 있다. 타인에 관련된 것을 존중하고 자신에 관련된 것을 낮춤으로써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윤정화(2014)에서 청자 존중은 청자뿐만 아니라 청자와 관련된 것을 모두 포함하여 높이는 것을 의미하고, 화자 겸손은 화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화자가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를 높이는 존중 전략에서는 '반대 의견 제시하기', '부탁 거절하기',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제시하기',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 '공감 표현하기', '위로 표현하기' 등이 있으며, 화자 자신을 낮추는 겸손 전략에서는 '감사 표현하기',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전략에서 각 추측 양태 표현들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살펴보겠다.

(1) 청자 존중 전략

1) 반대 의견 제시하기

52) 그러나 명확한 응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화자가 지나치게 책임을 회피하면 상대방에게 무책임으로 느껴지므로 공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의 제안이나 요청, 부탁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반대나 거절을 당할 때 혹은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받거나 지적을 받을 때 자존심에 손상을 입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때에 우리는 불확실한 표현 즉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의도를 약화시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려고 한다. 이것은 Leech(2002)의 상대방의 견해에 더 높은 가지를 두고 비동의는 모호하게 하라는 공손 전략과 일치하고, Brown & Levinson(1987)이 제시한 긍정적 공손 전략의 비동의 회피 전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35)

가. A: 저는 톨스토이가 쓴 죄와 벌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양진 씨도 읽어보셨어요? (윤정화, 2014:97)

B: 네,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건 톨스토이가 쓴 게 {아닐 것 같아요, 아닐지도 몰라요, 아닐 거예요, 아닐걸요, 아닐 텐데요, 아니겠어요, ?아닌가 봐요, ?아닌 모양이에요}.

나. A: 혼인율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 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

B: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닐지도 몰라요, 아닐 거예요, 아닐 텐데요, 아닐걸요, 아니겠어요, ?아닌가 봐요, ?아닌 모양이에요}. 혼자 사는 삶이 좋아서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위 예문 (35)는 화자가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반대 의견을 불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청자에게 직접적인 표현은 청자의 체면에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청자의 체면 보호를 위해 이렇게 불확실한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추측'의 의미를 가진 표현들은 동일한 '공손성'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화자가 상대방에게 반대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할 때는 확실성이 강한 표현보다 확실성이 약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청자에게 직접적인 체면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담화 상황과 청자와의 사이에 따라 확실성 정도를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상대방에게 반대의 의견을 말할 때 자신의 주체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체적 판단인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2) 부탁 거절하기

우리는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청 등을 거절할 때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다. 즉 단정적으로 거절하는 것보다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탁하는 순간 약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 친밀한 관계의 사람일지라도 요청이나 제안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거절을 당하게 되면 인격 체면에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거절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체면 위협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6)

가. A: 유미 씨, 퇴근 안 해요? 약속이 없으면 같이 저녁 먹으러 갑시다.
B: 미안해요, 지수 씨.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힘들겠어요, 힘들 거예요, 힘들 텐데요, 힘들걸요, 힘들지도 몰라요, ?힘드나 봐요, ?힘든 모양이에요}.

나. A: 진수야,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통역을 해 줄 수 있어?
B: 일요일 저녁에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어렵겠어, 어려울 거야, 어려울 텐데, 어려울걸, 어려울지도 몰라, ?어려운가 봐, ?어려운 모양이야}.

위 예문 (36)은 화자가 상대방의 부탁이나 제안을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추측 양태 표현의 확실성 정도에 따라 공손성의 정도도 달라진다. 보통 화자가 주체적 판단에 두루 쓰이는 확실성이 약한 추측 양태 표현인 '-ㄴ/는/ㄹ 것 같다'를 사용하면 공손함을 드러낸다. 반면, '-겠-'은 확실성 정도가 높으며 단정 짓는 표현에 가깝다. 이로 인해 화용적인 측면을 보면 '-겠-'은 상대방의 제안이나 부탁을 거절할 때 공손성이 낮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으)ㄹ 것이다'도 추측 양

태 표현 중에서 확신 정도가 제일 높으며 단정 짓는 표현과 차이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는 확신 정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각각 가지고 있는 '비아냥'과 '반박'의 특성으로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경우, 이 표현은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이며 가능성에 대한 추측으로 확실성 정도가 가장 낮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무책임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공손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화자의 주체적인 판단으로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어색하다.

3)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제시하기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충격이나 체면 손상을 완화하게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것이 상대의 체면을 존중하는 방법이 된다. 김미형(2000)에서도 상대방의 잘못이나 약점에 대해 지적해야 할 때 추측 양태 표현을 쓰면 비난이나 힐책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하였다.

(37)

가. A: 2만원입니다.

B: 사장님,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나 봐요, 잘못된 모양이에요,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잘못됐을 거예요, 잘못됐을 텐데요, 잘못됐을걸요, 잘못됐겠어요}. 저는 자장면 하나만 시켰어요.

나. A: 난 이 문제 풀었어. 답은 2번이야.

B: 그래? 근데 2번 {아닌 것 같아, 아닌가 봐, 아닌 모양이야, 아닐지도 몰라, 아닐 거야, 아닐 텐데, 아닐걸, 아니겠어}. 다시 해 봐.

위 예문은 상대방이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 말할 때 비난이 아닌 추측 양태 표현을 씀으로써 완곡하게 표현하는 예들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를 지적하여 말할 때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청자를 배려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여러 추측 양태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확실성 정도가 약한 '-ㄴ/는/ㄹ 것 같다'를 많이 사용한다. 또한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객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ㄴ/는/ㄹ 것 같다'보다 확신 정도가 더 높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체면을 유지해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단정 짓는 표현에 가까운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를 사용하면 확신 정도가 높아서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다.

4)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사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우리는 이미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이혜용(2003)에서 '확인'이란 상대방의 정보를 묻는 것이므로 타인의 정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객체적 판단 태도를 나타내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사용이 상대방의 정보 영역을 존중해 주는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다. 이혜용(2003)에서도 '확인'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정보가 청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자보다 청자가 정보를 더 갖고 있으므로 '강한 기지가정'의 의미를 지니는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사용이 적절한 것이라고 기술하였다[53]. 한편,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처럼 정보 영역을 존중하는 기능성이 높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확실성이 낮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도 상대방의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 위한 공손 전략으로 쓰일 수 있다.

(38)

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김미형, 2000:47)

나. (윤서가 오페라 관람하는 것을 보면서) 몇 번째 보시는 거예요? 정말

53) 이혜용(2003)에서는 '-(ㄴ/ㄹ) 듯싶다', '-(ㄴ/ㄹ) 듯하다', '-(ㄴ/ㄹ) 모양이다', '-(ㄴ/ㄹ) 것 같다'의 의미 차이를 밝히고, 그로부터 어떻게 화용적 기능이 도출되는지에 관해 설명하였다.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텐데요, ?좋아하실걸요,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정미진, 2016:143)

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앞집에 이사 온 지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B: 그렇지 않아도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인사를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외국분이신가 봐요, 외국분이신 모양이에요, 외국분이신 것 같아요, ?외국분이시겠어요, ?외국분이실 거예요, ?외국분이실 텐데요, ?외국분이실걸요, ?외국분이실지도 몰라요}.

라. A: 한 그릇 더 줘.

B: 또? 많이 먹네. 배가 많이 {고팠나 봐, 고픈 모양이야, 고픈 것 같아, ?고팠겠어, ?고팠을 거야, ?고팠을 텐데, ?고팠을걸, ?고팠을지도 몰라}.

마. A: 지수야, 우리 오늘도 떡볶이 먹을까?

B: 선배,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텐데요, ?좋아하실걸요,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예문 (38)에서 화자는 대화 상대방과 얘기하다가 알게 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정보에 관하여 확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럴 때 상대방의 정보를 침범한다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화자의 주체적인 판단이 아닌 객체적 판단 태도를 나타내는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그리고 확실성이 낮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의 정보를 존중해 주고 공손성을 드러낸다[54].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어색하다.

54) 노지니(2004)에서도 화자가 청자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내릴 때 '공손'의 기능을 위하여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 모양이다'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5) 공감 표현하기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체면을 충족시켜 존중을 표현할 수 있다. 화자와 대화 상대방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욕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Leech(1983)의 공감 격률에 따라 상대방의 정서에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Lakoff(1973)의 동료 의식 규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자를 기분 좋게 하는 전략이 된다(윤정화, 2014:84). 공감이란 상대방의 상황,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 내부로 가져와 상대방과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때 '-겠-'을 사용하여 공감을 나타낼 수 있다(이필영, 2012; 황주하, 2018; 이지연, 2019; 이상숙, 2021; 탕이잉, 2023). 이렇게 상대방에게 공감을 나타내는 것은 '-겠-'의 의미적 특성인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와 자신의 내면화된 지식을 결합하여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점과 관련이 있다.

(39)

가. (넘어져서 무릎에 멍이 든 아이에게) 많이 {아프겠다, ?아플 것 같다, ?아플 것이다, ?아플 텐데, ?아플걸, ?아픈가 보다, ?아픈 모양이다, ?아플지도 모른다}. (이필영, 2012:116).

나. A: 이번 주 내내 야근했는데 주말에는 이사도 해야 돼. (정미진, 2016:81)

B: 진짜 {힘들겠어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거예요, ?힘들 텐데요, ?힘들걸요, ?힘든가 봐요, ?힘들 모양이에요, ?힘들지도 몰라요}.

다. A: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동해에 여행 가기로 했어요.

B: 와! {재미있겠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거예요, ?재미있을 텐데요, ?재미있을걸요, ?재미있나 봐요, ?재미있는 모양이에요, ?재미있을지도 몰라요}.

위의 예문 (39)는 화자가 청자의 이야기를 듣고 청자의 감정을 추측하는

동시에 청자의 감정을 공감한다는 느낌으로 말하는 상황이다. 이때 '-겠-'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 화자가 상대방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느낌을 준다.

이필영(2012)에서 추측 양태 표현 '-겠-'의 일반적 의미는 판단자의 감정을 동반하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가 어떤 인물의 처지와 결부가 될 경우에는 그 인물에 대한 정서적 공감의 의미로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으)ㄹ 것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등과 같은 다른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공감은 없이 단지 사실적 판단만을 나타낸 것이 될 것이며, 이는 청자의 처지에 관하여 말할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공감을 표현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원리에 맞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청자에게 '공감'을 나타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겠-'이 적절한 표현인 반면,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적절하지 않다.

6) 위로/격려를 표현하기

우리는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상대방에게 위로하거나 격려함으로써 상대방의 적극적인 체면을 충족시켜 존중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럴 때 청자를 안심시키거나 격려하기 위해서 사태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어야 하는 상황에서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여 표현한다(이필영, 2012; 정미진, 2016; 박재연, 2018; 황주하, 2018; 이상숙, 2021; 탕이잉, 2023). 이는 '-(으)ㄹ 것이다'가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보다 높은 확실성의 특성이 있는 점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화 상대방의 불안감을 덜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황주하, 2018; 탕이잉, 2023).

(40)

가. (간호사가 어린이에게 주사 놓으면서) 이 주사 안 {아플 거다, ?아프겠다, ?아플 텐데, ?아플걸, ?아픈가 보다, ?아픈 모양이다, ?아플 것 같다, ?아플지도 모른다}. (이필영, 2012:114)

나. A: 경기 날짜가 다가오니까 긴장돼.

B: 너무 긴장하지 마.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잘할 거야, ?잘할 것 같아, ?잘하겠어, ?잘할 텐데, ?잘할걸, ?잘하나 봐, ?잘할 모양이야, ?잘할지도 몰라}.

다. A: 일을 잘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B: 지수 씨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있겠어요, ?있을 텐데요, ?있을걸요, ?있나 봐요, ?있을 모양이에요, ?있을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문 (40)은 화자가 걱정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울리는 추측 양태 표현은 '-(으)ㄹ 것이다'만 가장 자연스러우며 다른 추측 양태 표현은 비문이 되거나 자연스럽지 못하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가능할 것 같지만 확신의 정도가 강하지 않아서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효과를 얻지 못한다. 이필영(2012)에서도 화자가 청자를 안심시키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사태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어야 하는 상황에서, '-을 것이-'는 쓰이지만 '-을 것 같-'이나 '-겠-'은 쓰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화자가 상대방을 안심시키거나 위로하기 위해서는 사태에 대해 확신하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만약에 화자가 확실성이 약한 표현을 써서 안심시키거나 위로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될 것이다. '-(으)ㄹ 것이다'가 이렇게 위로하거나 안심시키는 상황에서 잘 사용되는 것은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보다 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2) 화자 겸손 전략

화자 겸손 전략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실현되며, 화자가 발화 내용에 들어 있는 자신을 겸손화하여 표현하거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축소/약화하여 발화 내용을 겸손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상대방의 수용에서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홍승아, 2020:99). 화자가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할 때, 자신에 관한 사태를 표현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자의 행위와 관련되는 것들이다. 김미형(2000)에서

이런 경우에 완곡 표현을 쓰는 것은 화자의 행위에 대한 완곡 표현을 쓰는 것이 되고, 이를 통해 청자의 화행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1) 감사를 표현하기

감사는 상대방의 베풀어 준 호의나 도움, 선물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 전달하는 것이다. 타인의 은혜를 입은 후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손 표현은 바로 직접 감사 표현인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이다. 또한 감사 표현 이외에 부가적인 표현을 병행해서 말하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 경제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청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는 더욱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신세 진 부분을 인정하고 화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명료한 감사 표현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부가적으로 연결되는 발화가 화자의 겸손을 나타내는 요소로 기능하게 된다(전정미, 2009:250). 이것은 Leech(1983)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라는 관용의 격률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때 추측 양태 표현은 보통 가정의 의미를 가지는 '-(으)면, -았/-었/-였다면'과 함께 사용되는데 대화 상대방의 도움이 없었을 때를 가정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화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확신을 표현한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좋은 결과의 모든 공로를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이다(윤정화, 2014:110).

(41)

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불가능했을걸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불가능했겠어요, ?불가능했을 텐데요, ?불가능했나 봐요, ?불가능한 모양이에요}. (정미진, 2016:143)

나. (어려운 과정을 끝내고 졸업을 하는 학생이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상황)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걸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없었겠어요, ?없

었을 텐데요, ?없었나 봐요, ?없었던 모양이에요}. (윤정화, 2014:110)

다. A: 발표는 잘했어?

B: 네. 선배님 덕분에 잘 마쳤어요. 선배님이 없었더라면 발표를 {망쳤을 거예요, 망쳤을걸요, 망쳤을 것 같아요, 망쳤을지도 몰라요, 망쳤겠어요, ?망쳤을 텐데요, ?망쳤나 봐요, ?망친 모양이에요}.

위 예문 (41)은 상대방의 도움이 화자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때 반사실 조건문의 후행절에 추측 양태 표현'-(으)ㄹ 것이다', '-(으)ㄹ걸(요)',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등을 결합하여 청자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정미진(2016)에서 이때 대화 상대방이 화자를 위해서 한 일이 화자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추측 양태 표현 중 확실성이 높은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확실성이 약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감사의 뜻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측 양태 표현들 중에서 확실성 정도가 가장 높은 '-(으)ㄹ 것이다'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한편, '-(으)ㄹ 텐데(요)'는 반사실적 조건문의 후행절에 어울리는 표현이지만 반사실의 행동을 한 후의 상황을 추측했을 때의 결과가 현재의 결과보다 좋을 때는 자연스럽지만 추측의 결과가 현재의 결과보다 좋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객체적이고 발화 현장의 지각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반사실적 조건문과 어울리지 않는다.

2)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그 잘못이나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신을 낮추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미진(2016)에서 대화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대화 상대방

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기 때문에 화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는 잠재적으로 창자의 체면 역시 위협할 수 있다고 하였다[55]. 따라서 화자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단정 짓는 표현보다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여 변명하면 실수한 상황을 모면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확실성 정도가 낮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나 제3자의 태도를 취하는 '-는가/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2)

가. (편의점에 계산할 때) (하흔흔 외, 2019:804)

A(손님): 어? 저 이거 한 개를 샀는데 왜 두 개로 찍혔어요?

B(점원): 아 ...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두 번 {찍은 것 같아요, 찍었나 봐요, 찍은 모양이에요, 찍었겠어요, 찍었을 거예요, 찍었을 텐데요, 찍었을 걸요, ?찍었을지도 몰라요}.

나. 지수 씨, 어젯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미쳤던 것 같습니다, 미쳤나 봅니다, 미친 모양입니다, 미쳤겠습니다, 미쳤을 겁니다, 미쳤을 텐데요, 미쳤을걸요,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 A: 얼마 전에 방송을 보고 바지를 샀는데요. 배송받은 바지가 방송에서 본 바지랑 색깔이 달라서요.

B: 그러세요? 일주일 전에 보라색, 흰색, 회색 바지를 구입하신 거 맞나요?

A: 네? 보라색 바지요? 전 남색 바지를 주문했는데요.

B: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품이 잘못 배송{된 것 같습니다, 됐나 봅니다, 된 모양입니다, 됐겠습니다, 됐을 겁니다, 됐을 텐데요, 됐을걸요, ?됐을지도 모릅니다}. 남색 바지로 바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

55) 탕이잉(2023)에서 화자가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이로 인한 자신의 체면 손상을 어느 정도 완화하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예문 (42)는 화자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단정 짓는 표현과 정확성이 높은 표현보다는 확실성이 약하고 주관적 판단을 내리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하면 실수한 상황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게 한다. 또한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자신의 실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을 것 같다'보다 실수한 상황을 모면하는 태도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즉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한편,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경우, 확실성이 아주 낮으므로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3) 자신에 관한 사태를 표현하기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명제 내용을 축소하거나 약화하여 겸손하게 발화하는 경우가 있다. 발화 내용의 겸손화 표현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발화 내용을 겸손하거나 비단정적인 성격을 갖도록 표현하여 청자에게 화자의 겸양을 표시하는 것이다(홍승아, 2020:99). 화자가 자신에 관한 사태에 대해 말할 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단언이 아닌 불확실한 표현으로 완곡하게 발화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의견 불일치를 피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43)

가. 난 프로는 못 {되나 봐, 되는 모양이야, 되는 것 같아, 될지도 몰라, ?되겠어, ?될 거야, ?될 텐데, ?될걸}. 계속 옆에서 비서 노릇하면서 그 여자 얼굴 못 보겠어. (정미진, 2017:204)

나. 아이, 뭘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내가 이 방면으로 소질이 {있나 봐요, 있는 모양이에요, 있는 것 같아요, 있을지도 몰라요, ?있겠어요,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요, ?있을걸요}. (탕이잉, 2023:165)

다. A: 지수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B: 선생님, 저는 진짜 언어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없나 봐요, 없는

모양이에요, 없을지도 몰라요, ?없겠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텐데요, ?없을걸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국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라. A: 전 지수 씨가 참 부러워요. 성격도 명랑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친구가 많으시잖아요.

B: 제가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다 보니 성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됐나 봐요, 된 모양이에요, 됐을지도 몰라요, ?됐겠어요, ?됐을 거예요, ?됐을 텐데요, ?됐을걸요}.

예문 (43)은 화자가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에 관한 생각이나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사용이 자연스럽다. 화자가 확실성이 높은 표현보다 확실성이 약한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제 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객체적인 '-는가/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통해 발화 내용을 축소함으로써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상대적으로 주관성을 약하게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자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보다 객체화할 수 있어 화자의 겸손함을 들어낼 수 있지만 사회적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발화할 때는 화자 지신의 일이라 객관적인 판단으로 말하는 것보다 주관적인 판단인 '-(으)ㄴ/는/(으)ㄹ 것 같다'로 말하는 것이 더 겸손한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56].

한편, 화자가 자신에 관한 사태를 말할 때 주로 화자가 과거나 현재에서의 본인의 사태에 대해서 이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발화하는 현재 스스로 새롭게 깨달았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앞선 2.2.1 절에서 살

56) 탕이잉(2023)에서는 '-(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화자가 자신에 관한 사태를 축소하여 발화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명제 내용은 화자의 장점이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일 때는 사용이 상이한다고 하였다. 즉 '-(으)ㄴ가/나 보다'가 상대적으로 주관성을 약하게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자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보다 객관화할 수 있어 화자의 겸손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쓰면 명제 내용의 확실성 정도가 여전히 축소되지만 주관성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해짐에 따라 겸손의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본 연구와 다르다.

펴보았듯이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쓰임이 자연스럽지만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 걸(요)'는 어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추측 양태 표현들의 형태·통사적 특성, 의미적 특성, 담화·화용적 특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불손 전략

추측 양태 표현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완곡하게 전달하기 위한 상황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냉소적이거나 빈정거리는 등의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난 경우가 있다. 이때 추측 양태 표현은 주로 수사의문문의 형식으로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될 때, 더이상 추측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도리어 명백한 단정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강세어법'이라 한다(이혜용, 2003:78).

(44)

가. A: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수에게 말 좀 해 볼게.
B: 걔가 오빠 말을 {듣겠어?, 들을 것 같아?}.

나. A: 지수야, 보고 싶었어.
B: 보고 싶었다고? 나한테 무슨 짓을 했었는지 다 {잊어버렸나 보지?, 잊어버린 모양이지?}. 그렇게 쉽게 그런 소리가 나와?

다. A: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B: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좀 찾느라고 지하실에 있었거든. 그래서 받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끊기던데?
A: 지하실이라고 전화가 {안 걸리진 않을 텐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늘 약속 잊지 않았지?

위의 예문 (44)는 화자가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견해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44.가)는 '걔는 오빠 말을 절대로 안 듣는다'라는

뜻을, (44.나)는 '나한테 무슨 짓을 했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화자의 의사를, (44.다)는 '지하실이라도 전화가 걸릴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명제 내용을 강하게 긍정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비꼼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ㄹ 텐데(요)' 등이 자연스럽게 공기한다.

이상의 추측 양태 표현들의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1>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

구분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 모르다
청자 존중 전략	반대 의견 제시하기	0	0	0	0	-	-	0	0
	부탁 거절하기	△	-	-	-	-	-	0	-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말하기	-	-	-	-	0	0	0	△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	-	-	-	-	0	0	△	-
	공감 표현하기	0	-	-	-	-	-	-	-
	위로/격려 표현하기	-	0	-	-	-	-	-	-
화자 겸손 전략	감사 표현하기	△	0	-	△	-	-	△	△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	-	-	-	0	0	0	-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	-	-	-	-	0	0	0	△
불손 전략		0	-	0	0	0	0	0	-

3.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특성

본고는 미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학습자 모국어인 미얀마어의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유형을 정리하고 형태·통사적 특성, 의미적 특성, 담화·화용적 특성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고 교착어인 반면 미얀마어는 중국-티베트어족, 티베트-버마어파에 속하며 교착어와 고립어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퓨퓨아웅, 2021:294). 한국어와 미얀마어는 주어-목적어-동사(SOV)의 어순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형태소가 어근이나 어간 뒤에 오고 문장구성 요소의 자리 옮김이 자유로운 것이 두 언어 간의 공통점이다(레이레이몬, 2020:22). 하지만 미얀마어는 조사나 어미에 이형태가 없고 어간의 형태 변화도 없다. 어미의 이형태가 없으므로 동사나 형용사에 따른 이형태나 어간의 모음이나 자음에 따른 이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얀마어에서 추측 양태의 의미 영역을 표현하는 형식은 양태 종조사(a verbal particle)[57]와 조동사(auxiliary verb), 그리고 복합 구성(a complex structure)으로 나눌 수 있다. 미얀마어의 추측 양태 표현에 관련된 양상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표 II-22> 미얀마어의 추측 양태 표현

문법형	추측 양태 표현	어휘적 의미 / 문법적 의미	양태 의미
조동사	-လောက်- /-lauʔ-/	to be sufficient, to be enough	개연성
	-နိုင်- /-naĩ-/	capable	가능성
종조사	-မယ် /-mɛ/	simple future marker	필연성
	-လိမ့်မယ် /-leĩ.mɛ/	compound future marker	
복합 구성	V-ရင်(ချင်) V-မယ်။ /V-jĩ V-mɛ/ V-원하(다) V-mɛ(미래형 종조사)	V desire V-mɛ (if one wants to V, one will V.)	가능성
	V-ဟုတ်(တဲ့) ပုံပေါ်တယ်။ /V-(mé)tɛ́ poʊ̃pɔdɛ/ V-(는/을) 모양이다	seem to V	개연성
	V-မယ် ထင်-တယ်။[58] /V- mɛ thĩdɛ/ P 생각한다	will V, I think	개연성
	N/P-နဲ့, တူ-တယ်။ /N/P-nɛ́ tudɛ/ N/P-과/와 같다	N/P 'with to be same' N/P 'with to be similar' (it looks like)	개연성

57) 한국어에서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미얀마어에서 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 조사뿐만 아니라 용언 뒤에도 붙는 조사가 존재하여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용어 뒤에 붙는 종조사는 문법적으로 시제나 서법, 또한 양태를 결정한다.

58) 이런 구성은 한국어의 '철수가 왔구만, 그래'에서 '그래', '철수가 왔네, 뭐'에서

위의 <표 II-21>에서 보인 바와 같이, 미얀마어에서 추측 양태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lauʔ-/, /-naĭ-/ 등의 양태 조동사나 /-mɛ/, /-lèi.mɛ/ 등의 양태 종조사, 그리고 /V-jì V-mɛ/, /V-(mé)té poõpɔ-dɛ/, /V- mɛ thĭ-dɛ/, /N/P-né tu-dɛ/ 등의 복합 구성이 있다.

3.1.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주요 형태·통사적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사의 형태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미얀마어는 조사나 어미(종조사)에 이형태가 없고 어간의 형태 변화도 없다. 어미의 이형태가 없으므로 동사나 형용사에 따른 이형태나 어간의 모음이나 자음에 따른 이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립어에 속하는 미얀마어는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나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 뒤에 동일한 추측 양태 표현을 결합한다.

(45)

가. အစ်မ အခု အိမ်မှာ ရှိလောက်တယ်။ [동사/ɕi./(있다)의 경우]

/əma əku éi̯-mha ɕi.-lauʔ-dɛ/

언니 지금 집-에 있-조동사(추측)-종조사

언니는 지금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나. သူ သဘောကောင်းလောက်တယ်။ [형용사/ θəbɔkaõː/(친절하다)의 경우]

/θu θəbɔkaõː-lauʔ-dɛ/

그는 친절하-조동사(추측)-종조사

그는 친절한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영어의 'He is right, I think.'에서 'I think', 'You'd better go, I guess.'에서 'I guess' 등과 같이 구어에서 양태를 나타내는 굳어진 표현이며, 양태 부가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Jenny M.& San S. H. T.(2016), Vittrant A. & Auwera J. V. d.(2010) 에 따라 복합 구성으로 한다.

다. ကိုရီးယားစကားက ခက်တယ်နဲ့တူတယ်။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kɛʔ/(어렵다)의 경우]

/koyi:ya:səka:ka kɛʔ-tɛné tudɛ/

한국어는 어렵-종조사(완료)-와 같-종조사(현재-평서문)

한국어는 어려운 것 같아요.

라. ရုပ်ရှင်က စိတ်ဝင်စားဖို့ ကောင်းတယ်နဲ့တူတယ်။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kaũ:/(재미있다)의 경우]

/yuʔshĩka seiʔwĩsa:pho kaũ:-tɛné tudɛ/

영화가 재미있-종조사(완료)-와 같-종조사(현재-평서문)

영화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위의 예문 (45)를 보면 추측 양태 표현을 나타내는 (가)에서 동사, (나)에서 형용사에 결합하는 종조사는 동일한 종조사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라)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는 모두 동일한 종조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미얀마어는 동사나 형용사에 따른 이형태나 어간의 모음이나 자음에 따른 이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동사나 형용사에 따른 이형태나 어간의 모음이나 자음에 따른 이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적 특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경우, 용언의 어간에 따라 이형태가 실현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얀마인 학습자는 용언의 이형태가 없는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에 따라 사용되는 어미도 다르다. 따라서 미얀마인 학습자는 알맞은 형태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문장 유형에 대한 제약의 경우, 미얀마어의 추측 양태 표현은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청유문과 명령문에서는 쓸 수 없다. 이는 추측의 의미가 화자의 인식이나 판단과 관련되는 의미적 특성상

사태를 나타내는 평서문에 잘 쓰이고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문과 청유문에 쓰이지 않는 것은 한국어와 공통적이다. 그러나 의문문의 경우, 한국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측 양태 표현에 따라 사용 양상이 다르며 제약이 있는 표현도 있기도 하고 제약이 없는 표현도 있기도 하다. 반면, 미얀마어의 경우 추측 양태 표현들은 의문문에서 사용 양상이 동일한다. 미얀마어의 의문문은 문장 형태상 의문사가 없는 일반의문문과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 의문문, 그리고 부가 의문문, 이와 같이 셋으로 나눈다. 여기에서는 일반의문문에 대해 살펴보겠다. 미얀마어의 일반의문문은 문장 끝에 의문형 종조사 /laː/를 붙임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현재 서술형 종조사 /tɛ/는 /thə/로 변형되고(/ta/나 /ye./로 변형되기도 한다), 미래 서술형 종조사 /mɛ/는 /mə/로 변형된다(/hma/로 변형되기도 한다).

(46)

가. အစ်မ အခု အိမ်မှာ ရှိလောက်-သလား။

/əma əku ɕḭ-mha ɕi.-lauʔ- thəlaː/

언니 지금 집-에 있-조동사(추측)- 의문문 종조사

언니는 지금 집에 있을 것 같아요?

나. ရွှေဈေး ထပ် တက်လာနိုင်-သလား။

/ɕwe-zeː thaʔ tɛʔla-naĩ- thəlaː/

금값 다시 올라가-조동사(추측)- 의문문 종조사

금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다. သူက သဘောကောင်းပုံပေါ်-သလား။

/Θu-ka Θəbɔkaõː-poõpɔ-thəlaː/

그는 성격이 좋-복합 구성(추측)- 의문문 종조사

그는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라. ဒီဆေးကို သောက်ရင် တစ်ပတ်အတွင်း သက်သာသွားလိမ့်-မလား။

/di-sheː-go Θaʊʔ-jḭ təpaʔ-ətwḭː ΘɛʔΘaΘwaː- leḭ.-məlaː/

이-약-을 복용하-면 일주일-후에 나아지-종조사(추측)- 의문문 종조사

이 약을 복용하면 일주일 후에 나아지겠어요?

예문 (46)을 보면 (가~다)는 현재 서술형 종조사/tɛ/를 /thə/로 변형되고 그 뒤에 의문형 종조사/laː/를 결합하여 의문형/thəlaː/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라)는 미래 서술형 종조사/mɛ/를 /mə/로 변형되고 그 뒤에 의문형 종조사 /laː/를 결합하여 의문형/məlaː/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미얀마어의 추측 양태 표현들은 모두 의문문이 가능한 반면 한국어에서는 추측 양태 표현 중 의문문 제약이 있는 표현들도 있으므로 이에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영향으로 모든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은 의문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잘못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미얀마어에서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명제 내용의 1인칭 주어 제약이 있다. 미얀마어의 추측 양태 표현들은 화자 본인의 현재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추측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즉 화자의 현재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화자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한국어의 추측 양태 표현 중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화자의 현재 심리 상태나 감각 상태를 추측하여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얀마인 학습자는 본인의 현재 심리 상태나 감각 상태를 표현할 때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사용을 회피하고 단형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한편, 화자 본인의 과거나 미래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표현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47)

가. ငါ နောက်အပတ် အားမဲ့ပုံပေါ်တယ်။

/ŋa nauʔəpaʔ aː-mɛ.poũpɔdɛ/

나 다음 주 시간있-복합구성(추측)

나 다음 주에 시간 있을 모양이야. (나 다음 주에 시간 있을 것 같아.)

나. ငါ မနေက အရမ်းမူးနေတာနဲ့တူတယ်။

/ŋa məne.ka əyãː muːneta-né tudɛ/

나 어제 너무 취하-복합구성(추측)

나 어제 너무 취한 것 같아요.

위 예문의 (47.가)는 화자 자신의 미래 상태에 대한 추측이고, (47.나)는 화자 자신의 어제 상태에 대한 추측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화자 자신의 미래 상황에 대해서 표현할 때 미얀마어의 추측 양태 표현들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어의 추측 양태 표현들과 차이가 있다. 한국어의 경우, 추측 양태 표현들 중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앞선 2.2.1.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 상황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로 인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영향으로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미래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3.2.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

미얀마어의 추측 양태 표현을 확실성 정도에 따라 구분을 한 학자로는 Jenny M.& San S. H. T.(2016), Vittrant A. & Auwera J. V. d.(2010)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측 양태 표현을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필연성, 개연성과 가능성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 예문 (48)은 종조사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들이다. 미얀마어의 종조사는 문장에서 시제, 서법, 양태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예문 (48)의 경우 추측 양태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48)의 문미에 나타나는 '/mɛ/와 /leĩ. mɛ/'는 화자의 확실한 필연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 (48.가)는 '그는 집에 있을 것', 그리고 (48.나)는 '일주일 후에 나아질 것'으로 유일하게 가능한 일이라고 추측하였다. 이 표현들은 한국어의 '-(으)ㄹ 것이다'처럼 확실성 정도가 높다.

(48)

가. ၆နာရီ ထိုးပြီ။ သူ အခု အိမ်မှာ ရှိ-မယ်။ /mɛ/ (필연성)

/tɕhaʊʔ-nayi thoː-pyi. Θu əku eĩ-hma ɕi.-mɛ/

6-시 되-종조사. 그 지금 집-에 있-종조사(미래형-추측).

벌써 6시다. 그는 지금 집에 있을 거예요.

나. ဒီဆေးကို သောက်ရင် တစ်ပတ်အတွင်း သက်သာသွား-လိမ့်မယ်။ /leĩ. mɛ/ (필연성)

/di-sheː-go Θaʊʔ-jĩ təpaʔ-ətwĩː ΘɛʔΘaΘwaː-leĩ.mɛ/

이-약-을 복용하-면 일주일-후에 나아지-종조사(미래형-추측).

이 약을 복용하면 일주일 후에 나아질 거예요.

다음 예문 (49)는 양태 조동사[59]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미얀마어의 양태 조동사는 다음 예문 (49)와 같이 동사 뒤에 결합하여 나타난다. (49)의 예문에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lauʔ/는 '개연성'을 표현한다.

(49)

가. အစ်မ အခု အိမ်မှာ ရှိလောက်တယ်။ /lauʔ/ (개연성)

/əma əku ɛ̌i-mha ɛi.-lauʔ-dɛ/

언니 지금 집-에 있-조동사(추측)-종조사

언니는 지금 집에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예문 (50)은 복합 구성으로 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들이다. 예문 (50.가)는 화자는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불확실하게 추측하는 상황이다. 복합 구성인 /-poõpɔdɛ/에서 /poõpɔ-/는 어휘적으로 '모습'이나 '모양'의 의미를 갖으며, 화자가 무언가를 보고 추측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한국어의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경우와 유사하다.

예문 (50.나)도 복합 구성으로 된 추측 양태 표현을 나타내는 문장이며 문장 끝에 '/-thi̋dɛ/ (-생각한다)'라는 구절을 추가하여 추측 양태를 표현하는 복합 구성이다. (50.나)는 '가게 문을 닫은 것'을 불확실하게 추측하는 예이다.

예문 (50.다)는 예문(50.나)처럼 문장 끝에 '/-nɛ́ tudɛ/ (-와/과 같다)'라는 구절을 추가하여 추측의 의미를 표현하는 복합 구성이다. 미얀마어에서 조사 '/-nɛ́/ (-와/과)'는 '명사' 뒤에만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문 (50.다)처럼 문장 문미에도 덧붙일 수 있다. (50.다)는 '그는 벌써 갔을 것'이라는 것을 개연성으로 추측하는 상황이다.

(50)

가. သူ-က သဘောကောင်း-ပုံပေါ်တယ်။ /V-poõpɔ-dɛ/ (개연성)

/Θu-ka Θəbɔkaõ:-poõpɔdɛ/

---

59) 본동사와 함께 문장의 서술어를 구성하여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에서 동시에 발견된다. SOV 언어인 한국어에서의 '보조동사'는 자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본동사 뒤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SOV 언어인 미얀마어에서 조동사는 본동사 앞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본동사 뒤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는 성격이 좋-복합구성(추측)
그는 성격이 좋-모양이다. (그는 성격이 좋은 모양이다.)

나. ဒီနေ့ ဆိုင် ပိတ်-တယ် ထင်တယ်။ /-thĭdɛ/ (V, I think) (개연성)
/dine. shaĭ peiʔ-tɛ thĭdɛ/
오늘 가게 닫-종조사(현재-평서문)- 복합구성(추측)
오늘 가게가 문을 닫는다, 생각한다. (오늘 가게 문 닫은 것 같아요.)

다. သူ သွား-ပြီ-နဲ့ တူတယ်။ /-né thudɛ/ (N/P- with to be similar) (개연성)
/Θu Θwa:pyi-né tudɛ/
그 가-종조사(완료-평서문)- 복합구성(추측)
그는 벌써 갔다, 와 같다. (그는 벌써 간 것 같아요.)

다음 예문 (51)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문장들이다. 예문 (51.가)는 양태 조동사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며 추측의 의미를 표현하는 조동사 /naĭ/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예문 (51.나)는 복합 구성으로 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며 화자가 복합 구성인 /V-ji̯ V-mɛ/를 사용하여 '그가 내일 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불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51)
가. ရွှေဈေး ထပ် တက်လာနိုင်တယ်။ /naĭ/ (가능성)
/ɕwe-ze: thaʔ tɛʔla-naĭ-dɛ/
금-값 다시 올라가-조동사(추측)-종조사
금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나. မနက်ဖြန် သူ လာ-ရင် လာ-မယ်။ /V-ji̯ V-mɛ/ (가능성)
/mənɛʔphjã Θu la-ji̯ la-mɛ/
그는 내일 오고 싶어 하면 올 수 있다. (그는 내일 올지도 모른다./ 그는 내일 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 확실성 정도에 따라 살펴본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들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3>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

추측 양태 표현	문법형	확실성	한국어 대응 표현
-မယ် (မှာ) /-mɛ/	종조사	필연성	-겠-, -(으)ㄹ 것이다
-(လိမ့်)မယ် /-leĩ.mɛ/	종조사		
-လောက်- /-lauʔ-/	조동사	개연성	-
V-နဲ့(တဲ့) ပုံပေါ်တယ် /V-(mɛ́)tɛ́ poõpɔdɛ/	복합 구성	개연성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V-မယ် ထင်-တယ်။ /V- mɛ thĩdɛ/	복합 구성	개연성	-
N/P-နဲ့ တူ-တယ်။ /N/P-nɛ́ tudɛ/	복합 구성	개연성	-(으)ㄴ/는/(으)ㄹ 것 같다
-နိုင်- /-naĩ-/	조동사	가능성	-(으)ㄹ 수 있다
V-ရင်(ချင်) V-မယ်။ /V-jĩ V-mɛ/	복합 구성	가능성	-

위의 <표 II-23>에서 보이듯이 종조사 /-mɛ/와 /-leĩ.mɛ/는 확실성 정도가 높고 한국어의 '-겠-', '-(으)ㄹ 것이다'와 대응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겠-'과 '-(으)ㄹ 것이다'를 사용할 때 동일한 확실성으로 인식하여 이들 표현 간에 있는 차이를 혼동하여 변별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복합 구성인 /-(mɛ́)tɛ́ poõpɔdɛ/는 한국어의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 어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사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되는 반면 /-(mɛ́)tɛ́ poõpɔdɛ/는 주관적인 판단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1인칭 제약에 대해서는 미래 추측과 가정'-(으)면'의 선행절과 어울리지 않은 반면 /-(mɛ́)tɛ́ poõpɔdɛ/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또한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일상생활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주로 문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반면 /-(mɛ́)tɛ́ poõpɔdɛ/는 구어와 문어에 모두 활발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처럼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 /-(mɛ́)tɛ́ poõpɔdɛ/의 사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에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에 대한 많은 오류가 생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복합 구성인 /N/P-nέ tudɛ/도 한국어의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어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표현의 사용이 주로 유사하다. /N/P-nέ tudɛ/도 '-(으)ㄴ/는/(으)ㄹ 것 같다'처럼 확실성이 약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학습할 때 많은 어려움이 없고 잘 사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3.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

언어는 화자가 청자에게 자기의 정보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실이다. 그런데 청자가 자기의 정보나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동일한 정보나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 표현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언어에 따라 그 표현 방법도 다르다.

화자는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는 내용을 불확실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불확실한 내용을 확실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때 한국어에서는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청자와의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공손'을 표현하기도 한다. 미얀마어에서는 직접화행(direct speech act)으로 말함으로써 '공손'을 표현하기도 하고,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으로 말함으로써 '공손'을 표현하기도 한다. 직접화행의 경우, 예를 들자면 화자가 자신의 직접적 경험한 일이나 자신의 감정, 느낌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불확실한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 공손을 드러내는 반면, 미얀마어에서는 단정 표현 즉 직접화행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손을 드러낸다. 그리고 미얀마어에서 종조사를 통해 공손을 표현할 수 있다(Soe S. M.,2007). 즉 미얀마어에서 용언 뒤나 문장 끝부분에 공손성이 드러나는 종조사를 추가하여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손함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 등을 단정 표현을 쓰면서 문장 끝에 공손성이 있는 종조사를 추가하여 발화함으로써 공손함을 표현한다. 이로 인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직접적 경험이나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에 사태에 대해서 말할 때 단정 표현을 쓰거나 알맞지 않은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간접화행의 경우,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할 때나 대화 상대방이 불쾌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미얀마어에서는 불확실한 표현을 쓰는 방법[60]보다 다음 예문 (52)처럼 단정 표현으로 거절한 후 그 거절한 이유를 적절하게 말함으로써 공손성을 표현한다.

(52)

စီနီယာ: မနက်ဖြန် ရုပ်ရှင်သွားကြည့်ရအောင်

သင် : ညီမလေး မနက်ဖြန် မအားဘူး အမေနဲ့ ချိန်းထားတာရှိလို့

선배: 내일 영화 보러 갈까?

나 : 저 내일 안 돼요. 엄마랑 선약이 있어서요

반면, 한국어에서 화자는 청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다음 예문 (53)처럼 청자에 대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한다. 공손하게 표현해야 하는 상황(거절하기, 양해를 구하기 등)에서는 화자의 단정을 피하고 불확실하게 표현함으로써 청자에게 공손함을 표현한다.

(53)

선배: 지수야, 내일 영화 보러 갈까?

지수: 저 내일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문 (52)의 미얀마어의 화용 양상과 예문 (53)의 한국어의 화용 양상이 다르므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불확실하게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국어의 지식으로 단정 표현을 쓰거나 적절하지 않은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4.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추측 양태 표현의 내용 분석

제2 언어 학습자들이 산출하는 오류의 원인은 크게는 목표어의 규칙을 적

60) 화자는 상대방이 불쾌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불확실한 추측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한국어처럼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용할 때 제한된 경험에서 오는 오류와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를 둘러싼 언어 외적인 요소 역시 오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언어 학습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교재나 교사의 언어가 학습자에게 잘못된 가설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추측 양태 표현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미얀마 내 대학에서 사용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추측 양태 표현들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미얀마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5종[61]의 교재별 추측 양태 표현의 제시 급수는 <표 II-24>와 같다.

<표 II-24> 교재별 추측 양태 표현의 제시 급수

	추측 양태 표현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1	-겠-	초급 2	2B 4A	초급 2A 고급 5B	1-2 2-1	초급 1-2 고급 6
2	-(으)ㄹ 것이다	초급 1	2A	초급 2A	3-2	-
3	-(으)ㄹ 텐데(요)	중급 1 중급 2	3A 3B	초급 2B 중급 3A	3-1	초급 2-2 중급 3-1
4	-(으)ㄹ걸(요)	고급 1	5B	중급 3B	3-1	중급 3-1
5	-는가/(으)ㄴ가/나 보다	중급 1	4B	중급 3A	2-2	중급 3-2
6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중급 2		중급 3B	3-1	초급 2-2
7	-(으)ㄴ/는/(으)ㄹ 것 같다	초급 2 초급 2	2B 4A	초급 2A 초급 2A 초급 2A	1-2 3-1	초급 2-1

61) 현재 미얀마 내 대학에서 미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가 아직 없으므로 국내 대학기관에서 출판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학부 과정을 위한 주교재로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2007, 2009, 2013년에 출간된 통합 교재 및 읽기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출판된 교재는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교재명	출판 연도	기관명
연세 한국어(1-1~6-2)	2007-201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경희 한국어(초급1~고급2)	2019-2020	경희대학교 교재편찬위원히
서강 한국어(1A~5B)	2016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1A~6B)	2013-2015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1-1~6)	2010-2012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8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고급 1	3B	초급 2B 중급 4B	3-2	중급 3-2

위의 <표 II-2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은 대부분 초급에서 중급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 초기부터 유사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학습이 시작됨을 의미하며 이들을 변별할 수 있는 교수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은 각 교재에서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설명 제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4.1.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제시 및 설명

<표 II-25> 교재별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제시 및 설명

표현	교재	문법 설명
-겠-	연세대	(1-2) -겠- → This suffix is used with a verb stem (2-1) -었으면/았으면/였으면 좋겠다 → It is used with a verb (2-1) -겠군요→It is used to predict someone's feelings or a situation through hearing a story. (4-1) -겠지요 →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여 확신을 가지고 추측하면서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쓴다.
	경희대	(초급2) 동사 + 겠- → 동사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겠-'을 쓴다. -'-겠-'은 상황이나 행위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한 추측이므로 1인칭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겠-'은 과거를 나타내는 '-았/었-'에 붙어 이미 완료된 과거 상황에 대해 추측함을 나타낸다.
	서강대	-
	서울대	(2A) A/V-았으면/ 었으면 좋겠다 → 형용사, 동사와 결합한다. (2A) A/V-겠- → 형용사, 동사와 결합한다. -과거의 일이나 주어의 동작이 완료된 것을 추측할 때는 '-았겠/었겠-'을 쓴다. -1인칭 주어와 쓰인 'V-겠-'의 경우 화자의 의도 또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화여대	(1-2) A/V + 겠
-(으)ㄹ 것이다	연세대	(1-2) -을/ㄹ 거예요 → If the subject is a third person, it indicates the speaker's assumption or guess. In this case, it can be used with both an action and a descriptive verb. -When the verb ends in a vowel, use 'ㄹ 거예요'. when the verb ends in the other consonants, use '을 거예요'. (3-2) -었을/았을/였을 것이다 → It is attached to verb stems. For all action verbs or descriptive verbs ending with a vowel except of '아,야,오' the attached ending is '-었을 거예요' and for action verbs and descriptive verbs ending with '아,야,오' the attached ending is '-았을 거예요'. For action verbs ending with '하다' the attached ending is '-였을 거예요'.
	경희대	(초급1) 동사(으)ㄹ 겁니다, 동사(으)ㄹ 거예요 → 동사에 붙어 사용한다.

		-추측하는 내용이 완료된 상황일 경우에는 '-았/었을 겁니다, -았/었을 거예요'로 쓴다.
	서강대	-
	서울대	(2A) A/V-(으)ㄹ 거예요 → 형용사, 동사와 결합한다. (1B) -지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물어볼 때 사용한다. **미래 시제의 경우 '-(으)ㄹ 거지요?와 결합한다. 방학에 고향에 갈 거지요? 켈리 씨도 케이크 먹을 거지요?
	이화여대	-
-(으)ㄴ/는/(으)ㄹ 것 같다	연세대	(1-2) -을/ㄹ 것 같다 → It is used with a verb stem. When the verb stem ends in a vowel, use 'ㄹ 것 같다'. When the verb stem ends in a consonant, use '-을 것 같다'. (3-1) 았/었/였던 것 같다 → It is attached to verb stems. After all action verbs or descriptive verbs ending with vowels except of '아,야,오', '-었던 것 같다' is used and after action verbs and descriptive verbs ending with '아,야,오' '-았던 것 같다' is used. After verbs ending with '하다' '-였던 것 같다' is used.
	경희대	(초급2) '상태동사+(으)ㄴ 것 같다' → 상태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은 것 같다'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ㄴ 것 같다'를 쓴다. '있다, 없다'로 끝나는 상태동사는 '-는 것 같다'로 쓴다. -'상태동사+(으)ㄹ 것 같다' → 상태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을 것 같다'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ㄹ 것 같다'를 쓴다. (초급2) '동작동사 + (으)ㄴ/는/(으)ㄹ 것 같다' → 동작동사에 붙어 사용한다. 동작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은 것 같다, -을 것 같다'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ㄴ 것 같다, -ㄹ 것 같다'를 쓴다. 다만, 동작 동사의 현재 시제의 경우 받침 유무와 관계없이 '-는 것 같다'를 쓴다.
	서강대	-
	서울대	(2-A) A-(으)ㄴ 것 같다, V-는 것 같다, N인 것 같다 -형용사, 동사, 명사와 결합한다. '있다, 없다'로 끝나는 형용사는 '-는 것 같다'와 결합한다. -부정 표현과 결합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형용사: 크다→크지 않은 것 같아요. (2A) V-(으)ㄴ 것 같다 →동사와 결합한다. (2A) A/V-(으)ㄹ 것 같다 → 형용사, 동사와 결합한다. -과거나 완료된 일에 대해서 추측할 경우 '-았을/었을 것 같다'를 사용한다. (3A) A-(으)ㄴ 것 같다/V-는 것 같다 간접 경험 또는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짐작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신발 사진 두 개 보고) '발이 큰 것 같네요.'(0) (발 사진 하나만 보고) '발이 큰 것 같네요.'(0)
	이화여대	(2-1) A + (으)ㄴ 것 같다, V + (으)ㄴ/는/(으)ㄹ 것 같다, N+ 인 것 같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is used to assume an action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or a current situation through various circumstances. 인 것 같다 is used to assume a current situation. A: consonant + 은 것 같다 예: 작은 것 같다

		vowel, ㄹ + ㄴ것 같다 예: 큰 것 같다, 힘든 것 같다 V: consonant + 은/는/을 것 같다 예: 먹은/먹는/먹을 것 같다 vowel, ㄹ +ㄴ/는/ㄹ 것 같다 예: 간/가는/갈 것 같다, 연/여는/열 것 같다 N: N + 인 것 같다 예: 의사인 것 같다, 학생인 것 같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연세대	(2-2) -나,은가/ㄴ가보다 → It is used with a verb In case of action verbs or past tenses, it is used as '-나 보다', and it case of descriptive verbs '-은가/ㄴ가 보다'is used.
	경희대	(중급1) '동작동사 + 나 보다, 상태동사 + (으)ㄴ가 보다'
	서강대	-
	서울대	(3A) A-(으)ㄴ 가 보다, V-나 보다, N인가 보다 -형용사, 동사, 명사와 모두 결합한다.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 짐작할 때에는 동사, 형용사 모두 '-았나/었나 보다'를 쓴다.
	이화여대	(3-2) V+나 보다 -(Tip) 'A+(으)ㄴ가 보다'의 형태로도 쓰인다.
-(으)ㄹ 텐데 (요)	연세대	(3-1) -을/ㄹ텐데 → It is attached to verb stems. When a verb stem ends with a consonant, '-을 텐데' is used and when it ends with a vowel '-ㄹ 텐데'is used. (3-1) 었을/았을/였을 텐데 → It is attached to verb stems. Attached to action verbs or descriptive verbs with vowel-ending except of '아,야,오' '-었을 텐데' is used, when the verbs end with the vowels '아, 야,오' '-았을 텐데'is used and for the action verbs ending with '하다' '였을 텐데' is used.
	경희대	(중급2) 동사 + (으)ㄹ 텐데
	서강대	-
	서울대	(3A) A/V-(으)ㄹ 텐데, N일 텐데 → 형용사, 동사, 명사와 모두 결합한다. 종결형으로도 쓸 수 있다. (3A) A/V-아야/어야 할 텐데(요) → 형용사, 동사와 결합한다. -'-아야/어야 하다'(의무)+'-(으)ㄹ텐데'(추측)가 결합된 형태이다.
	이화여대	(3-1) -(으)ㄹ 텐데 → 'A/V + (으)ㄹ 텐데'
-(으)ㄹ 걸(요)	연세대	(3-1) -을걸요/ㄹ걸요 → After verbs with a consonant-ending '-을걸요' is used and after verbs with a vowel-ending '-ㄹ걸요'is used. If one assumes a situation which already ended '-었을걸요' is used.
	경희대	(고급1) 동사+(으)ㄹ걸(요)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명사+일걸(요)'의 형태로 쓴다.
	서강대	-
	서울대	(3B) A/V-(으)ㄹ걸(요) → 형용사, 동사와 결합한다.
	이화여대	(3-1) -(으)ㄹ걸요 → 'A/V + (으)ㄹ걸요'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연세대	(3-1) -는/은/ㄴ 모양이다 → It is attached to verb stems. When assuming a current action or situation '-는 모양이다' is attached to the action verb stem, '-은 모양이다' is attached to the descriptive verbs ending with consonants and '-ㄴ 모양이다' is attached to the descriptive verbs ending with vowels. For situations which has not happened yet but are assumed, '-을 모양이다' is used when the attached action verb stem ends with consonants. For action verbs ending with vowels, '-ㄹ 모양이다'is used.
	경희대	(중급2) 동사 +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문법 설명 예시) 유적지 입장을 막아 놓은 것을 보니 내부 공사 중인 모양이네요.
	서강대	-
	서울대	(3B) A-(으)ㄴ 모양이다, V-는 모양이다, N인 모양이다 -형용사, 동사, 명사와 결합한다. 동사의 경우 현재, 과거, 미래 시제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이화여대	(2-2)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 A/V +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A: consonant + 은 모양이다 예: 작은 모양이다, 많은 모양이다 vowel, ㄹ + ㄴ 모양이다 예: 싼 모양이다, 먼 모양이다 V: consonant + 은/는/을 모양이다 예: 먹은/먹는/먹을 모양이다 vowel, ㄹ + ㄴ/는/ㄹ 모양이다 예: 간/가는/갈 모양이다, 만든/만드는/만들 모양이다 N: N + 인 모양이다 예: 친구인 모양이다, 학생인 모양이다
-(으)ㄴ/는/(으)ㄹ지 (도) 모르다	연세대	(3-2) -을지도/ㄹ지도 모르다 → It is attached to verb stems. Attached to action verbs and descriptive verbs ending with consonants is '을지도 모르다' and attache to action verbs and descriptive verbs ending with vowels is '-ㄹ지도 모르다'. For already finished actions the ending is '었을지도 모르다'.
	경희대	(고급1) 동사+(으)지도 모르다
	서강대	-
	서울대	(4B) A/V-(으)ㄹ지도 모르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았을지도/었을지도 모르다'를 쓴다.
	이화여대	(3-2) -(으)ㄹ지도 모르다 → 'A/V+(으)ㄹ지도 모르다'

교재 다섯 종을 살펴보았을 때 서강대학교의 교재는 문법 설명이 없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너머지 네 종의 교재를 살펴보도록 한다. 네 종의 교재에서 제시된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각 추측 양태 표현의 품사 결합에 대한 제시는 모든 교재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장 유형 제약, 주어 제약,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와의 결합 제약 등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문장 유형의 제약에 대한 제시나 설명은 네 권의 한국어 교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표 II-26> 주어 인칭에 대한 명시적 제시

경희대	-겠-: 상황이나 행위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한 추측이므로 1인칭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서울대	-겠-: 1인칭 주어와 쓰인 경우 화자의 의도 또는 의지를 나타낸다.
연세대	-을/ㄹ 거예요: If the subject is a third person, it indicates the speaker's assumption or guess.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해서는 <표 II-2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겠-'과 '-(으)ㄹ 것이다'의 주어 인칭에 대한 제시만 있으며 다른 표현들에 대한 제

시는 없었다. '-겠-'과 '-(으)ㄹ 것이다'에 대한 인칭 주어에 대한 제시가 있는 것은 이들 두 표현 항목이 문맥에 따라 '추측'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의지나 의도'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겠-'과 '-(으)ㄹ 것이다'는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 제약이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1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의 주어 인칭에 대한 제시가 없으므로 학습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대부분 한국어 교재에서 추측하는 내용이 완료된 상황일 경우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았/었/였-'의 선행 결합을 제시하였지만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과거형 어미 '-았/었/였-'과의 선행 결합 제약에 대한 제시는 없었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도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처럼 과거형 어미 '-았/었/였-'과의 결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잘못 인식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추측 양태 표현들과 과거형 어미 '-았/었/였-'의 후행 결합에 대해서는 명시적 제시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종결어미 '-네, -구나, -지'의 후행 정보에 대한 명시적 제시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 27> 종결어미 '-네, -구나, -지'의 후행에 대한 명시적 제시

연세대	(2-1) -겠군요→It is used to predict someone's feelings or a situation through hearing a story. (4-1) -겠지요 →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여 확신을 가지고 추측하면서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쓴다.
서울대	(1B) -지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물어볼 때 사용한다. **미래 시제의 경우 '-(으)ㄹ 거지요?'와 결합한다. - 방학에 고향에 갈 거지요? - 켈리 씨도 케이크 먹을 거지요? (3A) A-(으)ㄴ 것 같다/V-는 것 같다 → 간접 경험 또는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짐작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신발 사진 두 개 보고) '발이 큰 것 같네요.'(0) (발 사진 하나만 보고) '발이 큰 것 같네요.'(0)
경희대	(중급2) 동사 +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문법 설명 예시) 유적지 입장을 막아 놓은 것을 보니 내부 공사 중인 모양이네요.

위 <표 II-2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서는 종결어미 '-네,

-구나, -지'의 후행에 대한 명시적 제시는 매우 제한적이다. 개별 문법 항목으로 추측 양태 표현 '-겠-'과 종결어미 '-군요'의 결합인 '-겠군요', '-겠-'과 '-지요'의 결합인 '-겠지요'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연세대 교재에서만 볼 수 있었다. 개별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문법 설명을 제시할 때 '-네요'와 결합된 문장을 예시로 설명하는 것은 서울대 교재와 경희대 교재에서 볼 수 있었다. 한편, 서울대 교재에서는 '-지요'를 제시할 때 미래 시제의 경우 '-(으)ㄹ 거지요?'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제시와 함께 모범 문장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으)ㄹ 것이다'는 '추측'의 의미가 아니라 '의지/의도'의 의미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학습자들이 '추측'의 의미와도 결합이 가능할 거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4.2. 의미적 특성에 대한 제시 및 설명

<표 II-28> 교재별 의미적 특성에 대한 제시 및 설명

표현	교재	문법 설명
-겠-	연세대	(1-2) to express the assumption or suppostion based on the situation or the state at moment of speaking.
	경희대	(초급2)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일이나 사실을 추측함을 나타낸다.
	서강대	-
	서울대	(2A) 말하는 당시의 상황이나 상태를 보고 추측하거나 추정하여 말할 때 쓴다.
	이화여대	(1-2) 어떤 상황을 근거로 추측해서 이야기할 때
-는가/(으)ㄴ가/나 보다	연세대	(2-2) It is used with a verb to express predication. Especially it is used when a speaker makes a supposition from the passive experience or something the speaker interpreted from an observed face, without any direct experience.
	경희대	(중급1)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보거나 듣고 그것으로 추측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한다. '동사+(으)ㄴ/는 걸 보니(까)'와 같은 추측의 근거가 되는 표현과 자주 사용한다.
	서강대	-
	서울대	(3A)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보고 동작, 상태를 짐작하여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화여대	(3-2)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근거로 추측함을 나타낸다.
-(으)ㄴ/는/(으)ㄹ 모양이	연세대	(3-1) It is used to assume a person's behavior or state after observing a situation.
	경희대	(중급2) 주변의 상황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어떤 상태라고 추측할 때 사용한다.

다	서강대	-
	서울대	(3B)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추측할 때 쓴다. -주변 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보고 그것을 통해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는 경우에 쓴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때는 쓰지 않는다.
	이화여대	(2-2)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추측하여 말할 때 -to predict or guess the current status based on another fact or situation.
-(으)ㄹ 것이다	연세대	(1-2) If the subject is a third person, it indicates the speaker's assumption or guess.
	경희대	(초급1)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내용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서강대	-
	서울대	(2A) 어떤 상황에 대한 추측이나 자신의 생각을 완곡하게 말할 때 사용한다. 추측한 것에 대해 자신이 없거나 가능성이 낮은 것을 나타낼 때 '아마'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
	이화여대	–
-(으)ㄹ 텐데 (요)	연세대	(3-1) This expression is used to give a suggestion or to pose a question while speculation about a situation which cannot be observed at the moment or will happen in the future.
	경희대	(중급2) 앞에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면서 그와 관계있는 내용을 이어서 말할 때 사용한다. 뒤에는 주로 제안, 명령, 질문 등이 온다.
-(으)ㄹ 걸(요)	서강대	
	서울대	(3A) 상태나 동작을 예상하거나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3A) A/V-아야/어야 할 텐데(요) → 어떤 일이 꼭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걱정할 때 사용한다.
	이화여대	(3-1) 어떤 상태를 추측해서 말할 때 사용한다.
	연세대	(3-1) It is used when one assumes about a situation in the future or an unknown fact.
	경희대	(고급1) 화자의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이 상대방의 의견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연세대	(1-2) to indicate the assumption of the action or state that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경희대	(초급2) -'상태동사+(으)ㄴ 것 같다'는 상태동사에 붙어 현재의 상태를 추측할 때 사용한다. '상태동사+(으)ㄹ 것 같다'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상황을 추측할 때 사용한다. 명사의 경우 현재의 상태를 추측하게 하는 근거의 정도에 따라 '명사+(이)ㄴ 것 같다'는 보다 확실한 근거로 추측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명사+(이)ㄹ 것 같다'는 명사에 대한 보다 약한 근거로 추측할 때 사용한다. (초급2) -동작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으)ㄴ 것 같다'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추측할 때 사용하고 '-는 것 같다'는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추측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으)ㄹ 것 같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추측해서 말할 때 사용한다.
	서강대	-
	서울대	(2-A) A-(으)ㄴ 것 같다, V-는 것 같다, N인 것 같다 →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2A) V-(으)ㄴ 것 같다 →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2A) A/V-(으)ㄹ 것 같다 →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화여대	(2-1) 자신이 추측한 것이나 생각한 것을 말할 때 -to assume an action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or a current situation through various circumstances. 인 것 같다 is used to assume a current situation.
-(으)ㄴ/는/(으)ㄹ지 (도) 모르다	연세대	(3-2) It is used when one can assume a situation but is not sure about it.
	경희대	(고급1) 어떤 상황에 대해 주관적으로 추측할 때 사용한다.
	서강대	-
	서울대	(4B)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이화여대	(3-2)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대해 추측함을 나타내는데, 그 추측에 대한 확신이 매우 낮을 때 쓴다.

위의 <표 II-28>의 교재별 의미적 특성에 대한 설명 제시를 통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은 모두 '추측'의 의미 범주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개별 항목들의 기술 방식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guess, predict, assumption, predication, supposition, presumption' 등으로 다양한 용어로 기술되고 있다.

둘째, 의미적 특성을 제시할 때, 추측 근거, 확실성, 주관성의 면에서 개별 항목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추측 근거에 대한 설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선 추측 근거에 대한 제시 및 설명에 대해서 살펴보면 추측 근거에 대해 대부분 '어떤 사실이나 상태에 대한 추측',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근거한 추측'이라고 막연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의미상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들의 변별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앞선 2.2절에서 살펴본 판단 근거의 유형에 따른 추측 양태 표현들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다. 우선, 발화 현장의 지각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한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의미 설명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재에서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보고 듣고 동작, 상태를 짐작하여 표현할 때 사용한다'라고만 기술하였고 그들 사이에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내면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한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에 대한 제시를 살펴보면 매우 추상적으로만 기술한 것을 볼 수 있다. 경희대 교재에서의 '-(으)ㄹ 것이다'에 대한 설명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내용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만 제외하고, 나머지 교재에서는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어떤 사실이나 상태에 대한 추측'이라고 제한적으로 제시하였다. 근거에 제약이 없는 '-(으)ㄹ 것 같다'에 대한 제시로는 고려대 교재에서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으로 추측할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기술하였고 나머지 교재들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고 추측함을 나타낸다'라고만 기술하였다. 그리고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대한 추측'이라고 기술하였다.

또한, 추측 양태 표현들의 정확성 정도와 주관성에 대한 제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정확성 정도에 대해서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확신이 매우 낮을 때 쓴다'라고 명시적인 제시가 있었지만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는 제시가 없었다. 그리고 이론적 연구에서는 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와의 공기 결합에 대해서 이를 추측 양태 표현들 간의 중요한 의미적 변별점으로 다루었는데 교재에서는 관련 문법 정보가 찾아지기 어렵다. 서울대 교재에서만 양태 부사와의 결합에 대해서 '-(으)ㄹ 것이다'에 대한 설명 '추측한 것에 대해 자신이 없거나 가능성이 낮은 것을 나타낼 때 '아마'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확실성에 대한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확설성 정도에 따라 추측할 때 혼동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주관성에 대한 제시로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에서만 찾을 수 있고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었다. 특히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객관성에 대한 제시는 없었다. 이처럼 매우 제한적인 제시를 통해 추측 양태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추측을 표현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이들 표현들의 구체적인 의미적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4.3.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제시 및 설명

<표 II-29> 교재별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제시 및 설명

표현	교재	문법 설명
-겠-	서울대	(2A) 공감 표현하기 (학습 목표)
-(으)ㄹ 것이다	연세대	(1-2) It is also used when one assumes the following result after hypothesizing a fact. (후회/아쉬움)
	서울대	(2A) 자신의 생각을 완곡하게 말할 때 사용한다.
	이화여대	(2-2) 격려하기
-(으)ㄴ가/나 보다	서강대	-
-(으)ㄹ 모양이다	서울대	공식적인 상황이나 글에 더 적절함
-(으)ㄹ 텐데(요)	연세대	(3-1) 었을/았을/였을 텐데 → It is also used to assume a situation which is the opposite to the current situation. (아쉬움)
-(으)ㄹ 걸(요)	연세대	(3-1) '-을걸'is used for close friends or people who are younger in age or lower in hierarchy.
	경희대	(고급1) 주로 구어적인 상황에서 쓰며 추측의 근거가 함께 제시된다. 또한 가까운 사이가 아닌 윗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서울대	(3B) 가볍게 반박하거나 감탄할 때 쓴다.
-(으)ㄹ 것 같다	연세대	(3-2) 거절하기
	경희대	(초급2) 한국 사람들은 분명한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을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서강대	-
	서울대	(2A) A/V-(으)ㄹ 것 같다 → 상대방에게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할 때도 많이 사용한다.
	이화여대	(2-1) 추천하기, 상대방의 추천에 대해 우회적으로 거절하기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화용적 특성에 대해서 일부 교재에서는 추측의 의미 외에 화용적 의미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었으나 개별 항목에 한정되어 있다. 화용적 특성에 대하여 제공한 교재에서 '-겠-'의 '공감하기' 기능, '-(으)ㄹ 것이다'의 '아쉬움/후회', '완곡', '위로하기' 기능, '-(으)ㄹ 텐데(요)'의 '아쉬움' 기능, '-(으)ㄹ걸(요)'의 '반박' 기능, '-(으)ㄹ 것 같다'의 '의견 제시하기', '거절하기' 등의 일부 기능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 다루던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기능에 대한 명시적 정보는 없었다.

또한 언어사용역에 관한 명시적 정보에 대해서 교재에서 찾아지기 어렵다. 특히 구어보다 주로 문어에서 사용되는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경우 서울대 교재에서만 명시적으로 제시하였고, 다른 교재에서는 부재한다. 이러한 매우 제한적인 제시로 인해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 표현들의 담화·화용적 특성과 언어사용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III.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 분석

1. 조사 대상 및 방법

1.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단계는 <표 III-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크게 예비 조사와 본조사로 구성된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NUIRB)의 승인[62]을 받은 직후 조사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그중 미얀마인 학습자 중급, 고급 학습자가 20명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가 10명이다. 조사에 참여한 미얀마인 학습자는 모두 미얀마어가 제1언어이며, 미얀마 대학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학습한 성인들이다[63]. 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는 모두 표준어를 구사하는 20~30대의 한국인이다. 예비 조사를 통해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조사 도구를 보완하였다.

<표 III-1> 본 연구의 조사 단계

단계	시기	목적
예비 조사	2023년 7월 22일~2023년 7월 28일	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
본조사	2023년 8월 1일~2023년 8월 12일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2주간 본조사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미얀마인 학습자 80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4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아래 <표 III-2>와 같다.

62) IRB No. 2307/004-024

63) 20명의 미얀마인 학습자는 모두 미얀마 대학 한국어학과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현재 한국에서 한국어 관련 석사·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며, 모두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응시한 경험이 있다. 그중 중급을 소지한 학습자는 5명, 고급을 소지한 학습자는 15명이다.

<표-III-2> 조사 참여자의 기본 정보

참여자 유형	신분	남자	여자	총 인원 수		연령
미얀마인 학습자	3학년 학습자	7	33	40	80	20대
	4학년 학습자	5	35	40		
한국어 모어 화자	대학(원)생	3	9	12	40	20 ~ 30대
	직장인	6	22	28		

본조사에서는 미얀마 4년제 대학 2개소[64]에서 3, 4학년의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3, 4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추측 양태 표현의 교수·학습 시기와 관련된 것이다. 앞서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대부분 초급에서 중급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는 문법 항목들이다. 또한, 이 표현들은 주로 미얀마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 교수·학습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1학년, 2학년 학습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조사를 실시한 8월은 미얀마 대학의 2학기 때이므로 3, 4학년 학습자들은 모두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을 이미 학습한 상태이다[65]. 따라서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들을 이미 학습한 상태로 판단되는 미얀마 내 대학교의 3, 4학년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중간 언어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시간적 제약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유사-통시적 연구(pseudo-longitudinal Methodology)를 택하였다. 유사-통시적 연구 방법은 각각 다른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로부터 단일 시점의 언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장기간에 걸쳐 개개인을 관찰한 경

64) 현재 미얀마에서 한국어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으로는 양곤외국어대학교와 만달레이외국어대학교 두 곳만 있다. 이들 두 대학교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외국어대학교로 동일한 교육과정을 사용한다.

65) 미얀마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모두 12월부터 1학기가 시작되고, 6월부터 2학기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여(이해영·주은경 외, 2005:45) 추측 양태 표현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는 데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학년과 숙달도의 관계에 대해 사마와디 강해·황선영(2017)에서는 해외 대학의 한국어 전공 재학생의 경우 학년이 한국어 숙달도를 의미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미얀마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2007~2013년에 출간한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년별로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미얀마 대학교 한국어과에서 사용되는 주교재

학년	학년별 사용되는 교재들에 대한 상세 사항
1학년 1학기	연세 한국어1-1 (1~5과), 연세 한국어1-2 (6과)
1학년 2학기	연세 한국어1-2 (7-10과), 연세 한국어2-1 (1~3과)
2학년 1학기	연세 한국어2-1 (4~5과), 연세 한국어2-2 (6~10)
2학년 2학기	연세 한국어3-1 (1~5과), 연세 한국어3-2 (6~7과)
3학년 1학기	연세 한국어3-2 (8~10과), 연세 한국어4-1 (1-5과)
3학년 2학기	연세 한국어4-2 (6~10과), 연세 한국어5-1 (1~2과)
4학년 1학기	연세 한국어5-1 (3~5과), 연세 한국어5-2 (6~10과)
4학년 2학기	연세 한국어6-1 (1~5과), 연세 한국어6-2 (6~10과)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당신 3학년 학습자는 연세 한국어 5-1의 1-2과, 4학년 학습자는 연세 한국어 6-2의 6-10과에 대한 교수가 진행 중이었다. 커리큘럼 내 확인되는 한국어 교재를 고려할 때, 1학년과 2학년은 초급으로, 3학년은 중급으로, 그리고 4학년은 고급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인 3학년 학생은 중급 학습자, 4학년 학생은 고급 학습자로 볼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 '숙달도'가 아닌 '학년'을 기준으로 학습자 집단을 구분한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한 경험이 없는 학습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숙달도를 기준으로 학습자 집단을 나누려면 별도의 숙달도 테스트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설문 참여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이어서 진행될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미얀마 대학에서는 학년별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므로 학년을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 결과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 40명을 모집하여 참조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는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실제적인 인식을 알아보고, 미얀마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표준 한국어를 구사하고 20~30대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답을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고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3, 4학년 학습자 중 16명을 모집하여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할 때 학년과 설문지 응답 결과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였다. 설문지의 응답 결과를 분석한 후에 전체 학습자를 크게 '상, 중, 하'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인터뷰 참여자는 16명인데, 그중 3학년 학습자가 8명(상 3명, 중 2명, 하 3명)이고, 4학년 학습자가 8명(상 2명, 중 3명, 하 3명)이다.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각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대로 미얀마어나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두 언어를 섞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언어에 대해 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함으로 인해 분석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말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의 문법 지식을 파악하는 데 참여자가 발언한 핵심적인 미얀마어 어휘나 표현의 경우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 그것과 대응하는 한국어 어휘나 표현을 바로 인터뷰 참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이해 양상을 해석할 때 필요한 인터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위한 것이다.

1.2. 자료 수집 도구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모어 화자의 인식과 미얀마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 수집 도구인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미얀마인 학습자용 설문지와 한국어 모어 화자용 설문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문항 유형의 지시문 설명에는 차이가 있다. 다음

<표 III-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 설문지는 총 세 가지 테스트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층위에 대한 이해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문법성 판단 테스트(Grammaticality Judgement Test, GJT)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의미적 층위와 담화·화용적 층위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선다형 테스트(Multiple Choice Test, MCT)를 활용하였다.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문항을 안내하는 지시문은 모두 미얀마어로 작성하였다. 모어 화자용 설문지의 경우 세 가지 테스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지시문은 한국어로 제공되었다. 다음으로 각 문항 유형과 구체적인 문항 설계에 대해 설명하겠다.

<표 III-4> 설문지의 구성

자료 수집 내용	미얀마인 학습자 설문지	한국어 모어 화자 설문지
형태·통사적 층위	① 문법성 판단 테스트	① 문법성 판단 테스트
의미적 층위	② 선다형 테스트	② 선다형 테스트
담화·화용적 층위	③ 선다형 테스트	③ 선다형 테스트

(1) 형태·통사적 층위의 자료 수집 도구 - 문법성 판단 테스트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내재화된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테스트 도구로서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널리 사용해 온 연구 방법의 하나이다. 특정 문법 사항에 대한 '습득'을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인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특정 문법 사항을 위반하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맞는 것을 맞게 판단하고,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판단하는지, 즉 특정 문법 사항이 '습득'이 되었는지는 알아보는 실험방법이다(김영주 외, 2012). 본고에서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조사 도구로 선택한 이유는 이러한 방법이 연구 목적에 따라 문법 항목의 특정 형태·통사적인 제약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회피가 불가능하므로 학습자의 언어 자료를 수집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문항 수와 문항 세부 유형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설계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김영주 외(2012)에서는 평가

문항을 개발할 때 문항 수를 최소 5개 이상 제시하여야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에 특정 문법 사항의 범위에 따라 문항 수는 조절되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본고에서는 목표 추측 양태 표현들의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38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추측 양태 표현들의 형태·통사적 제약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문에 더 큰 비중을 두어, 27개의 비문과 11개의 정문을 목표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 구성에 사용된 문법과 어휘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 중급 학습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항에 쓰인 문법과 어휘를 초급, 중급 문법·어휘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세부 문항을 설정할 때 학습자들이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 및 제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 한국어 교재 및 문법 사전 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 목표에 맞게 수정 및 개발하였다. 또한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사이트에 제공된 '문법성 판단 말뭉치'와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에 제공된 '한국어 학습자 오류 주석 말뭉치'를 보조 자료로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들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그 표현들 간에 있는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각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해서 38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는데, 이때 추측 양태 표현들 간에 있는 무표적인 특성보다 유표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66].

---

66) 가.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예쁘겠어, 예쁠 거야, 예쁠 텐데, 예쁠걸, 예쁠 것 같아, 예쁠지도 몰라}.

나.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예쁜가 봐, 예쁠 모양이야}.

다.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겠다, 있을 것이다, 있을 텐데, 있을걸, 있는가 보다, 있는 모양이다, 있는 것 같다, 있을지도 모른다}.

1인칭 주어의 특정 상황 중, 비현실, 반현실 사건 즉 가정된 사건인 상황을 전제한 추측에는 1인칭 제약이 해소되는데 이때 예문 (가)와 (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1인칭 주어와 자연스럽게 사용되지만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사용될 수 없다. 다른 표현들과 달리 이러한 유표적인 특성을 가진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

추측 양태 표현들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어 인칭 제약, 문장 유형 제약, 어미와의 결합 제약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초점을 두고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중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해서는 다시 일반 상황에서의 주어 인칭 제약과 특정 상황에서의 주어 인칭 제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문장 유형 제약에 대해서 본고의 대상이 되는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들은 모두 평서문에서 잘 쓰이고 명령문과 청유문에 쓰이지 않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의문문에서 그 사용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여덟 개 추측 양태 표현들 간에 차이가 있는 의문문에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형태 활용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중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사의 형태 변화가 없으며, 조사나 어미(종조사)에 이형태가 없고 어간의 형태 변화도 없다. 어미의 이형태가 없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에 따른 이형태나 어간의 모음이나 자음에 따른 이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나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 뒤에 동일한 추측 양태 표현을 결합한다. 이로 인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적 특성을 학습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형태 혼용 오류'로 문항을 설정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형태 혼용 오류'에 대해서는 '-나 보다'가 '크다, 싸다, 예쁘다, 바쁘다' 등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와의 결합이 가능한가[67]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으)ㄴ/(으)ㄹ 것 같다'가 명사와 결합하여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추측할 때 관형사 '-(으)ㄴ'나 '-(으)ㄹ'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에 대한 문항은 본고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 포함하여 설정하였다. 한편, 예문 (다)와 같이 화자가 현재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화자 자신이 잘 알고 있으므로, 이때 1인칭 추측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무표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본고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문장 유형 제약에 대해서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 가운데 '-(으)ㄹ걸(요)', '-(으)ㄹ 텐데(요)'는 평서형 종결어미이므로 평서문이 아닌 다른 문장 유형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으)ㄹ걸(요)', '-(으)ㄹ 텐데(요)'를 '문장 유형' 테스트의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67) -는가/(으)ㄴ가 보다'와 '-나 보다'는 형태적 특성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두 표현은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형용사(기쁘다, 슬프다, 아프다, 고프다, 크다, 싸다, 예쁘다, 바쁘다, 시원하다 등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들)의 경우, '-나 보다'와 함께 결합하지 않는 특성이 있(이기종, 2001:247; 이미혜, 2005:121)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에게 추가 설명 및 학습이 필요하다.

있는데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상으로 문상 수와 문항 세부 유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항을 개발하였는데, 문항 유형별 예시 및 개수는 아래 <표 III-5>와 같다. 그리고 <표 III-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문항은 문장과 '√', 'X', '모르겠다' 세 가지 선택항으로 구성된다. '모르겠다'를 설정한 이유는 답을 모르면서도 무성의하게 응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해영, 2011)이다.

<표 III-5>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문항 구성

문항 유형		문항 번호
목표 문항	① 주어 인칭(일반 상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② 주어 인칭(특정 상황)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③ 문장 유형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④ 어미와의 결합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⑤ 형태 혼용 오류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표 III-6>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구체적인 문항 예시
(유형 ①, 유형 ②)

문장	√	X	모르겠다
저는 지금 시험 때문에 힘들겠어요.			
나는 거짓말을 하면 머리를 만지나 봐.			

(2) 의미적 층위의 자료 수집 도구 - 선다형 테스트

본고에서는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선다형 테스트(MCT)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대화'와 '선택항'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조사 참여자가 제시된 대화를 읽고 여덟 개의 선택항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택항을 고르는 선다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앞선 2장에서 논의한 추측의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와 정확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 두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총 26의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세부 문항을 설정할 때 학습자들이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 한국어 교재 및 문법 사전, 그리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 제시된 문법·표현 내용 검색 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 목표에 맞게 수정 및 개발하였다. 또한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사이트에 제공된 '문법성 판단 말뭉치' 등을 보조 자료로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의미적 특정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그 표현들 간에 의미적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에 대해서, 앞서 2장에서는 현장의 지각 정보, 내면화된 정보, 그리고 화자의 직관과 화자의 직접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총 16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양태 부사와의 공기 여부와 화자의 추측 태도가 주체적이냐 객체적이냐 여부로 나누어 총 10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문항 구성에 사용된 문법과 어휘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 중급 학습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에 쓰인 문법과 어휘를 초급, 중급 문법·어휘로 제한하였다.

문항 유형별 구성과 개수 및 문항 예시는 아래 <표 III-7>, <표 III-8>과 같다. 그리고 <표 III-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크게 '대화'와, '선택항'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항'에는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과 '⑨ 적절한 답이 없음'이라는 선택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에 제시된 대화를 읽고 가장 적절한 추측 양태 표현을 선택하도록 한다. 만약 제공된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 중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답이 없으면, 참여자가 '⑨ 적절한 답이 없음'이라는 선택항을 선택하고 직접 답을 작성할 수 있다.

<표 III-7> 의미적 특성별 문항 구성

	구분	문항 유형	문항 번호
목표 문항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	① 현장의 지각 정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② 내면화된 정보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③ 화자의 직관, 직접 경험	13번, 14번, 15번, 16번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	① 양태 부사와의 공기 ② 화자의 추측 태도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표 III-8> 의미적 특성에 대한 선다형 테스트 문항 예시

다음 ( ) 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만일 적절한 표현이 없으면 '⑨ 적절한 답이 없음'을 고른 후 직접 써 주십시오.
가: 제 친구는 한국에서 산 지 오래됐어요. 나: 그래요? 그럼 한국어를 ( ).
① 잘하겠어요 ② 잘할 거예요 ③ 잘할 텐데요 ④ 잘할걸요 ⑤ 잘하나 봐요 ⑥ 잘한 모양이에요 ⑦ 잘할 것 같아요 ⑧ 잘할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

(3) 담화·화용적 층위의 자료 수집 도구 - 선다형 테스트

본고에서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앞선 설명한 의미적 특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다형 테스트(MCT)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상황', '대화'와 '선택항'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조사 참여자가 제시된 상황을 읽고 여덟 개의 선택항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택항을 고르는 선다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앞선 2장에서 살펴본 청자 존중 전략과 화자 겸손 전략, 그리고 불손 전략에 따른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총 21개의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담화·화용적인 층위에서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추측해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명제에 대한 발화 수반력을 약화시켜 청자를 배려하는 말하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동일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감을 달리하였을 때,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 [사회적 거리 +/-]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공손성의 정도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화자와 청자 사이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발화, 선배와 후배의 발화, 회사 동료와의 발화, 친구와의 발화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친소] 관계의 상황은 드물 것이므로, 본 실험에서는 [+친소]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 사회적 거리]만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담화 상대자가 존재하여 사회적 관계에 유의해야 할 경우에도 화자에게 명확한 태도를 요구하는 담화 상황에서는 단정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 (1)개를 추가하여 설정하였다.

<표 III-9> 담화·화용적 특성별 문항 구성

	구분	문항 유형	문항 번호
목표 문항	청자 존중 전략	① 반대 의견 제시하기	1-1번, 1-2번
		② 부탁 거절하기	2-1번, 2-2번
		③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제시하기	3-1번, 3-2번
		④ 정보 영역 존중하기	4-1번, 4-2번
		⑤ 공감 표현하기	5-1번, 5-2번
		⑥ 위로/격려 표현하기	6-1번, 6-2번
	화자 겸손 전략	⑦ 감사 표현하기	7-1번, 7-2번
		⑧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기	8-1번, 8-2번
		⑨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	9-1번, 9-2번
	불손 전략		10번, 11번, 12번
	단정 표현		13번

세부 문항을 설정할 때 학습자들이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 한국어 교재 및 문법 사전, 그리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 제시된 문법·표현 내용 검색 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 목표에 맞게 수정 및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담화·화용적 특정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그 표현들 간에 담화·화용적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 상황을 설계할 때 그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조사 참여자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

는 일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실제성을 갖춘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조사 참여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읽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상세하게 상황을 설계하였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황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 장소 등의 배경 정보도 설명에 포함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중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을 가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만, 언어적 한계로 인하여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학습자의 읽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습자에게 미얀마어로 된 상황 설명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용 설문지에는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문항 구성에 사용된 문법과 어휘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 중급 학습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에 쓰인 문법과 어휘를 초급, 중급 문법·어휘로 제한하였다.

문항 예시는 아래 <표 III-10>과 같다. 그리고 <표 III-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크게 '상황', '대화'와, '선택항'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항'에는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과 '①(단정 표현)', 그리고 '⑨ 적절한 답이 없음'이라는 선택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에 제시된 대화를 읽고 가장 적절한 추측 표현을 선택하도록 한다. 만약 조사 참여자가 상황을 읽고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정 표현만 쓰고 싶으면 '①(단정 표현)'을 선택하도록 하고, 제공된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 중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답이 없으면, 참여자가 '⑨ 적절한 답이 없음'이라는 선택항을 선택하고 직접 답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III-10>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선다형 테스트 문항 예시

9-(1). [상황] 회사 동료가 당신이 부럽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동료에게 당신의 생각을 겸손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동료: 전 지수 씨가 참 부러워요. 성격도 활발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친구가 많으시잖아요. 나 : 제가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다 보니 성격이 그렇게 (　　). ① 됐어요　② 됐겠어요　③ 됐을 거예요　④ 됐을 텐데요　⑤ 됐을걸요 ⑥ 됐나 봐요　⑦ 된 모양이에요　⑧ 된 것 같아요　⑨ 됐을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 9-(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내가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다 보니 성격이 그렇게 (　　). ① 됐어　② 됐겠어　③ 됐을 거야　④ 됐을 텐데　⑤ 됐을걸 ⑥ 됐나 봐　⑦ 된 모양이야　⑧ 된 것 같아　⑨ 됐을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4) 조사 도구의 타당도 검증

조사 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이자 한국어교육 전문가 7명[68]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국어교육 전문가에게 학습자용 설문지, 그리고 평가용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전문가 검토 절차는 두 번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차 전문가 검토 절차를 실시하여 문항의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한 후,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해 실험 문항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어 문항을 다시 수정한 후, 2차 전문가 검토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본고의 실험 문항을 확정하였다. 평가용 설문지에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평균값을 내어 분석하였으며, 조사는 5간 척도로 진행하였으므로 5점 만점에 평균이 4보다 낮은 문항들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 유형이 분명하게 드러난 새로운 문항들을 교체하였다. 그 외 4점보다 높은 문항들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실험 문항을 확정하였다.

1.3. 자료 분석 방법

(1) 점수화 기준

본고에서는 통계 분석을 위해 문법성 판단 테스트 유형의 응답 결과에 대해 점수화하고자 하였다. 의미적 기능과 담화·화용적 기능을 고찰하는 선다형 테스트 II, III는 적절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해진 답이 없고 예비 조

68) 한국어교육 전문가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 과정 중이므로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언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사를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도 하나의 선택항에 집중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점수화하지 않기로 하였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경우 목표 문항에 대해 점수화를 진행하였다. 문항당 1점씩 배점하고 총점은 38점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점수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문 문항에 '√'로 응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하고, 'X' 또는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 0점으로 수치화하였다. 마찬가지로 비문 문항에 'X'로 응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하고, 또는 '√', 또는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 0점으로 수치화하였다.

(2) 분석 방법

조사 결과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이 부분에서는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고는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 '의미', '담화·화용' 세 층위 그리고 학습자의 '학년' 요인에 중점을 두어 층위별, 학년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학습자의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우선, 층위별 분석 부분은 학년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층위, 의미 층위, 담화·화용적 층위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 80명의 전체적인 이해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형태·통사적 층위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형태·통사적 층위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전체적인 이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학습자 집단과 참조 집단인 모어 화자 집단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조사 참여자의 응답 결과에 대한 점수화 처리를 거친 후 기술 통계를 통해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의 평균 점수, 점수의 표준 편차 그리고 평균 정답률을 일차적으로 구하였다. 이어서 두 집단의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위트니 유 검증(Mann-Whitney U test)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측 양태 표현과 관련된 38개의 목표 문항은 다시 다섯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문항 유형별로 미얀마인 학습자 80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40명의 평균 정답률을 계산하고 차이 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유형에 따

른 두 집단의 정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미얀마인 학습자 80명의 응답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독립 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을 통해 문항 유형에 따른 학습자 집단의 정답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선다형 테스트 II, III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의미적, 담화·화용적 층위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형태 통사적 층위의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우선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의미적 특성과 담화·화용적 특성을 살펴보는 선다형 테스트의 경우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응답 분포를 일차적으로 집계하고 교차 분석을 실시하여 의미적 특성과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은 '학년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80명의 미얀마인 학습자를 3, 4학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각 집단의 이해 양상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분석의 체계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형태·통사적 층위, 의미적 추위, 담화 화용적 층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형태 통사적 층위의 경우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두 학습자 집단의 이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3, 4학년 학습자 집단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일차적으로 구하고 t검증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둘째 학습자 집단별 다섯 개 문항 유형의 평균 정답률과 표준 편차를 집계하였고 각 집단에 정답률이 높은 유형과 낮은 유형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셋째 조사 결과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다섯 개 문항 유형에 집중하여 두 학습자 집단의 습득 양상을 고찰하였다. 각 유형에 대해 먼저 t검증 (Independent t-test) 방법을 사용하여 두 학습자 집단 정답률 차이의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일부 문항을 예시로 들어 문항 내용과 학습자의 응답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의미적 층위와 담화 화용적 층위의 경우 앞서 설명한 층위별 분석 부분과 마찬가지로 선다형 테스트 II, III을 통해 각각 의미적 특성과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의미적 특성에 있어서는 추

측 근거에 따른 차이의 경우와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문항 내용과 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담화·화용적 특성에 있어서는 청자 존중 전략, 화자 겸손 전략, 그리고 불손 전략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문항 내용과 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3, 4학년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고 필요에 따라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여 해당 선택항을 고른 이유를 알아보았다.

2. 층위별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 분석

2절에서는 형태·통사적 층위, 의미적 층위, 화용적 층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학년 요인을 일단 고려하지 않고 3, 4학년 전체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층위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파악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 집단의 응답 결과와 참조 집단인 한국어 모어 집단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통계 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미얀마인 학습자 80명의 응답 결과에 초점을 두고 문법성 판단 테스트 문항 유형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2.1. 형태·통사적 층위의 이해 양상 분석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38개의 목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점은 38점이다.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를 점수로 환산한 후. 미얀마인 학습자 집

단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 정답률 등의 기술 통계 정보를 제시하면 아래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조사 참여자 집단에 따른 GJT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

조사 참여자 집단	사례 수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 정답률
미얀마인 학습자	80	21.53	4.957	56.66%
한국어 모어 화자	40	34.02	2.939	89.53%

<표 III-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의 평균 점수는 21.53점, 정답률은 56.66%로, 절반의 문항에서 정답을 맞추지 못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평균 점수는 34.02점, 정답률은 89.53%로 학습자 집단보다 상당히 높았다. 또한 표준 편차를 통해 모어 화자 집단보다 학습자 집단 내부의 점수 차이가 비교적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위트니 유 검증(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표 III-12> 조사 참여자 집단에 따른 GJT 점수에 대한 만-위트니 유 검증 결과

집단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 (n=80)	한국어 모어 화자 (n=40)	Z	*p*
	22.00(17.25, 25.75)	35.00(32.00, 36.00)	-8.673	.000**

*$p < .05$ **$p < .01$

<표 III-12>에서 제시한 검증 결과를 보면, Z 통계값이 -8.673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은 문법성 판단 테스트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에서는 'Me(Q1, Q3)'라는 형식으로 두 집단의 중앙값과 사분위수(Q1, Q3)를 같이 제시하였는데 우선 중앙값의 경우, 학습자 집단은 22점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은 35점으로 앞서 제시한 평균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은 사분위수의 경우, 학습자 집단은 17.25/25.75점, 모어 화자 집단은 32.00/36.00점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통해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 점수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어 화자 집단보다 미얀마인 학

습자 집단 내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목표 문항은 다섯 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별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정답률은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각 유형별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정답률

유형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 (n=80)		한국어 모어 화자 (n=40)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유형 1. 주어 인칭 (일반 상황)	72.13%	1.660	93.44%	0.750
유형 2. 주어 인칭 (특정 상황)	54.12%	2.048	91.00%	1.172
유형 3. 문장 유형	60.00%	1.186	90.00%	0.810
유형 4. 어미와의 결합	51.52%	1.536	88.61%	1.290
유형 5. 형태 혼용 오류	42.24%	1.006	81.50%[69]	0.858

위의 <표 III-13>을 통해 네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모든 유형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답률이 미얀마인 학습자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 모든 유형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답률은 80%를 넘었다. 또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정답률을 보면 형태 사용 오류와 관련된 유형의 정답률은 42.24%로 가장 낮게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표준 편차를 비교하면, 모든 유형에서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 내의 점수 차이가 모어 화자 집단보다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문항 유형별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할 자료의

69) 유형 5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평균 정답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나 보다'의 일부 형용사 사용 제약을 고찰하는 34번, 36번 문항과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35번 문항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모어 화자가 '-나 보다'의 일부 형용사 사용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35번 문항은 '-았/었/였더라면'이 실제 있었던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으므로 후행절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았/었/였-'과 함께 추측 표현을 써야 하는 제약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에 모어 화자는 이러한 제약에 엄격하지 않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검증 결과에 따르면 유형(4)과 (5)의 데이터 자료는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만 유형(1~3)의 데이터 자료는 그렇지 못하다. 이에 따라 유형 1~3과 유형 4~5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자는 비모수 통계 방법인 만-위트니 유 검증(Mann-Whitney U test)을, 후자는 독립 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여 각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표 III-14> 조사 참여자 집단에 따른 GJT 정답률에 대한 만-위트니 유 검증 결과 (유형 1~3)

유형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 (n=80)		한국어 모어 화자 (n=40)		Z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유형 1. 주어 인칭 (일반 상황)	72.13%	1.660	93.44%	0.750	-5.719	.000**
유형 2. 주어 인칭 (특정 상황)	54.12%	2.048	91.00%	1.172	-7.949	.000**
유형 3. 문장 유형	60.00%	1.186	90.00%	0.810	-7.079	.000**

*p < .05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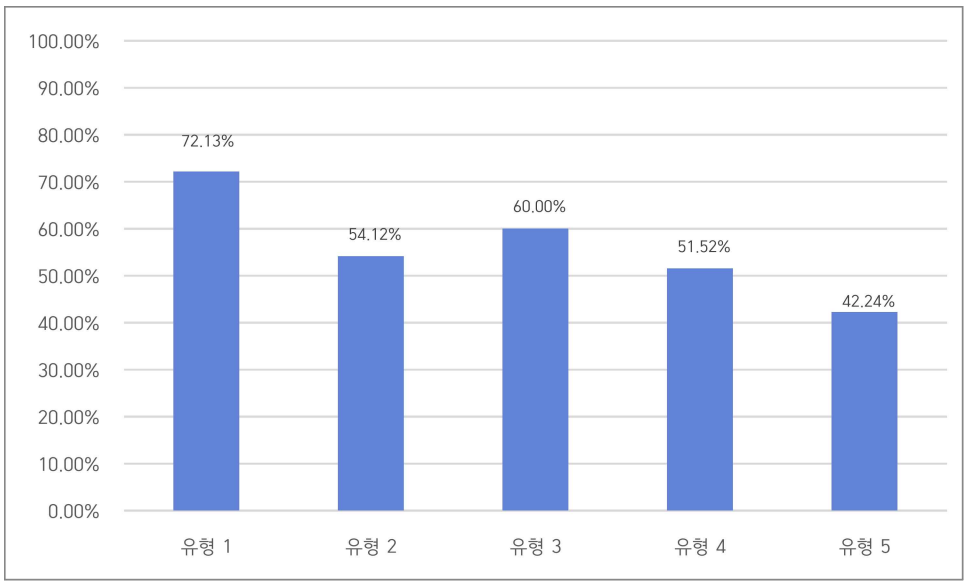
<표 III-15> 조사 참여자 집단에 따른 GJT 정답률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 (유형 4, 5)

유형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 (n=80)		한국어 모어 화자 (n=40)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유형 4. 어미와의 결합	51.52%	1.536	88.61%	1.290	11.806	.000**
유형 5. 형태 혼용 오류	42.24%	1.006	81.50%	0.858	10.556	.000**

*p < .05 **p < .01

위의 <표 III-14>과 <표 III-15>에서 제시한 결과를 통해 유의 수준 .05에서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은 다섯 개 문항 유형의 정답률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표 III-13>에서 문항 유형별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정답률 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 III-1> 문항 유형별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정답률 결과

<그림 III-1>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유형 1인 명제 주어 제약(일반 상황)에 대한 문항의 정답률은 72.19%로 다섯 개의 문항 유형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유형의 정답율보다 높다. 이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일반 상황에서의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유형들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 명제 주어 제약과 관련된 유형 1, 2중 유형 1(일반 상황)은 정답율이 높으나 유형 2(특정 상황)는 정답율이 53.12%로 낮다. 이는 학습자들은 일반 상황에서의 명제 주어 제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나 특정 맥락에서의 명제 주어 제약에 대한 이해도는 낮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추측 양태 표현들이 특정 상황에 따라 1인칭 주어 사용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에서는 일부 추측 양태 표현의 일반 상황에서의 주어 제약에 대한 제시만 있었을 뿐이고 특정 상황에서의 인칭 제약에 대한 제시는 없었다. 그러므로 명제 주

어 제약에 대해 교수·학습할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제약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제약도 교수·학습할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유형 3은 문장 유형 제약과 관련된 문제이다. 추측 양태 표현들은 평서문에 잘 쓰이며 청유문과 명령문에 쓰일 수 없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의문문에 쓰일 때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그중 '-겠-',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의문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으)ㄹ 것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살펴보면 정답율이 60.00%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Ⅱ 장에서 확인하였듯이 한국어 교재에서 추측 양태 표현들의 문장 유형에 대한 제시, 특히 의문문 유형과 관련된 제약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또한 학습자의 모국어인 미얀마어의 추측 양태 표현은 모두 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형 4는 어미와의 결합 제약(선어말어미 '-았/었/였-'과의 결합, 종결어미 '-네, -구나, -지'와의 결합)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학습자들의 정답율은 51.52%이다. 추측 양태 표현들과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선행과 후행 결합에서도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재에서는 명시적인 문법 정보의 제시가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추측 양태 표현만 그러한 제시가 있었을 뿐이고. 종결어미 '-네, '-구나, -지'와의 결합 제약에 대해 명시적인 제시 및 설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형 5는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를 잘못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즉 추측 양태 표현 '-나 보다'가 '크다, 싸다, 예쁘다, 바쁘다' 등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와 결합은 가능한가에 관련된 문제,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명사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추측할 때 관형사 '-(으)ㄴ'나 '-(으)ㄹ'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 '-았/었/였더라면'은 후행절에 과거를 나타내는 '-았/었/였-'과 함께 추측 양태 표현을 써야 하는 제약과 관련된 문제 등이다. 이에 학습자들의 정답률은 42.24%로 다른 유형들보다 정답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 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Ⅱ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형태적 특성에 대한 차이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추측 양태

표현의 인칭 제약, 문장 유형, 어미와의 결합 제약에 대한 교수·학습을 하는 동시에 형태 사용에 대해 혼용하지 않도록 형태 특징도 교육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2. 의미적 층위의 이해 양상 분석

이 절에서는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에 착안하여 의미적 층위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앞서 절 자료 분석 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미적 특성을 측정하는 선다형 테스트는 적절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해진 답이 없다. 따라서 응답 결과에 대해 점수화하지 않고 형태·통사적 특징 부분과 달리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을 측정하는 선다형 테스트에는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의 경우, 현장의 지각 정보, 내면화된 정보, 화자의 직관/직접 경험 이 세 가지 근거 유형을 중심으로 총 16의 문항, 그리고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의 경우, 양태 부사와의 공기 여부와 화자의 추측 태도가 주체적이냐 객체적이냐 여부로 나누어 총 10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우선 16개의 문항에 걸쳐 각 문항의 아홉 개의 선택항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빈도 및 비율을 집계하였다. 이어서 각 문항마다 아홉 개의 선택항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 분포 및 교차 분석[70] 결과(1)

문항 유형	문항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현장의 지각 정보	1	KNS	85.00%	2.50%	0.00%	0.00%	0.00%	0.00%	12.50%	0.00%	0.00%	31.908	.000**
		MKL	35.00%	3.80%	8.80%	0.00%	25.00%	6.30%	20.00%	1.30%	0.00%		
	2	KNS	47.50%	2.50%	0.00%	0.00%	0.00%	0.00%	50.00%	0.00%	0.00%	38.999	.000**
		MKL	23.80%	5.00%	7.50%	6.30%	7.50%	31.30%	17.50%	1.30%	0.00%		
	3	KNS	0.00%	0.00%	0.00%	0.00%	85.00%	7.50%	7.50%	0.00%	0.00%	29.221	.000**
		MKL	0.00%	8.80%	8.80%	0.00%	32.50%	28.80%	18.80%	2.50%	0.00%		
	4	KNS	0.00%	0.00%	0.00%	0.00%	72.50%	20.00%	7.50%	0.00%	0.00%	10.231	.117
		MKL	2.50%	7.50%	7.50%	1.30%	47.50%	22.50%	8.80%	2.50%	0.00%		
	5	KNS	7.50%	0.00%	0.00%	0.00%	75.00%	12.50%	5.00%	0.00%	0.00%	71.557	.000**
		MKL	12.50%	11.30%	3.80%	5.00%	3.80%	17.50%	32.50%	13.80%	0.00%		
	6	KNS	0.00%	0.00%	0.00%	0.00%	65.00%	2.50%	32.50%	0.00%	0.00%	12.894	.028*
		MKL	2.50%	1.30%	2.50%	3.80%	40.00%	1.30%	35.00%	13.80%	0.00%		
내면화된 정보	7	KNS	0.00%	75.00%	0.00%	10.00%	0.00%	0.00%	15.00%	0.00%	0.00%	14.739	.020*
		MKL	11.30%	50.00%	3.80%	7.50%	3.80%	3.80%	11.30%	8.80%	0.00%		
	8	KNS	0.00%	27.50%	7.50%	17.50%	0.00%	0.00%	15.00%	32.50%	0.00%	18.978	.005**
		MKL	2.50%	10.00%	18.80%	17.50%	12.50%	8.80%	10.00%	20.00%	0.00%		
	9	KNS	0.00%	42.50%	2.50%	22.50%	0.00%	0.00%	12.50%	20.00%	0.00%	25.317	.000**
		MKL	6.30%	11.30%	11.30%	15.00%	6.30%	8.80%	27.50%	13.80%	0.00%		
	10	KNS	0.00%	0.00%	45.00%	0.00%	5.00%	0.00%	45.00%	5.00%	0.00%	24.137	.000**
		MKL	2.50%	3.80%	25.00%	1.30%	17.50%	0.00%	18.80%	31.30%	0.00%		
	11	KNS	0.00%	87.50%	0.00%	0.00%	0.00%	0.00%	12.50%	0.00%	0.00%	25.051	.000**
		MKL	13.80%	60.00%	12.50%	8.80%	0.00%	3.80%	1.30%	0.00%	0.00%		
	12	KNS	0.00%	0.00%	0.00%	0.00%	0.00%	0.00%	2.50%	97.50%	0.00%	20.525	.000**
		MKL	1.30%	12.50%	8.80%	1.30%	0.00%	5.00%	13.80%	57.50%	0.00%		
화자의 직관/ 직접 경험	13	KNS	2.50%	0.00%	0.00%	0.00%	0.00%	0.00%	97.50%	0.00%	0.00%	42.435	.000**
		MKL	6.30%	6.30%	5.00%	5.00%	18.80%	21.30%	36.30%	1.30%	0.00%		
	14	KNS	0.00%	0.00%	0.00%	0.00%	0.00%	0.00%	2.50%	97.50%	0.00%	18.054	.001**
		MKL	2.50%	0.00%	5.00%	2.50%	7.50%	16.30%	5.00%	61.30%	0.00%		
	15	KNS	0.00%	0.00%	0.00%	0.00%	0.00%	0.00%	97.50%	0.00%	2.50%	43.144	.000**
		MKL	1.30%	5.00%	18.80%	7.50%	10.00%	10.00%	33.80%	3.80%	10.00%		
	16	KNS	0.00%	0.00%	0.00%	0.00%	15.00%	2.50%	80.00%	0.00%	2.50%	35.507	.000**
		MKL	2.50%	12.50%	16.30%	3.80%	12.50%	8.80%	27.50%	7.50%	8.80%		

본 연구에서는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에 대해서 미얀마인 학습자와

70) 모든 문항은 기대 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는 전체 셀의 25% 이상이므로, 피셔의 정확도 검정(Fisher's Exact Test) 방법을 적용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의 지각 정보, 내면화된 정보, 화자의 직관/직접 경험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표 III-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추측 근거의 현장 지각 정보와 관련된 문항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 분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결과 분포가 상당히 다르다는 조사 결과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서 추측할 때 추측 근거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을 알맞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현장의 지각 정보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추측 양태 표현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추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앞서 II 장에서 밝혔듯이 각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서로 차이를 가진다. 반면,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 걸(요)'는 발화 현장의 지각으로 추측할 때 사용될 수 없다. 이에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현장 지각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는 상황 맥락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를 선택한 것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내면화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추측하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추측 양태 표현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내면화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추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앞서 II 장에서 밝혔듯이 각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서로 차이를 가진다. 반면,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추측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추측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지 않은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사용한 ①번, ⑤번, ⑥번 선택항을 선택한 것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자의 직관/직접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화자의 직관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앞서 II 장에서 밝혔듯이 이들 표현 간에 있는 의미적 특성에 따라 서로 차이를 가진다. 한편, 화자가 자신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로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응답 결과를 보면 화자의 직관/직접 경험을 근거로 추측할 때 사용될 수 없는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를 분산되어 많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어떤 상황을 추측할 때 근거 유형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추측 양태 표현들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 서로 혼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

다음은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우선 10개의 문항에 걸쳐 각 문항의 아홉 개의 선택항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빈도 및 비율을 집계하였다. 이어서 각 문항마다 아홉 개의 선택항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 분포 및 교차 분석[71] 결과(2)

문항 유형	문항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양태 부사와의 공기	17	KNS	5.00%	70.00%	0.00%	2.50%	0.00%	0.00%	22.50%	0.00%	0.00%	18.533	.004**
		MKL	8.80%	41.30%	6.30%	10.00%	13.80%	2.50%	12.50%	5.00%	0.00%		
	18	KNS	2.50%	5.00%	2.50%	2.50%	27.50%	17.50%	42.50%	0.00%	0.00%	29.558	.000**
		MKL	12.50%	18.80%	3.80%	5.00%	25.00%	8.80%	8.80%	11.30%	6.30%		

71) 모든 문항은 기대 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는 전체 셀의 25% 이상이므로, 피셔의 정확도 검정(Fisher's Exact Test) 방법을 적용하였다.

	19	KNS	2.50%	52.50%	2.50%	5.00%	7.50%	0.00%	22.50%	7.50%	0.00%	20.690	.002**
		MKL	7.50%	21.30%	15.00%	7.50%	8.80%	13.80%	23.80%	2.50%	0.00%		
	20	KNS	12.50%	10.00%	0.00%	10.00%	2.50%	0.00%	27.50%	37.50%	0.00%	11.051	.117
		MKL	8.80%	16.30%	8.80%	12.50%	10.00%	3.80%	15.00%	25.00%	0.00%		
	21	KNS	0.00%	0.00%	0.00%	0.00%	15.00%	10.00%	5.00%	65.00%	5.00%	39.618	.000**
		MKL	2.50%	0.00%	6.30%	5.00%	43.80%	15.00%	15.00%	12.50%	0.00%		
화자의 추측 태도	22	KNS	0.00%	0.00%	0.00%	0.00%	0.00%	0.00%	97.50%	0.00%	2.50%	56.899	.000**
		MKL	2.50%	10.00%	15.00%	13.80%	10.00%	17.50%	27.50%	3.80%	0.00%		
	23	KNS	0.00%	15.00%	0.00%	2.50%	0.00%	2.50%	75.00%	5.00%	0.00%	24.827	.000**
		MKL	1.30%	8.80%	8.80%	5.00%	18.80%	10.00%	36.30%	11.30%	0.00%		
	24	KNS	0.00%	45.00%	7.50%	10.00%	0.00%	0.00%	20.00%	17.50%	0.00%	12.859	.057
		MKL	6.30%	26.30%	15.00%	15.00%	7.50%	3.80%	8.80%	17.50%	0.00%		
	25	KNS	5.00%	65.00%	0.00%	5.00%	5.00%	5.00%	12.50%	2.50%	0.00%	13.393	.043*
		MKL	8.80%	38.80%	10.00%	5.00%	11.30%	15.00%	11.30%	0.00%	0.00%		
	26	KNS	2.50%	5.00%	0.00%	7.50%	0.00%	0.00%	80.00%	5.00%	0.00%	32.229	.000**
		MKL	3.75%	17.50%	5.00%	11.25%	10.00%	11.25%	26.25%	15.00%	0.00%		

*p < .05 **p < .01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에 대해서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양태 부사와의 공기 여부와 화자의 추측 태도가 주체적이냐 객체적이냐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에 <표 III-1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양태 부사와의 공기 여부와 관련된 문항 20번, 화자의 추측 태도와 관련된 문항 2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 분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확실성 정도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결과 분포가 상당히 다르다는 조사 결과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확실성의 정도를 알맞게 표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습득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추측 근거와 확실성 정도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이 다르다는 점을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에 관한 교육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2.3. 담화·화용적 층위의 이해 양상 분석

이 절에서는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기능에 대한 인식에 있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담화·화용적 특성을 측정하는 선다형 테스트는 의미적 특성을 측정하는 테스트처럼 적절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해진 답이 없다. 따라서 응답 결과에 대해 점수화하지 않고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청자와의 관계[사회적 거리+/-]를 독립 변인으로 제시하였을 때, 청자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다. 이는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친소] 관계의 상황은 드물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친소]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회적 거리+/-]만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을 측정하는 선다형 테스트에는 앞선 2장에서 살펴본 청자 존중 전략과 화자 겸손 전략, 그리고 불손 전략 등을 중심으로, 총 22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청자 존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청자 존중 전략

청자 존중 전략에는 반대 의견 제시하기(문항 1-1번, 1-2번), 부탁 거절하기(문항 2-1번, 2-2번),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제시하기(문항 3-1번, 3-2번),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문항 4-1번, 4-2번), 공감 표현하기(문항 5-1번, 5-2번), 위로/격려 표현하기(문항 6-1번, 6-2번) 등이 있는데 우선 이들의 문항에 걸쳐 각 문항의 열 개의 선택항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빈도 및 비율을 집계하였다. 이어서 각 문항마다 열 개의 선택항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 분포 및 교차 분석[72] 결과(3)

문항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반대 의견 1-1	KNS	0.00%	0.00%	22.50%	7.50%	0.00%	0.00%	0.00%	42.50%	27.50%	0.00%	46.867	.000**
	MKL	2.50%	26.30%	36.30%	15.00%	0.00%	5.00%	3.80%	6.30%	5.00%	0.00%		
반대 의견 1-2	KNS	2.50%	2.50%	35.00%	2.50%	15.00%	2.50%	2.50%	22.50%	15.00%	0.00%	13.622	.071
	MKL	2.50%	3.80%	23.80%	16.30%	5.00%	11.30%	8.80%	16.30%	12.50%	0.00%		
부탁 거절 2-1	KNS	0.00%	7.50%	0.00%	0.00%	2.50%	2.50%	0.00%	87.50%	0.00%	0.00%	30.374	.000**
	MKL	0.00%	12.50%	17.50%	15.00%	5.00%	2.50%	1.30%	38.80%	7.50%	0.00%		
부탁 거절 2-2	KNS	30.00%	20.00%	5.00%	2.50%	2.50%	0.00%	0.00%	40.00%	0.00%	0.00%	17.851	.011*
	MKL	16.30%	8.80%	18.80%	15.00%	6.30%	5.00%	2.50%	25.00%	2.50%	0.00%		
청자 잘못 3-1	KNS	20.00%	0.00%	2.50%	2.50%	0.00%	5.00%	0.00%	70.00%	0.00%	0.00%	39.811	.000**
	MKL	7.50%	2.50%	3.80%	7.50%	1.30%	38.80%	12.50%	22.50%	3.80%	0.00%		
청자 잘못 3-2	KNS	32.50%	0.00%	0.00%	0.00%	0.00%	10.00%	0.00%	57.50%	0.00%	0.00%	29.906	.000**
	MKL	20.00%	5.00%	2.50%	2.50%	0.00%	40.00%	11.30%	18.80%	0.00%	0.00%		
정보 존중 4-1	KNS	0.00%	0.00%	0.00%	0.00%	0.00%	80.00%	2.50%	17.50%	0.00%	0.00%	15.350	.008**
	MKL	8.80%	7.50%	3.80%	0.00%	3.80%	55.00%	12.50%	8.80%	0.00%	0.00%		
정보 존중 4-2	KNS	0.00%	0.00%	0.00%	0.00%	0.00%	67.50%	2.50%	30.00%	0.00%	0.00%	19.897	.001**
	MKL	15.00%	3.80%	8.80%	3.80%	0.00%	47.50%	8.80%	12.50%	0.00%	0.00%		
공감 하기 5-1	KNS	0.00%	87.50%	0.00%	0.00%	0.00%	0.00%	0.00%	12.50%	0.00%	0.00%	22.353	.000**
	MKL	7.50%	52.50%	20.00%	7.50%	2.50%	0.00%	2.50%	7.50%	0.00%	0.00%		
공감 하기 5-2	KNS	0.00%	95.00%	0.00%	0.00%	0.00%	0.00%	0.00%	5.00%	0.00%	0.00%	21.143	.000**
	MKL	11.30%	60.00%	12.50%	7.50%	5.00%	2.50%	0.00%	1.30%	0.00%	0.00%		
위로 하기 6-1	KNS	0.00%	0.00%	87.50%	0.00%	2.50%	0.00%	2.50%	7.50%	0.00%	0.00%	25.248	.000**
	MKL	8.80%	23.80%	46.30%	2.50%	7.50%	2.50%	2.50%	6.30%	0.00%	0.00%		
위로 하기 6-2	KNS	0.00%	2.50%	95.00%	0.00%	0.00%	0.00%	0.00%	2.50%	0.00%	0.00%	17.950	.001**
	MKL	11.30%	1.30%	61.30%	0.00%	13.80%	0.00%	3.80%	5.00%	3.80%	0.00%		

<표 III-1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반대의 의견 제시하기'유형의 문항 1-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유형의 문항에서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 분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

72) 모든 문항은 기대 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는 전체 셀의 25% 이상이므로, 피셔의 정확도 검정(Fisher's Exact Test) 방법을 적용하였다.

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선택한 추측 양태 표현과 미얀마인 학습자가 선택한 추측 양태 표현 간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편, 청자와의 관계[사회적 거리+/-]를 독립 변인으로 제시하였을 때, 청자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를 보면, 청자 존중 전략에 포함되는 '반대 의견 제시하기'만 제외하고 '부탁 거절하기,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제시하기,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 공감 표현하기, 위로/격려 표현하기'에는 [사회적 거리+/-]와 관계없이 동일한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 양상을 보였다. 즉 '공감 표현하기'의 경우 '-겠-'을, '위로/격려 표현하기'의 경우 '-(으)ㄹ 것이다'를,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의 경우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제시하기'와 '부탁 거절하기'의 경우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가장 많이 선택한 응답 비율을 볼 수 있다. '반대 의견 제시하기'의 경우 [사회적 거리+]일 때는 확실성이 낮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사회적 거리-]일 때는 확실성이 강한 '-(으)ㄹ 것이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미얀마인 학습자의 응답 결과를 보면, 청자 존중 전략에 포함되는 반대 의견 제시하기, 부탁 거절하기,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제시하기,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 공감 표현하기, 위로/격려 표현하기 등에서 모두 [사회적 거리+/-]와 관계없이 동일한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 양상을 보였다. 즉 '공감 표현하기'의 경우 '-겠-'을, '위로/격려 표현하기', '반대 의견 제시하기'의 경우 '-(으)ㄹ 것이다'를,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와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제시하기'의 경우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부탁 거절하기'의 경우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 화자 겸손 전략

화자 겸손 전략에는 감사 표현하기(문항 7-1번, 7-2번),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문항 8-1번, 8-2번),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문항 9-1번, 9-2번) 등이 있는데 우선 이들의 문항에 걸쳐 각 문항의 열 개의 선택항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빈도 및 비율을 집계하였다. 이어서 각 문항마다 열 개의 선택항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아래 <표 III-19>와 같다.

<표 III-19>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 분포 및 교차 분석[73] 결과(4)

문항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감사표현 7-1	KNS	0.00%	2.50%	62.50%	0.00%	2.50%	0.00%	2.50%	17.50%	12.50%	0.00%	32.902	.000**
	MKL	3.80%	5.00%	27.50%	16.30%	17.50%	13.80%	0.00%	11.30%	5.00%	0.00%		
감사표현 7-2	KNS	2.50%	2.50%	72.50%	0.00%	0.00%	0.00%	2.50%	12.50%	7.50%	0.00%	38.493	.000**
	MKL	13.80%	5.00%	27.50%	15.00%	18.80%	6.30%	0.00%	12.50%	1.30%	0.00%		
잘못 인정 8-1	KNS	0.00%	0.00%	0.00%	0.00%	0.00%	30.00%	12.50%	55.00%	2.50%	0.00%	33.001	.000**
	MKL	18.80%	3.80%	5.00%	5.00%	1.30%	45.00%	1.30%	17.50%	2.50%	0.00%		
잘못 인정 8-2	KNS	7.50%	0.00%	0.00%	0.00%	0.00%	55.00%	2.50%	35.00%	0.00%	0.00%	22.904	.001**
	MKL	22.50%	6.30%	5.00%	8.80%	5.00%	40.00%	1.30%	10.00%	1.30%	0.00%		
자신 사태 9-1	KNS	5.00%	0.00%	0.00%	0.00%	5.00%	20.00%	12.50%	57.50%	0.00%	0.00%	23.446	.001**
	MKL	17.5%	6.30%	6.30%	2.50%	1.30%	36.30%	8.80%	20.00%	1.30%	0.00%		
자신 사태 9-2	KNS	5.00%	0.00%	5.00%	0.00%	2.50%	55.00%	5.00%	27.50%	0.00%	0.00%	12.218	.065
	MKL	20.00%	7.50%	5.00%	0.00%	6.30%	32.50%	6.30%	20.00%	2.50%	0.00%		

<표 III-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유형의 문항 (9-2)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유형의 문항에서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 분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한국어 모어 화자가 선택한 추측 양태 표현과 미얀마인 학습자가 선택한 추측 양태 표현 간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편, 청자와의 관계[사회적 거리+/-]를 독립 변인으로 제시하였을 때, 청자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를 보면, 화자 겸손 전략에 포함되는 유형 중 '감사 표현하기' 유형을 제외하고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에서 청자에 따라 추측 양태

73) 모든 문항은 기대 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는 전체 셀의 25% 이상이므로, 피셔의 정확도 검정(Fisher's Exact Test)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현의 사용 양상이 달라졌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감사를 표현하기’의 경우 모두 ‘-(으)ㄹ 것이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와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에서 [사회적 거리+]일 때는 확실성이 약한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사회적 거리-]일 때는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미얀마인 학습자의 경우, 청자 존중 전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자 겸손 전략에서의 ‘감사를 표현하기,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에서도 모두 [사회적 거리+/-]와 관계없이 동일한 추측 양태 표현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감사를 표현하기’의 경우 ‘-(으)ㄹ 것이다’를,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와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의 경우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담화·화용적 특성과 청자와의 관계[사회적 거리+/-]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 20> [사회적 거리+/-]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한 추측 양태 표현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모어 화자</th><th colspan="2">미얀마인 학습자</th></tr>
<tr><td></td><td></td><td>사회적 거리 -</td><td>사회적 거리 +</td><td>사회적 거리 -</td><td>사회적 거리 +</td></tr>
<tr><td rowspan="6">청자 존중 전략</td><td>반대 의견 제시하기</td><td>‘-(으)ㄹ 것이다’</td><td>‘-(으)ㄹ 것 같다’</td><td colspan="2">‘-(으)ㄹ 것이다’</td></tr>
<tr><td>부탁 거절하기</td><td colspan="2">‘-(으)ㄴ/는/(으)ㄹ 것 같다’</td><td colspan="2">‘-(으)ㄴ/는/(으)ㄹ 것 같다’</td></tr>
<tr><td>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말하기</td><td colspan="2">‘-(으)ㄴ/는/(으)ㄹ 것 같다’</td><td colspan="2">‘-는가/(으)ㄴ가/나 보다’</td></tr>
<tr><td>정보 영역을 존중하기</td><td colspan="2">‘-는가/(으)ㄴ가/나 보다’</td><td colspan="2">‘-는가/(으)ㄴ가/나 보다’</td></tr>
<tr><td>공감 표현하기</td><td colspan="2">‘-겠-’</td><td colspan="2">‘-겠-’</td></tr>
<tr><td>위로 표현하기</td><td colspan="2">‘-(으)ㄹ 것이다’</td><td colspan="2">‘-(으)ㄹ 것이다’</td></tr>
<tr><td rowspan="3">화자 겸손 전략</td><td>감사 표현하기</td><td colspan="2">‘-(으)ㄹ 것이다’</td><td colspan="2">‘-(으)ㄹ 것이다’</td></tr>
<tr><td>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td><td>‘-는가/(으)ㄴ가/나 보다’</td><td>‘-(으)ㄴ/는/(으)ㄹ 것 같다’</td><td colspan="2">‘-는가/(으)ㄴ가/나 보다’</td></tr>
<tr><td>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td><td>‘-는가/(으)ㄴ가/나 보다’</td><td>‘-(으)ㄴ/는/(으)ㄹ 것 같다’</td><td colspan="2">‘-는가/(으)ㄴ가/나 보다’</td></tr>
</table>

(3) 불손 전략

여기에서 불손 전략과 관련된 문항 3개를 설정하였다. 또한 담화 상대자가 존재하여 사회적 관계에 유의해야 할 경우에도 화자에게 명확한 태도를 요구하는 담화 상황에서는 단정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 1개도 추가하여 설정하였다. 우선 이들 문항에 걸쳐 각 문항의 열 개의 선택항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빈도 및 비율을 집계하였다. 이어서 각 문항마다 열 개의 선택항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아래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 분포 및 교차 분석[74] 결과(5)

문항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비아냥 10	KNS	0.00%	60.00%	0.00%	2.50%	0.00%	2.50%	2.50%	32.50%	0.00%	0%	31.358	.000**
	MKL	11.30%	31.30%	15.00%	3.80%	6.30%	1.30%	2.50%	13.80%	15.00%	0%		
비아냥 11	KNS	10.00%	2.50%	0.00%	2.50%	2.50%	65.00%	15.00%	2.50%	0.00%	0%	34.156	.000**
	MKL	40.00%	2.50%	7.50%	7.50%	2.50%	22.50%	2.50%	10.00%	5.00%	0%		
비아냥 12	KNS	7.50%	0.00%	2.50%	75.00%	7.50%	2.50%	0.00%	5.00%	0.00%	0%	45.989	.000**
	MKL	18.80%	13.80%	15.00%	13.80%	11.30%	3.80%	7.50%	7.50%	8.80%	0%		
단정 13	KNS	97.50%	0.00%	2.50%	0.00%	0.00%	0.00%	0.00%	0.00%	0.00%	0%	15.579	.009**
	MKL	61.30%	5.00%	8.80%	0.00%	7.50%	2.50%	3.80%	7.50%	3.80%	0%		

<표 III-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불손 전략으로 비아냥을 나타내는 세 개의 문항에서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 분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불손 전략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결과 분포가 다르다는 조사 결과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상황 맥락에 따라 쓰일 수 있는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습득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단정 표현'의 사용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의 응답 결과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는

74) 모든 문항은 기대 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는 전체 셀의 25% 이상이므로, 피셔의 정확도 검정(Fisher's Exact Test) 방법을 적용하였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명확한 태도를 요구하는 담화 상황에서 단정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에게 추측 양태 표현들의 담화·화용적 특성에 관한 교수·학습을 할 때 청자 존중 전략, 화자 겸손 전략, 그리고 불손 전략에 대해 교수·학습하는 동시에 명확한 태도를 요구하는 담화 상황에서는 단정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3. 학년별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 분석

앞서 2절에서는 미얀마인 학습자 80명 전체의 이해 양상을 고찰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학년 요인에 중점을 두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층위, 의미적 층위, 담화·화용적 층위에 대한 3, 4학년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학년별 형태·통사적 층위의 이해 양상 분석

미얀마인 학습자 80명은 학년에 따라 3학년, 4학년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두 집단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평균 점수를 일차적으로 집계하였고, 점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 검증(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I-22> 학년에 따른 GJT 점수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

	3학년 학습자(n=40)		4학년 학습자(n=40)		t	p
점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5.694	.000**
	18.97	4.82	24.10	3.61		

*p < .05 **p < .01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의 기술 통계 결과를 보면, 3학년 집단의 평균 점수가 18.97점으로 낮으며, 4학년 집단은 24.10점으로 조금 증가하였다. 즉,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수도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통해 4학년 학습자 집단보다 3학년 학습자 집단 내부의 점수 차이가 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에 따라 t= 5.694, p=0.000으로 유의 수준 .05를 기준에서 학년에 따라 문법성 판단 테스트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학년별 문항 유형에 따른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정답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23> 학년과 문항 유형에 따른 GJT 정답률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

숙달도	3학년 학습자		4학년 학습자	
유형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유형 1 (주어 인칭-일반 상황)	63.75%	1.691	80.62%	1.338
유형 2 (주어 인칭-특정 상황)	42.75%	1.867	65.50%	1.501
유형 3 (문장 유형)	50.00%	0.987	70.00%	1.066
유형 4 (어미와의 결합)	46.39%	1.677	56.67%	1.236
유형 5 (형태 혼용 오류)	46.00%	1.066	38.50%	0.916

<표 III-23>을 통해 세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유형 5를 제외하고 모든 문항 유형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정답률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75]. 그리고 유형 5의 경우 4학년 학습자 집단의 정답률은 3학년 학습자 집단보다 낮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정답률이 가장 낮은 유형은 서로 다르다. 3학년 학습자 집단은 유형 2(주어 인칭-특정 상황), 4학년 학습자 집단은 유형 5(형태 혼용 오류)가 가장 낮은 정답률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문형의 문항 내용과 학년별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각 유형을 고찰할 때 먼저 학년별 두 학습자 집단 간에

75) 유형 5에 대한 4학년 학습자의 평균 정답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평균 정답률이 낮게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나 보다'의 일부 형용사 사용 제약을 고찰하는 34번, 36번 문항과 연관이 있다.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하고, 이어서 일부 문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유형 1과 2는 주어 인칭 제약과 관련된 부분이다.

유형 1: 주어 인칭 제약 - 일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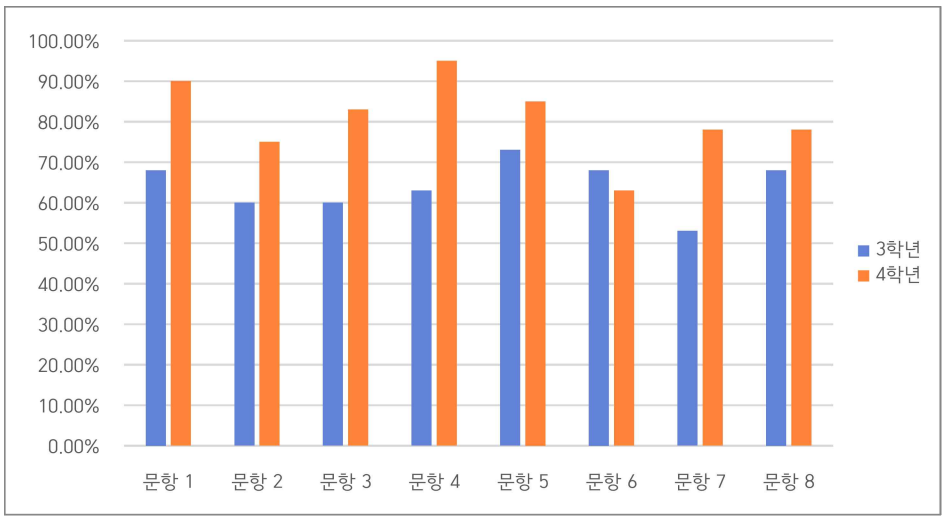
유형 1은 일반 상황에서 명제 주어가 1인칭으로 쓰일 수 있는지, 즉 화자 자신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학년별 두 학습자 집단 간 유형 1의 정답률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아래에 제시한 <표 III-24>는 t값= 3.958, p= 0.000으로 유의 수준 .05에서 학년별로 유형 1의 정답률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표 III-24> 학년별 유형 1의 정답률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

	3학년 학습자(n=40)		4학년 학습자(n=40)		t	p
정답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3.958	.000**
	63.75%	1.691	80.62%	1.338		

*p < .05 **p < .01

유형 1에는 총 여덟 개의 문항이 있으며,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1인칭 제약에 대한 문장은 각각 하나씩 설정되어 있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1인칭 사용 가능에 대한 문장은 각각 하나씩 설정되어 있다. 학년별 여덟 개 문항의 응답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그림 III-2>를 제작하였다.



<그림 III-2> 유형 1에 속한 여덟 개 문항의 학년별 정답률 결과

위의 <그림 III-2>에서 6번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4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은 3학년 학습자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명제 주어 제약에 관련된 문항(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6번, 문항 8번), 명제 주어 가능에 관련된 문항(문항 7번)을 예시로 들어 유형 1의 응답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54)

ㄱ. *저는 내일 약속이 있어서 바쁜가 봐요. (2번 문항)

ㄴ. *저는 다음 주에 출장을 갈 모양이에요. (6번 문항)

ㄷ. *저는 지금 기분이 좋을 텐데요. (3번 문항)

ㄹ. *나도 요즘 철수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야. (8번 문항)

ㅁ. 나도 지금 배고픈 것 같아. (7번 문항)

2번 문항과 6번 문항은 화자가 자신의 미래 상황을 추측할 때 사용 제약이 있는 표현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 모양이다'를 사용한 문장이다. 2번 문항과 6번 문항의 정답률을 학년별로 살펴볼 때 2번 문항의 경우, 4학년의 정답률은 3학년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6번 문항의 경우, 4학

년의 정답률은 3학년의 정답률보다 조금 낮게 나타난 것을 보였다. 3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 모두가 이렇게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은 본 연구 대상인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 중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1인칭 주어의 미래 상황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의 모국어인 미얀마어에서 화자 본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추측은 제약이 있으나 미래 상태에 대한 추측은 가능하고, 모든 추측 양태 표현들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의 추측 양태 표현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1인칭 주어의 미래 상황에서의 제약에 대한 제시 및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것이다.

(55)

MKL303: 저는 자신의 미래를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추측 표현들은 다 쓸 수 있어요.

MKL405: 지금의 나에 대해서는 좀 자연스럽지 않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문장을 읽어보니까 자연스러워요. '갈 모양이에요'. 미얀마어로 번역해서 말해도 자연스러워요.

이에 대하여 사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참여자들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같은 추측 양태 표현도 자신의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추측의 유사 의미를 가지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도 자신의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 어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측 양태 표현 /-(mɛ́)tɛ́ poðpɔdɛ/는 화자 자신의 미래 상태에 대한 추측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국어의 지식을 바탕으로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결과도 나왔다.

다음, 3번 문항과 8번 문항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추측하여 발화할 때 사용 제약이 있는 표현 '-(으)ㄹ 텐데(요)', '-(으)ㄹ 것이다'를 사용한 문장이다. 3번 문항과 8번 문항의 정답률을 학년별로 살펴볼

때 4학년의 정답률은 3학년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3번 문항의 경우 큰 차이가 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보면 3학년 학습자들은 '-(으)ㄹ 텐데(요)', '-(으)ㄹ 것이다'의 주어 제약에 대해서는 잘 습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으) 텐데(요)'의 주어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추측 양태 표현들 중 '-겠-'과 '-(으)ㄹ 것이다'의 두 문법 항목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으로 쓰이며 의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주어가 1인칭으로 쓰인다는 제약 정보가 명시되고 있다. 그리고 미얀마어에서도 화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의 정답율은 낮았다. 이에 대해서 사후 인터뷰를 했는데 참여자들은 화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은 어색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겠-'으나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는 '추측'의 의미뿐만 아니라 '의지'의 의미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의 용법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다음, 7번 문항은 화자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추측할 때 사용 가능한 표현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한 문장이다. 3학년의 정답률은 4학년의 정답률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을 보였다. 이는 3학년 학습자는 4학년 학습자보다 학습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습득이 충분히 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학습자 모국어에서 1인칭 주어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제약이 있으므로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후 인터뷰에서도 화자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미얀마인 학습자가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할 때 1인칭 주어의 현재나 과거, 그리고 미래 상황의 사용 제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사후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 학습자의 응답 결과를 통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할 때 1인칭 주어의 현재, 과거, 미래 상황에 대한 사용 제약을 잘 모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덟 개 문항 중 3학년 학습자의 정답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7번 문항과 4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6번 문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인터뷰 결과는 7번 문항의 경우, 모국어에서 화자 본인의

현재 상태를 발화할 때 '단정 표현'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나왔다. 그리고 6번 문항의 경우, 미얀마어에서는 1인칭 주어의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을 할 때 모든 추측 양태 표현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한국어의 추측 양태 표현도 당연히 다 잘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에서나 추측 양태 표현을 교수·학습할 때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한 제시 및 설명이 필요하다.

유형 2: 주어 인칭 제약 - 특정 상황

대부분의 추측 양태 표현은 화자가 주어와 일치할 때 일반적으로 현재나 과거 상황에 대한 추측에 제약이 있으나 특정 맥락에서는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화자가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때나 화자가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상황을 추측할 때 추측 양태 표현을 쓰일 수 있다. 유형 2는 이러한 특정 맥락에 추측 양태 표현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학년별 두 학습자 집단 간 유형 2의 정답률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아래에 제시한 <표 III-25>는 *t*값= 5.065, *p*= 0.000으로 유의 수준 .05에서 학년별로 유형 2의 정답률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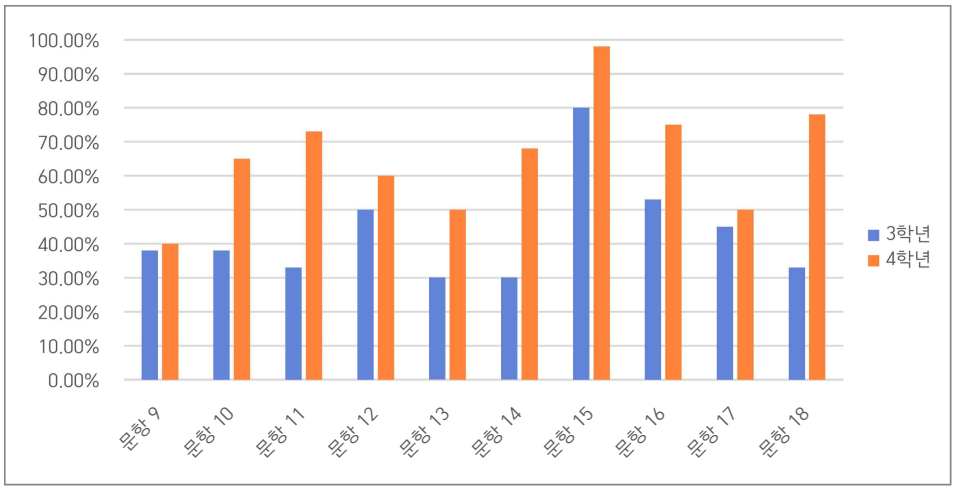
<표 III-25> 학년별 유형 2의 정답률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

	3학년 학습자(n=40)		4학년 학습자(n=40)		*t*	*p*
정답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6.005	.000**
	42.75%	1.867	65.50%	1.501		

*$p < .05$ **$p < .01$

유형 2에는 총 열 개의 문항이 있으며, 화자가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때 사용 가능한가와 관련된 문항은 여덟 개(문항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가 출제되어 있는데, 문항 9번, 13번, 15번, 16번은 사용 가능한 문항들이고, 문항 10번, 11번, 12번,

14번은 사용 제약이 있는 문항들이다. 그리고, 화자가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상황을 추측할 때 사용 가능한가와 관련된 문항은 두 개(문항 17번, 18번)가 설정되어 있는데 두 문항 모두 사용 제약이 있는 문항들이다. 학년별 열 개 문항의 응답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그림 III-3>을 제작하였다.



<그림 III-3> 유형 2에 속한 열 개 문항의 학년별 정답률 결과

유형 2의 문항에서 정답률을 학년별로 살펴볼 때 4학년의 정답률은 3학년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보였는데 3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은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4학년 학습자들의 대부분 문항의 평균 정답률은 50.00%에서 70.00% 사이에 있으며, 3학년 학습자들의 대부분 문항의 평균 장답률은 30.00%에서 50.00%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3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을 보면 문항 13번과 14번은 가장 낮게 나타났고, 4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을 보면 문항 9번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화자가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때 사용 가능한가와 관련된 문항(문항 9번, 10번, 13번, 14번)과 화자가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상황을 추측할 때 사용 가능한가와 관련된 문항(문항 17번, 18번)을 예시로 들어 유형 2의 응답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56)

ㄱ.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는 걸지도 몰라. (9번 문항)

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짜증을 내는 것을 보면 내가 요즘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야. (13번 문항)

ㄷ. *어! 이상하다! 지갑이 없어졌네! 철수 씨, 저 지갑을 잃어버렸을 텐데요. (10번 문항)

ㄹ. *나는 진짜 한국어에 소질이 없을 거야.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국어 실력이 늘지를 않아. (14번 문항)

ㅁ.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예쁠 모양이야. (17번 문항)

ㅂ. *네가 떠난다면 나 혼자 외로운가 봐. (18번 문항)

화자가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때 9번 문항과 13번 문항은 사용 가능한 문장이며, 10번 문항과 14번 문항은 사용 제약이 있는 문장이다. 17번 문항과 18번 문항은 화자가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상황을 추측할 때 사용 제약이 있는 문장이다.

문항 9번은 열 개의 문항 중에 4학년 학습자의 평균 정답률이 40.0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학년 학습자의 평균 정답률이 38.00%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문항 13번은 4학년 학습자의 평균 정답률이 50.00%로 낮게 나타났으며, 3학년 학습자의 평균 정답률이 30.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화자가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때 추측 양태 표현 중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으나 학습자들이 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이 표현 중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사용 가능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때 사용 제약이 있는 문항 중 문항 10번과 14번에 대해서 살펴보면, 3학년 학습자는 4학년 학습자보다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화자가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상황을 추측할 때 사용 제약이 있는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사용한 문항 17번과 18번을 살펴보면, 3학년 학습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17번 문항을 살펴보면 3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의 응답은 조금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4학년 학습자도 학년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의 모국어인 미얀마어의 추측 양태 표현 중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 어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측 양태 표현 /-(mɛ́)tɛ́ poʊ̃pɔdɛ/는 이러한 가정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국어의 영향으로 범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57)

MKL407: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는 걸지도 몰라.'를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나 봐'는 자연스럽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는 걸지도 몰라'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냥 느낌이에요.

MKL312: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짜증을 내는 것을 보면 내가 요즘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야.'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상해요. 지금의 상태를 추측하는 거는 좀 이상해요.

사후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 학습자의 응답 결과를 통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할 때 특정 맥락에서 1인칭 주어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서 추측 양태 표현의 1인칭 주어의 특성 상황에 대한 제시 및 설명이 없었다는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에서나 추측 양태 표현을 교수·학습할 때 주어 인칭의 일반 상황과 특정 상황에 대한 제시 및 설명이 필요하다.

유형 3: 문장 유형 제약

유형 3은 문장 유형 제약과 관련된 문제이다. 학년별 두 학습자 집단 간 유형 3의 정답률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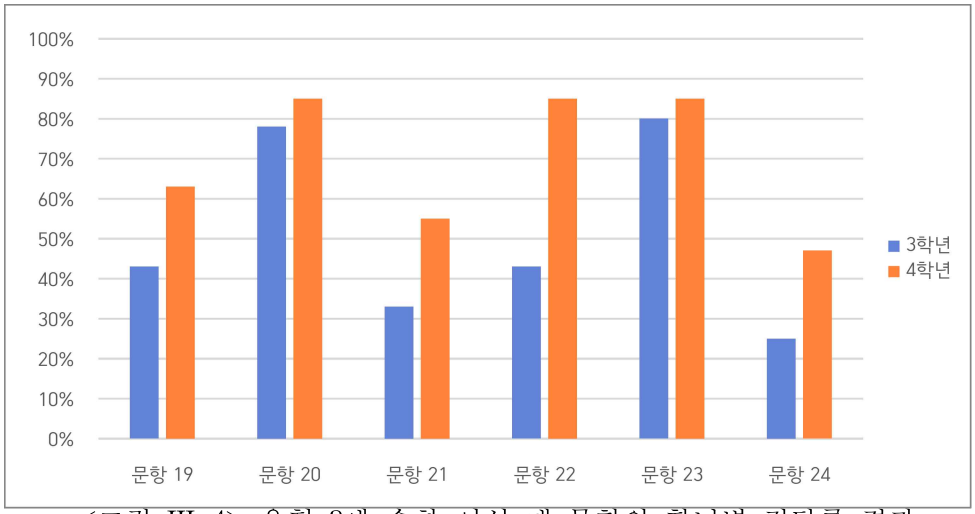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아래에 제시한 <표 III-26>은 t값= 5.221, p= 0.000으로 유의 수준 .05에서 학년별로 유형 3의 정답률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표 III-26> 학년별 유형 3의 정답률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

	3학년 학습자(n=40)		4학년 학습자(n=40)		t	p
정답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5.221	.000**
	50.00%	0.987	70.00%	1.066		

*p < .05 **p < .01

추측 양태 표현들은 평서문에 잘 쓰이며 청유문과 명령문에 쓰일 수 없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의문문에 쓰일 때에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그중 '-겠-',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의문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으)ㄹ 것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유형 3에는 총 여섯 개의 문항이 있으며, '-(으)ㄹ 것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의문문 제약에 대한 문장은 각각 하나씩 설정되어 있고, '-겠-',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의문문 사용 가능에 대한 문장은 각각 하나씩 설정되어 있다. 학년별 여섯 개 문항의 응답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그림 III-4>를 제작하였다.



<그림 III-4> 유형 3에 속한 여섯 개 문항의 학년별 정답률 결과

유형 3의 문항에서 정답률을 학년별로 살펴볼 때 4학년의 정답률은 3학년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보였다. 그리고 3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의 정답률 중 문항 24번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에는 문항 21번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문장 유형 제약 중 의문문 사용과 관련된 문항(문항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의 응답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58)

ㄱ. *오늘 철수가 학교에 올 모양이니? (19번 문항)

ㄴ. 철수가 설마 비빔밥을 좋아하겠어? (20번 문항)

ㄷ. *졸업하면 취직해야 할지 유학 가야 할지 고민이네. 너는 어떤 것이 좋을 거야? (21번 문항)

ㄹ.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나 봐요? (22번 문항)

ㅁ.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이길 것 같아? (23번 문항)

ㅂ. *오늘 오후에 비가 올지 모르니? (24번 문항)

일반의문문에서 문항 19번, 21번, 22번, 24번은 사용 제약이 있는 문제이며 20번과 23번 문항은 사용 가능한 문제이다. 먼저 문항 20번과 23번의 정답률을 학년별로 살펴볼 때 3학년 학습자들과 4학년 학습자들의 정답률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겠-'과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의문문 사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19번, 21번, 22번, 24번 문항의 경우 3학년 학습자들의 정답률이 4학년 학습자들의 정답률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3학년 학습자들이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ㄹ 것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의문문 제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4학년 학습자들의 정답률을 보면 21번 문항, 24번 문항의 정답률이 나머지 문항의 정답률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에 비추어 볼 때, 4학년 학습자들은 '-(으)ㄹ 것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의문문 제약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문항 21번과 24번에서 3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정답율은 모두 아주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59)
MKL408: ‘오늘 오후에 비가 올지 모르니?’ 이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오늘 오후에 비가 올지 물어보는 거예요.
MKL313: ‘오늘 철수가 학교에 올 모양이니?’ 맞아요. 철수가 학교에 올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MKL314: 저는 ‘너는 어떤 것이 좋을 거야?’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교재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너는 어떤 것이 좋아?, 좋을 거야?’ 네, 맞아요.

사후 인터뷰에 참여한 학습자의 응답에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 표현을 의문문으로 사용할 때 모두 쓰일 수 있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학습자의 모국어인 미얀마어에서 추측 양태 표현들은 모두 의문문형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국어의 지식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도 추측 양태 표현들의 문장 유형 특히 의문문형에 대한 제시 및 설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후 인터뷰에서 ‘-(으)ㄹ 것이다’에 대하여 의문문으로 사용된 문형을 배웠다는 응답도 나왔는데 이는 ‘의지’의 의미와 혼동되고 있다는 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교재에서 추측 양태 표현들의 의문문 사용 제약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으)ㄹ 것이다’를 교수·학습할 때 ‘추측’의 의미와 ‘의지’의 의미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 및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 4: 어미와의 결합 제약

유형 4는 어미와의 결합 제약과 관련된 문제이다. 학년별 두 학습자 집단 간 유형 4의 정답률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아래에 제시한 <표 III-27>은 t값= 2.807, p= 0.003으로 유의 수준 .05에서 학년별로 유형 4의 정답률에 차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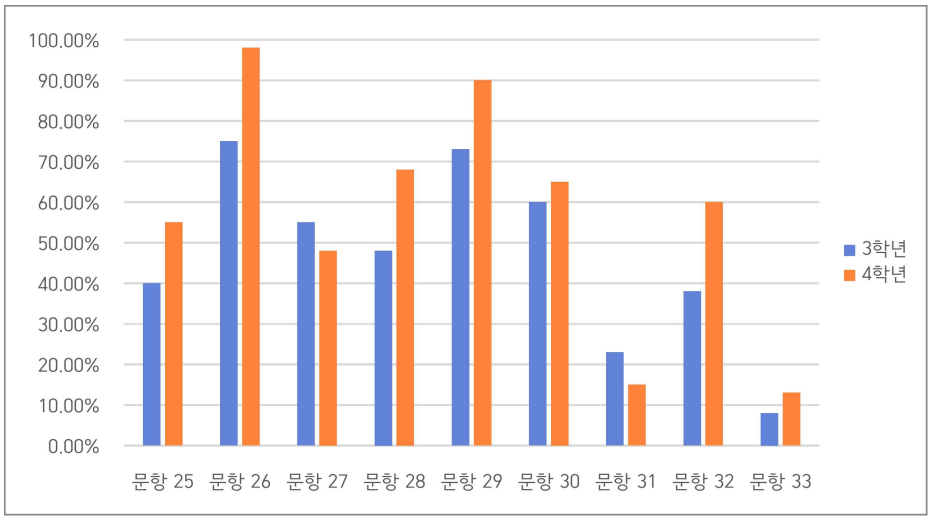
있음을 보여 주었다.

<표 III-27> 학년별 유형 4의 정답률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

	3학년 학습자(n=40)		4학년 학습자(n=40)		t	p
정답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2.807	.003**
	46.39	1.677	56.67	1.236		

*p < .05 **p < .01

유형 4에는 총 아홉 개의 문항이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 중,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과거를 나타내는 선행의 선어말어미 '-았/었/였-'에 제약 없이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았/었/였-'와 결합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선행 결합에 제약이 있는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사용하여 한 개의 문항(25번)을 설정하였다. 한편, '-겠-', '-(으)ㄹ 것이다', '-는/(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후행의 선어말어미 '-았/었/였-'에 제약이 있는 반면,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후행의 선어말어미 '-았/었/였-'에 제약이 없다. 이를 바탕으로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후행 결합에 제약이 있는 '-겠-', '-(으)ㄹ 것이다', '-는/(으)ㄴ가/나 보다'를 사용하여 세 개의 문항(26번, 27번, 29번)을 설정하였고,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후행 결합에 허용되는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하여 두 개의 문항(28번, 30번)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추측 양태 표현이 종결어미 '-네', '-구나', '-지'와 결합 가능한가와 관련된 문항은 세 개(문항 31번, 32번, 33번)가 설정되어 있다. 학년별 아홉 개 문항의 응답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그림 III-5>를 제작하였다.



<그림 III-5> 유형 4에 속한 아홉 개 문항의 학년별 정답률 결과

유형 4의 문항에서 정답률을 학년별로 살펴볼 때 문항 27번과 31번을 제외하고, 4학년의 정답률은 3학년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보였다. 그리고 3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의 정답률 중 문항 33번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에는 문항 31번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25번, 27번, 30번, 31번, 32번, 33번 여섯 개의 문항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60)

ㄱ. *철수는 어제 밥을 많이 먹었을 모양이에요. (25번 문항)

ㄴ. *어제 네가 전화한 그 시간에 내가 아마 운동을 하고 있었나 봤다. (27번 문항)

ㄷ. 어제 철수가 출장 간 것 같았어요. (30번 문항)

ㄹ.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 정말 여러 문제가 생길 거네요. (31번 문항)

ㅁ. *너 요즘 밤에도 일할 거구나. (32번 문항)

ㅂ. *비가 그쳤으니까 우산을 두고 가도 될 거지. (33번 문항)

25번 문항은 추측 양태 표현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선행을 허용하지 않은 문장이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4학년의 정답률이 3학년의 정답률보다 조금 높았지만 '55.00%'에 머무

르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추측 양태 표현들의 선어말어미 결합에 대해서 습득이 아직 잘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27번 문항과 30번 문항은 추측 양태 표현과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후행의 허용에 대한 문제이다. 27번 문항은 추측 양태 표현 '-는가/(으)ㄴ가/나 보다'가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후행을 허용하지 않은 문장이다. 이때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두 집단의 평균 정답률은 낮게 나타났다. 30번 문항은 추측 양태 표현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후행을 허용하는 문장인데 3학년 학습자들과 4학년 학습자들의 정답률은 각각 60.00%, 65.00%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결합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보였다.

추측 양태 표현들과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선행과 후행 결합에서도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재에서는 명시적인 문법 정보의 제시가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추측 양태 표현만 그러한 제시가 있을 뿐이다. 특히 한국어 교재에서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선행 결합 제약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시가 없었다. 그리고 사후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3학년, 4학년 학습자들은 모두 추측 양태 표현들과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선행과 후행 결합에 대해 받은 명시적인 교육이 매우 제한적이며 한국어 경험으로부터 형성한 암시적 지식, 해당 어미와 추측 양태 표현과 형태적으로 어울리는지에 대한 분석적 지식에 의해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선행 허용에 대해서 인터뷰했는데,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은 모두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선행에 결합할 수 있으므로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도 당연히 결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보면 추측 양태 표현들과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선행과 후행 결합 제약에 관하여 한국어 교재와 교수·학습을 할 때 명확한 제시 및 설명이 필요하다.

그다음, 31번, 32번, 33번 문항을 살펴보면 두 집단의 정답률이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1번, 32번, 33번 문항은 추측 양태 표현 '-(으)ㄹ 것이다'가 '-네', '-구나', '-지'와 같이 쓰이지 못하는 문장인데 학습자들의 정답률 결과를 보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이러한 제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종결어미 ‘-네’와 ‘-구나’는 화자가 발화시의 지각 경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추측 양태 표현과 결합할 때 화자가 발화시에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을 자신의 새로운 인식으로 표현한다. 이때 추측 양태 표현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종결어미 ‘-네, -구나’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반면, ‘-(으)ㄹ 것이다’는 결합하지 못한다. ‘-(으)ㄹ 것이다’는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이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추측 양태 표현들에서 유일하게 ‘-네’, ‘-구나’와 결합할 수 없는 표현이다. 이에 대해서 31번과 32번의 문항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4학년 학습자의 31번 응답률은 15.00%, 32번 응답률은 60%로, 3학년 학습자의 31번 응답률은 23.00%, 32번 응답률은 38.00%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를 보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학년이 올라가도 이러한 제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사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 참여자들은 ‘-네’와 ‘-구나’를 감탄의 의미로 명시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감탄’과 ‘추측’의 결합에 대해 명시적인 교육이 받지 못했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교재에서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와 ‘-네’, ‘-구나’의 결합을 암시적으로 제시한 것을 보고 ‘-(으)ㄹ 것이다’도 ‘-네’, ‘-구나’와 결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선택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종결어미 ‘-지’는 ‘-네’, ‘-구나’와 달리 명제 내용에 표현된 정보가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앎’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화자가 청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기지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때 추측 양태 표현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종결어미 ‘-지’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반면, ‘-(으)ㄹ 것이다’는 결합하여 쓰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문항 33번의 응답률을 보면 3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는 모두 다른 문항들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사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대부분 인터뷰 참여자들은 교재에서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와 ‘-지’의 결합을 암시적으로 제시한

것을 보고 의미적 유사성으로 인해 '-(으)ㄹ 것이다'도 '-지'와 결합할 수 있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또한 아래의 MKL413 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의지'나 '미래'의 의미로 쓰이는 '-(으)ㄹ 것이다'가 '-지'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추측'의 의미로 쓰인 '-(으)ㄹ 것이다'도 '-지'와 결합할 수 있다고 혼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61)

MKL413: '비가 그쳤으니까 우산을 두고 가도 될 거지.' 이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우산을 두고 가도 될 거지' 네,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봤어요. 교재에서도 봤고 한국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일 학교 갈 거지', '내일 수업이 있을 거지'.

유형 5: 형태 혼용 오류

유형 5는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를 잘못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학년별 두 학습자 집단 간 유형 5의 정답률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아래에 제시한 <표 III-28>은 t값= -1.686, p= 0.096으로 유의 수준 .05에서 학년별로 유형 5의 정답률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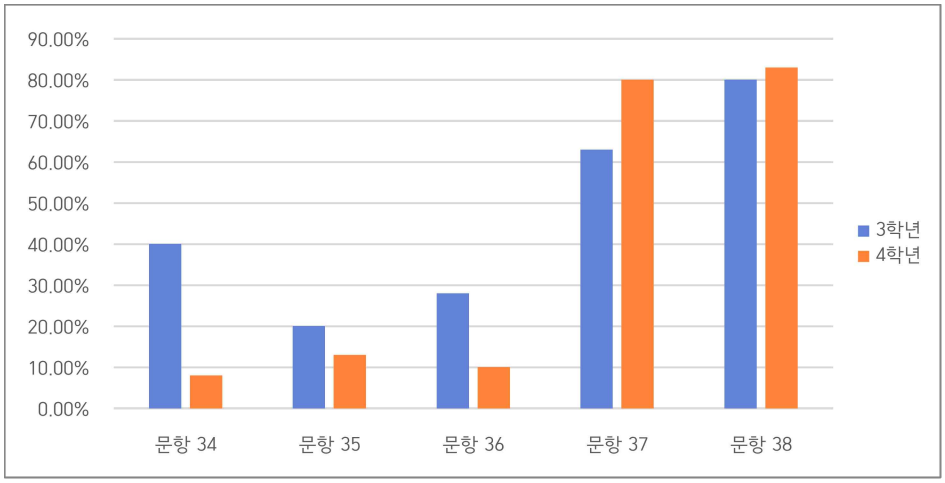
<표 III-28> 학년별 유형 4의 정답률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증 결과

	3학년 학습자(n=40)		4학년 학습자(n=40)		t	p
정답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686	0.096
	46.00%	1.066	38.50%	0.916		

*p < .05 **p < .01

유형 5에는 총 다섯 개의 문항이 있으며 추측 양태 표현 '-나 보다'가 '크다, 싸다, 예쁘다, 바쁘다' 등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와의 결합이 가능한가에 관련된 문항 (34번, 36번)이 설정되어 있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명사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추측할 때 관형사 '-(으)ㄴ'나 '-(으)ㄹ'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이

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37번, 38번)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았/었/였더라면'은 실제 있었던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으므로 후행절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았/었/였-'과 함께 추측 양태 표현을 써야 하는 제약에 해서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35번)을 설정하였다. 학년별 각 문항의 정답률 결과는 아래 <그림 III-6>과 같다.



<그림 III-6> 유형 5에 속한 다섯 개 문항의 학년별 정답률 결과

유형 5의 문항에서 정답률을 학년별로 살펴볼 때 다른 유형들과 달리 4학년 학습자들의 응답율은 문항 37번과 38번을 제외하고, 4학년의 정답률은 3학년의 정답률보다 아주 낮게 나타난 것을 보였다. 그리고 4학년 학습자의 정답률 중 문항 34번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학년 학습자의 정답률 중 문항 35번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34번, 35번, 36번, 37번 네 개의 문항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62)

ㄱ. *(?)철수는 오늘 시험이 끝나서 기쁘나 봐요. (34번 문항)

ㄴ. *(?)전화를 해 보니까 철수가 지금 있는 곳이 집이나 봐요. (36번 문항)

ㄷ. *불이 났을 때 집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위험할 거예요. (35번 문항)

ㄹ. 이것은 철수의 책일 것 같다. (37번 문항)

34번 문항과 36번 문항은 '-나 보다'가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기쁘다', '이다' 등과 결합할 때 사용 가능한가에 관련된 문제이다. 학습자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의 평균 정답률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특히 4학년 학습자들의 정답률은 3학년 학습자들의 정답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는가/(으)ㄴ가 보다'와 '-나 보다'의 사용에 대해 혼동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35번 문항은 후행절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았/었/였-'과 함께 추측 양태 표현을 써야 하는 제약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때 3학년 학습자의 정답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7번 문항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때 3학년 학습자들의 정답률은 4학년 학습자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사후 인터뷰를 했는데 학습자들은 현재 상태나 상황에 대한 추측이기 때문에 현재를 나타내 관형사 '-는'을 써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재에서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제시 및 설명할 때 미래의 경우 '-(으)ㄹ', 과거의 경우 '-(으)ㄴ', 현재의 경우 '-는'을 사용한다는 제시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불확실한 추측의 경우'에 대해서는 '-(으)ㄹ'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제시 및 설명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학년별 형태·통사적 층위의 이해 양상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두 집단의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층위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이해도가 학년이 올라가면 점차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38개 문항은 다시 다섯 유형(주어 인칭-일반 상황, 주어 인칭-특정 상황, 문장 유형, 어미와의 결합, 형태 혼용 오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형 5(형태 혼용 오류)를 제외하고 모든 문항 유형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정답률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두 집단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유형 1(주어 인칭-일반 상황)이며 가장 낮은 유형은 서로 다르다. 3학년 학습자 집단은 유형 2(주어 인칭-특정 상황), 4학년 학습자 집단은 유형 5(형태 혼용 오류)가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한편, 4학년 학습자의 응답 정답률을 보면 유형 1만 80%에 이르지만 다른 나머지 유형은 모두 70%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

성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학년 단계에서도 유형 2, 3, 4, 5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3.2. 학년별 의미적 층위의 이해 양상 분석

본 절에서는 화자가 인식하는 추측의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와 화자가 인식하는 추측의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 두 가지 측면에서 3, 4학년 학습자 집단의 이해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

앞서 2.2. 절에서는 미얀마인 학습자 80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40명의 선다형 테스트의 16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문항의 아홉 개 선택항에 대한 응답 빈도에 있어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 간에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미얀마인 학습자 80명을 3, 4학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현장의 지각 정보, 내면화된 정보, 화자의 직관/직접 경험 세 가지 유형의 순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피셔의 정확도 검정 방법(Fisher's Exact test) 방법을 적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다면 본페로니 다중 비교 분석(Bonferroni multi-analysis)[76]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두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76) <표- III-30>을 보면 괄호 안에 빈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고, 숫자의 우측 하단에 'a', 'b', 'a,b'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알파벳 표시가 같을 경우,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고, 표시가 다를 경우,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번 문항 ①번 선택항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는 'a'로 표시되어 있고, 4학년 학습자 집단과 3학년 학습자 집단은 'b'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어 모어 집단과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 간 응답 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4학년 학습자 집단과 3학년 학습자 집단은 응답 결과의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1) 현장의 지각 정보

추측 양태 표현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추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앞서 II 장에서 밝혔듯이 각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서로 차이를 가진다. 이에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의 지각 경험에 따른 추측 양태 표현과 관련된 문항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총 6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다음은 6개의 문항 중 1번, 2번, 3번, 5번의 문항 내용과 집단별 조사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분석을 진행하는 순서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간접적으로 지각한 상황에서의 발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문항 내용과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 III-29>, <표 III-30>과 같다.

<표 III-29> 현장의 지각 정보(간접 지각)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1)의 대화 및 선택항

가: 제 친구는 한국에서 산 지 오래됐어요. 나: 그래요? 그럼 한국어를 (　　).
① 잘하겠어요　② 잘할 거예요　③ 잘할 텐데요　④ 잘할걸요　⑤ 잘하나 봐요 ⑥ 잘한 모양이에요　⑦ 잘할 것 같아요　⑧ 잘할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표 III-30> 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χ^2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KNS	KNS (40명)	85% (34_a)	2.5% (1_a)	0% (0_a)	0%	0% (0_a)	0% (0_a)	12.5% (5_a)	0% (0_a)	0%	40.725	.000**
MKL	MKL-4 (40명)	37.5% (15_b)	7.5% (3_a)	7.5% (3_a)	0%	17.5% (7_b)	10% (4_a)	20% (8_a)	0% (0_a)	0%		
	MKL-3 (40명)	32.5% (13_b)	0% (0_a)	10% (4_a)	0%	32.5% (13_b)	2.5% (1_a)	20% (8_a)	2.5% (1_a)	0%		

1번 문항은 화자가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각한 상황에서의 발화인데 화자가 내면화된 지식인 '한국에서 오래 사면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것'과 지금 발화 현장에서 청자로 인한 지각 정보를 토대로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말하는 상황이다.

응답 결과를 보면, 학습자 두 집단이 공통으로 '-겠-'을 사용한 ①번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지만, 두 학습자 집단의 응답 비율은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응답 결과에 비하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피셔의 정확도 검정

(Fisher's Exact test) 방법을 통해 3, 4학년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세 집단 간에 응답 결과의 분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어서 본페로니 다중 비교 분석(Bonferroni multi-analysis)을 실시하여 각 집단 간 응답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III-30>에서 제시한 ①번 선택항의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과 3, 4학년 학습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3학년 학습자 집단과 4학년 학습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자 집단의 경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①번 선택항을 고른 비율이 조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학습자 집단은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사용한 ⑤번 선택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2.50%의 3학년 학습자는 ⑤번을 선택하였고, 그 비율은 ①번을 선택한 비율과 유사하다. 이는 학습자들이 '-겠-'과 '-는가/(으)ㄴ가/나 보다'는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두 표현 간에 있는 의미 차이는 변별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겠-'과 '-는가/(으)ㄴ가/나 보다'가 가지는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추측 근거의 공통점으로 인해 혼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혼동 양상은 다음 문항 2번에서 학습자들이 대부분 '맛있겠다', '맛있는 모양이다'를 많이 선택한 것에서도 관찰되었다. 2번 문항은 화자가 직접적으로 지각한 상황에서의 발화이다. 이때 '-겠-'과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하여 발화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러한 양상은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응답 결과를 보면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많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3학년 학습자 집단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표 III-31> 현장의 지각 정보(직접 지각)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2)의 대화 및 선택항

[케이크 카페에서] 가: 우리 이 케이크로 먹을까? 나: 그래, 이 케이크 정말 (　　).
① 맛있겠다　② 맛있을 거야　③ 맛있을 텐데　④ 맛있을걸　⑤ 맛있나 봐 ⑥ 맛있는 모양이야　⑦ 맛있을 것 같아　⑧ 맛있을지도 몰라　⑨ 적절한 답이 없음

<표 III-32> 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KNS	KNS (40명)	47.5% (19a)	2.5% (1a)	0% (0a)	0% (0a)	0% (0a)	0% (0a)	50% (20a)	0% (0a)	0%	46.827	.000**
MKL	MKL-4 (40명)	30% (12a, b)	7.5% (3a)	10% (4a)	7.5% (3a)	7.5% (3a)	22.5% (9b)	15% (6b)	0% (0a)	0%		
	MKL-3 (40명)	17.5% (7b)	2.5% (1a)	5% (2a)	5% (2a)	7.5% (3a)	40% (16b)	20% (8b)	2.5% (1a)	0%		

이에 대해 학습자들이 문항 1번에 대해서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많이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중 '-겠-'을 선택한 학습자들은 간접적으로 지각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 추측을 잘 인지하여 선택하였다. 반면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선택한 학습자는 '-는가/(으)ㄴ가/나 보다'가 간접적으로 지각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원인 추측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3)

MKL403(문항 1번): 저는 '한국어를 잘하겠다'를 선택할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90%~95%로 확신하니까요.

MKL307(문항 1번): 저는 '한국어를 잘하나 봐요'를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나 보다'가 더 적절해요.

또한 문항 2번에 대해 '-겠-'과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많이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겠-'과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선택한 학습자들은 모두 발화 현장에서의 지각 정보를 바탕으로 '-겠-'과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MKL305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에서 '모양'에 대한 의미 이해로부터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어떤 모습을 보고 추측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이는 문항 1번의 상황처럼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원인 추측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64)

MKL402(문항 2번): 저는 '맛있겠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케이크를 보고 확

실하게 너무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MKL305(문항 2번): 저는 '맛있는 모양이다'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에서 그 케이크의 모습을 보고 맛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모양이다'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지각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그 원인을 추측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3번 문항의 내용과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 III-33>, <표 III-34>와 같다.

<표 III-33> 현장의 지각 정보(직접 지각)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3)의 대화 및 선택항

가: 자세를 보니 이 운동을 처음 (　　).
나: 네, 근육 운동을 처음 해 봐요.
① 하시겠어요　② 하실 거예요　③ 하실 텐데요　④ 하실걸요　⑤ 하시나 봐요
⑥ 하시는 모양이에요　⑦ 하시는 것 같아요　⑧ 하실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표 III-34> 3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KNS	KNS (40명)	0%	0% (0a)	0% (0a)	0%	85% (34a)	7.5% (3a)	7.5% (3a)	0% (0a)	0%	32.705	.000**
MKL	MKL-4 (40명)	0%	10% (4a)	10% (4a)	0%	32.5% (13b)	27.5% (11a, b)	20% (8a)	0% (0a)	0%		
	MKL-3 (40명)	0%	7.5% (3a)	7.5% (3a)	0%	32.5% (13b)	30% (12b)	17.5% (7a)	5% (2a)	0%		

<표 III-3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⑤번을 선택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비율은 80%이상에 달했지만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피셔의 정확도 검정(Fisher's Exact test) 방법을 통해 3, 4학년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세 집단 간에 응답 결과의 분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어서 본페로니 다중 비교 분석(Bonferroni multi-analysis)을 실시하여 각 집단 간 응답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III-34>에서 제시한 ⑤번 선택항의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과 3, 4학년 학습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3학년 학습자 집단과 4학년 학습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⑥번 선택항의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는 미얀마인 학습자의 응답 결과에 비해 비교적 낮고 3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의 응답 결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

MKL408(문항 3번): 저는 '자세를 보니 이 운동을 처음 하시나 봐요'가 맞는 것 같아요. '자세를 보니'가 있어서 '-나 보다'로 쓰는 것이 적절해요. '-(으)ㄴ 걸 보니...' 있으면 '-나 보다'로 표현하는 것을 배웠어요.
MKL312(문항 3번): 저는 '하시는 모양이에요'를 선택할게요. '행동'을 보고 말하니까 '-(으)ㄹ 모양이다'를 쓰는 거예요.

사후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 모두가 '자세를 보니'라는 구절을 보고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은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지각 정보를 근거로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에 대해서는 과거에 배웠던 명시적 정보를 기반으로 이 문법 항목들이 근거가 있을 때 추측하는 데 쓰인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는가/(으)ㄴ가/나 보다'가 가지는 근거 특성을 암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학습자들은 '-(으)ㄴ 걸 보니(까)... (으)ㄴ가/나 보다'의 패턴으로 쓰이는 용례로부터 '-는가/(으)ㄴ가/나 보다'의 근거 특성을 추론하고 있다.

한편, 발화 현장의 지각 정보를 바탕으로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많이 선택한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것은 미얀마어에서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 대응할 수 있는 문법 표현은 일상생활에서도 활발히 사용되므로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은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사용 영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교수·학습할 때 일상생활 즉 구어에서 '-는가/(으)ㄴ가/나 보다'는 많이 사용하지만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고 문어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제시 및 설명이 필요하다.

다음은 화자가 자신의 내적 지각을 근거로 하여 날씨에 대해서 추측하는 상황인데 문항의 내용과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 III-35>, <표 III-36>과 같다.

<표 III-35> 현장의 지각 정보(내적 지각)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5)의 대화 및 선택항

가: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 곧 비 ( ).
① 오겠다 ② 올 거다 ③ 올 텐데 ④ 올걸 ⑤ 오려나 보다
⑥ 올 모양이다 ⑦ 올 것 같다 ⑧ 올지도 모른다 ⑨ 적절한 답이 없음

<표 III-36> 5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KNS	KNS (40명)	7.5% (3a)	0% (0a)	0% (0a)	0% (0a)	75% (30a)	12.5% (5a)	5% (2a)	0% (0a)	0%	우도비 93.801	.000**
MKL	MKL-4 (40명)	7.5% (3a)	12.5% (5a)	0% (0a)	7.5% (3a)	7.5% (3b)	20% (8a)	32.5% (13b)	12.5% (5a, b)	0%		
	MKL-3 (40명)	17.5% (7a)	10% (4a)	7.5% (3a)	2.5% (1a)	0% (0b)	15% (6a)	32.5% (13b)	15% (6b)	0%		

<표 III-3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피셔의 정확도 검정(Fisher's Exact test) 방법을 통해 3, 4학년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세 집단 간에 응답 결과의 분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어서 본페로니 다중 비교 분석(Bonferroni multi-analysis)을 실시하여 각 집단 간 응답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세 집단의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은 '-는가/(으)ㄴ가/나 보다'로 사용된 ⑤번 선택항에 집중되어 있으며 3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의 응답은 '-(으)ㄹ 것 같다'를 사용한 ⑦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 집단의 응답 중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사용한 ②, ③, ④, ⑧번을 선택한 점도 확인할 수 있다.

(66)

MKL410(문항 5번): '곧 비가 올 것 같다'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확실하잖아요.

연구자: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에서 '..걸 보니'가 있는데도 이 표현'-(으)ㄹ 것 같아요'를 선택할 거예요?

MKL410: 네, 이 '무릎이 쑤시는 것'을 가지고 날씨를 추측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어에서도 이렇게 '비가 올 것 같다'로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MKL409(문항 5번): 저는 '비가 올지도 모른다'를 선택할 거예요. '무릎이 쑤시는 것'으로 날씨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서 '올지도 모른다'를 선택하겠습니다.

MKL316(문항 5번): 문장을 읽어보니까 '비가 오겠다', '비가 올 거다'가 자연

스러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겠다'를 선택했어요. 그냥 느낌으로 선택했어요. 차이는 몰라요.
연구자: 다른 표현들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비가 오려나 보다'는 어때요?
MKL316: 네,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나 보다'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해요. 여기에서는 이상해요.

위의 사후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은 내적 지각 정보에 의한 근거의 확실성 여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부분 참여자는 내적 지각 정보를 확실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한 반면, 일부 참여자는 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미얀마어에서 내적 지각을 근거로 하여 추측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유사한 표현이다. 따라서 내적 지각 정보를 확실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한 참여자들은 모국어의 지식으로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어 화자 집단은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많이 선택하였으나 학습자 집단은 거의 선택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는가/(으)ㄴ가/나 보다'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의 지각 정보를 근거한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3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는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 표현 간에 있는 차이는 변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다. 특히 3학년 학습자는 4학년 학습자보다 '-겠-'과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차이에 대해서 변별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각 정보를 바탕으로 원인 추측을 하는 상황보다 결과 추측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들 표현들의 사용을 더 혼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3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 중 일부 학습자는 현장 지각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는 상황 맥락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를 선택한 것도 볼 수 있었다. 또한, 발화 현장에서의 내적 지각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지 않은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선택한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는 판단 근거 유형에 따라

사용되는 추측 양태 표현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내면화된 정보

추측 양태 표현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내면화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추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앞서 II 장에서 밝혔듯이 각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서로 차이를 가진다. 이에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내면화된 정보를 근거한 추측 양태 표현과 관련된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총 6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다음은 6개의 문항 중 7번, 11번, 12번의 문항 내용과 집단별 조사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분석을 진행하는 순서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7번 문항의 내용과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 III-37>, <표 III-38>과 같다. 7번 문항은 화자가 현장 지각 정보가 아니라 과거의 확실한 경험을 근거로 하여 '늦지 않다'라고 추측하는 상황이다.

<표 III-37> 내면화된 정보(과거 경험)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7)의 대화 및 선택항

가: 지수가 늦으면 어떻게 해?
나: 지금까지 늦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도 안 ( ).
① 늦겠어 ② 늦을 거야 ③ 늦을 텐데 ④ 늦을걸 ⑤ 늦은가 봐
⑥ 늦을 모양이야 ⑦ 늦을 것 같아 ⑧ 늦을지도 몰라 ⑨ 적절한 답이 없음

<표 III-38> 7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KNS	KNS (40명)	0% (0a)	75% (30a)	0% (0a)	10% (4a)	0% (0a)	0% (0a)	15% (6a)	0% (0a)	0%	28.112	.000**
MKL	MKL-4 (40명)	10% (4a)	57.5% (23a, b)	0% (0a)	12.5% (5a)	0% (0a)	0% (0a)	10% (4a)	10% (4a)	0%		
	MKL-3 (40명)	12.5% (5a)	42.5% (17b)	7.5% (3a)	2.5% (1a)	7.5% (3a)	7.5% (3a)	12.5% (5a)	7.5% (3a)	0%		

<표 III-3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피셔의 정확도 검정 방법을 통해 3, 4학년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세 집단 간에 응답 결과의 분포에 있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어서 본페로니 다중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 간 응답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응답 결과를 보면, 75.00%의 한국어 모어 화자가 ②번 선택항을 택하였고 3학년 학습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학년 학습자 집단은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3학년 학습자 집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3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 집단의 응답 결과를 보면,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사용한 ⑧번을 선택한 양상도 보이는데 이는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사용되지 않은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추측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지 않은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사용한 ①번, ⑤번, ⑥번 선택항을 선택한 것도 볼 수 있다. 특히 3학년 학습자 집단은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선택한 양상을 보였다.

(67)

MKL416(문항 7번): 저는 '안 늦을 거야'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늦은 것이 없다고 하니까 확신해요.

MKL313(문항 7번): 저는 '안 늦겠어'를 선택합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지금까지 늦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늦겠어'가 무엇보다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MKL310(문항 7번): 저는 '늦을 모양이야' 이 표현 둘 다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늦은 적이 없어'라고 했으니까 확신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확실한 경험을 근거로 하여 발화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한 추측 표현 중 확실성이 강한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위의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은 과거의 확실한 경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참여자 대부분은 근거의 유형에 인식하지 못하고 확실성에만 집중하여 생각하면서 선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추측 근거의 유형에 상관없이 선택한 경향이 있는 것은 각각 추측 양태 표현 간에 있는 의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상황인 문항 11번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11번 문항은 화자가 본인이 가진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발화하는 상황이다.

<표 III-39> 내면화된 정보(전문적 지식)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11)의 대화 및 선택항

[병원에서] 가: 선생님, 다 나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나: 움직이지 말고 푹 쉬면 금방 회복이 ( ). ① 되겠어요 ② 될 거예요 ③ 될 텐데요 ④ 될걸요 ⑤ 되려나 봐요 ⑥ 될 모양이에요 ⑦ 될 것 같아요 ⑧ 될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표 III-40> 1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KNS	KNS (40명)	0% (0a)	87.5% (35a)	0% (0a)	0% (0a)	0%	0% (0a)	12.5% (5a)	0%	0%	30.534	.000**
MKL	MKL-4 (40명)	15% (6b)	57.5% (23b)	15% (6b)	12.5% (5a)	0%	0% (0a)	0% (0a)	0%	0%		
	MKL-3 (40명)	12.5% (5a, b)	62.5% (25b)	10% (4a, b)	5% (2a)	0%	7.5% (3a)	2.5% (1a)	0%	0%		

피셔의 정확도 검정 방법을 통해 3, 4학년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세 집단 간에 응답 결과의 분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어서 본페로니 다중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 간 응답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 집단의 응답은 모두 ②번 선택항에 집중되어 있으나 모어 화자가 87.5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습자 두 집단은 모어 화자 집단보다 응답 비율이 모두 낮게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자 두 집단 간에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를 사용한 ③번, ④번을 선택한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 두 집단은 모두 '-겠-'을 사용한 ①번을 선택한 양상도 보일 수 있다.

화자가 전문적 지식으로 판단할 때 확실성이 높은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나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를 보면,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선택한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아무리 전문적 지식으로 판단하더라도 여지를 남겨서 확실성이 약한 '-(으)ㄴ/는/(으)ㄹ 것 같다'로 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68)

MKL301(문항 11번): 저는 회복이 '될 거예요'를 선택할게요. 이러한 상황이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잘 될 거예요'라는 말을 많

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MKL405(문항 11번): 저는 '되겠어요'도 되고 '될 거예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이지 말고 푹 쉬면'가 있으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되겠어요'가 더 확실해요.
MKL409(문항 11번): 저는 '될 텐데요'가 자연스럽다고 느꼈어요. 뭔지 모르지만 '될 텐데요'가 더 자연스러워요. 제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 확실하게 말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선택했어요.
MKL412(문항 11번): '될걸요'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이렇게 말하면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사후 인터뷰를 통해 '-(으)ㄹ 것이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대부분 학습자는 문장을 읽어볼 때 자연스럽고 드라마나 교재에서도 '-(으)ㄹ 것이다'를 많이 사용하므로 느낌상으로 선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움직이지 말고 푹 쉬면'이라는 일반적 지식 정보로 인식하여 확실성을 결정하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확실성 정도에 대해서 '-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 학습자도 있고, '-(으)ㄹ 것이다'가 가장 높다고 생각한 학습자도 있다.

한편, 위의 상황은 전문적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실성이 높은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으)ㄹ 텐데(요)', '-(으)ㄹ 걸(요)'는 내면화된 지식으로 판단하는 상황에 쓰이는 표현들이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전할 때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보다 '-(으)ㄹ 것이다'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으)ㄹ 텐데(요)'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정이나 비아냥의 느낌을 주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말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으)ㄹ걸(요)'도 반박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를 선택한 학습자들은 이 상황이 전문적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실성이 높은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으)ㄹ 텐데(요)'와 '-(으)ㄹ걸(요)'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4학년 학습자 집단은 3학년 학습자 집단보다 잘못 선택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내면화된 정보를 근거한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해서 습득이 잘 되지 못하고 있음

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내면적인 지식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의 의미적 특성 차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화자가 '장마철이면 비가 올 수 있다'라는 일반적 지식으로 반대의 가능성을 추측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 III-41> 내면화된 정보(반대 사태의 가능성)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12)의 대화 및 선택항

가: 내일 날씨는 어떨까?
나: 일기예보에서 내일 날씨가 맑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장마철이니까 갑자기 비가 ( ).
① 오겠어요 ② 올 거예요 ③ 올 텐데요 ④ 올걸요 ⑤ 오려나 봐요
⑥ 올 모양이에요 ⑦ 올 것 같아요 ⑧ 올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표 III-42> 1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KNS	KNS (40명)	0% 0a	0% 0a	0% 0a	0% 0a	0%	0% 0a	2.5% 1a	97.5% 39a	0%	31.124	.000**
MKL	MKL-4 (40명)	0% 0a	17.5% 7b	12.5% 5a	0% 0a	0%	0% 0a	12.5% 5a	57.5% 23b	0%		
	MKL-3 (40명)	2.5% 1a	7.5% 3a, b	5% 2a	2.5% 1a	0%	10% 4a	15% 6a	57.5% 23b	0%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 집단의 응답은 모두 ⑧번 선택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모어 화자가 97.50%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자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반대 사태의 가능성을 가정하는 상황에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표현들을 선택한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반대 사태에 대한 가능성을 추측할 때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로 표현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학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9)

MKL412(문항 12번): 저는 '비가 올지도 몰라요'를 선택해요. 장마철이니까 갑자기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MKL309(문항 12번): 저는 '올지도 몰라요'가 자연스러워요. 확실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저는 '올 것 같아요'도 되고 '올지도 몰라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장을 읽어보니까 '올지도 몰라요'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MKL405(문항 12번): '비가 올 모양이에요', '오려나 봐요'는 어색해요. 제 생

각에는 ‘비가 올 거예요’도 되고, ‘비가 올 텐데요’도 되는 것 같아요. ‘장마철이니까’로 썼으니까 확실해요. 근데 ‘올 거예요’로 하면 좀 느낌이 센 것 같아요. ‘올 텐데요’로 말하면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텐데요’로 말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 지식으로 반대의 가능성을 추측하는 상황에서는 반대 상황의 가능성을 전제로 추측하는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사후 인터뷰의 내용에서 보이듯이, ‘장마철이니까’라는 일반적 지식을 바탕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선택한 학습자도 있고, 문장을 읽어보고 느낌상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그 표현을 선택했다고 응답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이는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반대의 사태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특성을 암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직관적으로 느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일반적 지식으로 판단할 때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들의 차이에 대해서는 혼동하고 있어서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를 잘못 선택한 것도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 두 집단의 내면화된 정보를 근거한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이해 양상을 정리하자면, 내면화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사용 차이에 대해서 변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가도 습득이 잘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는 내면화된 지식으로 판단하는 상황에 쓰이는 표현들이지만 상황에 따라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 특히 두 학습자 집단은 ‘-(으)ㄹ 텐데(요)’의 추측 의미와 동시에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정이나 비아냥의 느낌을 주는 특성과 ‘-(으)ㄹ걸(요)’의 추측 의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반박하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3) 화자의 직관, 직접 경험

추측 양태 표현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근거에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앞서 II 장에서 밝혔듯이 각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서로 차이를 가진다. 이에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3번, 14번, 15번, 16번 총 4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다음은 4개의 문항 중 13번, 14번, 15번의 문항 내용과 집단별 조사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분석을 진행하는 순서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화자의 직관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3번 문항은 화자가 판단의 근거가 없이 화자의 직관만을 바탕으로 하여 판단하는 상황이다.

<표 III-43> 화자의 직관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13)의 대화 및 선택항

가: 그 사람 어때요? 나: 저도 만난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제 느낌에는 착한 ( ). ① 사람이겠어요 ② 사람일 거예요 ③ 사람일 텐데요 ④ 사람일걸요 ⑤ 사람인가 봐요 ⑥ 사람인 모양이에요 ⑦ 사람인 것 같아요 ⑧ 사람일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표 III-44> 13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KNS	KNS (40명)	2.5% (1a)	0% (0a)	0% (0a)	0% (0a)	0% (0a)	0% (0a)	97.5% (39a)	0% (0a)	0%	59.067	.000**
MKL	MKL-4 (40명)	7.5% (3a)	12.5% (5a)	0% (0a)	10% (4a)	20% (8b)	17.5% (7b)	32.5% (13b)	0% (0a)	0%		
	MKL-3 (40명)	5% (2a)	0% (0a)	10% (4a)	0% (0a)	17.5% (7b)	25% (10b)	40% (16b)	2.5% (1a)	0%		

응답 결과를 보면, 모어 화자의 응답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한 ⑦번 선택항에 97.50%로 집중되어 있고,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은 전반이하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학습지 두 집단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화자의 주체적인 직관에 따른 추측에 적절하지 않은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사용한 ⑤번, ⑥번 선택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70)

MKL402(문항 13번): 저는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확실하지 않을 때 '-을 것 같다'를 쓰는 거예요.

MKL411(문항 13번): '착한 사람인가 봐요'가 잘 어울려요. 제 생각에는 느낌이 그래요. '그 사람 내 느낌에는 착한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MKL314(문항 13번): 저는 '착한 사람인 모양이에요'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 모습이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생각해서 '착한 사람인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MKL405(문항 13번): 저는 '착한 사람일 거예요'를 선택할게요. 제 생각에.. 제 느낌에는.. 그냥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이라는 화자의 직관으로 판단할 때 어울리는 표현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이다. 사후 인터뷰 내용에서 보인듯이,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선택한 학습자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확실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근거로 하여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잘못 선택한 학습자들도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자신의 느낌으로 확실하게 추측하는 것에 의해 '-(으)ㄹ 것이다'를 선택한 학습자도 있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떤 상황을 추측할 때 근거 유형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추측 양태 표현들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 서로 혼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 화자의 직관(반대 사태의 가능성)에 따른 추측 양태 표현과 관련된 문항 14번에서도 찾을 수 있다. 14번 문항은 화자가 명확한 근거가 없이 반대 사태의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여 발화하는 상황이다.

<표 III-45> 화자의 직관(반대 사태의 가능성)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14)의 대화 및 선택항

가: 다음 주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뭘 가지고 가야 하지?
나: 약을 꼭 챙겨 가. 갑자기 ( ).
① 아프겠어 ② 아플 거야 ③ 아플 텐데 ④ 아플걸 ⑤ 아픈가 봐
⑥ 아픈 모양이야 ⑦ 아플 것 같아 ⑧ 아플지도 몰라 ⑨ 적절한 답이 없음

<표 III-46> 14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KNS	KNS (40명)	0% (0a)	0%	0% (0a)	0% (0a)	0% (0a)	0% (0a)	2.5% (1a)	97.5% (39a)	0%	32.509	.000**
MKL	MKL-4 (40명)	0% (0a)	0%	10% (4a)	0% (0a)	10% (4a)	17.5% (7b)	10% (4a)	52.5% (21b)	0%		
	MKL-3 (40명)	5% (2a)	0%	0% (0a)	5% (2a)	5% (2a)	15% (6b)	0% (0a)	70% (28b)	0%		

응답 결과를 보면, 모어 화자와 학습자 두 집단은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사용한 ⑧번 선택항에 집중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 비율은 모어 화자의 응답 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자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3학년 학습자 집단과 4학년 학습자 집단은 모두 반대 사태의 가능성을 가정하는 상황에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표현들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1)

MKL405(문항 14번): 저는 느낌상 '아플지도 모른다'가 자연스러워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요.

MKL301(문항 14번): 저는 '아플지도 몰라'를 선택했어요. 잘 모르겠지만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거 잘 어울려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MKL401(문항 14번): 저는 '아픈 모양이야'를 선택해요. 해외여행은 잘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아픈 모양이야'가 제 느낌에는 잘 맞아요.

MKL312(문항 14번): '아픈 모양이다'를 선택할게요. 왜냐하면 여행하면 갑자기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픈 모양이야'가 맞는 것 같아요.

반대 상황의 가능성을 전제로 추측할 때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사용하여 발화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사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느낌으로 확실하지 않거나 가능성이 있어서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선택했다고 응답하는 이도 있었고, 문장을 읽어보고 느낌상 '-(으)ㄴ/는/(으)

ㄹ지(도) 모르다'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그 표현을 선택했다고 응답하는 이도 있었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 학습자들은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가 가능성이 있을 때 표현하는 것으로 암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가 반대 사태의 가능성을 가정하여 추측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많이 선택한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인터뷰 참여자들이 내면화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 연결시켜서 선택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는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내면화된 지식으로 추측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15번 문항은 화자가 자신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다. 이때 화자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로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47> 직접 경험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15)의 대화 및 선택항

가: 오늘 한국어능력시험 봤죠? 시험이 어땠어요?
나: 저는 좀 ( ).
① 어려웠겠어요 ② 어려웠을 거예요 ③ 어려웠을 텐데요 ④ 어려웠을걸요 ⑤ 어려웠나 봐요
⑥ 어려운 모양이었어요 ⑦ 어려운 것 같았어요 ⑧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표48> 15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저는 좀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KNS	KNS (40명)	0% (0a)	0% (0a)	0% (0a)	0% (0a)	0% (0a)	0% (0a)	97.5% (39a)	0% (0a)	2.5% (1a)	54.524	.000**
MKL	MKL-4 (40명)	0% (0a)	10% (4a)	15% (6b)	10% (4a)	10% (4a)	10% (4a)	35% (14b)	0% (0a)	10% (4a)		
	MKL-3 (40명)	2.5% (1a)	0% (0a)	22.5% (9b)	5% (2a)	10% (4a)	10% (4a)	32.5% (13b)	7.5% (3a)	10% (4a)		

응답 결과를 보면, 모어 화자 집단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한 ⑦번 선택항에 97.50%로 집중되어 있으나 학습자 집단의 응답 비율은 모두 전반 이하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학습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두 학습자 집단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화자가 자신의 직접 경험에 의한 판단에 사용되지 않은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

(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사용한 ①번, ②번, ③번, ④번, ⑤번, ⑥번, ⑧번 선택항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학습자 집단은 모두 화자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추측 양태 표현을 써야 하는지 정확하게 학습되지 않으므로 적합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적절하지 않다'라는 선택항인 ⑨번도 선택한 학습자들도 있으며 '단정 표현'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72)

MKL402(문항 15번): '어려운 것 같았어요'를 선택해요.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을 것 같다'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좀 확실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MKL309(문항 15번): 저는 '어려웠을 텐데요'를 선택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MKL417(문항 15번): 저는 '어려웠어요'. 지난 일이고 제가 했으니까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사후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말할 때 불확실한 표현으로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자신에 대해서 발화할 때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으)ㄴ/는/(으)ㄹ 것 같다'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느낀 학습자들도 있었다. 이와 달리, 자기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서 '-(으)ㄹ 텐데(요)'를 선택한 학습자들도 있었다. 또한, 단정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알아봤는데 화자가 직접 한 일이라면 본인이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 표현을 써야 맞는 표현이라고 대답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따라서 화자의 직관/직접 경험에 대한 두 학습자 집단의 응답 결과를 정리하자면 3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는 모두 학년과 상관없이 화자의 직관이나 화자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추측 양태 표현들에 대한 습득이 더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특별한 제약이 없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도 잘 학습되지 않고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과 혼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화자의 직관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상황, 그리고 화자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선택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2)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

확실성 정도에 따른 추측 양태 표현의 경우, 양태 부사와의 공기 여부와 화자의 추측 태도가 주체적이냐 객체적이냐 여부로 나누어 총 10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양태 부사와의 공기 양상에 의해 추측 양태 표현의 확실성 정도와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양태 부사와의 공기 양상

화자는 양태 부사의 사용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할 확실성 정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양태 부사와의 공기 양상과 관련된 문항을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총 5개의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은 5개의 문항 중 18번, 21번의 문항 내용과 집단별 조사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분석을 진행하는 순서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8번 문항의 내용과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I-49> 확실성 정도(확실히)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18)의 대화 및 선택항

가: 외모는 확실히 세대별 차이가 (　　).
① 있겠어요　② 있을 거예요　③ 있을 텐데요　④ 있을걸요　⑤ 있나 봐요
⑥ 있는 모양이에요 ⑦ 있는 것 같아요　⑧ 있을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표 III-50> 18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KNS	KNS (40명)	2.5% (1a)	5% (2a)	2.5% (1a)	2.5% (1a)	27.5% (11a)	17.5% (7a)	42.5% (17a)	0% (0a)	0% (0a)	우도비 57.951	.000**
MKL	MKL-4 (40명)	17.5% (7a)	20% (8a)	7.5% (3a)	7.5% (3a)	30% (12a)	7.5% (3a)	7.5% (3b)	0% (0a)	2.5% (1a)		
	MKL-3 (40명)	7.5% (3a)	17.5% (7a)	0% (0a)	2.5% (1a)	20% (8a)	10% (4a)	10% (4b)	22.5% (9b)	10% (4a)		

18번 문항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정도 부

사 ‘확실히’와 추측 양태 표현의 공기에 대한 문항이다. 응답 결과를 보면 모어 화자 집단은 ①번, ②번, ③번, ④번, ⑤번, ⑥번, ⑦번 선택항에 분포되어 있고, 그중 ⑤번, ⑥번, ⑦번 선택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⑦번을 선택한 모어 화자가 42.5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얀마인 학습자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지만 두 학습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두 학습자 집단의 응답 결과를 보면, ⑧번 선택항의 응답 결과에 있어 3학년 학습자 집단과 4학년 학습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학년 학습자 집단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부사 ‘확실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측 양태 표현들 중 확실성이 가장 낮은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3학년 학습자들이 확실성을 나타내는 양태 부사와 추측 양태 표현들의 공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73)

MKL315(문항 18번): 저는 ‘있나 봐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외모는 확실히 세대별 차이가 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장을 읽어봤을 때 잘 어울려요. 그리고 ‘확실히 뭔가 있나 봐요’라고 하니까 무엇보다 더 확실한 느낌이 들어요.

MKL412(문항 18번): 저는 세대 차이가 ‘있겠다’로 선택할게요. 여기에서 ‘확실히’가 있으니까 확실해요. ‘-겠-’은 다른 표현들보다 확실성이 높아요.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 ‘-(으)ㄹ걸’도 확실성이 높지만 제 생각에는 ‘-겠-’이 더 확실성이 높아요.

MLL405(문항 18번): 여기에서 ‘있을 거예요’가 가장 적절해요. 외모는 ‘확실히’라고 썼으니까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무어보다 더 확실한 ‘있을 거예요’가 어울려요.

MKL304(문항 18번): 저는 ‘있을지도 몰라요’를 선택하겠습니다. 외모는 확실히 세대별 차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네, 맞아요...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사후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선택한 학습자들은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쓰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른 표현들보다 확실성이 높은 표현으로 변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겠-', '-(으)ㄹ 것이다'를 각각 선택한 학습자들은 양태 부사 '확실히'를 보고 확실한 표현으로 써야 한다는 인식으로 각자 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선택한 3학년 학습자는 양태 부사 '확실히'와 상관없이 문장을 읽어보고 '모르다'의 의미에 집중하여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21번 문항은 믿음의 정도가 매우 약함을 뜻하는 정도 부사 '혹시'와 추측 양태 표현의 공기에 대한 문항이다.

<표 III-51> 확실성 정도(혹시)에 따른 추측 양태 표현과 관련된 문항(21)의 대화 및 선택항

가: 아이가 자꾸 울어요.
나: 혹시 배가 ( ).
① 고프겠어요 ② 고플 거예요 ③ 고플 텐데요 ④ 고플걸요 ⑤ 고픈가 봐요
⑥ 고픈 모양이에요 ⑦ 고픈 것 같아요 ⑧ 고플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표 III-52> 2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KNS	KNS (40명)	0% (0a)	0%	0% (0a)	0% (0a)	15% (6a)	10% (4a)	5% (2a)	65% (26a)	5% (2a)	53.040	.000**
MKL	MKL-4 (40명)	0% (0a)	0%	0% (0a)	7.5% (3a)	42.5% (17b)	10% (4a)	22.5% (9a)	17.5% (7b)	0% (0a)		
	MKL-3 (40명)	5% (2a)	0%	12.5% (5a)	2.5% (1a)	45% (18b)	20% (8a)	7.5% (3a)	7.5% (3b)	0% (0a)		

응답 결과를 보면 모어 화자 집단과 학습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3학년 학습자 집단과 4학년 학습자 집단은 모두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74)

MKL403(문항 21번): '혹시 배가 아픈가 봐요'가 맞아요. 음.. '혹시 배가 아픈 것 같아요', '혹시 배가 아플지도 몰라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배가 아픈가 봐요'가 잘 어울려요. 제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혹시'라는 말은 미얀마어로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라서 좀 어려워요.

MKL309(문항 21번): 저는 '혹시 배가 아픈가 봐요', '아픈 모양이에요', '아픈 것 같아요'.. 이것들 다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픈가 봐요'가 읽어보니까 더 자연스러워요.

MKL314(문항 21번): 저는 '아이가 아픈 모양이에요'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혹시'라는 말..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은 양태 부사 '혹시'가 주로 추측 양태 표현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와 공기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양태 부사 '혹시'와 미얀마어에서 대응하는 부사어가 없으므로 이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이는 '혹시'의 사용에 대해서 명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이 확실성 정도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추측 양태 표현들 사이에 확실성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였으며 추측의 확실성 정도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추측 양태 표현마다 확실성 정도의 면에서 학습자들에게 인식되는 확실성의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화자의 추측 태도

화자의 추측 태도가 주체적이냐 객체적이냐에 관련된 문항은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총 5개의 문항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음은 5개의 문항 중 22번의 문항 내용과 집단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2번 문항은 화자의 주체적인 판단임을 나타내는 '내 생각에는'을 공기하여 발화하는 상황이다.

<표 III-53> 화자의 주관성에 따른 추측 표현과 관련된 문항(22)의 대화 및 선택항

가: 엄마 생일에 꽃을 사 주려고 하는데 무슨 꽃을 사면 좋을까?
나: 장미는 어때? 내 생각에는 꽃 중에 장미가 제일 ( ).
① 예쁘겠어 ② 예쁠 거야 ③ 예쁠 텐데 ④ 예쁠걸 ⑤ 예쁜가 봐
⑥ 예쁜 모양이야 ⑦ 예쁜 것 같아 ⑧ 예쁠지도 몰라 ⑨ 적절한 답이 없음

<표 III-54> 2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KNS	KNS (40명)	0% (0a)	0% (0a)	0% (0a)	0% (0a)	0% (0a)	0% (0a)	97.5% (39a)	0% (0a)	2.5% (1a)	68.599	.000**
MKL	MKL-4 (40명)	0% (0a)	7.5% (3a)	15% (6b)	12.5% (5a, b)	12.5% (5a)	10% (4a, b)	35% (14b)	7.5% (3a)	0% (0a)		
	MKL-3 (40명)	5% (2a)	12.5% (5a)	15% (6b)	15% (6b)	7.5% (3a)	25% (10b)	20% (8b)	0% (0a)	0% (0a)		

응답 결과를 보면, 모어 화자 집단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⑦번 선택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습자 두 집단은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사용한 ②번, ③번, ④번, ⑤번, ⑥번 선택항에 분산되어 있다. 이들 중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에 주로 사용되지 않은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사용한 ⑤번, ⑥번을 많이 선택하는 점도 볼 수 있다. 특히 3학년 학습자 집단은 '-(으)ㄹ 모양이다'를 사용한 ⑧번 선택항에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75)

MKL401(문항 22번): 저는 '장미가 제일 예쁜 것 같아'를 선택할 거예요. 제 생각에 대해서 말할 때 불확실하게 하는 '-을 것 같아요'로 말하는 것이 좋아요. 제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으니까 분명하게 말하면 안 좋아요. 제 생각뿐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MKL406(문항 22번): 저는 '내 생각에는 장미가 제일 예쁠 텐데', '예쁠걸' 다 돼요. 근데 저는 '예쁠걸'를 선택할게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걸 쓰면 제 생각은 확실해요. 그래서 '예쁠걸'가 잘 맞아요.

MKL305(문항 22번): 저는 '예쁠 텐데'를 골랐어요. '내 생각에는 꽃 중에 장미가 제일 예쁠 텐데'라고 말하면 느낌이 좀 부드러워요.

MKL410(문항 22번): 저는 '예쁜가 봐', '예쁜 모양이야' 두 다 돼요. 근데 '예쁜가 봐'가 제일 어울려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니까요. '예쁜 모양이다'는 앞에 꽃들이 있으면 '예쁜 모양이다'가 더 어울릴 거예요.

MKL315(문항 22번): 저는 '내 생각에는 꽃 중에 장미가 제일 예쁜 모양이야'를 선택할게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장미가 진짜 예뻐 보여요. 예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예쁜 모양이야'가 자연스러워요. 다른 표현들은.. 앞에서 '내 생각에는'와 '예쁘겠다, 예쁠 거야'로 말하면 좀 어색해요.

사후 인터뷰 내용을 통해 학습자 모두는 '내 생각에는'를 화자의 주체적인 판단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의 생각과 어울리는 추측 양태 표현을 생각하여 선택한 모습을 보였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선택한 학습자는 다른 표현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가 주체적이고 불확실한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고 '내 생각에는'과 잘 어울리는 표현으로 변별하였다. '-(으)ㄹ 텐데(요)'를 선택한 학습자는 '내 생각에는'과 말할 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겠-'이나 '-(으)ㄹ 것이다'보다 '-(으)ㄹ 텐데(요)'가 부드러운 표현으로 인식하여 그 표현을 선택하였다. 또한 '내 생각에는'과 '-(으)ㄹ걸(요)'의 결합을 선택하는 이도 있었는데 이는 자기의 생각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으)ㄹ걸(요)'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겠-'과 '(으)ㄹ 것이다'는 '내 생각에는'과 어울리지 않은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도 있었다.

한편,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가지는 객체성 의미를 모르고 주체적인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들도 많다.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 대부분은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주체적이고 확실성이 있는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경우 학습자 모두 '모양'의 어휘에 집중하여 결정하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학습자들은 '주체적', '객체적'과 같은 용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주관성이나 객관성의 측면에서 추측 양태 표현들의 의미적 차이를 생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모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들은 추측이라는 것 자체가 화자 자신의 생각으로서 당연히 주관적인 것이며 객관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으로 확실성 정도에 따른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학습자 두 집단의 이해 양상을 정리해 보면 두 집단은 모두 확실성을 나타내는 양태 부사와 추측 양태 표현들의 공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며 추측 양태 표현들의 주관성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은 추측 양태 표현들이 가지는 확실성과 주관성에 대해서 모두 명시적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나름의 사고방식에 따라 이해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측을 표현할 때의 확실성과 주관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발화 의도에 맞게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확실성과 주관성의 실현 방식을 교육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3.3. 학년별 담화·화용적 층위의 이해 양상 분석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을 측정하는 선다형 테스트에는 앞선 2장에서 살펴본 청자 존중 전략과 화자 겸손 전략, 그리고 불손 전략을 중심으로, 총 22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담화·화용적인 층위에서 추측해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명제에 대한 발화 수반력을 약화시켜 청자를 배려하는 말하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동일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감을 달리하였을 때, 담화 맥락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하고, 없는 경우도 한다. 이에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앞서 2.3절에서는 미얀마인 학습자 80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40명의 선다형 테스트의 22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번에는 미얀마인 학습자 80명을 3, 4학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청자 존중 전략과 화자 겸손 전략, 그리고 불손 전략을 순서대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피셔의 정확도 검정(Fisher's Exact test) 방법을 적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다면 본페로니 다중 비교 분석(Bonferroni multi-analysis)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집단 간에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청자 존중 전략

청자 존중 전략에는 반대 의견 제시하기, 부탁 거절하기,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제시하기,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 공감 표현하기, 위로/격려 표현하기 등이 있는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반대 의견 제시하기

<표 III-55> 1-1번과 1-2번 문항의 내용

1-1. [상황] 당신은 과장님과 같이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잠깐 밖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손님들이 일찍 올 것 같아서 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과장님: 아직 3시가 안 됐지? 잠깐 밖에 나갔다 와도 되나?

나: 손님들께서 조금 일찍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곧 (　　).
① 오셔요　② 오시겠어요 ③ 오실 거예요 ④ 오실 텐데요 ⑤ 오실걸요
⑥ 오시나 봐요 ⑦ 오실 모양이에요 ⑧ 오실 것 같아요 ⑨ 오실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1-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동료한테 말한다면,
'손님들께서 조금 일찍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곧 (　　).'
① 오셔요　② 오시겠어요 ③ 오실 거예요 ④ 오실 텐데요 ⑤ 오실걸요
⑥ 오시나 봐요 ⑦ 오실 모양이에요 ⑧ 오실 것 같아요 ⑨ 오실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표 III-56> 1-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0.0% 0a	0.0% 0a	22.5% 9a	7.5% 3a,b	0%	0.0% 0a	0.0% 0a	42.5% 17a	27.5% 11a	0%	우도비 105.383	.000**
MKL	MKL-4 (40명)	0.0% 0a	0.0% 0a	55.0% 22b	25.0% 10b	0%	2.5% 1a	5.0% 2a	10.0% 4b	2.5% 1b	0%		
	MKL-3 (40명)	5.0% 2a	52.5% 21b	17.5% 7a	5.0% 2a	0%	7.5% 3a	2.5% 1a	2.5% 1b	7.5% 3a,b	0%		

<표 III-57> 1-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2.5% 1a	2.5% 1a	35.0% 14a	2.5% 1a	15.0% 6a	2.5% 1a	2.5% 1a	22.5% 9a	15.0% 6a	0%	25.609	.031*
MKL	MKL-4 (40명)	0.0% 0a	0.0% 0a	27.5% 11a	20.0% 8b	0.0% 0b	7.5% 3a	12.5% 5a	17.5% 7a	15.0% 6a	0%		
	MKL-3 (40명)	5.0% 2a	7.5% 3a	20.0% 8a	12.5% 5a,b	10.0% 4a,b	15.0% 6a	5.0% 2a	15.0% 6a	10.0% 4a	0%		

문항 1-1번과 1-2번은 화자가 상대방의 의견을 반대하여 발화하는 상황이다. 우선 문항 1-1번의 응답 결과를 보면, '-(으)ㄴ/는/(으)ㄹ 것 같다' 표현을 선택한 모어 화자가 47.50%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습자 두 집단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를 보면 선택한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다. 4학년 학습자는 '-(으)ㄹ 것이다'를 집중적으로 선택하였고, 3학년 학습자는 '-겠-'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였다. 문항 1-2번의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와 두 학습자 집단은 모두 '-(으)ㄹ 것이다'를 선택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를 선택함에 있어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4학년 학습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4학년 학습자는 '-(으)ㄹ 텐데(요)'를 많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76)

MKL402: 저는 '이제 곧 오실 거예요'가 가장 적절해요. 이런 말을 과장님한테 말하면 공손하고 제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으)ㄹ 것 같다'로 말하면 너무 불확실해서 제 생각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동료한테도 그냥 '오실 거예요'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 생각을 확실하게 한 느낌이 들어요.

MKL405: '이제 곧 오시겠어요', '오실 거예요'는 그냥 추측만 하는 것 같아요. '오실 텐데요'는 추측하는데 거기에 확실한 제 생각이나 느낌을 더 추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있어요. 그리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말하면 좀 예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MKL313: 저는 과장님에게는 '오시겠어요'로 말할 거예요. 제 생각을 정확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에게는 '오실걸요'라고 말할 거예요. 제 느낌에는 제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사후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학습자 두 집단은 반대의 의견이나 생각을 제시할 때 확실성이 높은 표현을 선호하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학년 학습자는 확실성이 높고 공손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를 많이 선택하였고, 3학년 학습자는 '-겠-'을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학년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청자에게 직접적인 체면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담화 장면에서는 확실성 정도가 높은 추측 양태 표현들보다 약한 추측 양태 표현들의 사용이 적절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며 발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의 확실성 정도를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부탁을 거절하기'에서도 볼 수 있다.

2) 부탁 거절하기

<표 III-58> 2-1번과 2-2번 문항의 내용

2-1. [상황] 당신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과장님이 일요일 저녁에 통역을 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속이 있어서 거절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과장님: 지수 씨, 혹시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통역을 해 줄 수 있어요? 나: 어떡하죠? 일요일 저녁에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　　). ① 어려워요 ② 어렵겠어요 ③ 어려울 거예요 ④ 어려울 텐데요 ⑤ 어려울걸요 ⑥ 어려운가 봐요 ⑦ 어려운 모양이에요 ⑧ 어려울 것 같아요 ⑨ 어려울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2-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일요일 저녁에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　　).'
① 어려워 ② 어렵겠어 ③ 어려울 거야 ④ 어려울 텐데 ⑤ 어려울걸
⑥ 어려운가 봐 ⑦ 어려운 모양이야 ⑧ 어려울 것 같아 ⑨ 어려울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표 III-59> 2-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0%	7.5% 3a	0.0% 0a	0.0% 0a	2.5% 1a	2.5% 1a	0.0% 0a	87.5% 35a	0.0% 0a	0%	38.483	.000**
MKL	MKL-4 (40명)	0%	7.5% 3a	15.0% 6b	20.0% 8b	5.0% 2a	5.0% 2a	0.0% 0a	37.5% 15b	10.0% 4a	0%		
	MKL-3 (40명)	0%	17.5% 7a	20.0% 8b	10.0% 4a,b	5.0% 2a	0.0% 0a	2.5% 1a	40.0% 16b	5.0% 2a	0%		

<표 III-60> 2-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30.0% 12a	20.0% 8a	5.0% 2a	2.5% 1a	2.5% 1a	0.0% 0a	0.0% 0a	40.0% 16a	0.0% 0a	0%	29.069	.006**
MKL	MKL-4 (40명)	15.0% 6a	12.5% 5a	20.0% 8a	20.0% 8b	7.5% 3a	0.0% 0a	0.0% 0a	25.0% 10a	0.0% 0a	0%		
	MKL-3 (40명)	17.5% 7a	5.0% 2a	17.5% 7a	10.0% 4a,b	5.0% 2a	10.0% 4a	5.0% 2a	25.0% 10a	5.0% 2a	0%		

문항 2-1번과 2-2번은 화자가 상대방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상황이다. 우선 문항 2-1번의 응답 결과를 보면, 모어 화자와 학습자 두 집단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한 ⑧번 선택항에 집중되어 있으나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 비율은 모어 화자의 응답 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자 두 집단의 경우, 3학년 학습자 집단이 4학년 학습자 집단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선택한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자 두 집단의 다른 표현을 선택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은 모두 확실성이 강한 '-(으)ㄹ 것이다'와 '-(으)ㄹ 텐데(요)'를 선택한 것도 볼 수 있다. 문항 2-2번의 응답 결과를 보면, 모어 화자와 학습자 두 집단은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집중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으)ㄹ 텐데(요)'를 선택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4학년 학습자 집단은 3학년 학습자 집단보다 더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단정 지어 거절하기보다 불확실한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해서 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러나 친구일 경우 화자와 상대방의 사이와 상황에 따라 단정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불확실한 표현으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모어 화자의 응답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77)

MKL408: 저는 거절할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로 말해요. 확실하게 말하면 미안하고 예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교재에서도 이런 거 배웠어요.

MKL409: 저는 '어려울 텐데요'..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거절할 때 좀 예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느낌이에요. 좀 부드러운 느낌도 들어요.

MKL303: 저는 과장님에게는 '어려울 거예요'를 쓰고 친구에게는 '어려워'로 쓸게요. 어른한테는 '어려울 거예요'가 공손한 것 같아요. 친구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 대부분은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할 때 확실성이 약한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적절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일부 학습자는 윗사람에게 거절할 때 확실성이 높으면서 공손성이 있는 표현으로 인식하는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를 선택한 것도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도 4학년 학습자들이 '-(으)ㄹ 텐데(요)'의 특성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으)ㄹ 텐데(요)'는 상황에 따라 가끔 상대방에게 부정이나 비아냥의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 학습자들이 교재에서나 교수·학습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추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제시하기

<표 III-61> 3-1번과 3-2번 문항의 내용

3-1. [상황] 당신은 식당에서 자장면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하는데 금액이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자장면 값을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장님: 2만원입니다. 나: 사장님, 계산이 (　　). 저는 자장면 하나만 시켰어요. ① 잘못됐어요 ② 잘못됐겠어요 ③ 잘못됐을 거예요 ④ 잘못됐을 텐데요 ⑤ 잘못됐을걸요 ⑥ 잘못됐나 봐요 ⑦ 잘못된 모양이에요 ⑧ 잘못된 것 같아요 ⑨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3-2. 만약 친구가 계산을 틀렸다면,
'지수야, 너 계산이 (　　).'
① 틀렸어 ② 틀렸겠어 ③ 틀렸을 거야 ④ 틀렸을 텐데 ⑤ 틀렸을걸
⑥ 틀렸나 봐 ⑦ 틀린 모양이야 ⑧ 틀린 것 같아 ⑨ 틀렸을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표 III-62> 3-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20.0% 8a	0.0% 0a	2.5% 1a	2.5% 1a,b	0.0% 0a	5.0% 2a	0.0% 0a	70.0% 28a	0.0% 0a	0%	58.336	.000**
MKL	MKL-4 (40명)	7.5% 3a	0.0% 0a	0.0% 0a	0.0% 0b	0.0% 0a	50.0% 20b	10.0% 4a,b	25.0% 10b	7.5% 3a	0%		
	MKL-3 (40명)	7.5% 3a	5.0% 2a	7.5% 3a	15.0% 6a	2.5% 1a	27.5% 11b	15.0% 6b	20.0% 8b	0.0% 0a	0%		

<표 III-63> 3-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32.5% 13a	0.0% 0a	0.0% 0a	0.0% 0a	0%	10.0% 4a	0.0% 0a	57.5% 23a	0%	0%	40.238	.000**
MKL	MKL-4 (40명)	25.0% 10a	10.0% 4a	0.0% 0a	0.0% 0a	0%	37.5% 15b	7.5% 3a,b	20.0% 8b	0%	0%		
	MKL-3 (40명)	15.0% 6a	0.0% 0a	5.0% 2a	5.0% 2a	0%	42.5% 17b	15.0% 6b	17.5% 7b	0%	0%		

문항 3-1번과 3-2번은 상대방이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말하는 상황이다. 응답 결과를 보면,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표현을 선택한 모어 화자가 각각 70.00%, 57.50%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습자 두 집단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를 보면,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사용한 ⑥번 선택항에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78)

MKL406: 이거는 계산이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못됐나 봐요'를 선택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좀 예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것 같아요'로 말하면 불확실해요. 지금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친구에게도 '틀렸나 봐'라고 해요. 제 생각에는 '틀렸어'로 얘기하면 좀 왠지 모르겠지만 미안한 느낌이 들고 '틀렸나 봐'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 없어요.

MKL309: 저는 식당 사장님한테 '잘못됐나 봐요'라고 해요. '-나 보다'는 평가할 때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잘못됐나 봐요'로 말하면 느낌이 좀 공손하다?? 이렇게 느껴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리고 친구에게는 그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 틀렸어'라고 말해요.
MKL311: 저는 사장님한테 '잘못됐을 텐데요'로 말할 거예요. 문장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느꼈는지는 몰라요. 제 느낌에는 이렇게 말하면 분명하고 공손해요. 친구한테는 '틀린 모양이야'라고 말할 거예요. 이거는 친구의 계산이 틀린 모양을 보고 '계산이 틀린 모양이야'라고 하면 자연스러워요.

사후 인터뷰 내용을 통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할 때 화자·청자 관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는가/(으)ㄴ가/나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할 때 쓸 수 있는 공손한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다. '-는가/(으)ㄴ가/나 보다'는 객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체면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학습자 두 집단은 이에 잘 인식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3학년 학습자들의 경우 '-(으)ㄹ 텐데(요)는 자연스럽다는 느낌 때문에 선택하였고 그 원인은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 표현들의 담화·화용적 특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4)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

<표 III-64> 4-1번과 4-2번 문항의 내용

4-1. [상황] 지난주에 선배와 같이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오늘도 선배가 떡볶이를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배가 떡볶이를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선배: 지수야, 우리 오늘 떡볶이 먹을까? 나: 선배, 떡볶이를 정말 (　　). ① 좋아하세요? ② 좋아하시겠어요 ③ 좋아하실 거예요 ④ 좋아하실 텐데요 ⑤ 좋아하실걸요 ⑥ 좋아하시나 봐요 ⑦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⑧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⑨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4-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지수야, 너 떡볶이를 정말 (　　). ① 좋아해? ② 좋아하겠어 ③ 좋아할 거야 ④ 좋아할 텐데 ⑤ 좋아할걸 ⑥ 좋아하나 봐 ⑦ 좋아하는 모양이야 ⑧ 좋아하는 것 같아 ⑨ 좋아할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표 III-65> 4-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0.0% 0a	0.0% 0a	0.0% 0a	0%	0.0% 0a	80.0% 32a	2.5% 1a	17.5% 7a	0%	0%	31.900	.000**

MKL	MKL-4 (40명)	10.0% 4a	0.0% 0a	0.0% 0a	0%	7.5% 3a	62.5% 25a,b	7.5% 3a	12.5% 5a	0%	0%		
	MKL-3 (40명)	7.5% 3a	15.0% 6b	7.5% 3a	0%	0.0% 0a	47.5% 19b	17.5% 7a	5.0% 2a	0%	0%		

<표 III-66> 4-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0.0% 0a	0.0% 0a	0.0% 0a	0.0% 0a	0%	67.5% 27a	2.5% 1a	30.0% 12a	0%	0%	29.310	.000**
MKL	MKL-4 (40명)	12.5% 5a,b	0.0% 0a	10.0% 4a	0.0% 0a	0%	57.5% 23a,b	10.0% 4a	10.0% 4a	0%	0%		
	MKL-3 (40명)	17.5% 7b	7.5% 3a	7.5% 3a	7.5% 3a	0%	37.5% 15b	7.5% 3a	15.0% 6a	0%	0%		

문항 4-1번과 4-2번은 화자가 상대방과 말하면서 알게 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는 상황이다. 응답 결과를 보면, 모어 화자와 학습자 두 집단은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사용한 ⑥번 선택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 비율과 3학년 학습자의 응답 비율은 상당히 차이가 나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학년 학습자 집단은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3학년 학습자 집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겠-'의 선택함에 대해서 4학년 학습자 집단과 3학년 학습자 집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3학년 학습자는 '-겠-'을 선택하였고 특히 선배와의 발화에서 많이 선택하였다.

상대방의 사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상대방의 정보를 침범한다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화자의 주체적인 판단이 아닌 객체적 판단 태도를 나타내는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공손성을 드러낼 수 있다.

(79)

MKL409: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나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나 보다'는 남을 평가할 때 써요. 이거는 모두에게 쓸 수 있어요.

MKL305: 저는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를 선택할게요. 왜냐하면 '-을 것 같다'로 쓰면 자연스러워요. 미얀마어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와 같아요'라고 하잖아요.

MKL302: 저는 선배한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로 말하고, 친구한테는 '좋아

하나 봐'라고 말할 거예요. '-모양이다'와 '-나 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용해요. 둘 다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문장을 읽어봤는데 '좋아하는 모양이에요'가 '좋아하시나 봐요'보다 좀 공손하다고 생각해요.
MKL314: 선배가 떡볶이를 좋아하는 것을 추측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선배한테 '좋아하시겠어요'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어른들한테 말할 때 '-겠-'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공손하다고 생각해요. 친구의 경우는 추측하지 않고 그냥 '좋아해?'라고 물어볼 거예요. 친구는 추측할 필요가 없잖아요.

학습자들의 응답 결과를 보면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많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학습자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응답을 통해 학습자들은 객관성이라는 의미적 특성으로 상대방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 말할 때 상대방의 정보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공손 전략으로 쓰인다는 인식으로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평가할 때 쓰는 전략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모국어의 지식으로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선택한 학습자도 있었다. 또한 '-겠-'을 선택한 학습자도 있었는데 응답 내용을 보면 추측 양태 표현의 확실성과 객관성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겠-'을 사용하여 발화하는 것이 공손한 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습자들에게 상대방의 사태에 대해서 말할 때 추측 양태 표현들의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5) 공감 표현하기

<표 III-67> 5-1번과 5-2번 문항의 내용

5-1. [상황] 학교 선배가 이번 달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선배: 나 이번 달에 결혼해. 나: 정말요? 축하드려요. 진짜 (　　). ① 좋으세요　② 좋으시겠어요　③ 좋으실 거예요　④ 좋으실 텐데요　⑤ 좋으실걸요 ⑥ 좋으시나 봐요⑦ 좋으신 모양이에요 ⑧ 좋으실 것 같아요　⑨ 좋으실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5-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정말? 축하해. 진짜 (　　). ① 좋아　② 좋겠다　③ 좋을 거야　④ 좋을 텐데　⑤ 좋을걸

⑥ 좋은가 보다 ⑦ 좋은 모양이야 ⑧ 좋을 것 같아 ⑨ 좋을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표 III-68> 5-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0% (0a)	87.5% (35a)	0% (0a)	0% (0a)	0% (0a)	0%	0% (0a)	12.5% (5a)	0%	0%		
MKL	MKL-4 (40명)	10% (4a)	55% (22b)	12.5% (5a, b)	12.5% (5a)	0% (0a)	0%	0% (0a)	10% (4a)	0%	0%	33.333	.000**
	MKL-3 (40명)	5% (2a)	50% (20b)	27.5% (11b)	2.5% (1a)	5% (2a)	0%	5% (2a)	5% (2a)	0%	0%		

<표 III-69> 5-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0.0% 0a	95.0% 38a	0.0% 0a	0.0% 0a	0.0% 0a	0.0% 0a	0%	5.0% 2a	0%	0%		
MKL	MKL-4 (40명)	7.5% 3a,b	62.5% 25b	7.5% 3a,b	15.0% 6b	7.5% 3a	0.0% 0a	0%	0.0% 0a	0%	0%	34.457	.000**
	MKL-3 (40명)	15.0% 6b	57.5% 23b	17.5% 7b	0.0% 0a	2.5% 1a	5.0% 2a	0%	2.5% 1a	0%	0%		

문항 5-1번과 5-2번은 상대방의 결혼 소식을 듣고 상대방의 감정을 추측하면서 공감하여 말하는 상황이다. 이에 응답 결과를 보면, 모어 화자와 학습자 두 집단은 '-겠-'을 사용한 ②번 선택항에 집중되어 있으나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 비율은 모어 화자의 응답 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본페로니 다중 비교 분석(Bonferroni multi-analysis)을 실시하여 각 집단 간 응답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학습자 두 집단의 경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겠-'을 선택한 비율이 조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자 두 집단의 다른 표현을 선택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은 모두 '-(으)ㄹ 것이다'를 선택하였는데 특히 3학년 학습자는 더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으)ㄹ 텐데(요)'를 선택한 것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4학년 학습자가 더 많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80)

MKL401: '좋겠다', '좋으시겠어요'.. 이런 말을 교재에서도 많이 봤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어요. '힘들겠다', '피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이렇게 말하니까 자연스러워요 ..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MKL403: '진짜 좋을 거야' ..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좀 강한 말을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MKL304: 저는 '좋으실 텐데요'. 이렇게 말하면 왜인지 모르겠지만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MKL308: 저는 그냥 '좋으세요'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좋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미얀마어에서도 이럴 때 추측 표현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후 인터뷰 내용에서 보이듯이 학습자들이 이 상황이 다른 사람을 공감할 때 발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은 각각 다르다. '-겠-'을 선택한 학습자는 교재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다는 이유로 자연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재에서 '-겠-'의 추측 의미에 대해서 제시 및 설명할 때 '공감하기' 기능에 대한 문장을 암시적으로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추측'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감하기'의 기능도 암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으)ㄹ 것이다'를 선택한 학습자는 확실성 정도가 높은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였고, '-(으)ㄹ 텐데요'를 선택한 학습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모국어의 지식으로 추측 양태 표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단정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도 있었다. 이렇게 각자 다르게 선택한 이유는 학습자들이 '-겠-'이 상대방이 처하는 상황에 대한 공감을 표현할 때 공손 전략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겠-'의 공감하기 기능에 대해서 교수·학습할 때 암시적 교육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제시 및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6) 위로/격려 표현하기

<표 III-70> 6-1번과 6-2번 문항의 내용

6-1. [상황] 당신은 수영 대회에 참가하는 학교 선배와 같이 있습니다. 선배는 시합을 앞두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긴장한 선배를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나: 선배님, 다음 주에 수영 경기가 있죠? 선배: 응, 그런데 경기 날짜가 다가오니까 긴장돼. 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　　). ① 잘하셔요 ② 잘하시겠어요 ③ 잘하실 거예요 ④ 잘하실 텐데요⑤ 잘하실걸요 ⑥ 잘하시나 봐요 ⑦ 잘하실 모양이에요 ⑧ 잘하실 것 같아요 ⑨ 잘하실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6-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　　).’
① 잘해② 잘하겠어 ③ 잘할 거야 ④ 잘할 텐데 ⑤ 잘할걸
⑥ 잘하나 봐 ⑦ 잘할 모양이야 ⑧ 잘할 것 같아⑨ 잘할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표 III-71> 6-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0.0% 0a	0.0% 0a	87.5% 35a	0.0% 0a	2.5% 1a	0.0% 0a	2.5% 1a	7.5% 3a	0%	0%	39.639	.000**
MKL	MKL-4 (40명)	10.0% 4a	22.5% 9b	57.5% 23b	0.0% 0a	10.0% 4a	0.0% 0a	0.0% 0a	0.0% 0a	0%	0%		
	MKL-3 (40명)	7.5% 3a	25.0% 10b	35.0% 14b	5.0% 2a	5.0% 2a	5.0% 2a	5.0% 2a	12.5% 5a	0%	0%		

<표 III-72> 6-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0.0% 0a	2.5% 1a	95.0% 38a	0%	0.0% 0a	0%	0.0% 0a	2.5% 1a	0.0% 0a	0%	31.885	.000**
MKL	MKL-4 (40명)	15.0% 6b	0.0% 0a	72.5% 29b	0%	12.5% 5a,b	0%	0.0% 0a	0.0% 0a	0.0% 0a	0%		
	MKL-3 (40명)	7.5% 3a,b	2.5% 1a	50.0% 20b	0%	15.0% 6b	0%	7.5% 3a	10.0% 4a	7.5% 3a	0%		

문항 6-1번과 6-2번은 시합을 앞두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격려하는 상황이다. 응답 결과를 보면, 모어 화자와 학습자 두 집단은 ‘-(으)ㄹ 것이다’를 사용한 ③번 선택항에 집중되어 있으나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 비율은 모어 화자의 응답 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자 두 집단의 경우, 4학년 학습자 집단이 3학년 학습자 집단보다 ‘-(으)ㄹ 것이다’를 선택한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1)

MKL405: ‘잘하실 거예요’, ‘잘할 거야’. 이런 말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안심을 주는 것이라고 할까요? ‘잘될 가야’, ‘잘될 거예요’ 걱정마...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러워요.

MKL407: ‘잘하시겠어요’를 선택했어요. 저는 ‘-겠-’과 ‘-(으)ㄹ 것이다’가 확실성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른이나 선배 같은 사람들한테는 ‘-을 것이다’보다 ‘-겠-’으로 말하는 것이 더 공손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공손하다고 생각해요.
MKL315: 저는 '잘하실걸요', '잘할걸' ..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잘 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워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잘 모르지만 '-을걸요'로 말하는 것이 다른 표현들보다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MKL401: 저는 이런 상황... 상대방이 너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는 추측 표현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한테 위로(??)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정확한 표현을 써야 돼요. 미얀마어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딱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사후 인터뷰에서 '-(으)ㄹ 것이다'를 선택한 학습자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교재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여 선택했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이는 학습자들이 '-(으)ㄹ 것이다'의 위로하기 기능을 암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다른 표현들도 선택한 학습자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선택한 이유를 알아봤다. '-겠-'과 '-(으)ㄹ 것이다'는 같은 확실성이 있지만 윗사람에게 발화할 때는 '-겠-'이 '-(으)ㄹ 것이다'보다 공손성이 있으며 그 원인은 '-겠-'로 쓰인 관용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공손한 표현으로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으)ㄹ걸(요)'를 선택한 학습자는 '-(으)ㄹ걸(요)'가 다른 표현들보다 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리고, 모국어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때 단정 표현으로 확실하게 발화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추측 양태 표현을 선택하지 않은 학습자도 있었다.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선택한 이유는 학습자들이 '-(으)ㄹ 것이다'가 높은 확실성을 가지므로 상대방의 불안을 줄이고 상대방을 위로함으로써 상대방의 적극적인 체면을 증진시켜 주는 공손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 화자 겸손 전략

화자 겸손 전략에는 감사 표현하기,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자신에 관

한 사태를 표현하기 등이 있는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1) 감사 표현하기

<표 III-73> 7-1번과 7-2번 문항의 내용

7-1. [상황] 당신은 선배가 도와줘서 숙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선배: 지수야, 이제 숙제 다 끝난 거지? 나: 네, 다 끝났어요. 선배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 (　　). 고마워요. ① 못 했어요 ② 못 했겠어요 ③ 못 했을 거예요 ④ 못 했을 텐데요 ⑤ 못 했을걸요 ⑥ 못 했나 봐요 ⑦ 못 한 모양이에요 ⑧ 못 했을 것 같아요 ⑨ 못 했을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7-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나: 응, 다 끝났어.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 (　　). 고마워. ① 못 했어　② 못 했겠어 ③ 못 했을 거야 ④ 못 했을 텐데 ⑤ 못 했을걸 ⑥ 못 했나 봐 ⑦ 못 한 모양이야 ⑧ 못 했을 것 같아 ⑨ 못 했을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표 III-74> 7-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0.0% 0a	2.5% 1a	62.5% 25a	0.0% 0a	2.5% 1a	0.0% 0a	2.5% 1a	17.5% 7a	12.5% 5a	0%	우도비 63.631	.000**
MKL	MKL-4 (40명)	0.0% 0a	0.0% 0a	32.5% 13b	20.0% 8b	27.5% 11b	10.0% 4a,b	0.0% 0a	10.0% 4a	0.0% 0a	0%		
	MKL-3 (40명)	7.5% 3a	10.0% 4a	22.5% 9b	12.5% 5a,b	7.5% 3a,b	17.5% 7b	0.0% 0a	12.5% 5a	10.0% 4a	0%		

<표 III-75> 7-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2.5% 1a	2.5% 1a	72.5% 29a	0.0% 0a	0.0% 0a	0.0% 0a	2.5% 1a	12.5% 5a	7.5% 3a	0%	우도비 60.802	.000**
MKL	MKL-4 (40명)	7.5% 3a,b	7.5% 3a	32.5% 13b	17.5% 7b	20.0% 8b	0.0% 0a	0.0% 0a	15.0% 6a	0.0% 0a	0%		
	MKL-3 (40명)	20.0% 8b	2.5% 1a	22.5% 9b	12.5% 5a,b	17.5% 7b	12.5% 5a	0.0% 0a	10.0% 4a	2.5% 1a	0%		

문항 7-1번과 7-2번은 상대방의 행동이 화자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지각하여 상대방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상황인데, 화자가 '도와주지 않았다면'이라는 가정을 하여 '대행'이라는 뜻으로 감사의 표현을 한다.

문항 7-1번과 7-2번의 응답 결과를 보면, 모어 화자와 학습자 두 집단은 '-(으)ㄹ 것이다'를 사용한 ③번 선택항에 집중되어 있으나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 비율은 모어 화자의 응답 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자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모어 화자와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를 보면, 화자와 청자의 사이와 상관없이 모두 '-(으)ㄹ 것이

다’를 선택한 것도 볼 수 있다.

학습자 두 집단의 다른 표현을 선택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은 모두 가정할 때 쓰일 수 있는 ‘-(으)ㄹ텐데(요)’와 ‘-(으)ㄹ걸(요)’를 선택한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으)ㄹ 것이다’, ‘-(으)ㄹ텐데(요)’, ‘-(으)ㄹ걸(요)’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82)

MKL308: ‘못 했을 거예요’, ‘못 했을 거야’가 자연스러워요. ‘도와주지 않았다면’이라는 말 뒤에 ‘못 했을 거예요’, ‘못 했을 텐데요’, ‘못 했을걸요’와 같은 것들은 자연스러워요. 이들의 차이는 모르는데요. 지금 읽어보니까 ‘못 했을 거예요’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MKL402: 저는 ‘못 했을 것 같아요’, ‘못 했을 것 같아’로 선택할게요. 저는 그냥 느낌상 선택했어요. 다른 표현들 ‘못 했을 거예요’, ‘못 했을 텐데요’, ‘못 했을걸요’로 말하면 느낌이 세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못 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약한 표현을 선택했어요.

MKL413: ‘못 했을걸요’, ‘못 했을걸’을 선택했어요. 사실 저는 이거 느낌으로 선택했어요. 다른 표현보다 느낌이 센 것 같아요. ‘네가 도와줘서 다 했어’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쓰면 문장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MKL312: ‘못 했을 텐데요’, ‘못 했을 거야’를 선택할게요. 제 생각에는 ‘선배’는 ‘친구’보다 좀 거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선배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못 했을 텐데요’로 말하면 좀 공손한 느낌도 들고 좀 부드럽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친구한테 ‘못 했을 거야’라고 하면 자연스러워요. 친구한테는 확실하게 말하는 느낌(?) 그렇게 느껴요.

MKL301: ‘못 했을 텐데요’, ‘못 했을 텐데’를 선택할 거예요. 잘은 몰라요. 그냥 제 느낌으로 선택했어요. 문장을 읽어봤는데 ‘못 했겠어요’, ‘못 했을 거예요’, ‘못 했을 텐데요’, ‘못 했을걸요’가 돼요. 근데 그들의 차이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문장을 읽어보고 감사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좋은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인터뷰의 내용에서 보이듯이 학습자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 확실성 정도가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각자 확실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표현을 선택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확실성 정도가 높으면 자신의 실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하여 오히려 확실성 정도가 약한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의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인터뷰에서 추측 양태 표현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간에 있는 차이를 모른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는 반사실적 가정 조건문과 함께 사용될 때 문맥상 추측의 의미와 함께 다양한 화용적 기능도 동시에 드러난다. 이때 '-(으)ㄹ 것이다', '-(으)ㄹ걸(요)'는 문맥에 따라 '후회나 아쉬움', 그리고 '다행스러움'의 기능이 드러나고, '-(으)ㄹ 텐데(요)'는 '후회나 아쉬움'의 기능이 드러난다. 즉 '-(으)ㄹ 텐데(요)'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가정을 전제로 하여 표현할 때 자연스럽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가정을 전제로 하여 표현할 때는 부자연스럽다. 교재에서 이러한 차이에 대한 추가 제시 및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이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표 III-76> 8-1번과 8-2번 문항의 내용

8-1. [상황] 어제 당신이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웠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친구에게 실수를 많이 한 것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료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 지수 씨, 어젯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　　).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① 미쳤습니다 ② 미쳤겠습니다 ③ 미쳤을 겁니다 ④ 미쳤을 텐데요 ⑤ 미쳤을걸요 ⑥ 미쳤나 봅니다 ⑦ 미친 모양입니다 ⑧ 미쳤던 것 같습니다 ⑨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⑩ 적당한 답이 없음
8-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지수야, 어젯밤 정말 미안했어. 내가 술에 취해서 (　　). 정말 미안해. ① 미쳤어 ② 미쳤겠어 ③ 미쳤을 거야 ④ 미쳤을 텐데 ⑤ 미쳤을걸 ⑥ 미쳤나 봐 ⑦ 미친 모양이야 ⑧ 미쳤던 것 같아 ⑨ 미쳤을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표 III-77> 8-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0% (0a)	0% (0a)	0% (0a)	0% (0a)	0% (0a)	30% (12a)	12.5% (5a)	55% (22a)	2.5% (1a)	0%	46.572	.000**
MKL	MKL-4 (40명)	20% (8b)	0% (0a)	10% (4a)	10% (4a)	0% (0a)	45% (18a)	0% (0a)	12.5% (5b)	2.5% (1a)	0%		
	MKL-3 (40명)	17.5% (7b)	7.5% (3a)	0% (0a)	0% (0a)	2.5% (1a)	45% (18a)	2.5% (1a)	22.5% (9b)	2.5% (1a)	0%		

<표 III-78> 8-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7.5% (3a)	0% (0a)	0% (0a)	0% (0a)	0% (0a)	55% (22a)	2.5% (1a)	35% (14a)	0% (0a)	0%	43.984	.000**
MKL	MKL-4 (40명)	30% (12b)	0% (0a)	7.5% (3a)	10% (4a)	7.5% (3a)	45% (18a)	0% (0a)	0% (0b)	0% (0a)	0%		
	MKL-3 (40명)	15% (6a, b)	12.5% (5a)	2.5% (1a)	7.5% (3a)	2.5% (1a)	35% (14a)	2.5% (1a)	20% (8a)	2.5% (1a)	0%		

문항 8-1번과 8-2번은 화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대화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상황이다. 우선, 문항 8-1번의 응답 결과를 보면,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표현을 선택한 모어 화자가 55.00%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습자 두 집단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를 보면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사용한 ⑥번 선택항에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문항 8-2번의 [사회적 거리-]가 없는 상황에서의 응답 결과를 보면, '-(으)ㄴ가/나 보다'를 선택함에 있어서 학습자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83)

MKL401: '미쳤습니다', '미쳤어'를 선택했어요. 제 생각에는 다른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사과하면 진지한 사과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진지한 태도로 사과하려면 내가 '잘못했다' '미쳤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사과하는 느낌을 들어요.

MKL414: 저는 '미쳤나 봅니다', '미쳤나 봐'을 선택했어요. 사과하는 것이 '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확실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면 안 돼요. '미쳤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사과 같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미쳤나 봅니다'가 잘 적절하다고 봐요.

MKL309: '미쳤던 것 같습니다', '미쳤던 것 같아'를 선택할게요. 그냥 느낌으로 선택했어요. 문장을 읽어보니까 '미쳤던 것 같습니다', '미쳤던 것 같아'가 자연스러워요.

MKL310: 동료한테는 '미쳤던 것 같습니다'가 자연스러워요. 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한테는 내가 '미쳤어',

‘미치겠어’, ‘미쳤겠어’라고 하면 자연스러워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인터뷰를 통해 흥미로운 점은 단정 표현과 각자 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들은 사과할 때 확실성이 높은 것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진지한 사과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재에서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다는 이유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여 ‘-(으)ㄴ/는/(으)ㄹ 것 같다’, ‘-겠-’를 선택한 학습자들도 있었다. 또한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평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선택한 학습자들도 있었다. 이는 ‘-는가/(으)ㄴ가/나 보다’가 가지는 객관성에 대한 인식으로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평가할 때 쓰는 전략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측 양태 표현들이 공손의 전략으로 쓰이는 데 확실성 정도 외에 추측 근거의 특성과 주관성도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책임감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객체적 판단 태도를 드러내고(이혜용, 2003), 이로 인해 연장자에게 공손하게 표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직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에게 화자가 상대방과 덜 연관되는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는 맥락에서는 적절한 것으로 쓰일 수 있지만 윗사람이나 사회적 거리가 있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사과하는 상황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반면,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여 주관성을 나타내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사용은 적절하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대화 상대방에게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사과할 때 추측 양태 표현들의 담화·화용적 특성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에 제시할 ‘자신에 관한 사태를 표현하기’에서도 나타났다.

3) 자신에 관한 사태를 표현하기

<표 III-79> 9-1번과 9-2번 문항의 내용

9-1. [상황] 회사 동료가 당신이 부럽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동료에게 당신의 생각을 겸손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동료: 전 지수 씨가 참 부러워요. 성격도 활발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친구가 많으시잖아요.
나 : 제가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다 보니 성격이 그렇게 (　　).
① 됐어요 ② 됐겠어요 ③ 됐을 거예요 ④ 됐을 텐데요 ⑤ 됐을걸요
⑥ 됐나 봐요 ⑦ 된 모양이에요 ⑧ 된 것 같아요 ⑨ 됐을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9-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내가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다 보니 성격이 그렇게 (　　).
① 됐어 ② 됐겠어 ③ 됐을 거야 ④ 됐을 텐데 ⑤ 됐을걸
⑥ 됐나 봐 ⑦ 된 모양이야 ⑧ 된 것 같아⑨ 됐을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표 III-80> 9-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5% (2a)	0% (0a)	0% (0a)	0% (0a)	5% (2a)	20% (8a)	12.5% (5a)	57.5% (23a)	0% (0a)	0%	41.159	.000**
MKL	MKL-4 (40명)	10% (4a, b)	0% (0a)	10% (4a)	0% (0a)	0% (0a)	40% (16a)	10% (4a)	30% (12b)	0% (0a)	0%		
	MKL-3 (40명)	25% (10b)	12.5% (5a)	2.5% (1a)	5% (2a)	2.5% (1a)	32.5% (13a)	7.5% (3a)	10% (4b)	2.5% (1a)	0%		

<표 III-81> 9-2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5% (2a)	0% (0a)	5% (2a)	0%	2.5% (1a)	55% (22a)	5% (2a)	27.5% (11a)	0% (0a)	0%	30.637	.001**
MKL	MKL-4 (40명)	12.5% (5a, b)	0% (0a)	7.5% (3a)	0%	12.5% (5a)	40% (16a, b)	7.5% (3a)	20% (8a)	0% (0a)	0%		
	MKL-3 (40명)	27.5% (11b)	15% (6b)	2.5% (1a)	0%	0% (0a)	25% (10b)	5% (2a)	20% (8a)	5% (2a)	0%		

문항 9-1번과 9-2번은 화자가 자신에 관한 사태에 대하여 발화하는 상황이다. 우선, 문항 9-1번의 응답 결과를 보면,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표현을 선택한 모어 화자가 57.50%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습자 두 집단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를 보면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사용한 ⑥번 선택항에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4학년 학습자는 3학년 학습자보다 ⑥번을 집중적으로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학년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담화·화용적 특성의 차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담화 상황이나 청자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항 9-2번의 [사회적 거리-]가 없는 상황에서의 응답 결과를 보면, 4학년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3학년 학습자 집단은 4학년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3학년 학습자의 응답 결과를

보면, 단정 표현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4학년 학습자의 응답 비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84)

MKL401: 저는 '됐나 봐요', '됐나 봐'를 선택할 거예요. '-나 보다'는 평가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저는 둘 다 공손하다고 봐요.

MKL408: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를 선택했어요. 여기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을 것 같아요'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불확실하게 말하는 것...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MKL302: 저는 둘 다 '됐어요', '됐어'를 선택했어요. 저는 여기에서는 추측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다 보니'로 이유를 말했어요. 제 생각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거는 자신의 마음을 공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통해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선택한 학습자들은 '-는가/(으)ㄴ가/나 보다'는 평가할 때 쓰는 표현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사태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여 선택한 모습을 보였고,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선택한 학습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자연스럽다는 인식으로 선택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 추측 양태 표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미얀마어에서 자신의 사태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국어의 지식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자가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주장을 할 때 주로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사용이 자연스럽다. 화자가 확실성이 높은 표현보다 확실성이 약한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제 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객체적인 '-는가/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통해 발화 내용을 축소함으로써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는가/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상대적으로 주관성을 약하게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자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

을 보다 객체화할 수 있어 화자의 겸손함을 들어낼 수 있지만 사회적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발화할 때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말하는 것보다 주관적인 판단인 '-(으)ㄴ/는/(으)ㄹ 것 같다'로 말하는 것이 더 겸손한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의 사태에 대해서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할 때 추측 양태 표현들의 담화·화용적 특성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3) 불손 전략

불손 전략과 관련된 문항은 10번, 11번, 12번 총 3개의 문항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담화 상대자가 존재하여 사회적 관계에 유의해야 할 경우에도 화자에게 명확한 태도를 요구하는 담화 상황에서는 단정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13번 문항도 추가하여 설정하였다. 다음은 불손 표현 3개의 문항 중 11번 문항의 내용과 집단별 조사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분석을 진행하는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11번 문항의 내용과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I-82> 11번 문항의 내용

11. [상황]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한 전 남자 친구가 보고 싶다고 찾아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전 생각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전 남자 친구: 지수야, 보고 싶었어. 나: 보고 싶었다고? 나한테 무슨 짓을 했었는지 다 (　　). 그렇게 쉽게 그런 소리가 나와? ① 잊어버렸지? ② 잊어버렸겠지? ③ 잊어버렸을 거지? ④ 잊어버렸을 텐데? ⑤ 잊어버렸을걸? ⑥ 잊어버렸나 보지? ⑦ 잊어버린 모양이지? ⑧ 잊어버린 것 같지? ⑨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 ⑩ 적당한 답이 없음

<표 III-83> 11번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집단		선택항-										Fisher의 정확 검정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KNS	KNS (40명)	10% (4a)	2.5% (1a)	0% (0a)	2.5% (1a)	2.5% (1a)	65% (26a)	15% (6a)	2.5% (1a)	0% (0a)	0%	61.141	.000**
MKL	MKL-4 (40명)	40% (16b)	0% (0a)	0% (0a)	7.5% (3a)	0% (0a)	40% (16a)	0% (0b)	12.5% (5a)	0% (0a)	0%		
	MKL-3 (40명)	40% (16b)	5% (2a)	15% (6b)	7.5% (3a)	5% (2a)	5% (2b)	5% (2a, b)	7.5% (3a)	10% (4a)	0%		

문항 11번은 화자는 상대방에게 빈정거리는 상황이다. 응답 결과를 보면, 모어 화자와 학습자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어서 본페로니 다중 비교 분석(Bonferroni multi-analysis)을 실

시하여 각 집단 간 응답 결과의 차이를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가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3학년 학습자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학년 학습자 집단은 '단정 표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4학년 학습자 집단은 '단정 표현'과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85)

MKL405: 저는 이 상황이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것을 골랐어요. 추측 표현이 없는 '잊어버렸지?'가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다른 표현들은 좀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문항 11번의 경우 단정 표현을 사용하여 발화한다면 상대방에게 빈정거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단순히 확인하려고 한 의도로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11번 문항의 경우 화자가 상대방에게 단순히 확인의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꼼의 의도로 표현하는 상황이라서 단정 표현보다 이 상황에서는 '-는가/(으)ㄴ가/나 보다'가 가장 자연스럽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추측 양태 표현들의 불손 전략을 잘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어와 모국어의 담화·화용적 사용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해 잘 다루지 못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IV.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 제안

1.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수·학습 목표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교육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미얀마 대학의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III 장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해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교육과 관련하여, '언어 지식' 부분에서는 두 가지 요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학습자가 알아야 하는 언어 지식을 기존의 문법 층위에 국한하지 않고, 담화 층위까지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특정 문화적 의미를 지닌 사회 언어 현상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어의 추측 양태 표현은 미얀마어와 달리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서 다양한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많은 기능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중 예를 들어 동사에 따라 관형사 이형태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모국어에 동사의 형태 변화가 없는 미얀마인 학습자에게는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화용적 영역뿐만 아니라 형태 영역도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추측 양태 표현은 단순히 추측의 의미만을 나타내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서 공손성 또한 불공손성도 함께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담화·화용적 특성은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의 일면을 보여 줄 수 있는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점을 통해 형태·통사, 의미, 담화·화용 세 가지 층위에서 추측 양태 표현을 교육해야 하고, 형태·통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서의 의미적,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문법 교육에서는 단순한 '이해'와 더불어 적극적인 '사용'을 중시하게 된다. 그런데 '사용'의 기본 틀을 문법으로 구현되게 되는데, '사용'으로서의 문법은 상황 맥락과 유리된 문법이 아닌, 발화자와 청자,

발화 상황 등을 고려한 문법이다(강현화 외, 2022:20). 따라서 '이해'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유사 추측 양태 표현들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측 양태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에 담겨 있는 화자의 의도나 관점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는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활동이라면, '사용'에 있어서는 높은 '정확성'과 '적절성'이 모두 요구된다. 자신의 의도나 관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물론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표현해야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어 교육의 목표는 목표어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지만 정확성을 신장하는 것도 추구해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특히 대학 한국어 전공 학습자는 졸업한 후에 여러 방면에서 한국어를 전공 분야로 하여 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학습 목표는 일반 한국어 학습자와 달리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창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문법적 오류가 없으나 담화 상황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화용적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 한국인들이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를 접하게 될 때, 이를 학습자의 한국어 지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성이나 태도의 문제로 오해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이해영, 2018:4). 이에 따라 문법 교육에서 표현의 적절성 즉 유사 문법 표현의 적절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유사 문법 표현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유사 문법 항목이 갖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갖출 것뿐만 아니라 담화 상황과 자신의 의도에 맞는 문법 항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사 추측 양태 표현은 한국어 문법에서 중요한 항목이면서도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학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앞서 Ⅲ 장에서 조사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형태·통사적 층위에서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총점에 있어서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얀마인 학습자는 추측 양태 표현의 정확한 형태와 다양한 통사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의미적 층위와 담화·화용적 층위에서 선다형 테스트 Ⅱ, Ⅲ의 조사 결과를

통해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얀마인 학습자가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담화·화용적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 대학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추측 양태 표현 교육의 총체적인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①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②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③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을 정확하게 변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①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②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을 정확하게 변별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알맞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을 정확하게 변별하고 실제 생활에서 담화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의 제시한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지식 및 기능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목표 (1)은 이해 영역, 목표 (2)는 사용 영역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두 목표 아래 형태·통사, 의미, 담화·화용에 관한 세부 목표 항목도 설정되어 있다. 목표 (1)의 세부 항목은 모두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목표 (2)의 세부 항목은 모두 정확성과 적절성에 강조점이 놓여 있다.

Larsen-Freeman(2003)에서 문법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은 형태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 있게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삼차원의 문법틀(A three-dimensional grammar framework)'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문법이 형태, 의미, 화용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태 영역은 구조, 형태, 문장 내의 통사 제약 등을 말하고, 의미 영역은 그 문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화용 영역은 단위로는 사회적 기능과 담화 유형이 있으며 그 문법이 사용되는 담화 맥락의 적절성에 대한 것이다. 이 세 부분은 단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단계에 있으며 상호작용한다. 그러므로 문법은 형태와 의미와 연관성, 의미와 사용의 연관성, 형태와 사용의 연관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언어 능력은 문법 형식의 정확성, 전달 의미의 유의미성, 화용 장면에서의 적절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 대학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추측 양태 표현 교육의 총체적인 목표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표 Ⅳ-1>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

영역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	
형태·통사	교육 목표	1.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형태·통사적 특성 ① 주어 인칭 제약 (일반 상황) ② 주어 인칭 제약 (특정 상황) ③ 문장 유형 제약 ④ 선어말어미 -'았/었/였'와의 결합 제약 종결어미 '-네, -구나, -지'와의 결합 제약 ⑤ 기타 형태 사용 제약
의미	교육 목표	1.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2.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을 정확하게 변별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알맞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의미적 특성 ①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 -현장의 지각 정보 -내면화된 정보 -화자의 직접 경험/ 직관 ② 정확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 -양태부사와의 공기 -화자의 주체적/객체적 태도
담화·화용	교육 목표	1.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2.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을 정확하게 변별하고 실제 생활에서 담화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담화·화용적 특성 ① 반대 의견 제시 (청자 존중 전략) ② 거절 표현하기 (청자 존중 전략)

		③ 정보 영역 존중하기 (청자 존중 전략) ④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제시하기 (청자 존중 전략) ⑤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기 (화자 겸손 전략) ⑥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 (화자 겸손 전략) ⑦ 공감 표현하기 (청자 존중 전략) ⑧ 위로 표현하기 (청자 존중 전략) ⑨ 감사 표현하기 (화자 겸손 전략) ⑩ 자신의 부정을 강조하여 말하기(비아냥)

다음은 형태·통사적, 의미적, 담화·화용적 영역의 교육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형태·통사적 영역에 대해서 인칭 제약, 문장 유형, 어미와의 결합 제약, 그리고 형태 사용에 대한 제약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인칭 제약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그다음에는 특정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장 유형에 대해서는 사용되는 표현과 사용되지 못하는 표현을 교육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어말어미'-았/었/였-'의 결합과 종결어미'-네, -구나, -지'의 결합 제약도 교육 내용에 다룰 필요가 있으며, 특히 종결어미'-네, -구나, -지'와 '-(으)ㄹ 것이다'와의 결합 제약 정보를 교육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의미적 영역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추측 양태 표현을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변별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측 근거와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 등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때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로는 현장 지각 정보, 내면화된 정보, 그리고 화자의 직관/직접 경험 등으로 나누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 간에 차이를 변별할 수 있도록 한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다음 담화·화용 영역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추측 양태 표현을 통해 전달되는 상대방의 의도나 관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고,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나 관점을 공손하면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청자 존중 전략과 화자 겸손 전략을 통해 의사소통 상황에서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 구성 원리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은 III 장에서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형태·통사, 의미, 담화·화용적인 변별 기능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학습자들이 선수 학습한 개별 추측 양태 표현들의 변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 표현 항목을 비교하여 항목들 간의 특성을 변별할 수 있는 교수의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한국어교육학의 선행연구에서 추측 의미의 개별 항목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추측 의미의 항목 간 비교에 대한 변별적 교육은 아직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측 양태 표현 항목 간 변별적 교육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자 한다.

유사 문법 항목 간 변별적 교육은 유사 관계를 갖는 문법 항목들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교수·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학습한 개별 문법 항목들을 서로 연관지어 거시적으로 문법 체계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동시 개별 문법 항목에 대한 지식의 공백을 메울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유사 추측 양태 표현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여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실제적이고 세분화된 맥락을 반영하여 수업 자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적절하게 변별하여 모든 표현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담화 맥락 안에서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1) 비교 항목 선정

유사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의 변별적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 구성에 앞서 변별 대상으로 비교 항목이 될 만한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의 선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II 장에서의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들의 특성과 III 장에서의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이 자체적으로 가지는 발생적 측면에서의 유사성과 학습자들이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결과적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동시에 기반

으로 할 필요가 있다.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현장의 지각 정보를 근거로 추측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결과 추측과 원인 추측, 통사적 제약, 담화·화용적 특성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는 내면화된 정보를 근거로 추측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추측의 의미와 함께 화자의 감정에 따라 사용이 달라지는 점, 확실성 정도, 통사적 제약, 담화·화용적 특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근거에 제약이 없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화자가 직접 한 경험, 자신의 내적 상태,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과 차별되고,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반대의 사실을 가정하면서 추측하는 확실성이 아주 낮은 표현이라는 점에서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과 차별된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대부분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현장의 지각 정보로,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는 내면화된 정보로 추측하는 것은 암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각각 이들 항목 간에 있는 미세한 차이로 인해 용법이 달라지는 점을 알지 못하고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유사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의 차이에 대한 인식 부재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학습의 결여에서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추측 근거가 유사한 표현들을 묶어서 비교 항목으로 선정하여 그들 간에 있는 미세한 차이점에 대해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유사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을 위해 변별 대상이 될 만한 비교 항목의 선정을 다음 <표 IV-2>와 같이 제안한다.

<표 IV-2> 비교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의 선정

1.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2.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3.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2) 비교 항목 교육 내용의 구성 원리

방성원(2003)에서 문법을 이해하고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문법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였다. 문법 교육을 통해 정확한 문장을 생산해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함이다. 유사 문법 교육 또한 추측 의미의 문법 교육도 이러한 목적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추측의 의미로 유사한 문법 항목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구별하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맥락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추측 양태 표현 항목 교육 내용의 구성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1) 비교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담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 주는 다양한 예문을 제시해야 한다.
(3) 비교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을 변별하여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 실생활에서 접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 수행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유사 문법을 선정하고 난 후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여 각각의 문법 항목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첫 번째 원리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우선 유사 문법 교육은 이미 학습된 두 개 이상의 의미나 기능이 비슷한 문법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이해한 후 연습 사용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목표 문법인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에 집중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법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명시적 교육이 아닌 암시적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만 유사 문법 교육은 이미 해당 문법 항목을 배운 학습자를 대상으로 둘 이상의 항목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익혀 해당 문법 항목을 회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시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양명희, 2017:274).

다른 하나는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 간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유사점도 문법 정보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양명희(2016)에서도 '항목 간 유사점을 먼저 기술한 후, 차이점을 비교하여 기술하는 것'을 유사 문법 항목의 첫 번째 기술 원칙으로 설정한 바가 있다. 학습자들이 변별적 교육을 받기 전에 해당 문법 항목들을 서로 어떻게 유사한지 이미 인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추측 양태 표현들 간의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어떤 면에서 유사한지를 먼저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 항목 중 어떤 표현 항목과 어떤 표현 항목은 맥락 차원에서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표현 항목과 어떤 표현 항목은 그 맥락 차원에서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현장의 지각 정보를 근거로 하는 반면,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는 내면화된 정보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변별 교육을 할 때 먼저 근거의 유형에 따른 유사점이 있는 표현 항목들을 먼저 제시한 후, 그 유사한 근거로 판단하는 표현 항목들 중에서 다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시하는 것이 문법 항목 간의 정확한 변별에 더욱 유용한다고 본다.

두 번째 원리는 추측 양태 표현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고 변별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의사소통 맥락에서의 다양한 예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문을 제시할 때 문장 단위의 예문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담화 상황 맥락 속에서 문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담화 차원의 예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김재욱(2012)에서도 형태적 정확성을 통한 제시로 문법의 내용을 이해한 후 담화적 정확성의 제시를 통해 사용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형태적 정확성은 문장 차원의 문법으로 담화적 정확성은 담화 차원의 문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사 문법 교육 또한 추측 의미의 유사 문법 교육에서도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의 담화적 맥락과 상황에 맞는 정확한 사용을 위해서는 담화 차원의 내용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원리는 다양한 담화 상황 맥락에 따른 과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유사 문법 교육은 언어 교육과 달리 이미 배운 문법을 혼동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과제 모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다음은 이들 원리 아래에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유사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 간 변별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

본 절에서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 간 변별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교육 내용 원리를 기저로 하여 II 장에서 살펴본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담화·화용적 특성과 III 장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형태·통사적 층위의 교육 내용

우선, 형태·통사적 영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장에서 명제 주어 제약(일반 상황), 명제 주어 제약(특정 상황), 문장 유형 제약, 어미와의 결합 제약, 형태 혼용 오류 등의 다섯 개 유형으로 나누어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알아본 결과, 학습자들은 그중 명제 주어 제약(일반 상황)에 대한 문항의 정답률은 72.19%로 다섯 개의 유형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보다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 대한 명제 주어 제약에 대해서는 정답율이 53.12%로 낮았다. 이는 학습자들은 일반 상황에서의 명제 주어 제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특정 맥락에서의 명제 주어 제약에 대한 이해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명제 주어 제약에 대해 교수·학습할 때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도 교육 내용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문장 유형 중 일반의문문에 대해서 추측 양태 표현들은 평서문에 잘 쓰이며 청유문과 명령문에 쓰일 수 없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의문문에 쓰일 때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그중 '-겠-',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의문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으)ㄹ 것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학년별로 살펴봤을 때 4학년의 정답률은 3학년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보였다. '-겠-',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의문문 사용에 대한 정답률을 학년별로 살펴봤을 때 3학년 학습자들과 4학년 학습자들의 정답률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겠-'과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의문문 사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반면, '-(으)ㄹ 것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의문문 제약에 대한 정답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으)ㄹ 것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의문문 제약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도는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II 장에서 살펴보았듯 교재에서는 추측 양태 표현들의 의문문 제약에 대해서 제시 및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추측 양태 표현 '-겠-',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의문문 사용과 함께 '-(으)ㄹ 것이다',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의문문 제약을 명시적인 교육 내용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미와의 결합 제약에 대해서 추측 양태 표현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과거를 나타내는 선행의 선어말어미 '-았/었/였-'에 제약 없이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았/었/였-'과 결합할 수 없다. 이에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선행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는 4학년의 정답률이 3학년의 정답률보다 조금 높았지만 '55.00%'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추측 양태 표현들의 선어말어미 결합에 대해서 습득이 아직 잘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겠-', '-(으)ㄹ 것이다', '-는/(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후행의 선어말어미 '-았/었/였-'에 제약이 있는 반면,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후행의 선어말어미 '-았/었/였

-’에 제약이 없다. 이에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에 대해 알아봤는데 두 집단의 평균 정답률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의 결합 문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 결과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결합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Ⅱ 장의 교재 분석에서 확인하였듯 추측 양태 표현들과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선행과 후행 결합에서도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에서는 명시적인 문법 정보의 제시가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추측 양태 표현만 그러한 제시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후 인터뷰에서 3학년, 4학년 학습자들은 모두 추측 양태 표현들과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선행과 후행 결합에 대해 받은 명시적인 교육이 매우 제한적이며 한국어 경험으로부터 형성한 암시적 지식, 해당 어미와 추측 양태 표현과 형태적으로 어울리는지에 대한 분석적 지식에 의해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측 양태 표현들과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선행과 후행 결합 제약에 대하여 교수·학습 내용에 명시적 제시가 필요하다.

그다음, 추측 양태 표현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는 종결어미 ‘-네, -구나, -지’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반면, ‘-(으)ㄹ 것이다’는 결합하지 못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측 양태 표현 ‘-(으)ㄹ 것이다’가 ‘-네’, ‘-구나’, ‘-지’와 같이 쓰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두 집단의 정답률은 다른 문항 유형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에서 ‘-네’와 ‘-구나’를 감탄의 의미로 명시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감탄’의 의미와 ‘추측’의 결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교육이 받지 못했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교재에서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와 ‘-네’, ‘-구나’의 결합을 암시적으로 제시한 것이 있었는데 학습자들이 이를 인식하여 ‘-(으)ㄹ 것이다’도 ‘-네’, ‘-구나’와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추측 양태 표현 ‘-(으)ㄹ 것이다’가 종결어미 ‘-네’, ‘-구나’, ‘-지’와 함께 쓰이지 못하는 제약에 대해 명시적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형태 혼용 오류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는

데, 학습자들의 정답율이 다른 유형들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 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나 보다'가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기쁘다', '이다' 등과 결합할 때 사용 가능한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평균 정답률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특히 4학년 학습자들의 정답률은 3학년 학습자들의 정답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학년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는가/(으)ㄴ가 보다'와 '-나 보다'의 사용에 대해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확실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 대해 추측할 때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뿐만 아니라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과도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확인하였는데, 3학년 학습자들의 정답률은 4학년 학습자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에서 학습자들은 현재 상태나 상황에 대한 추측에서 현재를 나타내 관형사형 어미 '-는'만 써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재에서 '-(으)ㄴ/는/(으)ㄹ 것 같다'를 제시 및 설명할 때 미래의 경우 '-(으)ㄹ', 과거의 경우 '-(으)ㄴ', 현재의 경우 '-는'을 사용한다는 제시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추측을 할 때 관형사형 어미 '-는', '-(으)ㄴ', '-(으)ㄹ'의 사용에 대한 제시 및 설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추측 양태 표현의 인칭 제약, 문장 유형 제약, 어미와의 결합 제약에 대한 교수·학습을 하는 동시에 형태 사용에 대해 혼용하지 않도록 형태적 특성도 교육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의미적 층위의 교육 내용

Ⅲ 장에서 의미적 영역에 대하여,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와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에 대해서 현장의 지각 정보, 내면화된 정보, 화자의 직관/직접 경험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에 대해서 양태 부사와의 공기 여부와 화자의 추측 태도가 주체적이냐 객체적이냐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우선 현장의 지각 정보를 근거한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들 표현 간에 있는 차이는 변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다. 특히 지각 정보를 바탕으로 원인 추측을 하는 상황보다 결과 추측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 표현들의 사용을 더 혼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내면화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 특히 '-(으)ㄹ 텐데(요)'의 추측 의미와 동시에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정이나 비아냥의 느낌을 주는 특성과 '-(으)ㄹ걸(요)'의 추측 의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반박하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전할 때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보다 '-(으)ㄹ 것이다'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으)ㄹ 텐데(요)'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정이나 비아냥의 느낌을 주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말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으)ㄹ걸(요)'도 상대방에게 반박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를 선택한 학습자들은 이 상황이 전문적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실성이 높은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으)ㄹ 텐데(요)'와 '-(으)ㄹ걸(요)'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잘못한 선택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4학년 학습자 집단은 3학년 학습자 집단보다 잘못 선택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내면적인 지식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의 의미적 특성 차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면화된 정보로 추측하는 표현 항목들 간에 있는 의미적 특성 차이도 교육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추측 양태 표현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근거에 특별한 제약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앞서 Ⅱ 장에서 밝혔듯이 각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서로 차이를 가진다. 반대 상황의 가능성을 전제로 추측할 때는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사용하여 발화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사후 인터뷰에

서 자신의 느낌으로 확실하지 않거나 가능성이 있어서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선택했다고 응답하는 이도 있었고, 문장을 읽어보고 느낌상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그 표현을 선택했다고 응답하는 이도 있었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 학습자들은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가 가능성이 있을 때 표현하는 것은 암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가 반대 사태의 가능성을 가정하여 추측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화자의 느낌이나 직접적으로 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III 장에서 학습자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직접 경험 등에 의한 판단에 사용되지 않은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선택하여 표현들 간에 있는 의미 차이를 혼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화자의 직관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상황, 그리고 화자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선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떤 상황을 추측할 때 근거 유형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각각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 서로 혼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을 교육할 때 추측 근거, 즉 현장의 지각 정보, 내면화된 정보, 그리고 화자의 직관이나 직접 경험 등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이 달라진다는 명시적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확실성 정도에 따른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다. 화자는 양태 부사의 사용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할 확실성 정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3학년 학습자 집단은 문장에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부사 '확실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측 양태 표현 중 확실성이 가장 낮은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를 선택하였다. 이는 확실성을 나타내는 양태 부사와 추측 양태 표현들의 공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믿음의 정도가 매우 약함을 뜻하는 정도 부사 '혹시'와 추측 양태 표현의 공기의 경우 두 학습자 집단 모두 '-는가/

(으)ㄴ가/나 보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에 대한 인터뷰에서 학습자들은 양태 부사 '혹시'가 주로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와 공기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응답이 나왔다. 한편,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은 추측 양태 표현들 사이에 확실성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각 추측 양태 표현의 확실성 정도의 면에서 학습자들에게 인식되는 확실성의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 표현의 확실성 정도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자의 추측 태도가 주체적이냐 객체적이냐에 관련된 문제 중 화자의 주체적인 판단임을 나타내는 '내 생각에는'을 공기하여 발화하는 상황일 때 학습자 두 집단은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사용한 선택항에 분산되어 있다. 이들 중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에 주로 사용되지 않은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많이 선택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3학년 학습자 집단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가지는 객체성 의미를 모르고 주체적인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추측을 표현할 때의 확실성과 주관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발화 의도에 맞게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확실성과 주관성의 실현 방식을 교육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담화·화용적 층위의 교육 내용

담화·화용적 영역에 대해 청자 존중 전략과 화자 겸손 전략, 그리고 불손 전략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청자 존중 전략에는 '반대 의견 제시하기', '부탁 거절하기',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제시하기',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 '공감 표현하기', '위로/격려 표현하기' 등이 있으며 화자 겸손 전략에는 '감사 표현하기',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 등이 있다.

III 장에서 학습자들은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할 수 있는 '반대 의견 제시하기'와 '부탁 거절하기'에서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를 많이 선택하였고,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제시하기'에서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많이 선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감하기'에서는 '-겠-'뿐만 아니라 '-(으)ㄹ 것이다', '-(으) 텐데(요)'를 선택한 모습도 보였고, '위로하기'에서는 '-(으)ㄹ 것이다'뿐만 아니라 '-겠-'도 많이 선택한 모습을 보였다. '감사 표현하기'에서는 '-(으)ㄹ 것이다'뿐만 아니라 '-(으)ㄹ 텐데(요)'와 '-(으)ㄹ걸(요)'를 선택하였으며,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와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에서는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단순 표현'을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사후 인터뷰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확실성이 높은 표현을 공손성이 있는 표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교육 내용을 다룰 때 추측 양태 표현들의 담화·화용적 특성과 확실성 정도에 따라 공손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한편, 청자와의 관계[사회적 거리+/-]를 독립 변인으로 제시하였을 때, 청자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청자 존중 전략에 대한 모어 화자의 응답에서 '반대 의견 제시하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청자와 관계없이 비슷한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 양상이 많이 보였고, 미얀마인 학습자의 응답에서는, 모든 기능에 청자와 관계없이 모두 비슷한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 양상이 많이 보였다. 그리고 화자 겸손 전략에 대한 모어 화자의 응답에서 '감사 표현하기'를 제외하고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에서는 청자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 양상이 달라졌지만, 학습자 응답에서는 모든 기능에서 청자와 관계없이 비슷한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와 모국어의 담화·화용적 사용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해 잘 다루지 못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에 관한 교육을 할 때 추측 양태 표현들의 담화·화용적 특성 차이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담화 상황이나 청자와의 사이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의 사용이 다르다는 점을 교육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음은 위에서 형태·통사적, 의미적, 담화·화용적 층위의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비교 항목들 간의 유사점·차이점을 제시하는 명시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4) 비교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 내용

추측 양태 표현의 비교 항목들에 대한 변별 정보는 형태·통사적, 의미적, 담화·화용적 차원에서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별점을 서로 분리된 명제 형태가 아닌 연관성을 가져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Larsen-Freeman(2003)에서 제안한 형태, 의미, 화용 세 영역은 단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단계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추측 양태 표현의 경우도 유사 항목들 간의 의미적 차이가 형태·통사적 차이와 담화·화용적 차이를 발생시키며 역으로는 그러한 의미적 변별점이 형태·통사적, 담화·화용적 변별점이 존재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탕이잉, 2023:288). 또한 각 추측 양태 표현이 가지는 형태·통사적 특성이나 담화·화용적 특성을 제시할 때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이들 유사 표현이 가지는 의미적 특성과 연관시켜 제시하는 것이 추측 양태 표현 변별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의 의미적 변별점을 중점으로 제시하고, 그 뒤 의미적 변별점, 형태·통사적 변별점, 담화·화용적 변별점을 서로 연관시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우선, 여덟 개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변별점을 제시할 때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측 근거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유사점이 있는 추측 표현 항목들을 제시하고, 그다음 그들 간에 있는 미세한 차이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III 장에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대부분 추측 양태 표현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들 표현 간에 있는 차이는 변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다. 그리고 내면화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은 잘 구분하지 못하였다. 또한 추측 양태 표현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는 근거에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앞서 II 장에서 밝혔듯이 각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

성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지만 이에 잘 인식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앞선 <표 IV-2>처럼 추측 근거가 유사한 표현들을 먼저 비교 항목으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그다음에는 그들 간에 차이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발화 현장의 지각 정보를 근거로 한 추측 양태 표현들, 내면화된 정보를 근거로 한 추측 양태 표현들, 그리고 추측 근거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추측 양태 표현들로 나누어 제시해야 한다.

또한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의 변별 정보를 기술하는 설명 부분에서 정보 이해를 돕기 위한 예문을 제시할 때 명시적 기술 정보가 없는 예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의미화를 돕기 위해 담화 상황 맥락 정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다음 <표 IV-3>과 같이 현장 지각 정보를 근거로 한 추측 양태 표현들 간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제시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표 IV-3> 비교 항목들 간의 유사점·차이점을 제시하는 예시

추측 근거: 현장 지각 정보	예문
첫 번째 명시적 제시 및 설명 <현장 지각 정보>	(1) 가. (하늘에 잔뜩 낀 먹구름을 보고) 곧 비가 {오겠어요, 오려나 봐요, 올 모양이에요}. 나.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맛있겠다, 맛있나 보다, 맛있는 모양이다}. 다. (불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것을 만져 보면서) 말랑말랑한 게 {떡이겠다, 떡인가 보다, 떡인 모양이다}. 라. 지수가 토요일쯤 귀국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귀국했겠어요, 귀국했나 봐요, 귀국한 모양이에요}. 마.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 곧 비가 {오겠다, 오려나 보다, 올 모양이다}.
두 번째 명시적 제시 및 설명 <현장 지각 정보+지식 정보> : 결과 추측	(2) 가. (시계를 보고)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가겠다, *가나 보다, *가는 모양이다}. 나. A: 제 친구는 한국에서 산 지 오래됐어요. B: 그래요? 그럼 한국어를 {잘하겠어요, *잘하나 봐요, *잘한 모양이에요}.

	다. A: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어요. B: 그래요? 그럼 손님이 {많겠다, *많나 봐요, *많은 모양이에요}. 라. A: 이번 주 내내 야근했는데 주말에는 이사도 해야 돼. B: 진짜 {힘들겠어요, *힘든가 봐요, *힘들 모양이에요}. 마. A: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동해에 여행 가기로 했어요. B: 와! {재미있겠어요, *재미있나 봐요, *재미있는 모양이에요}.
세 번째 명시적 제시 및 설명 <현장 지각 정보> : 원인 추측	(3) 가. (사람들이 우산을 쓴 것을 보고) 지금 비가 {오나 봐요, 오는 모양이에요, *오겠어요}. 나. A: [헬스장에서] 자세를 보니 이 운동을 처음 {하시나 봐요, 하시는 모양이에요, *하시겠어요}. B: 네, 근육 운동을 처음 해 봐요. 다. A: 지수야, 우리 오늘도 떡볶이 먹을까? B: 선배,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좋아하시겠어요}. 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나 봐, 사랑한 모양이야, *사랑하겠어}. 마. A: 지수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B: 선생님, 저는 진짜 언어에 소질이 {없나 봐요, 없는 모양이에요, *없겠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국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표 IV-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제시에서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현장 지각 정보를 근거로 한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예문을 먼저 제시하여 이들 표현은 현장 지각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한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두 번째 제시에서,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어야 한다. 이에 '-겠-'은 지각 정보와 지식 정보를 결합하여 어떤 사태의 결과에 대해 즉각적으로 추측한다는 의미적 특성을 잘 드러나는 예문으로,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와의 변별점을 보여 주는 예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제시에서, '-겠-'은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

(으)ㄹ 모양이다'와 달리 어떤 사태의 결과 추측에만 쓰일 수 있고 그 사태의 원인 추측에 대해서는 쓰일 수 없다는 변별점을 보여 주는 예문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지각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사태의 원인을 추측할 때 쓰일 수 있는 반면 '-겠-'은 그럴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나는 예문으로 이 세 표현 간에 있는 차이점을 잘 보여 주는 예문을 유의미한 상황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때 하나의 담화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형태·통사적, 화용적 특성도 동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세 문법 항목 간의 변별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제시한다. 예로 들자면, 형태·통사적 특성으로 <표 IV-3>의 예문 (3.라)와 (3.마)처럼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는 특정 상황인 '화자가 자신이 미처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음'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겠-'는 이러한 상황에서 1인칭 주어 제약이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예문을 구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담화·화용적 특성으로 <표 IV-3>의 예문 (2.라)와 (2.마)처럼 '-겠-'의 담화·화용적 특성 중 청자 존중 전략으로 '상대방의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도 동시에 나타나는 예문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표 IV-3>의 예문 (3.나)와 (3.다)처럼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의 담화·화용적 특성 중 청자 존중 전략으로 '상대방의 정보 영역을 존중하는 것'도 동시에 포함되는 예문으로 구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비교 항목이 가지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변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담화 맥락에 따라 그들 항목의 의미적 특성과 함께 형태·통사적, 담화·화용적 특성도 포함되는 예문으로 구성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다양한 담화 상황 맥락에 따른 과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유사 문법에 대한 변별적 교육에서는 담화 상황 맥락에 맞게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적 활동에 비해 유의미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을 상황에 맞게 변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활동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 <표 IV-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적용하여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의 형태·통사적인 특성을 드러

낼 수 있는 진위형의 문항을 제시한다. 이때 학습자는 주어 인칭 제약, 문장 유형 제약, 어미와의 결합 제약, 형태 혼용 오류 등을 포함된 문장을 읽고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도록 한다[77].

<표 IV-4> 형태·통사적 특성 판단을 위한 문법성 테스트 예시

1. 지수는 어제 미국에 갈 거예요.	O X	⇛ 지수는 어제 미국에 갔을 거예요.
2. 저는 내일 약속이 있어서 바쁜가 봐요.	O X	⇛ ----------.
3.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다니, 나는 천재겠어.	O X	⇛ ----------.
4. 졸업하면 취직해야 할지 유학 가야 할지 고민이네. 너는 어떤 것이 좋을 거야?	O X	⇛ ----------.
5. 철수는 어제 밥을 많이 먹었을 모양이에요.	O X	⇛ ----------.
6. 비가 그쳤으니까 우산을 두고 가도 될 거지.	O X	⇛ ----------.
7. 전화를 해 보니까 철수가 지금 있는 곳이 집이나 봐요.	O X	⇛ ----------.
8. 내일 비가 올지 모르니?	O X	⇛ ----------.
9. 어! 이상하다! 지갑이 없어졌네! 철수 씨, 저 지갑을 잃어버렸을 텐데요.	O X	⇛ ----------.
10. 이것은 철수의 책일 것 같다.	O X	⇛ ----------.

그다음,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 차원의 산출 활동을 제공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명시적인 교육을 통해 이미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지식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출력에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자신의 사용과 다른 학습자의 사용 간의 차이를 알아차리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의 형식이 필요하다. 이때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을 통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명시적 제시 및 설명을 통해 그 표현 항목들의 변별적인 특성에 대해 내재화했다면, 본 단

77) 테스트 구성은 특히 3장에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 분석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계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그림이나 동영상을 활동하여 다양하고 실제적인 맥락이 포함된 담화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제시된 것을 보면서 적절한 추측 양태 표현 항목을 선택하여 대화를 완성해 보도록 한다. 이때 의미적 특성, 그리고 통사적 특성과 화용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다양한 상황 맥락이 제공되며, 특히 3장에서 분석한 학습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화자와 청자 간 사이에 따라 달라지는 화행 기능에 대해 올바른 화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맥락을 세분화한다.

<표 IV-5> 상황 맥락에 맞는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기- 대화 완성하기 예시1

■다음 그림(동영상)을 보고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서 대화를 완성해 보십시오.
보기: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대화1]
지수: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래?
유미: 오늘은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갈래. 아침에 운동을 했더니 좀 ----------. (피곤하다)

[대화2]
유미: 지수가 늦으면 어떻게 해?
철수: 지금까지 늦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도 안 ----------. (늦다)

<표 IV-6> 상황 맥락에 맞는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기- 대화 완성하기 예시2

■다음 그림(동영상)을 보고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서 대화를 완성해 보십시오.
보기: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

[상황1] 회사 동료가 당신이 부럽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동료에게 당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동료: 전 지수 씨가 참 부러워요. 성격도 활발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친구가 많으시잖아요.
나 : 제가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다 보니 성격이 그렇게 ----------. (되다)

[상황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 내가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다 보니 성격이 그렇게 ----------. (되다)

위의 <표 IV-5>, <표 IV-6>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맥락이 포함된 대화문을 읽고 완성함으로써 여덟 개의 추측 양태 표현 항목 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담화·화용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자리에서 변별함으로써 적절한 사용 방법을 발견하고 내재화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미얀마인 학습자, 특히 미얀마 4년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는 3, 4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추측 양태 표현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지(도) 모르다'의 이해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II 장에서는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교육 연구의 전제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우선,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이 갖는 의미와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여전히 미진한 문제, 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와 함께, 소외된 주요한 문제 또한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추측 양태 표현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들을 검토하고 추측 양태 표현 항목 간의 용법 차이를 형태·통사, 의미, 담화·화용 세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우선 형태·통사적으로는 주어 인칭 제약(일반 상황과 특정 성황), 문장 유형 제약, 선어말어미(-았/었/였-)과 종결어미(-네, -구나, -지)를 포함한 어미와의 결합 제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추측 양태 표현들 간의 변별점을 고찰하였다. 의미적으로는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와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추측 양태 표현들 간의 변별점을 고찰하였다.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적 차이에서는 현장의 지각 정보, 내면화된 정보, 그리고 화자의 직관/직접 경험 등의 근거 유형에 따라 추측 양태 표현들의 사용이 달라지는 것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담화·화용적으로는 추측 양태 표현들이 담화 상황에서 청자 존중 전략, 화자 겸손 전략 그리고 불손 전략으로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 표현 간의 변별점을 고찰하였다. 특히 화자가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를 높이는 존중 전략에서는 '반대 의견 제시하기', '부탁 거절하기',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제시하기',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 '공감 표현하기', '위로 표현하기' 등이 있고, 화자 자

신을 낮추는 겸손 전략에서는 ‘감사 표현하기’,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 등이 있는데 이들 전략에서 각 추측 양태 표현들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추측 양태 표현들의 형태·통사적 특성, 의미적 특성, 담화·화용적 특성 등을 살펴본 결과, 추측 양태 표현들이 서로 형태·통사적, 의미적, 담화·화용적 차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다음, 학습자의 모국어가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얀마어 추측 양태 표현의 특성을 살펴보며, 한국어와 미얀마어 간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보고 두 언어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상의 난점을 예측하였다. 또한 미얀마 내 대학교의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얀마 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 다섯 종을 선정하여 교재에 제시되는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기존 교육 내용에만 의존할 경우 미얀마인 학습자는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담화·화용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III 장에서는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결과 분석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조사 대상 및 방법에서는 조사 참여자, 자료 수집 도구의 설계 그리고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미얀마 대학 한국어 전공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미얀마인 학습자 80명(3학년 40명, 4학년 40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40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학습자가 특정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파악하고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얀마인 학습자 16명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에는 총 세 가지 텍스트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형태·통사적 층위의 이해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두 개의 선다형 테스트는 의미적 층위와 담화·화용적 층위의 이해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 조사 결과 분석 부분에서는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 ‘의미’, ‘담화·화용’ 세 층위 그리고 학습자의 ‘학년’ 요인에 중점을 두어 층위별, 학

년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학습자의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층위별 학습자 이해 양상의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형태·통사적 층위의 이해 양상이다. 형태·통사적 층위에서는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38점 만점인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미얀마인 학습자 집단의 평균 점수는 21.53점,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평균 점수는 34.02점으로 두 집단 간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전체 38개의 문항을 다섯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때, 모든 유형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답률이 미얀마인 학습자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은 모은 유형의 정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의미적 특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이다. 이에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와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추측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에 대해서 현장의 지각 정보, 내면화된 정보, 화자의 직관/직접 경험 이 세 가지 근거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추측 근거의 지각 정보와 관련된 문항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 분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에 대해서 양태 부사와의 공기 여부와 화자의 추측 태도가 주체적이냐 객체적이냐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양태 부사와의 공기 여부와 관련된 문항 하나, 화자의 추측 태도와 관련된 문항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 분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이다. 여기에서는 청자 존중 전략과 화자 겸손 전략, 그리고 불손 전략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자 존중 전략에는 반대 의견 제시하기, 부탁 거절하기,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제시하기,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 공감 표현하기, 위로/격려 표현하기 등이 있는데 '반대의 의견 제시하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 분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화자 겸손 전략에는 감사 표현하기,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 등이 있는데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얀마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응답 결과 분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 학습자 이해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형태·통사적 층위에 대한 3, 4학년 학습자의 이해 양상이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총점은 38점이며, 3, 4학년 두 집단의 평균 점수는 각각 18.97점, 24.10점으로 집계되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두 집단의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층위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이해도가 학년이 올라가면 점차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38개 문항은 다시 다섯 유형(주어 인칭-일반 상황, 주어 인칭-특정 상황, 문장 유형, 어미와의 결합, 형태 혼용 오류)으로 나누었는데, 유형 5(형태 혼용 오류)를 제외하고 모든 문항 유형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정답률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은 학년별 의미적 층위에 대한 이해 양상이다. 학년별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이해 양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미적 특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학년 요인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추측의 근거에 따른 의미 차이와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 두 가지 측면에서 3, 4학년 학습자 집단의 이해 양상을 고찰하였다. 먼저 현장의 지각 정보를 근거한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해서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겠-', '-는가/(으)ㄴ가/나 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가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 표현 간에 있는 차이는 변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면화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 '-(으)ㄹ걸(요)'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은 '-(으)ㄹ 텐데(요)'의 추측 의미와 동시에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정이나 비아냥의 느낌을 주는 특성과 '-(으)ㄹ걸(요)'의 추측 의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반박하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또한 근거에 특별한 제약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으)ㄴ/는/(으)ㄹ 것 같다'와 '-(으)ㄴ/는/(으)ㄹ 모르다'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도 잘 학습되지 않고 다른 추측 양태 표현들과 혼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화자의 직관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상황, 그

리고 화자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으)ㄹ 모양이다'를 선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다음 확실성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의 경우, 양태 부사와의 공기 여부와 화자의 추측 태도가 주체적이냐 객체적이냐 여부로 나누어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살펴봤는데 두 학습자 집단은 모두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학년별 담화·화용적 층위에 대한 이해 양상이다. 추측 양태 표현의 화용적 특성에 대해서는 청자 존중 전략과 화자 겸손 전략, 그리고 불손 전략 등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학습자 집단의 경우, 4학년 학습자 집단의 응답 결과가 모어 화자 집단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3학년 학습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 의견 제시하기', '부탁 거절하기'에서 두 집단 모두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텐데요'를 많이 선택하였으며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제시하기'에서 '-는가/(으)ㄴ가/나 보다'를 많이 선택하였다. '공감하기'에서는 '-겠-'뿐만 아니라 '-(으)ㄹ 것이다', '-(으) 텐데(요)'도 많이 선택한 모습을 보였고, '위로하기'에서는 '-(으)ㄹ 것이다'뿐만 아니라 '-겠-'도 많이 선택한 것을 보였다. '감사 표현하기'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이 '-(으)ㄹ 것이다'뿐만 아니라 '-(으)ㄹ 텐데(요)'와 '-(으)ㄹ걸(요)'도 선택하였으며,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와 '자신에 관한 사태 표현하기'에서는 '-는가/(으)ㄴ가/나 보다'와 '단정 표현'을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불손 전략에 대해서도 학습자 두 집단과 모어 화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년과 상관없이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추측 양태 표현의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IV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미얀마 대학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추측 양태 표현 교육의 총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어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추측 양태 표현 항목들 간 변별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교육 내용 원리를 기저로 하여 II 장에서 살펴본 추측 양태 표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담화·화용적 특성과 III 장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추측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높고, 특히 미얀마인 학습자가 많이 어려워하는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본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적 부분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던 대다수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학습자의 의미적 층위에 국한하지 않고, 형태·통사적 층위와 담화·화용적 층위까지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 교육 관련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얀마인 학습자의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이해 양상을 학년별로 고찰하고 교육 내용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추측 양태 표현 교육 발전에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통제적인 테스트 유형을 사용하여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 상황에서 학습자의 추측 양태 표현 사용 양상을 직접 살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시간과 양을 고려하여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문항 38개, 의미적 특성에 대한 문항 26개, 담화·화용적 특성에 대해 각 전략 2개의 문항만 거쳐 조사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특성에 대한 문항 수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미얀마인 학습자의 추측 양태 표현 이해 양상을 보여 줄 수 있지만,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부분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다소 반영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남욱(2013),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접속문 시간 표현의 교육 내용 조직화 원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민경(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표현 교육방안 연구-‘-겠-’, ‘-ㄹ 것이-’, ‘-ㄹ 것 같-’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비(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표현 교수·학습 방안 연구- 중·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소영(2001), 명사구 보문 구성의 문법화 연구: ‘보문화소#보문명사+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소영(2002), [확연], [당연], [개연]의 양태 표지 연구,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217-236쪽.

강소영(2004), 명사구 보문 구성의 문법화, 서울: 한국문화사.

강해 사마와디·황선영(2017),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표현 인식 연구- 문법적 표현과 상투적 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68, 이중언어학회, 27-57쪽.

강현주(2010), 추측과 의지의 양태 표현 ‘-겠-’과 ‘-(으)ㄹ 것이다’의 교육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43, 이중언어학회, 29-53쪽.

강현화·이현정·남신혜·장채린·홍연정·김강희(2017), (담화 기능에 따른)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연구, 서울: 한글파크.

강현화·이현정·남신혜·장채린·홍연정·김강희(2022), 담화와 한국어 문법교육, 경기도, 보고사.

고영근(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국어학 신연구, 서울: 탑출판사. [고영근(1995), 단어·문장·텍스트, 서울: 한국문화사, 247-263쪽.]

고영근·구본관(2018),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서울: 집문당.

고창운(1991), ‘-겠-’과 ‘-ㄹ 것이-’의 용법, 겨레어문학, 건국대국어국문학 연구회, 595-614쪽.

구본관(2010), 문법 능력과 문법 평가 문항 개발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185-218쪽.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서울: 집문당.

구본관(2017), 한국어 문법 교육의 내용-한국어 문법 교육은 왜, 어떻게,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1-75쪽.

구현정(2004), 공손법의 실현 양상, 담화와 인지 11-3, 담화인지언어학회, 1-23쪽.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체계 편),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용법 편),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권영은(2008), 한국어교육에서의 후회 표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영은(2020a), 구어체 종결어미 '-을걸'의 양태 의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67, 한국어의미학회, 165-202쪽.

권영은(2020b), '-을걸'의 의미와 기능 연구, 한국어 의미학 70, 한국어의미학회, 301-338쪽.

권혜진(2020), 한국어 양태 표현 교육방안 연구- '가능성' 의미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규철(1988), 모습의 '-겠-'과 바탕의 '-을 것', 관악어문연구 13-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3쪽.

김경열(2021), 추측 표현의 유형과 통사적 특성, 한국어문교육 37,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25-255쪽.

김기선(2017),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추측 양태 표현의 통사적·의미적 특성 대조 연구, 몽골학 0(50), 91-122쪽.

김동욱(2000), 한국어 추측 표현의 의미 차이에 관한 연구- 'ㄴ 것 같다', 'ㄴ듯 하다'와 'ㄴ가 보다', 'ㄴ모양이다'의 의미 차이를 중심으로, 국어학 35, 171-197쪽.

김미형(2000), 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과 언어 심리 연구, 한말연구 7, 한말연구학회, 27-63쪽.

김서형(2007), 한국어교육을 위한 희망 표현 연구, 한국어 교육 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48쪽.

김석기(2014), 비교를 통한 한국어 추측·의지 표현 교육방안- '-겠-'과 '-(으)ㄹ 것이다'를 중심으로, 중한언어문화연구 8, 천진사범대학교 한국문화연구중심, 9-37쪽.

김세령(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추측 표현 교육방안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17, 93-118쪽.

김영주·이선영·이정민·백준오·이선진·이재은(2012), 한국어 숙달도와 문법성 판단 능력의 상관관계, 한국어 교육 2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3-159쪽.

김은경(2015), 한국어교육에서 '-겠-'과 '-(으)ㄹ 것이다'의 의미와 교육방안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3, 한국어교육연구학회, 33-52쪽.

김은정·남가영·김호정·박재현(2007), 국어 문법 학습자의 음운에 대한 앎의 양상 연구, 언어과학연구 42, 언어과학회, 1-25쪽.

김재욱(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한국어교육 문법의 제시 원리와 체계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163-179쪽.

김정혜(1997), 양태 표현의 '모양이다' 구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중섭 외(2010),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 용언 구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김차균(1981), {을}과 {겠}의 의미, 한글 173·174, 한글학회, 65-114쪽.

김춘해(2010), 추측 표현 '-는 것 같다', '-나 보다'의 의미와 기능 및 비교, 중국조선어문 2010-1, 중국조선어학회, 18-22쪽.

김해연(2011), 국어 담화에서의 '-는 것 같다'의 화용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기능, 언어와 언어학 52,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5-51쪽.

김혜련·전은주(2013), 한국어 요청 화행 교수-학습에 관한 비판적 분석-초급 교재를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97, 한국어교육학회, 233-259쪽.

김호정 외(2012),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 국립국어원.

남기심(1972), 현대 국어의 시제에 관한 문제, 국어국문학 55-57, 국어국문학회, 213-238쪽.

노지니(2004), 한국어교육을 위한 추측의 통어적 문법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다카치 토모나리(2014), 현대 한국어 문법적 연어의 양태 체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레이레이몬(2020), 한국어와 미얀마어 형용사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명정희(2018), 인식양태 구성들의 비교연구-판단자와 판단증거를 중심으로-, 한국어언어학회 학술대회지,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99-112쪽.

문병열(2007), 한국어의 보문 구성 양태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민신(2017ㄱ), 의미 범주 기반 한국어 이유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민신(2017ㄴ),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용례 작성의 원리 연구, 언어와 문화 13-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53-77쪽.

박민신(2018),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지식 체계화 양상 연구, 언어학 연구 49, 한국중원언어학회, 413-435쪽.

박병선(2000), 현대 국어 양태 표현의 변천-서법 내용을 중심으로-, 홍종선 외(2000), 현대 국어의 형성과 변천 2, 서울: 박이정.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국어학회, 199-225쪽.

박재연(2004),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파주: 태학사.

박재연(2018), '-겠-'과 '-ㄹ 것이-'의 비대립 환경 대립 환경, 국어학 85, 국어학회, 113-149쪽.

박주연(2016), 한국어 추측 표현에 관한 연구: 증거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호(2011a),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쪽.

박진호(2011b),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언어정보연구소, 1-25쪽.

박옥숙(1987), 임의적 불확실성과 화자의 주관적 선택- '-겠-'의 화용론-, 한글 198, 한글학회, 105-130쪽.

변수지(2012), 한국어 추측 표현의 일본어 대응 양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정민(2008), 의문형 어미와 통합하는 보조 용언 연구- '보-'와 '싶-'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40, 한국어학회, 223-249쪽.

상호현(2018), '-겠-'과 '(-을)것이다'의 추정 용법과 주관성에 대하여, 한글 79-3, 661-692쪽.

서정수(1977), '겠'에 관하여, 말 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63-87쪽.

서정수(1978), 'ㄹ 것'에 대하여-'겠'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국어학 6, 국어학회, 83-110쪽.

성광수(1984), 국어의 추정적 표현, 한글 184, 한글학회, 53-80쪽.
성기철(1979), 경험과 추정: '-겠-'과 '-을 것이-'를 중심으로, 문법연구 4, 문법연구학회, 109-129쪽.
성미선(2009), 한국어 추측 표현의 완곡어법 양상과 교육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호현(2018), '-겠-'과 '-(으)것이다'의 추정 용법과 주관성에 대하여, 한글 79-3, 661-692쪽.
손혜옥(2016), 한국어 양태 범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재목(2007), 증거성(evidentiality)과 주어 제약의 유형론-한국어, 몽골어, 티벳어를 예로 들어-, 형태론 9-1, 형태론, 1-23쪽.
송재목(2009), 인식양태와 증거성,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27-53쪽.
신성인(2017), 양태 표현의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 우리말글 72, 우리말글학회, 1-29쪽.
안명철(1983), 현대 국어의 양상 연구-인식양상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정아(2003), '것', '터', '모양'의 양태 의미 연구, 어문론집 47, 민족어문학회, 105-128쪽.
안주호(2004), 한국어 추측 표현의 통사 의미 연구, 새국어교육 68, 97-121쪽.
양명희 외(2015),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4단계), 국립국어원.
양명희(2016),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기초 연구: 조사를 중심으로, 2016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2차 춘계 전국학술대회, 137-147쪽.
양명희(2017), 한국어교육에서의 유사 문법 연구, 국제한국어교육 3-2,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253-278쪽.
엄녀(2009). 한국어교육을 위한 양태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염재일(2005), '-겠'과 '-을 것'의 양태 비교연구, 언어와 정보, 한국언어정보학회 9-2, 1-22쪽.
유민애(2012), 한국어 추측 표현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해준(2005), 유사 기능의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어문론집 61, 중앙어문학회, 515-538쪽.

윤은미(2004),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 화행에 나타난 공손 전략 비교연구-체면 보호를 위한 언어적 장치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9,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17-145쪽.

윤정화(2014), 한국어 공손 표현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기갑(2006), 한국어의 양태 표현: 언어 유형론의 관점에서,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67-83쪽.

이기용(1977), 짐작의 뜻: '-겠-'과 '-ㄹ 것-'을 중심으로, 합동 연구 발표 논문 요지 II, 한글학회.

이기용(1978), 언어와 추정, 국어학 6, 국어학회, 29-64쪽.

이기종(1993), 짐작·추측 구문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전제, 한남어문학 19,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61-292쪽.

이기종(1996), '(ㄴ지/ㄹ지)모른다', '-기 쉽다'의 의미 기능, 한남어문학 21, 241-260쪽.

이기종(2001), 우리말의 인지론적 분석. 서울: 역락.

이미혜(2005),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 추측 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민(2012), 구어체 종결 표현 '-을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숙(2021), 한국어교육을 위한 추측 표현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선영(2006), 한국어교육을 위한 추측 표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선웅(2001),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2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17-339쪽.

이영래(2006), 언어 행위에서의 (반)공손과 대인관계, 한국언어문화학 3-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05-124쪽.

이윤진·노지니(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양태 표현 연구-'추측'과 '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4(1), 173-209쪽.

이의종(2012), 증거성과 정보 관할권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란(2011),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생산 능력과 이해 능력 비교－추측, 희망 표현의 화행 실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6, 297-319쪽.

이준호(2010), TTT 모형을 활용한 추측 표현 교육 연구－'-는 것 같다', '-나 보다', '-는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4, 247-273쪽.

이지연(2018), 한국어 양태 표현 연구-유사 문법 하옥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지연(2019), 한국어 추측 표현의 화용적 특성 연구-개연의 추측 표현을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74, 417-445쪽.

이지용(2017),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의 선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필영(1998), 국어의 인지 표현에 관한 연구: 관형구성의 불확실성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9-198쪽.

이필영(2012), 추정과 비추정의 '-겠-'의 의미, 어문연구 73, 어문연구학회, 109-126쪽.

이해영(1996), 현대 한국어 활용어미의 의미와 부담줄이기의 상관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해영(2011),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추측 양태 습득,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335-360쪽.

이해영(2013),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표현 이해 연구, 이중언어학 53, 217-239쪽.

이혜용(2003), [짐작],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와 화용적 기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효정(2004), 한국어교육을 위한 양태 표현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동훈(2003),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 의미학 12, 한국어 의미학회, 127-153쪽.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쪽.

장경희(1985), 현대 국어의 양태 범주 연구, 탑출판사.

장경희(2017), 추측 표현의 한.중 대응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레이(202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표현 습득 및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기호(2006), 어휘 의미를 활용한 유의적 문형 교수 방안-'-는 것 같다, -(으)ㄴ가/나 보다, -는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95-413쪽.

전나영(1999), -나 보다/-ㄹ 모양이다/-ㄹ 것 같다/-ㄹ 것이다/-겠의 의미기능, 연세대학

교 한국어학당 23·24, 169-185쪽.
전정미(2009), 감사 화행에 나타난 대화 전략 연구, 한말연구 25, 한말연구학회, 243-270쪽.
정경미(2016), 한국어 추론 증거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미진(2014), 한국어 공손 표현의 교수학습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미진(2016), 한국어 화용 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정미진(2017), 한국어 추측 표현의 화행 실현 양상과 교수학습 내용 연구, 한국어학 76, 187-211.
정유남(2006), 현대 국어 추측의 양태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인하(2010), 한국어의 증거성 범주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혜선(2010), 종결어미와 통합하는 '보다' 구문에 대하여- '-ㄴ가 보다', '-ㄹ까 보다'를 중심으로, 국어학 0-59, 국어학회, 46-66쪽.
지명희(2019), 다의미 종결어미의 의미 결정 요소 분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명희(2022), 체계기능언어학 기반 한국어 양태 표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진화(2021), 한국어교육을 위한 추측 표현 등급화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동주(2009), 종결어미 '-ㄹ걸'의 기능과 문법적 특성, 국어학 0-54, 국어학회, 225-250쪽.
최현배(1937),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퓨퓨아웅(2021),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합성어 대조 연구-형태 구조와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93-328쪽.
탕이잉(2020), 한국어교육을 위한 유사 문법 항목의 비교 기술 방안 연구- 추측 표현 '-ㄹ 것 같다', '-나 보다'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1(1), 137-172쪽.
탕이잉(2023), 한국어 '추측' 유사 문법 교육 연구-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변별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흔흔.박덕유(201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추측 양태 표현의 이해 양상 연구, 교육문화연구 25-2, 783-810쪽.
한명주(2008), 형식명사 구성의 '추측' 표현 연구, 한성어문학 27,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49-174쪽.

한정한·정희숙(2011),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 표현의 문법 제약- 문법적 연어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학 36(4), 1117-1142쪽.

허상희(2012), 한국어 공손 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서울: 소통.

허지이·박경남·박선희(2021), OHE 모형을 활용한 한국어 추측 표현 교수 방안, 새국어교육 128, 한국국어교육학회, 179-208쪽.

홍승아(2020), 한국어 공손 표현의 유형별 실현 양상, 언어와 정보 사회 39,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87-108쪽.

황주하(2015), 상황 맥락을 고려한 한국어 추측 표현 연구- '-것 같다', '-을 것이다', '-겠-'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2, 365-389쪽.

황주하(2018), 한국어 추측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iber et. al.(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Harlow / England / New York: Longman.

Brown, P. · Levinson, S. C.(1978),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In E. N. Goody(Ed.), Questions and politeness: Strategies in social interaction,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56-311.

Bybee, J. L.(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 Philadelphia: J. Benjamins, 이성하·구현정 옮김(2000), 형태론: 의미-형태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Bybee, J.· Perkins, R. · Pagliuca, W.(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llis, R.(2004).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L2 Explicit Knowledge, Language Learning, 54(2), pp.227-275.

Givón, T.(1982), Evidentiality and Epistemic space. Studies in Language 6(1), pp.23-49.

Givón, T.(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al-Based Introduc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Givón, T.(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1*, Amsterdam: John Benjamins.

Halliday, M. A. K.(1970), Language Structure and Language Function. In Lyons, J.(Ed.), New Horizons in Linguistics, Penguin, Harmondsworth, pp.140-165.

Jenny M. & San S. H. T.(2016), *Burmese: a comprehensive grammar*, London / New York : Routledge.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Krashen, S.(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don, England: Pergamon.

Krashen, S.·Terrell, T.(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 Pergamon Press.

Lakoff, R.(1990), *Talking power: The politics of language in our lives*. Glasgow: HarperCollins.

Langacker, R. W.(1985), Observations and Speculations on Subjectivity, In J. Haiman(Ed.), Iconicity in Syntax: Proceedings of a Symposium on Iconicity in Syntax. The Netherland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109-150

Langacker, R.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1*,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김종도 역(1999), 인지 문법의 토대: 이론적 선행조건들, 서울: 박이정.

Largacker, R. W.(1999),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Berlin: De Gruyter, 김종도·나익주 옮김(2001), Teaching Language: Form Grammar to Grammaring, Boston: Thomson/Heinle, 김서형·이혜숙·김민희 옮김(2012), 언어교수: 문법에서 문법사용하기로, 서울: 지식과교양.

Larsen-Freeman, D.(2001), Teaching Grammar, In Marianne Celce-Murcia Ed. 3rd. Teahc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CENGAGE Learning, pp249-251.

Larsen-Freeman, D.(2003), *Teaching Language: Form Grammar to Grammaring*, Boston: Thomson/Heinle,김서형·이해숙·김민희 옮김(2012), 언어교수: 문법에서 문법사용하기로, 서울: 지식과교양.

Lee, H. S.(1991), *Tense, Aspect, and Modality: a Discourse-Pragmatic Analysis of Verbal Affixes in Korea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UCLA Doctoral Dissertation.

Lee, H. S.(2015), Modality, In B. Lucien · Y. Jaehoon(Eds.),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Chichester / West Sussex / England: Wiley Blackwell, pp.245-268.

Leech, G.(1983), *Principle of Pragmatics*, London / New York: Longman.

Leech, G.(2007), Politeness: Is there an East-West divide?. Journal of Politeness Research, 3(2), pp.167-209.

Lyons, J.(1977), *Semantics I, II*,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 *Myanmar Grammar*, Myanmar Language Commission press.

Marysia, J.(2004), *A philosoph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Haver: Yale University Press. 김희숙·문은주 옮김(2011), 외국어 습득 원리의 이해: 비고츠키의 사회문화론과 언어습득, 서울: 한국문화사.

Palmer, F. R.(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lmer, F. R.(2001), M*ood and Modality*(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wan, M.(1994), Design criteria for pedagogic language rules. In M. Bygate, A. Tonkyn · E. Williams(Eds.), Grammar and the language teacher, New York: Prentice Hall, pp.45-55.

Sweeter, 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ittrant A. & Auwera J. V. d.(2010), Epistemic modality or how to express likelihood in Burmese, Cahiers de Linguistique-Asie Orientale 39(1): pp.41-80.

<부록-1> 설문지

I. 다음 문장을 읽고 [보기]와 같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십시오. 만일 판단하기 어려우면 '모르겠다'를 선택하십시오.

[보기]

지금 학교에 가요. (O)

도서관에서 책을 없어요. (X)

1. 저는 요즘 좀 우울할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X	모르겠다
2. 저는 내일 약속이 있어서 바쁜가 봐요.	0	X	모르겠다
3. 저는 지금 기분이 좋을 텐데요.	0	X	모르겠다
4. 저는 다음 달에 한국에 갈지도 몰라요.	0	X	모르겠다
5. 저는 지금 시험 때문에 힘들겠어요.	0	X	모르겠다
6. 저는 다음 주에 출장을 갈 모양이에요.	0	X	모르겠다
7. 나도 지금 배고픈 것 같아.	0	X	모르겠다
8. 나도 요즘 철수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야.	0	X	모르겠다
9.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는 걸지도 몰라.	0	X	모르겠다
10. 어! 이상하다! 지갑이 없어졌네! 철수 씨, 저 지갑을 잃어버렸을 텐데요.	0	X	모르겠다
11.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다니, 나는 천재겠어.	0	X	모르겠다
12. 내가 지금 버스를 잘못 탔을걸.	0	X	모르겠다
13.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짜증을 내는 것을 보면 내가 요즘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야.	0	X	모르겠다
14. 나는 진짜 한국어에 소질이 없을 거야.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국어 실력이 늘지를 않아.	0	X	모르겠다
15. 저는 정말 바보인 것 같아요.	0	X	모르겠다
16. 나는 거짓말을 하면 머리를 만지나 봐.	0	X	모르겠다
17.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예쁠 모양이야.			
18. 네가 떠난다면 나 혼자 외로운가 봐.			
19. 오늘 철수가 학교에 올 모양이니?	0	X	모르겠다
20. 철수가 설마 비빔밥을 좋아하겠어?	0	X	모르겠다
21. 졸업하면 취직해야 할지 유학 가야 할지 고민이네. 너는 어떤 것이 좋을 거야?	0	X	모르겠다
22.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나 봐요?	0	X	모르겠다
23.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이길 것 같아?	0	X	모르겠다

24. 오늘 오후에 비가 올지 모르니?	0	X	모르겠다
25. 철수는 어제 밥을 많이 먹었을 모양이에요.	0	X	모르겠다
26. 철수는 벌써 학교에 가겠었어요.	0	X	모르겠다
27. 어제 네가 전화한 그 시간에 내가 아마 운동을 하고 있었나 봤다.	0	X	모르겠다
28. (땅이 젖은 것을 보고) 비가 좀 전에 온 모양이었어요.	0	X	모르겠다
29. 어제 비가 많이 올 것이었어요.	0	X	모르겠다
30. 어제 철수가 출장 간 것 같았어요.	0	X	모르겠다
31.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 정말 여러 문제가 생길 거네요.	0	X	모르겠다
32. 너 요즘 밤에도 일할 거구나.	0	X	모르겠다
33. 비가 그쳤으니까 우산을 두고 가도 될 거지.	0	X	모르겠다
34. 철수는 오늘 시험이 끝나서 기쁘나 봐요.	0	X	모르겠다
35. 불이 났을 때 집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위험할 거예요.	0	X	모르겠다
36. 전화를 해 보니까 철수가 지금 있는 곳이 집이나 봐요.	0	X	모르겠다
37. 이것은 철수의 책일 것 같다.	0	X	모르겠다
38. 지금 시험 기간이라 철수가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다.	0	X	모르겠다

II. 다음 ( ) 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만일 적절한 표현이 없으면 '⑨ 적절한 답이 없음'을 고른 후 직접 써 주십시오.

01.

가: 제 친구는 한국에서 산 지 오래됐어요. 나: 그래요? 그럼 한국어를 ( ).

① 잘하겠어요 ② 잘할 거예요 ③ 잘할 텐데요
④ 잘할걸요 ⑤ 잘하나 봐요 ⑥ 잘한 모양이에요
⑦ 잘할 것 같아요 ⑧ 잘할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02.

[케이크 카페에서] 가: 우리 이 케이크로 먹을까? 나: 그래, 이 케이크 정말 ( ).

① 맛있겠다　② 맛있을 거야　③ 맛있을 텐데
④ 맛있을걸　⑤ 맛있나 봐　⑥ 맛있는 모양이야
⑦ 맛있을 것 같아⑧ 맛있을지도 몰라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03.

[헬스장에서]
가: 자세를 보니 이 운동을 처음 (　　).
나: 네, 근육 운동을 처음 해 봐요.

① 하시겠어요　② 하실 거예요　③ 하실 텐데요
④ 하실걸요　⑤ 하시나 봐요　⑥ 하시는 모양이에요
⑦ 하시는 것 같아요　⑧ 하실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04.

가: 남자 친구가 요즘 돈이 없어서 제가 빌려주겠다고 했더니 싫다고 화를 냈어요.
나: 자존심이 (　).

① 강하겠어요　② 강할 거예요　③ 강할 텐데요
④ 강할걸요　⑤ 강한가 봐요　⑥ 강한 모양이에요
⑦ 강한 것 같아요⑧ 강할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05.

가: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 곧 비 (　).

① 오겠다　② 올 거다　③ 올 텐데
④ 올걸　⑤ 오려나 보다　⑥ 올 모양이다
⑦ 올 것 같다　⑧ 올지도 모른다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06.

가: 너 어디 아파? 나: 콧물이 많이 나고 몸이 계속 떨려요. 저 감기에 (　　).

① 걸렸겠어요　② 걸렸을 거예요　③ 걸렸을 텐데요
④ 걸렸을걸요　⑤ 걸렸나 봐요　⑥ 걸린 모양이에요
⑦ 걸린 것 같아요⑧ 걸렸을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07.

가: 지수가 늦으면 어떻게 해? 나: 지금까지 늦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도 안 (　).

① 늦겠어　② 늦을 거야　③ 늦을 텐데
④ 늦을걸　⑤ 늦은가 봐　⑥ 늦을 모양이야
⑦ 늦을 것 같아⑧ 늦을지도 몰라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08.

가: 지금 지수 씨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연락해 볼까요? 나: 8시 반이니까 이미 저녁을 (　).

① 먹었겠어요　② 먹었을 거예요　③ 먹었을 텐데요
④ 먹었을걸요　⑤ 먹었나 봐요　⑥ 먹은 모양이에요
⑦ 먹었을 것 같아요⑧ 먹었을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09.

가: 지수 씨에게도 내일 같이 등산을 하자고 말해 볼까요? 나: 지수 씨는 보통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니까 시간이 ( ).

① 안 되겠어요　② 안 될 거예요　③ 안 될 텐데요
④ 안 될걸요　⑤ 안 되나 봐요　⑥ 안 될 모양이에요

⑦ 안 될 것 같아요 ⑧ 안 될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10.

가: 지수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나: 응,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공부를 안 했어. 시험이 정말 ( ).

① 어렵겠어 ② 어려울 거야 ③ 어려울 텐데

④ 어려울걸 ⑤ 어려운 가봐 ⑥ 어려울 모양이야

⑦ 어려울 것 같아⑧ 어려울지도 몰라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11.

[병원에서] 가: 선생님, 다 나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나: 움직이지 말고 푹 쉬면 금방 회복이 ( ).

① 되겠어요 ② 될 거예요 ③ 될 텐데요

④ 될걸요 ⑤ 되려나 봐요 ⑥ 될 모양이에요

⑦ 될 것 같아요⑧ 될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12.

가: 내일 날씨는 어떨까? 나: 일기예보에서 내일 날씨가 맑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장마철이니까 갑자기 비가 ( ).

① 오겠어요 ② 올 거예요 ③ 올 텐데요

④ 올걸요 ⑤ 오려나 봐요 ⑥ 올 모양이에요

⑦ 올 것 같아요 ⑧ 올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13.

가: 그 사람 어때요? 나: 저도 만난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제 느낌에는 착한 ( ).

① 사람이겠어요 ② 사람일 거예요 ③ 사람일 텐데요
④ 사람일걸요 ⑤ 사람인가 봐요 ⑥ 사람인 모양이에요
⑦ 사람인 것 같아요 ⑧ 사람일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14.

가: 다음 주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뭘 가지고 가야 하지? 나: 약을 꼭 챙겨 가. 갑자기 ( ).

① 아프겠어 ② 아플 거야 ③ 아플 텐데
④ 아플걸 ⑤ 아픈가 봐 ⑥ 아픈 모양이야
⑦ 아플 것 같아 ⑧ 아플지도 몰라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15.

가: 오늘 한국어능력시험 봤죠? 시험이 어땠어요? 나: 저는 좀 ( ).

① 어려웠겠어요 ② 어려웠을 거예요 ③ 어려웠을 텐데요
④ 어려웠을걸요 ⑤ 어려웠나 봐요 ⑥ 어려운 모양이었어요
⑦ 어려운 것 같았어요 ⑧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16.

가: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래? 나: 오늘은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갈래. 아침에 운동을 했더니 좀 ( ).

① 피곤하겠어 ② 피곤할 거야 ③ 피곤할 텐데
④ 피곤할걸 ⑤ 피곤한가 봐 ⑥ 피곤한 모양이야

⑦ 피곤한 것 같아　　⑧ 피곤할지도 몰라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17.

가: 지수는 이번에 틀림없이 의대에 (　).

① 입학하겠어요　② 입학할 거예요　③ 입학할 텐데요
④ 입학할걸요　⑤ 입학할 건가 봐요　⑥ 입학할 모양이에요
⑦ 입학할 것 같아요　⑧ 입학할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18.

가: 외모는 확실히 세대별 차이가 (　　).

① 있겠어요　② 있을 거예요　③ 있을 텐데요
④ 있을걸요　⑤ 있나 봐요　⑥ 있는 모양이에요
⑦ 있는 것 같아요 ⑧ 있을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19.

가: 지수는 아마 좀 늦게 ( ). 회의가 아직 안 끝났다고 들었어요.

① 오겠어요　② 올 거예요　③ 올 텐데요
④ 올걸요　⑤ 오려나 봐요　⑥ 올 모양이에요
⑦ 올 것 같아요⑧ 올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20.

가: 벚꽃 구경은 어쩌면 이번 주말이 (　). 다음 주에 비가 온대요.

① 마지막이겠어요　② 마지막일 거예요　③ 마지막일 텐데요

④ 마지막일걸요 ⑤ 마지막인가 봐요 ⑥ 마지막인 모양이에요
⑦ 마지막일 것 같아요 ⑧ 마지막일지도 몰라요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21.

가: 아이가 자꾸 울어요. 나: 혹시 배가 ( ).

① 고프겠어요 ② 고플 거예요 ③ 고플 텐데요
④ 고플걸요 ⑤ 고픈가 봐요 ⑥ 고픈 모양이에요
⑦ 고픈 것 같아요 ⑧ 고플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22.

가: 엄마 생일에 꽃을 사 주려고 하는데 무슨 꽃을 사면 좋을까? 나: 장미는 어때? 내 생각에는 꽃 중에 장미가 제일 ( ).

① 예쁘겠어 ② 예쁠 거야 ③ 예쁠 텐데
④ 예쁠걸 ⑤ 예쁜가 봐 ⑥ 예쁜 모양이야
⑦ 예쁜 것 같아 ⑧ 예쁠지도 몰라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23.

가: 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 ).

① 범인이겠어 ② 범인일 거야 ③ 범인일 텐데
④ 범인일걸 ⑤ 범인인가 봐 ⑥ 범인인 모양이야
⑦ 범인일 것 같아⑧ 범인일지도 몰라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24.

가: 이제 일이 잘 해결됐어? 나: 응. 지금 생각해보니 네가 없었으면 나는 엄청 ( ). 고마워.

① 고생했겠어 ② 고생했을 거야 ③ 고생했을 텐데
④ 고생했을걸 ⑤ 고생했나 봐 ⑥ 고생한 모양이야
⑦ 고생했을 것 같아 ⑧ 고생했을지도 몰라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25.

가: 지수는 한국에 언제 가요? 나: 일정표에 따르면 지수는 내일 ( ).

① 떠나겠어요 ② 떠날 거예요 ③ 떠날 텐데요
④ 떠날걸요 ⑤ 떠나려나 봐요 ⑥ 떠날 모양이에요
⑦ 떠날 것 같아요 ⑧ 떠날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26.

가: 지수는 언제 도착하지? 나: 내 느낌에는 지수가 오늘 저녁에 ( ).

① 도착하겠어요 ② 도착할 거예요 ③ 도착할 텐데요
④ 도착할걸요 ⑤ 도착하는가 봐요 ⑥ 도착할 모양이에요,
⑦ 도착할 것 같아요 ⑧ 도착할지도 몰라요 ⑨ 적절한 답이 없음
→ ⑨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III. 다음에 제시된 [상황]을 잘 읽고 대화의 (　　)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만일 적절한 답이 없으면 '⑩ 적절한 답이 없음'을 골라 주십시오.

1-1. [상황] 당신은 과장님과 같이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잠깐 밖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손님들이 일찍 올 것 같아서 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과장님: 아직 3시가 안 됐지? 잠깐 밖에 나갔다 와도 되나?
나: 손님들께서 조금 일찍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곧 (　　).

① 오셔요　　② 오시겠어요
③ 오실 거예요　　④ 오실 텐데요
⑤ 오실걸요　　⑥ 오시나 봐요
⑦ 오실 모양이에요　　⑧ 오실 것 같아요
⑨ 오실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1-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동료한테 말한다면,
'손님들께서 조금 일찍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곧 (　　).'

① 오셔요　　② 오시겠어요
③ 오실 거예요　　④ 오실 텐데요
⑤ 오실걸요　　⑥ 오시나 봐요
⑦ 오실 모양이에요　　⑧ 오실 것 같아요
⑨ 오실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2-1. [상황] 당신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과장님이 일요일 저녁에 통역을 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속이 있어서 거절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과장님: 지수 씨, 혹시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통역을 해 줄 수 있어요?
나: 어떡하죠? 일요일 저녁에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　　).

① 어려워요　　② 어렵겠어요
③ 어려울 거예요　　④ 어려울 텐데요
⑤ 어려울걸요　　⑥ 어려운가 봐요
⑦ 어려운 모양이에요　　⑧ 어려울 것 같아요

⑨ 어려울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2-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일요일 저녁에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　　).'

① 어려워　　② 어렵겠어
③ 어려울 거야　　④ 어려울 텐데
⑤ 어려울걸　　⑥ 어려운가 봐
⑦ 어려운 모양이야　　⑧ 어려울 것 같아
⑨ 어려울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3-1. [상황] 당신은 식당에서 자장면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하는데 금액이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자장면 값을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장님: 2만원입니다.
나: 사장님, 계산이 (　　). 저는 자장면 하나만 시켰어요.

① 잘못됐어요　　② 잘못됐겠어요
③ 잘못됐을 거예요　　④ 잘못됐을 텐데요
⑤ 잘못됐을걸요　　⑥ 잘못됐나 봐요
⑦ 잘못된 모양이에요　　⑧ 잘못된 것 같아요
⑨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3-2. 만약 친구가 계산을 틀렸다면,
'지수야, 너 계산이 (　　).'

① 틀렸어　　② 틀렸겠어
③ 틀렸을 거야　　④ 틀렸을 텐데
⑤ 틀렸을걸　　⑥ 틀렸나 봐
⑦ 틀린 모양이야　　⑧ 틀린 것 같아
⑨ 틀렸을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4-1. [상황] 지난주에 선배와 같이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오늘도 선배가 떡볶이를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배가 떡볶이를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선배: 지수야, 우리 오늘 떡볶이 먹을까?

나: 선배, 떡볶이를 정말 (　　).

① 좋아하세요?　　② 좋아하시겠어요
③ 좋아하실 거예요　　④ 좋아하실 텐데요
⑤ 좋아하실걸요　　⑥ 좋아하시나 봐요
⑦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⑧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⑨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4-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지수야, 너 떡볶이를 정말 (　　).

① 좋아해?　　② 좋아하겠어
③ 좋아할 거야　　④ 좋아할 텐데
⑤ 좋아할걸　　⑥ 좋아하나 봐
⑦ 좋아하는 모양이야　　⑧ 좋아하는 것 같아
⑨ 좋아할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5-1. [상황] 학교 선배가 이번 달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선배: 나 이번 달에 결혼해.

나: 정말요? 축하드려요. 진짜 (　　).

① 좋으세요　　② 좋으시겠어요
③ 좋으실 거예요　　④ 좋으실 텐데요
⑤ 좋으실걸요　　⑥ 좋으시나 봐요
⑦ 좋으신 모양이에요　　⑧ 좋으실 것 같아요
⑨ 좋으실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5-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정말? 축하해. 진짜 (　　).

① 좋아　　② 좋겠다
③ 좋을 거야　　④ 좋을 텐데
⑤ 좋을걸　　⑥ 좋은가 보다
⑦ 좋은 모양이야　　⑧ 좋을 것 같아
⑨ 좋을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6-1. [상황] 당신은 수영 대회에 참가하는 학교 선배와 같이 있습니다. 선배는 시합을 앞두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긴장한 선배를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나: 선배님, 다음 주에 수영 경기가 있죠?
선배: 응, 그런데 경기 날짜가 다가오니까 긴장돼.
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　　).

① 잘하셔요　　② 잘하시겠어요
③ 잘하실 거예요　　④ 잘하실 텐데요
⑤ 잘하실걸요　　⑥ 잘하시나 봐요
⑦ 잘하실 모양이에요　　⑧ 잘하실 것 같아요
⑨ 잘하실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6-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　　).’

① 잘해　　② 잘하겠어
③ 잘할 거야　　④ 잘할 텐데
⑤ 잘할걸　　⑥ 잘하나 봐
⑦ 잘할 모양이야　　⑧ 잘할 것 같아
⑨ 잘할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7-1. [상황] 당신은 선배가 도와줘서 숙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선배: 지수야, 이제 숙제 다 끝난 거지?
나: 네, 다 끝났어요. 선배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 (　　). 고마워요.

① 못 했어요 ② 못 했겠어요
③ 못 했을 거예요 ④ 못 했을 텐데요
⑤ 못 했을걸요 ⑥ 못 했나 봐요
⑦ 못 한 모양이에요 ⑧ 못 했을 것 같아요
⑨ 못 했을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7-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나: 응, 다 끝났어.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 ( ). 고마워.

① 못 했어 ② 못 했겠어
③ 못 했을 거야 ④ 못 했을 텐데
⑤ 못 했을걸 ⑥ 못 했나 봐
⑦ 못 한 모양이야 ⑧ 못 했을 것 같아
⑨ 못 했을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8-1. [상황] 어제 당신이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웠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친구에게 실수를 많이 한 것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료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 지수 씨, 어젯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 ).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① 미쳤습니다 ② 미쳤겠습니다
③ 미쳤을 겁니다 ④ 미쳤을 텐데요
⑤ 미쳤을걸요 ⑥ 미쳤나 봅니다
⑦ 미친 모양입니다 ⑧ 미쳤던 것 같습니다.
⑨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8-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지수야, 어젯밤 정말 미안했어. 내가 술에 취해서 ( ). 정말 미안해.

① 미쳤어 ② 미쳤겠어
③ 미쳤을 거야 ④ 미쳤을 텐데

⑤ 미쳤을걸　　⑥ 미쳤나 봐
⑦ 미친 모양이야　　⑧ 미쳤던 것 같아
⑨ 미쳤을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9-1. [상황] 회사 동료가 당신이 부럽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동료에게 당신의 생각을 겸손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동료: 전 지수 씨가 참 부러워요. 성격도 활발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친구가 많으시잖아요.
나 : 제가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다 보니 성격이 그렇게 (　　).

① 됐어요　　② 됐겠어요
③ 됐을 거예요　　④ 됐을 텐데요
⑤ 됐을걸요　　⑥ 됐나 봐요
⑦ 된 모양이에요　　⑧ 된 것 같아요
⑨ 됐을지도 몰라요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9-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친구한테 말한다면,
'내가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다 보니 성격이 그렇게 (　　).

① 됐어　　② 됐겠어
③ 됐을 거야　　④ 됐을 텐데
⑤ 됐을걸　　⑥ 됐나 봐
⑦ 된 모양이야　　⑧ 된 것 같아
⑨ 됐을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

10. [상황] 당신은 지수의 언니입니다. 지수는 오빠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요즘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지수에게 오빠가 말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수에게 말 좀 해 볼게.
나 : 개가 오빠 말을 (　　).

① 들어?　　② 듣겠어?

③ 들을 거야? ④ 들을 텐데?
⑤ 들을걸? ⑥ 듣나 봐?
⑦ 들을 모양이야? ⑧ 들을 것 같아?
⑨ 들을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

11. [상황]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한 전 남자 친구가 보고 싶다고 찾아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전 생각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전 남자 친구: 지수야, 보고 싶었어.
나: 보고 싶었다고? 나한테 무슨 짓을 했었는지 다 ( ). 그렇게 쉽게 그런 소리가 나와?

① 잊어버렸지? ② 잊어버렸겠지?
③ 잊어버렸을 거지? ④ 잊어버렸을 텐데?
⑤ 잊어버렸을걸? ⑥ 잊어버렸나 보지?
⑦ 잊어버린 모양이지? ⑧ 잊어버린 것 같지?
⑨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

12. [상황] 당신이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지하실에 있어서 당신의 전화를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친구: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좀 찾느라고 지하실에 있었거든. 그래서 받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끊기던데?
나: 지하실이라고 전화가 ( ).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늘 약속 잊지 않았지?

① 안 걸리진 않아 ② 안 걸리진 않겠어
③ 안 걸리진 않을 거야 ④ 안 걸리진 않을 텐데
⑤ 안 걸리진 않을걸 ⑥ 안 걸리진 않은가 봐
⑦ 안 걸리진 않은 모양이야 ⑧ 안 걸리진 않는 것 같아
⑨ 안 걸리진 않을지도 몰라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

13. [상황] 당신은 회사에서 이번 행사에 대해서 모든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과장님이 당신에게 행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과장님: 이번 행사는 언제입니까?

나: 이번 주 (　　).

① 목요일입니다　　② 목요일이겠습니다

③ 목요일일 겁니다　　④ 목요일일 텐데요

⑤ 목요일일걸요　　⑥ 목요일이나 봅니다

⑦ 목요일인 모양입니다　　⑧ 목요일인 것 같습니다

⑨ 목요일일지도 모릅니다　　⑩ 적당한 답이 없음

→ ⑩의 경우, 적절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Abstract

A Study on Korean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Education for Myanmar Learners

PHYU PHYU AUNG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yanmar learners' understanding of Korean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and to propose effective educational content of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based on this.

In Chapter II,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at is the premise of Korean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education research. This study reviewed representative studies dealing with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onsidered the distinction between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in three dimensions: morphological and syntactic patterns, meaning, discourse and pragmatic aspects. Next, considering that the learner's native language can affect foreign language learning,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Myanmar's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In addition, reviewed and analyzed the educational contents of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presented in Korean textbooks.

In Chapter III, examined Myanmar learners' understanding of Korean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80 Myanmar learners(40 in the 3rd year, 40 in the 4th year) and 40 Korean native speakers. The survey tool included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types: a grammatical judgment test and multiple choice tests II and III. Then, in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the learner's understanding of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was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two parts, one by morphological & syntactic patterns, meaning, discourse & pragmatic aspects, and the other by year of study.

Finally, in Chapter IV,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the educational content of Korean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for Myanmar learners. First, this study set the overall goal of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education for Myanmar learners. Then, in order to help Myanmar learners distinguish between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items, this study proposed effective educational content of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by reflecting the morphological and syntactic patterns, meaning, discourse and pragmatic aspects of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examined in Chapter II and the learner's understanding patterns analyzed in Chapter III.

Unlike most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learning patterns of Korean learners on the semantic part of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nriching discussions related to Korean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education in that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research in morphology and syntax, semantic, discourse and pragmatics, not limited to the semantic part of learners. In addition, the results of analyzing Myanmar learners' understanding of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which have not yet been achiev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year of study, are important data for understanding the acquisition process of Myanmar learners and are expected to b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education for Myanmar learners in the future.

Keywords : Modal Expressions of Conjecture, Expressions of Conjecture, Complexity, A polite expression, Myanmar learn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Myanmar Universities

Student Number : 2020-37722